

#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자 김 영 지(한국청소년개발원)  
공동연구자 윤 철 경(한국청소년개발원)  
이 혜 연(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조원 전 유 미(한국청소년개발원)  
집필진 박 현 희(구일고등학교)  
박진(다산인권센터)  
임은주(인권운동사랑방)  
평화교육팀(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삽화가 이 동 수(인권만화연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목 차

I.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 개요 .....	1
1. 프로그램 개발취지와 특성 .....	3
2.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활용방법 .....	5
II. 인권입문 영역 프로그램 .....	11
1. 인권의 역사 .....	13
활동 1. 인권역사 주사위놀이 .....	13
활동 2. 인권역사 속으로 I (인권역사 아리랑 곡선) .....	19
활동 3. 인권역사 속으로 II(타임머신 여행) .....	22
2. 세계인권선언 .....	24
활동 1. 권리빙고 .....	24
활동 2. 인권투사 .....	26
활동 3. 예산짜기 .....	31
3.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	37
활동 1. 우리의 권리,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	37
활동 2.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	40
활동 3. 우리의 미래 .....	46
III. 자유 영역 프로그램 .....	49
1. 생명권 활동 .....	51
활동 1. 삶의 사슬 .....	51
활동 2. 내일이 오면 .....	54
활동 3. 저를 받아주세요 .....	59
2. 자주권 활동 .....	65
활동 1. 나는 도청당하고 있는가? .....	65
활동 2. 거북이의 독립투쟁 .....	71
활동 3. 망가진 꽃밭(난민알기) .....	75
3. 정치적·법적 권리 활동 .....	78

활동 1. 긴급상황 발생이다 .....	78
활동 2. 인권지도 그리기(법은 우리의 권리) .....	81
활동 3. 선거권(청소년인권 40분 토론) .....	85
<b>IV. 평등 영역 프로그램 .....</b>	<b>89</b>
1. 노동과 쉼 권리 활동 .....	91
활동 1. 노동법 옷놀이 .....	91
활동 2. 노동과 쉼 권리 안내책자 만들기 .....	93
활동 3. 노동상담(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	96
2. 양성평등 활동 .....	105
활동 1. 앗! 성차별! .....	105
활동 2. 장면 포착 성차별 .....	107
활동 3. 동화 새로 쓰기 .....	111
3. 반 인종차별 활동 .....	115
활동 1. 차별의 원 돌파하기 .....	115
활동 2. 당신의 입장은? .....	117
활동 3. 이주노동자의 인권 .....	120
<b>V. 연대감 영역 프로그램 .....</b>	<b>127</b>
1. 평화 활동 .....	129
활동 1.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	129
활동 2. 서로 이해해요 .....	139
활동 3. 한라에서 백두까지 .....	145
2. 환경보호 활동 .....	155
활동 1. 자연의 옷을 입자 .....	155
활동 2. 아낌없이 주는 자연(자연의 선물) .....	157
활동 3. 더불어 지구 살리기(대안 에너지로 기지개 켜기) .....	163
3. 세계화 활동 .....	166
활동 1. 1분 발언 .....	166
활동 2. 모두를 위한 교육? .....	169
활동 3. 가난의 별점 .....	174

VI. 지도자를 위한 인권 가, 나, 다 .....	179
1. 인권의 개념과 성격 .....	181
2. 인권의 역사 .....	184
3. 청소년 인권교육의 의의 .....	187
4.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 .....	191
5. 청소년 인권교육의 지도기술 .....	200
6. 평등-차별 놀이활동 .....	211
7.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나침반-Compass .....	255
VII. 심화자료 .....	271
1.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삽화 .....	273
2. 쉽게 풀어 쓴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	313
3.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315
4. 주요 국제인권법 .....	319
5. 인권활동 자료 .....	323
참 고 문 헌 .....	336



# I.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개발취지와 특성
2.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활용방법



## 1. 프로그램 개발취지와 특성

청소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적 배척과 종교, 인종, 국가 간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며 현대 다중 문화사회의 다양한 시각, 신념, 태도 및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개인들이 그와 같은 차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준다.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이 인권교육이 제공하는 가치들을 존중하고 또 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한 존엄의 완전한 개발, 모든 인종, 국가, 민족, 종교, 언어집단 간 이해와 관용의 추구, 성별평등과 우호의 증진, 자유로운 사회에 모든 인간이 효과 있게 참여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 촉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단순히 지식 차원이 아니라 한 사회성원으로서 가치와 태도,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차원의 학습기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인권교육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회원국에 ‘유엔인권교육진흥10년’ 기획안을 권고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가별 실행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전 세계 국가들은 ‘아동·청소년권리협약’ 비준과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5-2004)’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권감수성<sup>1)</sup>과 인권적 태도와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1991년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인권교육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언급하고 있으며, 협약 제42조를 통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인권신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법이 바로 ‘인권교육’이며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어린이권리 위원회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교육에 대한 노력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3년도에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한 청소년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여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국가와

1)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인권교육이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인권감수성과 의식, 태도, 기술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진정한 체험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권교육이 아닌 인권활동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성·인종·계층·학벌·장애인 차별 등 현대의 많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여 21세기 남북통일과 지구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권 감수성과 의식, 태도, 기술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활동을 담아 청소년 활동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계발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은 국제화·다문화·고령화·경제적 불평등 심화 현상 등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많은 갈등, 차별과 소외 등의 사회문제를 평화로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활동들은 구조화된 교육시스템인 ‘공식 분야(Formal education)’보다는 수련활동과 같은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분야에서 적용하기가 더 적합한 다음과 같은 교육 방법과 형식을 택하여 청소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융통성을 허용하며 청소년이 인권문제에 적극적이고 실제로 참여하도록 하였다.<sup>2)</sup>

- 자발적이며
- 교육적 목표를 가진 조직된 활동과정이며
- 참여를 도모하고 학습자 중심이고
- 생활기술학습과 적극적 시민의식 고양에 관한 것이며
- 집합적 접근을 통해 개별 및 그룹 학습을 포함하는 것에 근거를 두며
- 전체적이며 과정 지향적이고
- 경험과 활동에 근거를 두고 참여자들의 필요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활동들은 인권교육의 한 ‘과정’으로 고안되지는 않았으며 개별 활동들은 매우 상이한 환경, 공식적 혹은 다소 덜 공식적인 환경, 정규적 혹은 비정규적인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공식적, 비형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은 서로 보

2) ‘비공식적 교육(Informal education)’은 평생학습과정으로 가족, 이웃, 시장, 도서관, 대중매체, 직장, 놀이 등 모든 개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또 날마다의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교육적 영향력과 매체를 통해 태도, 가치관,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한다. ‘공식적 교육(Formal education)’은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구조화된 교육시스템을 일컬으며 기술 및 전문적 훈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도 여기에 속한다. ‘비형식적 교육(Non-formal education)’은 청소년들이 공식교육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별 및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충적이며 상호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 평생학습과정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법들은 기존의 인권교육모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쟁점들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높인다. 둘째,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한다. 셋째, 인권존중에 대한 태도를 개발해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2.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활용방법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은 7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 개요를, 2장~5장은 본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으로 실제적인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6장~7장은 인권활동 지도 시 활동지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인권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집은 12개의 인권관련 권리·쟁점 활동들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활동들은 3개의 단위활동들로 엮어져 총 36개의 단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을 각 장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1) 제1장 프로그램의 개요에서는 이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취지와 특성, 구성내용과 활용방법을 다루었다.

2) 제2장 인권입문에서는 인권의 기초이며 발달과정과 그 과정 안에서의 핵심적인 사건 또는 성과라 할 수 있는 인권의 역사, 세계인권선언,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루었다.

3) 3~5장에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권발달 과정에서 진화되어 온 인권의 세 가지 중심사상인 자유, 평등, 연대감을 축으로 하여 관련 권리와 쟁점들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여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관련 권리와 쟁점들을 완벽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중첩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인권의 발달사를 한 눈으로 따라가며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 분류 틀을 얻을 수 있었다.

4) 따라서 제3장 자유영역 프로그램에서는 1세대 권리의 중심사상인 자유와 관련된 생명권, 자주권, 정치적·법적 권리를 다루었다. 쟁점으로는 생명의 생태계, 사형, 난민, 사생활보호, 생각과 표현의 자유, 선거권, 청소년권리, 자유의 억압, 법적 권리가 있다.

5) 제4장 평등영역 프로그램에서는 2세대 권리의 중심사상인 평등과 관련된 노동과 쉼 권리, 반 성차별, 반 인종차별 활동을 다루었다. 다른 쟁점들은 노동법, 노동과 휴식의 권

리,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당하는 노동착취, 성차별 사례파악과 대처방안 모색, 소외경험, 인종차별인식,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파악이다.

6) 제5장 연대감 영역 프로그램에서는 3세대 권리의 중심사상인 연대감과 관련된 평화, 환경보호, 세계화 활동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체험, 자연의 혜택 체험과 보호활동 인식, 지구촌 공동체 인식과 체험 내용을 다루었다.

7) 제6장 지도자를 위한 인권 가, 나, 다..에서는 청소년 인권활동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교육 관련 기본 자료들을 담았다. 인권의 개념, 인권의 역사, 청소년 인권교육의 의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과 지도기술을 다루었다.

8) 제7장 심화자료에는 청소년들의 인권활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40개의 조항을 각 조항마다 한 장의 삽화로 표현한 자료와, 인권관련 주요 협약과 법 그리고 인권활동자료들을 수록하였다.

<표 1-1>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영역 (중심사상)	세부권리 및 관련주제(쟁점)	단위활동 프로그램명
I.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개발취지와 특성 2.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활용방법	
II. 인권 입문 영역 프로그램	1. 인권의 역사	인권의 발전과정 및 중심사상 활동 1. 인권역사 주사위놀이 활동 2. 인권역사 속으로 - 인권역사 아리랑 곡선 활동 3. 인권역사 속으로 - 타임머신 여행
	2.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조항을 통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활동 1. 권리빙고 활동 2. 인권투사 활동 3. 예산짜기
	3.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조항을 통한 청소년 권리 이해 활동 1. 우리의 권리,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활동 2.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활동 3. 우리의 미래
III. 자유 영역 프로그램	1. 생명권 활동	낙태, 사형, 기아, 전쟁, 고문, 폭력, 체벌, 아동학대 활동 1. 삶의 사슬 활동 2. 내일이 오면 활동 3. 저를 받아주세요
	2. 자주권 활동	위안부, 독립운동, 생각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활동 1. 나는 도청당하고 있는가? 활동 2. 거북이의 독립투쟁 활동 3. 망가진 꽃밭 - 난민알기
	3. 정치적·법적 권리 활동	선거권, 집회의 자유, 양심수, 양심적 병역거부, 미란다, 국가보안법 활동 1. 긴급상황 발생이다 활동 2. 인권지도 그리기 - 법은 우리의 권리 활동 3. 선거권 - 청소년인권 40분 토론
IV. 평등 영역 프로그램	1. 노동과 실권리 활동	노동착취,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활동 1. 노동법 훑놀이 활동 2. 노동과 실 권리 안내책자 만들기 활동 3. 노동상담 -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2. 양성평등 활동	성차별의 유형, 여성의 권리 활동 1. 앗! 성차별! 활동 2. 장면 포착 성차별 활동 3. 동화 새로 쓰기
	3. 반 인종차별 활동	차별과 차이, 이주노동자의 배경과 권리 활동 1. 차별의 원 돌파하기 활동 2. 당신의 입장은? 활동 3. 이주노동자의 인권
V. 연대감 영역 프로그램	1. 평화 활동	남북통일, 이슬람국가, 이라크사태 활동 1.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활동 2. 서로 이해해요 활동 3. 한라에서 백두까지
	2. 환경보호 활동	생태계 활동 1. 자연의 옷을 입자 활동 2. 아낌없이 주는 자연 활동 3. 더불어 지구 살리기
	3. 세계화 활동	권력, 자원, 부, 기타 가치의 재분배 활동 1. 1분 발언 활동 2. 모두를 위한 교육 활동 3. 가난의 별점
VI. 지도자를 위한 인권 가,나,다..	1. 인권의 개념과 성격	6. 평등-차별 놀이 활동(Education pack) 7.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나침반-Compass
	2. 인권의 역사	
	3. 청소년 인권교육의 의의	
	4.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	
	5. 청소년 인권교육의 지도기술	
VII. 심화자료	1.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삽화	5. 인권활동자료
	2. 쉽게 풀어 쓴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3.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4. 주요 국제인권법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은 주 대상이 되는 중학생의 수준에 맞추었고, 각각의 활동주제들은 난이도가 다른 초급, 중급, 상급 3개의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몇몇 특정 활동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쉽거나, 고등학생에게 적용해 보아도 좋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것들도 있다. 따라서 활동대상 집단의 수준과 활동목적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활동프로그램들은 수련기관은 물론 청소년센터, 청소년단체의 인권관련 수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주제의 활동들 속에서 하나의 단위활동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즉 인권주제가 아닌 수련활동 중 1~2시간의 단위활동으로 활용하거나, 모든 활동이 인권관련 활동으로 구성된 2박3일 일정의 캠프형 인권수련활동 그리고 3~4개월 정도의 연속형 인권동아리 활동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집에 담긴 활동들을 활용하여 2박3일 일정의 청소년 인권수련활동(캠프형) 일정표와 3개월 정도 지속되는 인권동아리 활동프로그램(연속형)의 일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2> 캠프형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첫째 날	둘째날	셋째날
06-07		기상체조	
07-08		아침식사	
09-10		활동 6. <한라에서 백두까지>	활동10. <모두를 위한 교육?>
10-11			활동11. <인권활동 평가와 나눔>
11-12			
12-13		점심식사	점심식사
13-14	활동 1. <발대식/오리엔테이션>	활동6. <서로 이해해요>	
14-15	활동 2. <인권투사> 활동 3. <인권역사 주사위놀이>	활동7. <독립기념관 견학>	
15-16			
16-17			
17-18	저녁식사		
18-19	활동 4. <우리의 권리, 아동·청소년권리협약>	활동8. <북한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19-20	활동 5.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활동9. <인권역사 아리랑 곡선>	
20-21			
21-22	취침		
22-			

<표 1-3> 3주 연속형 프로그램 일정표

일정		세부권리 및 주제	활동명	주제 및 활동내용
첫째달	1주	인권의 역사	1. 인권역사 주사위 놀이	인권의 역사에 등장한 주요 사건이나 문제제기를 주사위판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는 활동
	2주		2. 인권역사 아리랑 곡선	인권의 역사에 영향을 준 인물이나 주요 사건들을, 일어났을 때의 순서대로 그 긍정적, 부정적 측면 및 정도를 따져보는 활동
			3. 타임머신 여행	이제까지 살펴 본 인권의 발전과 과정을 토대로 장차 일어나기를 바라는 인권 관련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
	3주	세계인권선언	4. 권리빙고	단순한 퀴즈로 빙고를 변형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활동
			5. 인권투사	정치탄압, 20세기 인권소송활동과 그 주인공, 여러나라의 권리투쟁을 다루는 활동
			6. 예산짜기	욕구와 필요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정부지출, 군사화, 평화배당금 같은 것을 다루는 활동
둘째달	1주	아동·청소년권리협약	7. 우리의 권리,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조항을 표현한 삽화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2주		8.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인권현황을 알아보고 인권침해 상황과 심각성, 권리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활동
			9. 우리의 미래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심사를 끌어내어 생각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인권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틀을 제공하는가 알아보는 활동
	3주	생명권 활동	10. 삶의 사슬	전 세계의 먹이사슬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과 비생물의 상호의존, 환경에의 영향 등을 느껴보는 활동
			11. 내일이 오면	정보지와 토론을 이용해 범죄자의 권리, 사형, 범죄자로부터 사회보호와 같은 쟁점을 탐구하는 활동
			12. 저를 받아주세요	피난민의 곤경, 난민보호와 거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쟁점을 다루며 생명권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셋째달	1주	노동과 설 권리 활동	13. 노동법 옷놀이	옷놀이를 하며 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익히는 활동
			14. 노동상담	각종 노동피해사례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가운데 노동과 휴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
	2주		15. 노동과 설 권리 안내 책자 만들기	노동과 휴식의 권리에 대한 책자를 만들면서 노동과 휴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
	3주	양성평등 활동	16. 앗! 성차별!	학교생활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에 어떤 성차별이 숨어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
			17. 장면포착 성차별	성차별 장면을 스틸사진 형태로 표현해 보게 하여 다양한 성차별의 사례를 파악하게 하는 활동
	4주	세계화 활동	18. 모두를 위한 교육?	카드를 맞추며 전 세계적 교육 제공의 불평등과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숙고하는 활동

## II . 인권입문 영역 프로그램

1. 인권의 역사
2. 세계인권선언
3.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 1. 인권의 역사

## 활동 1. 인권역사 주사위 놀이

<b>개요</b>	주사위 놀이 : 인권의 역사에 등장한 주요 사건이나 문제 제기를 주사위판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는 활동이다.		
<b>목표</b>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인권 관련 사건들과 제기된 문제(또는 의식)들을 살필 수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또한 인권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등급</b>	초급	<b>활동시간</b>	1시간 30분~2시간
<b>참가인원</b>	한 모둠을 6~8명으로 구성 (개별 또는 짝을 지어 활동 가능)	<b>지도자</b>	전체지도자 1명(활동 설명), 보조지도자 각 모둠 당 1명
<b>준비물</b>	주사위판(말판)(활동자료 1-①) 말, 주사위, 쉽게 풀어쓴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요약본(활동자료 1-③)		
<b>활동과정</b>	<b>활동방법 및 내용</b>		
<b>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6~8명의 한 모둠에서 두 명씩 짝을 짓는다. ※ 주사위판이 크다면 4명을 한 모둠으로 해서 모둠별 보드 게임도 가능하다</li> <li>❷ 짝을 이룬 각 팀에게 말을 나눠주고 활동방법을 알려준다.</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순서대로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판에 적힌 내용을 큰 소리로 읽는다(활동자료 1-①).</li> <li>❷ 주사위판에 적힌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주사위판에 적힌 지시 : 앞으로 가기 / 뒤로 가기 / '알자알자!' 카드(활동자료 1-②) 해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 아무 지시가 없을 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대로 간다.</li> <li>❹ 주어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각 팀에 주어지는 말은 1개에서 3개까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활동 후, 주사위판 내용을 함께 읽으며 인권의 역사 흐름을 살피고 정리한다.</li> <li>❷ 또한 참가자 모두에게 질문 할 수 있다(활동자료 2).</li> <li>❸ 활동 및 질문을 통해 깨닫거나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인권 감수성을 키운다.</li> </ul>		
<b>유의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게임이라 하면 승부에 집착하거나 자칫 경쟁심을 부추겨 활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얌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게임을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던지게 되는 인권 역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li> <li>❷ 본격적인 주사위 놀이 활동에 앞서,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개념(인권 감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중요한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요약본을 읽도록 한다(활동자료 1-③).</li> <li>❸ 시간에 쫓기다 보면 활동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각 팀의 말 개수를 줄이거나 '알자알자!' 카드를 무시하는 등 유연하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❹ '알자알자!' 카드 실행 시, 판토마임이 어려우면 말로 설명해 맞히기도 가능하다.</li> </ul>		

☐ 활동자료

▶ 자료 1 : 주사위 놀이 : ① 주사위판과 말

<p>“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호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p>	<p><b>알자알자!</b> 아하, 그렇구나-</p>	<p>우리 여성은 ‘인간과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가? 우리 투표차 할 수 없다고? 그럼 이걸 ‘남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이잖아!  (한 칸 뒤로)</p>	<p><b>알자알자!</b> 아하, 그렇구나-</p>	<p>애 계약의 자유만 자유인가? 자유방임이 전부인가? 우리가 외쳤던 자유와 평등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 칸 뒤로)</p>
<p>1789년 프랑스 혁명  (한 칸 앞으로)</p>	<p>식민지의 독립 :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세월을 찾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자.</p>	<p>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 모든 인류와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동의 인권 기준 마련.  (두 칸 앞으로)</p>	<p>선언은 말뿐인 것 아닌가? 좀더 강한 약속과 실천이 필요해!</p>	<p>훨씬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자의 평균수명 저하, 여성 노동 및 아동 노동의 만연... 우리는 자유를지도 평등하지도 못해.  (두 칸 뒤로)</p>
<p>1776년 독립선언, 미국 : “모든 인간은 태어남으로써부터 평등하며 조물주에 의해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말을 하나 포낸다)</p>	<p><b>알자알자!</b> 아하, 그렇구나-</p>	<p>인권의, 역사 속으로  더불어, 모두의 힘으로, 인권은 계속 나아가고 있다!</p>	<p>1966년 세계인권선언을 두 개의 국제인권조약으로 강화하다. ‘조약’은 나라 간에 맺은 약속</p>	<p>노동자의 저항 : 무엇을 위한 혁명이었나? 굶어서 죽는 것보다 총탄으로 죽기를 원한다.</p>
<p><b>알자알자!</b> 아하, 그렇구나-</p>	<p>전쟁 속에 배운 교훈 : 인권보장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부터 인권을 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p>	<p>199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 21세기 인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말하면, 한 칸 앞으로)</p>	<p>1989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과 청소년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제이다.</p>	<p>사회권의 도입 : 이대로는 너무 위험하군. 자본주의의 안정을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좀 제한해야겠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겠다.</p>
<p>18세기 근대식민혁명 : 흑권신분은 가라! 모든 인민은 법 앞에서 평등, 국가권력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만약 정부가 우리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네 칸 앞으로)</p>	<p>2차 세계대전 : 유대인 대량학살로 형성된 세계 전쟁의 억구름을 원자폭탄으로 분해해버린 비극  (한번 쉬기)</p>	<p>유럽 국가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식민지로 삼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인권을 억압했다.  (두 칸 뒤로)</p>	<p>17~19세기 노예무역 : 유럽인과 미국인은 흑인을 300년 이상 노예로 부려먹었다.</p>	<p><b>알자알자!</b> 아하, 그렇구나-</p>
<p>1215년 마그나카르타, 영국 : 왕의 권력은 전능하다는 생각은 그만!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여기에 서명하시오.</p>	<p>하지만 노예, 외국인, 여성의 권리는 인정 못해!  (한 칸 뒤로)</p>	<p>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독립 평등하며 일정한 인권을 부여받았다.</p>	<p>나는 인간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고집한다.</p>	<p>← 출발</p>

※ 빗금무늬 : 인권의 탄생 · 자유권의 등장 / 그물무늬 : 사회권의 등장 / 세로줄무늬 : 연대권의 등장 / 가로줄무늬 : 세계인권선언 등의 인권 관련 선언 및 조약 등장

- 주사위판은 바깥(출발)에서 나선형으로 들어간다.
- 세 개의 말은 각각 자유·평등·연대의 이름을 가진다.

② ‘알자알자!’ 카드 : 각 영역에서의 권리(자유권·사회권·연대권) 관련 조항 주요 목록 판토타임 알아맞히기와 ○×문제 풀이의 두 가지 카드 중 선택하도록 한다.

- 굴림체의 주사위 판에서 ‘알자알자!’ 카드 칸에 도착하면 두 가지 중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조항 주요 목록 판토타임을 선택하면 짝꿍 중 한명이 카드 내에 적혀있는 항목 중 한 가지를 골라 판토타임을 하고 다른 짝꿍이 미리 나눠준 ‘쉽게 풀어쓴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요약본’을 보며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히는 것이다.

**빗금무늬 ‘알자알자!’ 카드 목록 : 자유권 관련**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나 노예적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물무늬 ‘알자알자!’ 카드 목록 : 사회권 관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 문화에 대한 권리

**세로줄무늬 ‘알자알자!’ 카드 목록 : 연대권 관련**

자결권 -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 발전권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 다룰 수 있는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 만약, 위의 권리 및 자유의 명칭이 어려우면 ‘쉽게 풀어쓴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요약본’의 내용을 카드에 쓸 수 있다.

**'알자알자!' 카드 : ○×문제**

- ① 3월 8일은 1908년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한 여성노동자들의 시위에 기원을 둔 '세계 여성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이 날을 기념해왔다. ( ○ )
- ② 매년 5월 1일은 메이데이라고도 하는 '세계 노동절', 전세계 노동자의 축제일이자 단결의 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공산국가들도 기념하는 5월 1일을 함께 기념할 수 없다며 날짜를 바꾼 적이 있다. ( ○ )
- ③ 우리나라 '학생의 날'은 11월 3일이다. 이 날은 일제 시대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놀리던 일 때문에 생긴 한·일 학생들 간의 집단충돌 이후로 시작된 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 ○ )
- ④ 장애인인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유엔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은 1992년에 지정되었다. ( ○ )
- ⑤ '세계인권'의 날'은 세계인권선언 제정일을 기념한 날로 12월 10일이다. ( ○ )
- ⑥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의 주인은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뜻한다. ( ○ )
- ⑦ 처음 인권의 필요성을 느끼며 인권이 대두되었을 때는 남성들 즉, 남성 성인들의 권리만을 인정했다. ( ○ )
- ⑧ 왕의 권력은 절대적, 즉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있던 권력을 부당하다 여기고 자유를 주장하며 인권의 개념이 탄생한 문서인 마그나카르타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 ○ )
- ⑨ 인권의 소중함을 절실히 여기며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다 ( ○ )
- ⑩ 인권이 처음 탄생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여겼기 때문이다. ( ○ )

※ 문제를 조금 바꿔 답을 ×로 만들 수 있으며, 문제를 더 만들 수도 있다.

③ 쉽게 풀어쓴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요약본<sup>3)</sup>

**자유로울 권리**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협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

3) 전체 54개 조항 중 주요 조항만을 뽑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쉬운 말로 옮긴 것이다.

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를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에서 함께-**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31조**

우리에게 쉼과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협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여러 국제문제(환경이나 무기 경쟁 등)와 소수자를 위한-**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자료 2 : 평가 질문지

- 처음 인권의 소중함 내지 필요성을 느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 단순히 신체가 자유롭고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그 이상을 원하게 되는데, 처음 자유를 요구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 힘없는 소수자들을 위하여 점차 변하고 자라는 인권, 인권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인권의 역사적 사건들을 접하면서 흐름을 살핀 후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 참조 및 심화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3). 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서울: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 활동 2. 인권역사 속으로 1 - 인권역사 아리랑 곡선

개요	인권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주요 사건들을, 일어났을 법한 순서대로 그리고 그 긍정적·부정적 측면 및 정도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따지며 나열해 보는 활동이다.		
목표	현재의 인권 개념 형성 및 인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여러 역사적인 주요 사건과 관련 인물들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봄으로써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노력들을 통해 이루어진 건지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인권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생기는 의문들을 친구들·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풀어감으로써 인권 역사 내용과 사건들을 체감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1시간 30분
참가인원	한 모둠을 6~8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활동 설명), 보조지도자 각 모둠 당 1명
준비물	가로·세로줄 그래프가 그려진 전지, 펜, 풀, 다양한 사건과 인물이 적힌 쪽지들 (활동자료 1)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의 역사적인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 - 만약 주사위놀이 활동한 다음이라면 인권의 개념 형성 발전 과정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li> <li>세계인권선언 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인간의 역사·인권 역사의 한 부분됨을 이야기한다.</li> <li>준비물을 모둠별로 나눠주며 활동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지에 그려진 그래프에서 가로는 시간의 흐름을, 세로는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아래로 갈수록 부정, 위로 갈수록 긍정적인 뜻이라고 설명한다.</li> <li>모둠마다 인권의 역사에 등장한 주요 사건 및 인물들에 대한 쪽지를 몇 장씩 나눠준다. - 모둠마다, 각기 다른 사건 및 인물을 담은 쪽지 뭉치를 줄 수도 있다. 그래도 적어도 두 모둠씩은 같은 쪽지뭉치를 줌으로써 활동 후 결과물을 같이 비교하며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li> <li>모둠마다 쪽지들에 적힌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전지 그래프 위에 나열한다.</li> <li>보조지도자가 각 모둠과 함께 해 참가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li> <li>주어진 시간을 모두 활용해 활동을 마치고 나면 모둠별로 발표한다.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래프를 벽에 게시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모둠의 그래프를 살피고 차이점이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토의활동).</li> <li>전체지도자는, 도입활동에서보다는 구체적으로 - 모둠마다 제공한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포함해 - 인권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참가 학생들과 함께 정리한다(활동자료 2).</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전후에, 다양한 인권 역사 과정에서의 주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li> <li>인권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참가 학생들의 이해가 중요하므로, 사건이나 인물을 정확한 시간 흐름에 따라 나열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거나 신경 쓰지 않도록 한다. 보조지도자는 모둠 안에서 참가 학생들이 유연하고 진지하게 활동하도록 하며 너무 어려워하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그 중요도를 따져 과감히 제외할 줄 아는 여유도 가져야 할 것이다.</li> <li>또한 지도자들은, 참가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인권 역사 형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준비물

① 가로·세로줄 그래프를 그린 전지 : 모둠별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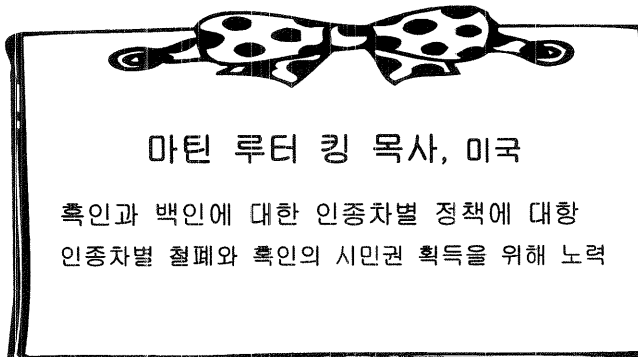
긍정 ↑	
부정 ↓	→ 시간의 흐름(서사)

※ 학생들의 수준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각각의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나열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② 인권의 역사적인 사건·인물들에 대한 쪽지 : 각각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을 제공한다.

- 특권의 세상 : 연산군, 장영실, 임궫정, 정약용, 진시황제 등에 대한 간단한 쪽지
- 인권의 탄생 : 자유권 - 사회권 - 연대권 등장에 따른 인권 역사의 흐름 안에서의 대표적인 사건 및 인물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각각의 쪽지
  - 마르나카르타, 프랑스혁명(근대시민혁명),
  - 제국주의 식민화, 마하트마 간디,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복지국가 등장,
  - 전태일(근로기준법), 양심수(시베리아 유배 등), 아파르트헤이트, 넬슨 만델라,
  - 인종차별, 마틴 루터 킹 목사, 국제 엠네스티, 국제 대인지뢰금지운동,
  - 미얀마의 군부 독재, 아웅산 수지 여사, 그린피스, 체르노빌 사건,
  - 세계인권선언,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 이라크 전쟁 등

- 예시]



▶ 자료 2 : 평가 질문지

- 모둠끼리 인권의 역사에 대한 사건과 인물을 나열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 모둠 안에서 어떤 의문/질문이 쏟아져 나왔는가?
- 또, 그 의문/질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
- 같은 쪽지 문치를 가진 다른 모듬의 아리랑 곡선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 지금처럼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가?
-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 활동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활동에 대한 소감은?)

☞ 심화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국제평화의 어린이회(2000). 깨어나 일어나. 서울: 사람생각.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3). 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서울: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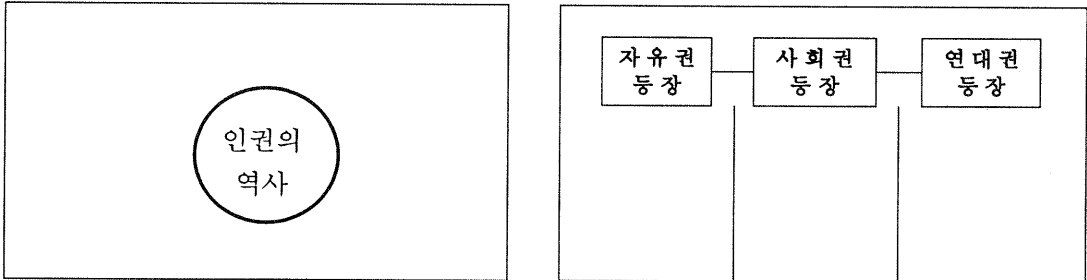
### 활동 3. 인권역사 속으로 II - 타임머신 여행

개요	이제까지 살펴본 인권의 발전 과정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인권 관련 사건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목표	이제까지 살펴본 인권의 역사를 토대로 현재의 인권 발전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의 인권 관련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또는 일어날 법한 인권 관련 사건 등을 상상해볼 수 있다.		
등급	고급	활동시간	40분~1시간
참가인원	한 모듬을 6~8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활동 설명), 전체 규모에 따라 보조지도자 1~4명
준비물	모듬별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종이(A4 또는 전지나 도화지 등), 필기도구 등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한 인권의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상기시킨다. - (위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인권의 역사적인 흐름을 대략 이야기한다.</li> <li>② 활동 주제 및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li> <li>③ A4 용지, 필기도구 등의 준비물을 모듬별로 나눠주고 활동으로 나타내기 위해 특정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제공한다.</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권의 역사 및 발전 과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다양한 생각들을 모듬별로 마인드맵 하도록 한다. 또는 인권의 영역별로 생각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한다(활동자료 1-①).</li> <li>② 현재 취약한 인권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듬 안에서 의견을 나눈다. 또는 앞으로 있을 법한 · 일어나길 바라는 인권의 역사적인 사건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한다(활동자료 1-②).</li> <li>③ 모듬 안에서 생각한 미래의 인권 역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활동자료 1-③).</li> <li>④ 주어진 시간을 모두 활용해 활동을 마치고 나면 모듬별로 발표를 한다. - 나중에 캠프파이어 시간을 활용해 발표할 수 있다.</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른 모듬이 발표하는 내용을 공유한다.</li> <li>② 활동 후, 생각이나 소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내가 꿈꾸는 사회, 내가 꿈꾸는 이상'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활동자료 2).</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듬 안에서 인권의 역사 및 발전 과정은 참가 학생들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고 지금의 인권 취약점 및 문제를 공간이나 시간에 따라 정리해보는 등 유연하게 도입활동이 이루어져야 활동이 의욕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한다.</li> <li>② 보조지도자는 본 활동 초기 인권의 역사 및 발전 과정에 대한 모듬별 마인드맵핑 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참가학생들에게 생각을 풀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li> </ul>		

## ☐ 활동자료

### ▶ 자료 1 : 활동 전개 및 방법

① 마인드맵핑을 위한 또는 인권의 발전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종이를 제공한다.



② 공간·생활 등 다양한 영역이나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인권 문제들을 살필 수 있다.

- 공간 : 교실 / 학교 / 집 / 학원 / 지역(농어촌 및 도시) / 우리나라 / 세계 / 특정 장소
- 생활 : 하루일과(생활) / 여가 및 휴식(놀이) / 가정생활(집에서의 고정적인 성 역할) / 학교생활
- 앞으로 : 학교에서 진정한 주인다운 학생들의 활동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 체벌이나 왕따 같은 비인권적인 상황은 박물관으로 / 지구에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짐

③ 앞으로는 인권의 역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기존의 노래나 랩의 가사를 바꿔 부르기
-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을 촌극 등의 형식으로 나타내기
- 그림이나 만화 등으로 표현하기 등

### ▶ 자료 2 : 평가 질문

-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인권적인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둠에서 이야기했는가?
-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
- 그러면, 내가 꿈꾸는·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우리들의 인권을 고려해야 하는가?
-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 ☞ 심화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3). 청년인권위크샵 '읽을거리 모음'. 서울: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 2. 세계인권선언

### 활동 1. 권리빙고

개요	단순한 퀴즈로 빙고를 변형한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나눈다.		
목표	인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알기. 청취기술 개발하기.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등급	초급	활동시간	40분
참가인원	8명 +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준비물	• 한 사람 당 퀴즈 1부와 펜 한 자루. • 플립 차트 용 종이와 매직 펜 여러 자루.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큰 종이나 플립 차트용 종이에 퀴즈를 적어 넣는다(활동자료 1). 또는 퀴즈 용지를 붙인다.</li> <li>2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을 숙지한다(부록 심화자료 활용).</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퀴즈용지와 펜을 나누어준다.</li> <li>2 각자 짝을 만든 다음 용지에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를 묻게 한다. 해당하는 상자 안에 답의 주요 용어를 적어 넣게 한다.</li> <li>3 짝을 바꾸어 다른 사람과 짝을 짓는다.</li> <li>4 이 게임의 목적은 단순히 상자 안에 답을 채워 넣는 것만이 아니라 각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이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li> <li>5 모든 상자의 답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빙고' 하고 외치고 이긴 사람이 된다.</li> <li>6 토론으로 넘어간다. 첫 번째 상자에 해당되는 질문을 주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받은 답을 나누도록 시킨다. 주요단어들을 플립차트에 적어 넣는다. 이 단계에서는 간략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li> <li>7 차트가 완성되면 각 상자에 담긴 답변을 상세하게 토론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문이 모두 인권에 관련된 것이었나?</li> <li>2 대답하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은? 그 이유는?</li> <li>3 가장 쟁점이 된 질문은 무엇인가? 왜 권리가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는가?</li> <li>4 사람들이 인권과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들은 정보출처를 신뢰하는가?</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임의 흥미와 수준에 맞도록 질문을 고쳐도 좋다.</li> <li>2 사람들의 답변을 적을 때는 중요한 단어만 적는다.</li> <li>3 정보를 얻은 방법을 묻고 정보의 진위와 신뢰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 비판하여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좋은 기회다.</li> <li>4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중요한 학습 포인트는 어떤 쟁점이든 모든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다.</li> <li>5 둘째 포인트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 더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점이다. 인권은 지속해서 평가하고 개발해야 한다.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다.</li> <li>6 논쟁을 불러일으킨 답변 두 개를 골라 인권존중문화를 건설하려 할 때 실제로 만나는 곤란함을 가지고 토론해본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퀴즈용지

퀴즈용지		
인권을 선언하고 있는 문서의 이름	모든 아동들이 가져야만 하는 특별권	적십자의 자매기구
자기 나라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거부당한 권리	거부당한 당신의 인권	인권을 위해 싸우는 기구
우리의 인권에 관련된 우리의 의무	차별의 예	때때로 여성들에게 거부되는 권리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	생존권 침해	사람들의 개인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는 예

## ☞ 심화자료

-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활동 2. 인권투사(人權鬪士)

개요	인권소송의 주인공에 대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보카드를 사용한다. 정치 탄압, 20세기 인권소송활동, 여러 나라의 권리투쟁을 다룬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나라의 중요한 인권투사들을 알아내기.</li> <li>• 정보를 다루고 정리하는 능력, 단체로 일하고 협력하는 힘 기르기.</li> <li>•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식과 호기심 증진시키기.</li> </ul>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상관없음	지도자	전체진행자 1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모둠마다 30장으로 된 카드묶음 하나씩.</li> <li>• 가위 여러 개</li> <li>• 봉투</li> <li>• 임의선택으로는 카드를 보강하기 위해 덧댈 뾰뚱한 종이와 풀</li> </ul>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가자들이 작은 모둠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한다.</li> <li>② 모둠마다 카드묶음(6개의 카드세트 30장)을 갖추도록 카드를 복사한다(활동자료 1).</li> <li>③ 한 모둠 당 30장으로 구성된 카드 1묶음을 잘 섞어 봉투에 넣는다. 단 다른 모둠의 카드와 서로 섞이지 않게 주의한다.</li> </ol>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4-5명으로 한 모둠을 만들게 하고 각 모둠마다 카드묶음을 하나씩 준다.</li> <li>② 각 모둠은 카드를 뒤집어 뿌려 놓는다.</li> <li>③ 카드는 6명의 인권투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li> <li>④ 이 활동의 목적은 각 인권투사 당 '5장(A,B,C,D,E)이 한 세트'인 카드세트를 인물별로 모아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투사에 대해 간략한 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먼저 각 모둠에게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카드를 동시에 뽑게 한다.</li> <li>② 그리고 참가자들이 이 카드를 침묵하면서 읽도록 몇 분을 준다.</li> <li>③ 시작신호를 준다. 각 모둠은 투사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할 전략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 단계는 15-20분 걸린다.</li> <li>④ 참여자 전체를 다시 모으고 각 모둠 대표가 나뉘대로 투사를 소개한다. 투사의 모습이 완전하게 나타나는지 또 각 모둠이 얼마나 정확하게 짜 맞추었는지 검증하면서 함께 확인해 본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활동은 쉬웠는가? 모둠들은 카드 세트를 정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가?</li> <li>② 참가자들이 이미 들은 적이 있는 투사는 누구인가? 왜 어떤 투사가 다른 투사보다 더 많이 알려졌는가?</li> <li>③ 참가자들은 어떤 정보에 놀랐는가?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li> <li>④ 참가자들이 투사와 가장 깊이 하나가 되게 한 인용 글을 하나 고르게 한다. 참가자들이 문제의 투사와 같은 형편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li> <li>⑤ 참가자들이 피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기에 소개된 전기는 문제의 결면만을 본 것이므로 다른 많은 자료를 더 보여줄 수도 있겠다.</li> <li>② 다른 인권투사를 연구하도록 참가자들을 크게 격려한다. 그렇게 하면 참가자들이 시대에 따라 인권투쟁에 참여한 투사들의 인권감수성을 발휘할 것이다.</li> </ol>		

☐ 활동자료

▶ 자료 1 : 토론카드

<p>A “나는 백인 지배에 맞서 싸웠고 흑인지배에 맞서 싸웠다. 나는 누구나 조화롭게 살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을 소중히 여겼다. 이것은 삶의 이상이지만 나는 만약의 경우에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넬슨 만델라</p>	<p>A “고통스러우면서도 용기를 돋우어주는 만남의 대가로 나는 ‘내 잘못이야’ 하는 외침이 어떻게 솟아나는지, 또 이 외침으로 사형수가 자신도 한 인간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에브첸니아 긴즈베르그</p>
<p>B 움타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뽑혔다. 이 선거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선거였다. 이 선거가 있기까지 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삶을</p>	<p>B 1906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1977년 모스크바에서 사망. 이 사람은 스탈린 체제의 공포정치가 소용을 완전히 거짓으로 꾸며 고소당하였다. 그전까지는 교사와 신문기자로 평온하게 일하였다. 이 사람은 18년 동안 시베리아수용소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p>
<p>C 남아연방의 인종차별 정책, 다수흑인국민을 없애기 위해 백인 정부가 조직한 인종차별 체제에 맞서 싸우는 데에 바쳤다. 이 사람은 모임을 금지당하고 은신하며 지내야 하는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p>	<p>C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고소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스러운 상황에서 살았다. 습기 진 독방에 투옥된 이 사람은 낮에 말하고 노래하고 자고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채 첫 해를 보내었다. 나중에 이 사람은</p>
<p>D 체포된 이 사람은 44세에 종신형을 받았다. 자기 가족과 자식들과 헤어져 감옥에서 28년을 보냈다.</p>	<p>D 시베리아의 다른 강제노동수용소에 가게 되었다. 이 사람은 동수(同囚)를 도왔다고 가장 나쁜 이 수용소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살아 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p>
	

A “나는 어느 날 우리나라가 일어서서 신조의 참된 현실을 충만하게 살 것이라고 꿈꾼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가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여긴다.’ 이것이 이 신조다. 나는 네 명의 내 자식이 피부색이 아니라 본래 개성으로 평가될 나라에서 언젠가 살게 될 거라고 꿈꾼다.”

A “비폭력은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비폭력은 인간의 재간으로 생각해낸 가장 강한 살상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마하트마 간디

B 이 사람이 조지아 주 아틀란타에서 태어난 1929년에는 흑인이 버스나 극장에서 어떤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 같은 급수소에서 백인과 물을 마시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 사람은 28세에

B 1869년 인도의 구자라에서 힌두교를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남. 그 즈음에 인도는 대영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독립투쟁을 지휘하였던 이 사람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은

C 흑인교회들의 협회를 창립하여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의 행진, 시위와 보이콧을 격려했다. 이 협회는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를 하는 동안 아동 수백 명이 길에 줄지어 나아가면서 노래하였다.

C 수많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어도 비폭력 저항과 신앙에 따른 관용이었다. 인도 사람들이 서로 맞서서 또 인도의 대영제국에 맞서서 폭력을 사용하였을 때 이 사람은 폭력이 멈출 때까지 단식하였다. 인도를 가로지르면서 390킬로미터를 행진했을 때 이 사람은 선두에 섰다. 그리고

D 경찰관들은 경찰건을 풀라는 명령을 받았고, 소방수들은 소방호수를 작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람은 체포되었고 감옥에 들어갔다.

D 양감음하지 않고 경찰과 군대의 난폭한 행동을 견디어내라고 지지자들을 설득하였다. 감옥에서 2338일을 보낸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평화에 고스란히 바쳤다.



A “우리는 군사체제를 파괴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없애려고 위협한다. 그러나 [.....] 우리가 벌이는 운동의 목적은 군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우 아웅 산 수지

A “아,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슬픈 노래를 죄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이 노래는 어두운 느낌을 나타낸다. 나는 그 끔찍한 고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감옥의 이 비참함이 감각을 지닌 인간에게 결코 모욕을 주지 않으면 좋을 텐데.”      누가왕 상드를

B 1945년 버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살해당한 독립투쟁국가영웅의 자식이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B 불교 수도승인 이 사람은 티베트의 독립을 설교하여 열 살 때 처음으로 중국당국에 체포되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죄는

C 잔인한 군사체제에 맞서 싸우는 대중을 상징한다. 이 사람에게 무기를 겨냥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대에게 살해될 뻔하였다. 이 사람은 어떤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이 아닌데도 6년 동안 감시당하며 집에서 살았다. 참으로 바깥 세계와 차단된 삶이었다. 이 사람이 해방이 된 뒤에도 정부는

C 티베트 독립을 위한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15세에 다시 체포되었고 3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처음으로 연장되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독립을 위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이 8년을 보낸 이유는

D 죽어가는 그의 배우자를 다시 보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이 사람은 집을 배정 받았고 그의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은 엄밀하게 통제를 받았으며 전화는 단절되었다.

D 감옥 마당에서 비를 맞으면서 “티벳에게 자유를 주어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문 때문에 콩팔에 문제가 생겨 고통을 겪고 있다.



▶ 자료 2 : 후속을 위해 진행자에게 하는 조언

- ① 이 활동을 한 단체는 단체자신의 인권활동가 “얼굴사진전시회”를 해볼 수 있겠다. 이 활동 안에서 제시한 6개의 얼굴사진은 출발점으로 쓸 수 있다. 곧 이 사진들은 방에 전시되기 전에 작은 판지 위에 풀로 붙이고 옆에다 해당 인권투사의 말이나 글을 따온 것과 간결한 전기를 옆에 써 붙인다. 모든 참여자는 다른 인권투사들을 연구하여 이 얼굴사진 전시회에 덧붙일 수 있다. 제시된 이 여섯 개 사진은 모두 시민권과 정치권의 투사들과 관련되지만 진행자는 예로 보여준 인권투사들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고 사회와 경제면도 포함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는 자기 의견을 나타내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 ② 몇몇 정치범이나 현재 활동가들,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가 ‘양심수’로 규정한 사람들에 대해 연구한다. 참가자들에게 이 죄수들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거나 운동을 조직하고 이 죄수들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 심화자료

-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enseil de l'Europe.

### 활동 3. 예산짜기

개요	가계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작은 모둠이 활동카드를 사용하여 토론한다. 역할극 비슷한 점이 덧붙여진다. 욕구와 필요 구별, 정부지출과 군사화, 평화배당금 <sup>4)</sup> 을 다룬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가족의 필요와 이 필요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기.</li> <li>• 민주적 의사결정 기술 개발하기. • 책임의식과 정의의식 향상하기.</li> </ul>		
등급	고급	활동시간	1시간 30분
참가인원	상관없음	지도자	전체 진행자 1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템카드(모둠 당 한 세트) • 봉투(모둠 당 하나) • 가위 • 벽 차트에 카드를 붙일 때 사용할 테이프나 풀(모둠 당 하나) • 큰 종이(A3)나 벽 차트로 쓸 플립차트종이(모둠 당 하나) • 특별부모 역할 카드 1장 • 도표 3개를 1장으로 복사한 것</li> </ul>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이템 종이를 복사한다. 이것을 잘라 아이터 카드를 만들어서 봉투에 집어넣는다. 모둠 당 한 세트의 카드가 필요하다(활동자료 4-①).</li> <li>2 참가자들을 작은 모둠으로 나누어 활동하도록 방을 배치한다.</li> <li>3 활동하기 전에 한 사람을 '특별부모'로 뽑고 그 역할을 하도록 '부모역할카드'를 준다(활동자료 4-②).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특별한' 역할을 숨기도록 한다. 모둠 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한 가족에 '특별한 부모' 하나만 두어야 한다.</li> <li>4 진행자가 사용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복사하여 주거나 OHP로 보여준다.</li> <li>5 세계군사비용과 이 비용을 달리 쓸 수 있는 대안 차트를 큰 종이에 그려 넣거나 OHP용지에 복사하거나 모든 참여자에게 나누어주도록 복사한다(활동자료 4-③).</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은 모둠을 만들게 하고 이 모둠이 한 가족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목적은 가족들이 전부 다음 달 가계 예산을 짜는 것이다. 한 모둠은 5명을 넘지 않는다.</li> <li>2 모둠에서는 가족 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을 저마다 맡아야 한다. 가족의 이름을 정한다. 아이터 카드를 담고 있는 봉투 하나와 큰 종이 한 장을 모든 모둠에게 준다.</li> <li>3 아이터카드들은 다음 달 예산을 짜 때 들어가는 항목들이므로 이들만 예산 편성에서 고려하여 골라 집어넣어야 한다. 비용은 각 카드에 적혀 있고 고칠 수 없다. 예산은 가족 당 10,000이다.</li> <li>4 민주적인 토론으로 선택한 아이터카드들은 전시용 벽 차트를 만들기 위해 큰 종이에 붙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 데 20분을 준다.</li> <li>5 모든 사람에게 10분을 주어 다른 가족의 예산이 어떤지 살펴보게 하고 어느 가족이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적절하지 못한지 생각하게 한다.</li> <li>6 다 같이 모여 분석을 시작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모둠에게 활동에 대한 전체 평을 하도록 차례대로 기회를 준다. 그리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활동자료 1-①).</li> <li>2 세계군사비 지출과 그 대안 차트를 보여주고 질문한다(활동자료 4-④, 1-②).</li> </ol>		

4) 평화배당금은 냉전 종식 또는 무기 감축 협상으로 절감된 국방비를 복지·교육에 할당할 것으로 기대하는 예산.

<b>유의점</b>	<p>① 전통가족개념은 나라마다 좀 다르다. 따라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른 친척을 포함해도 된다고 알려준다(활동자료 2).</p> <p>② 비군사화와 같은 쟁점을 토론하도록 촉진해도 좋다(활동자료 3).</p>
------------	--

## ㉞ 활동자료

### ▶ 자료 1 :

#### ① 심도 깊은 토론 안내용으로 활용할 질문

- 가족들이 예산을 어떻게 결정했는가? 민주적이었는가?
-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했는가?
- 의식주에 대한 “필요”와 안보에 대한 필요, 휴가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췄는가?
-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이템을 나머지 가족들이 제외하여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가?
- 어떤 예산이 가장 적절했고 어떤 예산이 가장 부적절했는가? 이유는?
- 가족 예산과 세계 정부들의 예산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는가? 비교될 수 있는가?
- 어떤 예산이 정부예산에 가장 근사한가?
- 어떤 예산이 이상적인 정부 예산이 되어야만 하는가?

#### ② 모둠에게 “세계 군사비 지출과 그 대안” 차트를 보여 준 다음에 할 질문

- 군사장비, 무기와 군에 관련된 실제의 정부예산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왜 세계의 많은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무기에 쓰는가?
- 이 지출을 정당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이 세계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인가?
- 이와 같은 예산 배당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군사 개종(military conversion)”<sup>5)</sup> 혹은 “비군사화 기금”(demilitarization fund)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 ▶ 자료 2 : 진행자를 위한 조언

- “특별한 부모”를 두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특별히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에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서로 비교하고 토론하여 다양한 예산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 특별한 부모에게 흥분하고 심지어는 화를 낼지도 모르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역할극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그룹에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사실에 민감해야 하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개입해야 한다. 이 그룹이 대본에 따른 역할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활동을 지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 ‘특별한 부모’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에

5)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군수업체의 목적을 상업용으로 바꾸는 전환을 말함.

따라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으면 이 역할을 활동에서 제외해야 한다.

-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의 가족 상황을 실제로 잘 반영하지 못하는 아이템 리스트는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보안” 아이템들과 매우 사치스러운 아이템들을 포함시키도록 해 참여자들이 무엇을 포함해야 하고 무엇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드 대신 목록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그룹에게 그들의 선택사항을 표시하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그룹에게 그들의 예산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큰 종이에 적어 넣도록 해야 한다.

▶ 자료 3 :

① 진행자를 위한 조언

- 그룹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조사, 예를 들면, 비군사화 기금 혹은 나라들이 군대나 군사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코스타리카와 같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쟁이 특별히 피난민에게 미치는 결과를 탐색하고 싶으면 “저를 받아주세요”와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다.
- 비군사화와 같은 쟁점으로 토론을 촉진하는 것도 좋다. 이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들이 변화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당신의 정부 예산이 군사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에 어떤 비율로 배당되어 있는 지를 찾아보라. 모둠의 구성원들은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 조직된 많은 비군사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예를 들어 비핵화를 위한 청소년과 학생 운동(Youth and Student Campaign for Nuclea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http://youthstudentend.org.uk>)과 Pax Christi International([www.paxchristi.net](http://www.paxchristi.net)) 같은 운동이 있다. 아니면 모둠들이 직접 나서서 모둠의 캠페인을 시작하고 위와 같은 기구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진행자를 위한 부가정보

국제 무기 산업은 우선순위를 왜곡시키고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로부터 자원을 앗아가기 때문에 인간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군비에 자원을 배당하는 주된 논거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할 필요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육, 보건,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데도 진정으로 보호받겠다고 할 수 있는가? 군비가 국민의 필요와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는가?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안보(국민의 안보라고 주장되는) 투자는 악순환 한다는 사실이다. 각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군사 역량보다 더 큰 역량을 갖기 위해 더 나은 무기를 소유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군비 경쟁”이다.

냉전시대가 종식된 뒤 10년 동안 군비가 감소했다. 비군사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정책은 “평화 배당금” - 군비에 쓰지 않아서 절약된 돈 - 이 교육과 보건에 지출됨으로써 인간 안보를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평화 배당금”은 국가의 부채를 낮추는 데 사용되었다.

세계 군사비용은 다시 증가세에 있다. 이 증가는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도 계속 되었다. 이제 안보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개선된 상태이므로 이는 모순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요 지출자들이 성장을 포함한 준비계획을 채용하거나 발표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화운동가와 캠페인 참여자들은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생산에서 민간을 위한 생산으로 전환하는 강력하고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많은 이유를 들었는데 다음은 그들 가운데 일부이다.

- 무기산업 자체의 부도덕함과 그 파괴력
- 무기거래 증가의 위험
- 무기 산업이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 역량부족과 그 생산물의 사용 용도
- 이 산업의 내재적 낭비성과 자원과 인간의 지능에 대한 문제 많은 남용
- 획기적인 전환이 불러 올 잠재력

▶ 자료 4 : 배포용 자료

① 예산 아이템 카드

음식(2,000)	학교/대학 비용(2,000)	가족 의료 보험(1,000)
새 차(4,000)	체육 활동 월비(300)	장난감과 게임(200)
컴퓨터(800)	복권(100)	주택 개조(400)
경보 시스템(1,500)	의류(400)	애완동물 사료(100)
수도세(200)	훈련된 보안견(400)	약(300)
교통(기름, 버스, 열차비)(400)	전세비(2,500)	엄마 생신 선물(400)
서탁기 수리비(200)	학교/대학 교재비 월비(300)	개인소지용 권총(400)
낚시 도구(200)	전화비(300)	전기료(200)
새로운 모델의 접는 의자(700)	딸(들)과 어머니를 위한 자기방어교육(300)	여가활동(영화, 연극, 놀이공원)(200)
차 경보(300)	해변에 있는 집에서 주말나들이(400)	개인용 방어 장비 (예:최루가스총/전기충격총)(100)
식당에서 하는 가족 외식(100)	집에 필요한 새로운 전자장비(100)	할아버지와 다른 친척들을 위한 용돈(200)
청소년 캠프(200)		

② 부모역할 카드

**권위적인 부모역할 카드**

당신은 가족의 수입을 벌여오는 사람이므로 당신의 배우자나 아이들보다 돈 문제에 관해 더 많은 권리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신이 집에 돈을 가지고 오니까요!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법과 질서가 부족하여 상당히 큰 문제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은 살아가기가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 집, 재산의 안보와 보호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차례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③ 통계자료

- 지출비용 우선순위(국내총생산의 %)

나라	교육(1995-1997)	건강(1998-1999)	군사
앙골라	6.2(1985-1987)	5.8	23.5
코스타리카	5.4	5.2	...
에리트리아	1.8	...	22.9
이디오피아	4.0	1.7	9.0
노르웨이	7.7	7.4	2.2
러시아연방	3.5	2.5(1990)	3.8
사우디아라비아	7.5	12.8	13.2
터키	2.2	2.2(1990)	5.0
우크라이나	5.6	3.6	3.1
연합왕국	5.3	5.9	2.5

- 2000년도 가장 높은 군사비를 지출한 6개 나라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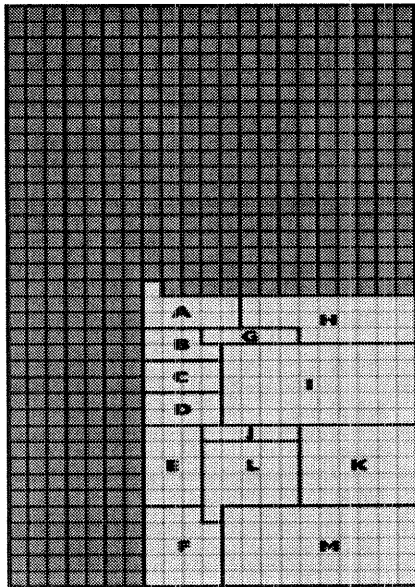
2000년도등급(1999)	나라	2000	지출 %
1(1)	미국	280.6	37
2(7)	러시아	43.9	6
3(3)	프랑스	40.4	5
4(2)	일본	37.8	5
5(5)	연합왕국	36.3	5
6(4)	독일	33	4

- 필요한 예산(군사비 대신 쓸 수 있는 분야)

- A) 인구 안정에 105억 달러
- B) 산림벌채 중지에 70억 달러
- C) 지구온난화 방지에 80억 달러
- D) 산성비 방지에 80억 달러
- E) 건강보호 보장에 150억 달러
- F) 기아와 영양실조를 없애기 위해 190억 달러
- G) 오존 층 붕괴를 막기 위해 50억 달러
- H) 토양 침식작용을 막기 위해 240억 달러
- I)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 재생 가능 에너지=170억 달러
  - 에너지 효율=330억 달러

- J) 문맹 근절을 위해 50억 달러
- K) 개발 국가의 빚 청산을 위해 300억 달러
- L)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210억 달러
- M)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50억 달러

- 세계 군사비와 이 군사비 대신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분야(앞장의 A, B, C... 내용 참조)  
 그림 전체는 연간세계군사비지출액수  
 2001년도 지출액은 7560억 달러  
 □=10억 달러



### ☞ 심화자료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enseil de l'Europe.

### 3.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 활동 1. 우리의 권리, 아동·청소년권리협약

<b>개요</b>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조항을 표현한 삽화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파악한다.</li> <li>•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존중감, 책임의식 그리고 호기심을 증진한다.</li> <li>• 나의 권리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li> </ul>		
<b>등급</b>	초급	<b>활동시간</b>	1시간
<b>참가인원</b>	20명	<b>지도자</b>	전체진행자 1명
<b>준비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모둠마다 40장으로 된 카드세트 하나씩.</li> <li>• 가위 여러 개</li> <li>• 봉투</li> </ul>		
<b>활동과정</b>	<b>활동방법 및 내용</b>		
<b>준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조항 중 20조항을 선택한다(활동자료 2).</li> <li>2 선택한 조항에 해당하는 삽화와 협약문을 준비하여 모둠 수만큼 복사한다.</li> <li>3 20개의 삽화와 20개의 협약문으로 이루어진 40장짜리 활동자료 1세트를 잘 섞어 봉투에 넣는다. 각 세트의 카드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주의한다.</li> </ol>		
<b>전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이란 무엇인가?”와 ‘활동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다(활동자료 1).</li> <li>2 4-5명으로 된 모둠을 만들게 하고 각 모둠마다 삽화세트를 하나씩 나누어 준다.</li> <li>3 모둠별로 돌려 앉아 중앙에 40장의 활동카드를 엮어서 펼쳐 놓는다.</li> <li>4 활동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각 모둠은 20개의 삽화와 20개의 협약문을 짝지우는 게임을 한다.</li> <li>5 답을 맞추어 보고, 20개의 조항을 모두 짝 지운 모둠의 순서대로 등수를 매긴다.</li> <li>6 간단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준비하여 등수에 따라 나누어 준다.</li> </ol>		
<b>평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둠별로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항을 하나씩 선택하여 모둠의 대표가 선택사유와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이 조항을 택했는가?</li> <li>• 생활 안에서 선택한 조항과 관련된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li> <li>• 있다면, 어떤 사례?</li> <li>•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li> </ul> </li> <li>2 이 활동은 쉬웠는가? 모둠들은 카드세트를 정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가?</li> <li>3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점과 느낀 점은?</li> </ol>		
<b>유의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급활동이니만큼 20개의 조항을 선택할 때 그 내용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조항들을 선택한다(예시 : 활동자료 2).</li> <li>2 모둠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개입한다.</li> <li>3 대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많거나 더 적은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이란?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D)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후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으로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전세계 아동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는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다. 역사상 가장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리에 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이 협약은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가진 국제조약으로 알려져 있다(전세계 192개국).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하였다.

협약은 1979년 이래 국제연합에서 진행된 10년 노력의 결실이다. 유엔총회가 '아동권리선언(1959)'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선언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1959년의 선언을 더욱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 발전시키자는 결의가 채택되면서 초안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0년 간의 작업 결실로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탄생한 것이다.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비준한 국가들은 행정·입법·사법 및 기타 절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가진다. 아동권리협약이 기존 선언들의 한계를 극복한 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사국이 협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는 물론, 가족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건강·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활동권 등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으며,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권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기존의 많은 법률이 성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수혜자로 취급하는데 비하여 본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약은 아동의 보호에서 평등과 자율성의 존중으로, 그리고 양육 대상의 아동에서 자결권이 있는 존재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협약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항상 아동의 최선이익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은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아동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제1조-제41조), 제2부는 협약 이행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제46조-제5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일반원칙은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아동의 생명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의 원칙(제12조) 등이다.

협약은 이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이를 감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며(제42조), 비준한지 2년 후, 그 후 매 5년마다 국내의 아동·청소년 권리 실태와 진전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44조). 한국 정부는 1994년 11월에 1차 정부보고서를, 2000년 5월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의 권고의견을 받은 바 있다(민간단체 반박보고서는 1996년과 2002년 두 차례 제출). 제3차, 4차 보고서는 통합하여 4차 보고서 제출 시한인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2003년 1월,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회의 결과).

한국정부는 비준과정에서 협약의 3개 조항 -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제9조 3항), 입양허가(제21조 가항), 상소권 보장(제40조 제2항 나호 5) - 을 유보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유보철회 권고를 받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아동매매·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래피,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료 2 : 20조항으로 이루어진 활동카드 예시

부록에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삽화자료를 활용한다.

제1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 심화자료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국제평화의 어린이회(2000). 깨어나 일어나. 서울: 사람생각.

김영지 외(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활동 2.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

개요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인권현황을 알아보고 인권침해 상황과 심각성, 권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조항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인권 현황을 진단해본다.</li> <li>• 발표를 통해 서로의 인권침해 상황과 느낌을 들어보면서 인권침해의 심각성, 권리의 소중함을 참가자들 서로가 교육할 수 있다.</li> <li>• 스스로 대처 방법을 찾고 나의 권리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한다.</li> </ul>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10명 미만일 때는 둘씩 짝을 짓는다 10명 이상일 때는 4~5인씩 모둠결성	지도자	10명 미만 : 1명, 10명 이상 : 3모둠당 1명의 보조지도자
준비물	인권조항 알람지, 질문지(A4용지나 전지), 필기도구나 크레파스, 별 스티커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권조항 알람지를 나눠준다.</li> <li>② 가정, 학교, 사회 등 생활영역별로 분류한 인권조항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큰소리로 읽게 하여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알게 한다(활동자료 1).</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활영역별로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는 질문지를 모둠별로 나누어 준다(활동자료 2). (같은 주제를 제시해도 좋다)</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주제 :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사회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정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비어있는 8칸에 모둠별로 한 칸에 하나씩 사례를 채워 넣도록 한다.</li> <li>③ 작성한 것을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다.</li> <li>④ 발표가 끝나면, 모둠별로 발표지를 붙여 놓고 그 중 가장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모둠원 모두가 별 스티커를 붙인다.</li> <li>⑤ 모둠별로 선정된 주요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한다.</li> <li>⑥ 모둠별로 선정된 최고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상황극으로 꾸민다</li> <li>⑦ 상황극을 발표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황극으로 발표된 해결방안에 대해 다른 모둠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li> <li>② 활동을 통해 얻은 인권 관련 지식과 느낌을 나눈다.</li> <li>③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나눈다.</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도자는 활동 중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 지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한다.</li> <li>② 보조지도자는 활동 시작하기 전에 활동에 필요한 인권 관련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li> <li>③ 모둠원이 4~5명일 때에는 적어도 3모둠 당 1명의 보조지도자를 배치하여 활동과 관련된 교육내용과 사례를 설명해 준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인권조항 알리지

생활 영역	권 리 의 내 용	조 항
가정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제6조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	제18조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제9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제12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 방임, 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9조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제11조, 제20조, 제21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	제26조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7조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제16조
학교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제6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제12조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표현할 자유	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15조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6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9조
	무상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8조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제29조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제31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6조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를 알 권리	제42조	
사회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제17조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제31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32조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3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4조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고문과 사형, 기타 비인간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	제37조
	형사절차에 놓인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권리	제39조, 제40조

▶ 자료 2 : 질문지

	<p>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침해 받는 경우</p>	

	<p>사회에서 나의 인권을 침해 받는 경우</p>	

	<p>가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p>	

	<p>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p>	

▶ 자료 3 : 발표지의 예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안 끝내줄 때	급식 식중독	부모·보호자 학대, 폭력 수업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40대를 맞음(멍듦)
두발자유	<b>학교에서 나의 인권을 침해 받는 경우</b>	대광중 종교문제
떠들면 전체 점수를 깎는다.	수영하기 싫는데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벌을 세움.	학교에 불량씨클 때문에 금품갈취, 폭력, 집단폭력을 경험함.

금품갈취	청소년 학대(선배)	일당 안 주는 것.
자유를 박탈당함(방학무)	<b>사회에서 나의 인권을 침해 받는 경우</b>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식중독	사람무시(인격)	사회로 나간 청소년을 추방하는 것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왕따	가정이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나의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	용돈을 안주는 경우
머리 자르기 싫은데 자르라고 했던 것	엄마가 일기를 훑쳐보는 경우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것

아프리카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 하는 아이들이 많다.	부모나 자식들을 학대하는 일이 많다.	청소년들을 공부만 시키고 학원을 다니게 하느라 자유롭지 못하다.
가출하는 청소년들..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스토킹을 하는 등(사생활 침해)
그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이 되어 버리면 생존 발달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구입하게 하고 먹게 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등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

☞ 참조 및 심화자료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 활동 3. 우리의 미래

개요	참여자들은 이 활동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심사를 끌어내어 생각하고 토론한다. 다를 쟁점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환경, 청소년과 가족, 공동체 생활이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생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개발하기.</li> <li>•공개토론 기술, 팀 협력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술향상.</li> <li>•모든 청소년들은 이 세상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li> </ul>		
등급	고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15~20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벌그림을 그릴 종이</li> <li>•마지막 디자인을 위한 큰 종이 여러 장</li> <li>•물감, 펜과 매직펜들</li> <li>•플라쥬에 필요한 색종이, 잡지, 작은 나뭇가지, 쌀, 콩, 낙엽, 조개껍데기 따위</li> <li>•풀</li> <li>•동네나 마을이 10년이나 20년 전에는 어땠는지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림(선택사항)</li> </ul>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간에 따른 변화의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활동자료 1).</li> <li>② 자기가 바꿀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유롭게 토론하게 한다.</li> <li>③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인권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한다. 인권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은 미래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중요해 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3-4명으로 된 모둠을 만들게 한다.</li> <li>② 종이와 펜을 나누어주고 미래의 이상형이 되는 마을을 그려보게 한다.</li> <li>③ 각 모둠이 초안에 동의했다면 큰 종이에 물감과 플라쥬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한다.</li> <li>④ 이 작업이 끝나면 모든 모둠이 완성한 그림을 차례대로 발표하고 아이디어 출처와 개발방법도 발표하게 한다.</li> <li>⑤ 모둠 발표가 다 끝나면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주고 더 보편적인 토론은 분석시간에 실시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람들이 모둠에서 어떻게 협력하였는가? 어떻게 그 일을 수행했는지 간단히 돌아보면서 시작한다(활동자료 2).</li> <li>②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과정과 여기에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생각해본다.</li> <li>③ 의회모임이나 선거에 참여하고 학교, 클럽, 협회 같은 곳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본다.</li> <li>④ 계획을 지역의회에 가져가 동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 시작 전에 지도자를 위한 조언을 숙지한다(활동자료 3).</li> <li>② 세계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할 수도 있다(예: 인터넷).</li> <li>③ 참여자들이 미래의 마을이 어떠할지 확신하지 못하면 활동자료 3-②을 활용한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시간에 따른 변화의 개념

시간에 따른 변화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 그 때 살던 집과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라고 한다. 훈련센터에 있는 방들의 디자인을 새롭게 한 적이 있거나 가구가 바뀐 적이 있는가? 동네에 새로운 건물들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또 누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워지도록 결정했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 ▶ 자료 2 : 지도자가 사용할 질문

- 모두 다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이 작품에 기여할 수 있었는가?
- 각 소그룹들은 자기 구성원들의 재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했는가?
- 그들의 계획(그림으로 나타낸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
- 다른 팀들의 계획에 피드백을 제공할 때 느낌은 어땠는가?
- 만약 한 그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희망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단일 그룹 계획을 고안해야만 한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및 계획들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 본 기분을 즐겼는가?
- 자신들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 성인들이 청소년 자신들의 계획을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 발표된 계획들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
- 미래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는 무엇일까?
- 미래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의무는 무엇일까?
-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형성할 민주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현재 청소년들이 취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인가?

### ▶ 자료 3 : 지도자를 위한 조언

- ① 이 활동의 제목은 “우리의 미래”이다. 이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미래들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당면한 도전은 그들의 이상과 열망을 반영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변화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은 아마도 그들의 마을이 10년 혹은 20년 전에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보여주는 옛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세계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과학 공상에나 나올 법한데 몇 년 만 지나면 세계의 모든 학교와 도서관들이 인터넷 웹에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②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누가 여기에 살 것인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새로 온 사람들? 나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 가족끼리 살게 될까?
-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음식은 어디에서 사 먹을까? 여행은 어떻게 할까?
- 병원, 치과와 같은 복지서비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
- 학교는 어떤 식일까?
- 사회생활은 어떻게? 여가활동으로 무엇을 할까?
- 애완동물은 기를까?
- 어떤 일을 하게 될까?
- 어떤 새로운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있을까?
- 환경은 어떤가?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일까?

③ 약간 다른 방법으로 “미래의 바퀴”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작은 모둠으로 모여 함께 하도록 하라. 각 그룹은 한 쟁점을 맡아서(예를 들어, 교육, 가족, 공동체, 고용 혹은 보건) 그 주제에 대한 미래의 바퀴를 그린다. 예를 들어, 환경바퀴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구성된 축과 그 주변에 다른 원을 갖는다. 바퀴살은 바퀴를 여러 섹션으로 나누고 그 섹션에 사람들은 금연, 전기자동차, 많은 나무들, 깨끗한 강, 유기농법과 같은 사항들을 적어 넣는다.

## 심화자료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enseil de l'Europe.

### Ⅲ. 자유 영역 프로그램

1. 생명권 활동
2. 자주권 활동
3. 정치적·법적 권리 활동



# 1. 생명권 활동

## 활동 1. 삶의 사슬

개요	참가자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의 삶의 사슬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탐구할 사항은 사람들과 비 생물의 상호의존, 인간 활동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사람들과 비 생물의 상호의존을 자각하기.</li> <li>❷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과 그 결과를 평가하기.</li> <li>❸ 생명의 진가를 존중하기.</li> </ul>		
등급	초급	활동시간	30분
참가인원	10명 이상	지도자	전체진행자 1명, 보조진행자 1명
준비물	꼬나풀 몽치나 굵은 실 몽치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참가자들에게 원을 만들게 한 다음 삶의 사슬을 실제로 만들라고 설명한다.		
전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활동을 시작한다. 꼬나풀몽치를 손에 쥐고 초록색 식물의 이름을 낸다(예: 양배추).</li> <li>❷ 꼬나풀 끝을 붙잡고 이 몽치를 다른 참가자에게 던지는데 이 다른 참가자는 이것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결된다. 꼬나풀을 잡은 사람은 이번에는 양배추를 먹는 동물 이름을 대야 한다(예: 애벌레).</li> <li>❸ 이 몽치를 방금 붙잡은 사람은 애벌레를 먹는 동물, 예를 들어 새를 대야 한다. 지빠귀처럼 특별한 한 종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이름을 대고 실 몽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진다.</li> <li>❹ 이 원 안에서 꼬나풀몽치가 왔다 갔다 하게 하여 “삶의 사슬”을 다 만들어낼 때까지 이 놀이를 계속 한다.</li> </ul>		
전개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가위 1개를 들고서 삶의 사슬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건들의 예(예를 들어 경작에 적합한 땅에다 길을 내버리거나 대구를 지나치게 마구 잡아들이는 것)를 참가자들에게 요청한다.</li> <li>❷ 예를 들 때마다 가위로 꼬나풀을 자른다.</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삶의 사슬이 점차로 파괴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참가자들에게 묻는 것으로 평가를 시작한다(활동자료1, 2).</li> <li>❷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수할 문제와 써야 할 대책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li> <li>❸ 환경 분야에서 성공한 실례를 떠올려서 짧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맺는다. 희망은 앞으로 올 세대가 만족하도록 환경을 향구하게 가꾸어 보존하는 것이다.</li> </ul>		
유의사항	<p>진행자는 활동자료 3을 참고하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모든 사슬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li> <li>❷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인도하는 말을 한다.</li> <li>❸ 진행자는 토론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정한 정신을 유지한다.</li> <li>❹ 이 활동의 핵심은 환경보호로 이룩한 발전이나 앞으로 실천할 사항을 토론하는 것이다.</li> <li>❺ 인간의 권리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미리 참고자료를 읽는 게 좋겠다.</li> </u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진행자를 위한 보충정보

자연의 규칙은 상호 의존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과 비 생물들은 순환하며(예를 들어 탄소의 순환과 물의 순환) 관계한다. 먹이사슬은 이 순환의 한 부분이다. 한 식물이 태양에너지, 땅의 광물, 먹고 자라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먹이사슬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배추 하나가 소비될 때 이 양배추 잎에 저장된 광물과 힘은 애벌레가 살고 성장하기 위해 쓴다. 모든 동물은 저마다 다른 동물에게 먹히고 그렇게 해서 광물과 힘은 사슬의 고리에서 고리로 전해진다. 먹이사슬 끝에 있는 어떤 동물이 죽으면 그의 시체가 썩고 박테리아가 이 시체를 “먹는다”. 새로운 사슬을 시작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동물시체의 무기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 ▶ 자료 2 : 진행자가 참가자들에게 하는 질문의 예

- 다른 먹이사슬에 들어가 있는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대기가 쉬웠는가? 참가자들은 자연사 지식이 있었는가?
- 환경보호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자연의 균형은 매우 복잡하고 결정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경작지로 대체하려고 산림을 베어내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 경제, 사회와 문화권에 관련된 국제협약 1항은 “모든 국민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과 자연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개인들이 그들의 환경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것을 뜻하는가?
-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음식을 주어 건강에 유익한 환경. 이것은 삶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 환경과 개발할 권리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의무가 아닌가?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 ▶ 자료 3 : 진행자를 위한 보충정보

- 모든 사슬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어 풀→양→사람, 또는 플랑크톤→고래 또는 플랑크톤→청어→돼지[돼지에게는 흔히 물고기 구아노(\*조분석 비료)를 먹인다]→사람→호랑이! 동물이 죽으면 박테리아가 그 몸을 파괴하고, 형성된 광물은 초록색 식물이 다시 사용한다. 영속하는 삶의 무수한 이 순환은 삶의 사슬을 이루기 위하여 교차한다.
- 숲, 산, 땅, 늪, 연못, 강과 바다의 서식 환경..... 으로 된 생태계에서 수많은 이루어지는 온갖 종류의 사슬을 참가자들이 상상하도록 이끈다. “이제 광물질이 바다로 떠내려갔다. 피토(\*식물)플랑크톤이 이 광물질을 먹을 것이다.” “지금,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먹은 갈매기가 섬으로 날아가 그곳 경작지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참가자가 그 다음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면 모둠에게서 자문을 구하라고 권한다.

- 2부에서 사슬이 파괴될 때 무턱대고 가위질을 한다. 처음에 한 가위질로는 삶의 사슬의 균형상태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계속 가위질을 함으로써 삶의 사슬 체계가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마침내 땅위에 조각난 실들이 많이 쌓이고 참가자들은 그 둘레에서 쓸모없게 된 실 꼬트머리를 붙잡고 있게 된다.
- 진행자는 2부에서 “이 사슬을 망가뜨리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논쟁을 필요로 하는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들인 참가자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진행자는 이 관점을 기억해두고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한다. 어쨌든 진행자는 이 단계에서 논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고와 평가 때 마지막에 이 문제들을 다시 이야기한다.
- 진행자가 토론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정한 정신을 유지한다. 환경에 미치는 사람의 활동 결과를 분석한다.
- 파괴된 사슬은 강력한 이미지를 준다. 따라서 잘 된 환경보호의 실례를 들어 토론하거나 짧게 성찰하도록 제안한다. 계속해서 환경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참가자가 무엇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세계의 상황은 물론 염려스럽지만 이런 광범한 일 앞에서 곳곳하게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이 활동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토론에서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은 재미있지 않을까? 환경은 도구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가? 동물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
- 자원을 항구하게 사용하려면 정치의지, 시간, 노력, 돈이 필요하다. 여러 나라에서 무기와 군사계획에 이런 자원을 투자하는 대신 환경교육, 과학연구와 보호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
- 환경계획에 참여한다. 유럽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데에 참가한 자치단체나 청소년유럽환경(YEE)과 만나본다. [www.ecn.cz/yee/](http://www.ecn.cz/yee/) 지방 환경단체와 만나고 환경을 존중하는 소비자로서 사는 방식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다.

## 심화자료

-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onseil de l'Europe.

## 활동 2. 내일이 오면

개요	이 활동은 정보지와 토론을 이용해 범죄자의 권리, 사형, 범죄자로부터 사회보호와 같은 이슈를 탐구한다.		
목표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조사하고 사형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기. 우리의 청취기술 확인과 정보 해석을 알아보기. 인간존엄과 정의의식 추구.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상관 없음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2명
준비물	'내일이 오면' 유인물 참가자 모두에게 1장씩(활동자료). 참가자 전원이 쓸 종지와 필기구.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내일이 오면'의 1부를 참가자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전개 1. 1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읽기가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들은 내용의 주된 요점을 기억하여 자기 글로 적도록 한다. 이제 사람들에게 서로 짝을 지어 자기가 적은 것을 나누어 읽고 저마다 자기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li> <li>② 몇몇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자원하여 읽도록 초대한다. 그 다음 각 글의 차이에 대해 토론한다(활동자료 1).</li> <li>③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물어본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li> </ol>		
전개 2. 2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문스크랩과 드와이트의 이야기를 읽어준다(활동자료 5).</li> <li>② 10-15분을 주어 새로운 정보를 짚끼리 토론하게 한다. 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내일이 오면' 용지를 준다.</li> <li>③ 참가자들이 활동자료 2에 있는 질문을 생각하라고 청한다(활동자료 2).</li> <li>④ 이 이슈를 전체 토론에 붙이고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많은 짝들에게서 구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활동은 또 다른 활동과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이슈들을 유발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시간에는 모임에서 고려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낫다(활동자료 3).</li> <li>② 활동을 끝내고 제기된 이슈를 계속 토론해본다(활동자료 4).</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부를 읽고 난 뒤 토론할 때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참가자들에게 이 두 인물의 인상을 물어보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과거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자들의 인간다운 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li> <li>② 1단계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쓴 글을 바꿔보도록 할 때 다만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자기가 쓴 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li> <li>③ 옆 사람과 아주 다른 요지를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물어보게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빠뜨린 정보를 왜 몇몇 사람은 기억했는지 물어본다.</li> <li>④ 이 활동은 너무 많은 이슈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틀에서 토론하도록 한다(활동자료 4).</li> </ol>		

## ㉑ 활동자료

### ▶ 자료 1 : 지도자를 위한 질문안내

- 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세히 기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② 본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없었나요?

### ▶ 자료 2 : 지도자를 위한 질문안내

- ① 드와이트나 나농이 사형수 명단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이 바뀐 사실을 발견했는가?
- ② 어떻게 변했는가? 왜 변했는가?
- ③ “만약 자네가 다른 사람들을 이 시스템이 판단한 것처럼 판단하면 자네도 자네를 죽음으로 정죄한 사람들보다 나을 바가 없네.” 드와이트는 이 말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 ▶ 자료 3 : 지도자가 사용할 질문안내

아래 질문은 큰 종이나 플립 차트에 적어 놓고 사용한다.

- 이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 가르친 게 있는가?
- 이 활동이 자신의 기존 견해나 신조를 재고하도록 하였는가?
- 이 활동이 나타내려 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이 활동이 그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아니라면 왜 그런가?
- 이 활동이 살 권리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토론에서 또 다른 권리 이슈들이 제기되었는가?

### ▶ 자료 4 : 지도자를 위한 질문안내

토론은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다.

- ① 우리, 국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기에) 어떤 것에 근거를 두어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의 정도. 이는 아마도 국가가 자신(과 나농)을 판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드와이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국가는 실제로 (국가가 믿기에) 그들이 과거에 한 것에 근거를 두어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 ② 이른바 “비정한 범죄자들”(hardened criminals)도 그들 속에 사람다운 점이 있다. 드와이트가 말하는 “애정과 동정” 뿐 아니라 나농이 표현한, 수감의 결과로 인한 “좌절과 우울”도 마찬가지다. “살 권리”에 대해 토론할 때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권리를 “잃을” 수 있는지 토론하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비록 다른 시민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살 권리를 빼앗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 자료 4 : 지도자를 위한 후속 제안

- ① 공식 토론을 조직한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처벌 이슈: 범죄자를 가두고/거나 사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주된 목적이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범죄자의 행위를 고치려는 것인가, 혹은 복수/징벌인가?
    - 사형: 사형에 대한 찬반 논쟁은 무엇인가?
    - 국가의 안보 대 개인의 안보: 정부가 최악의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하는 고문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② Nanon의 웹사이트를 살펴본다: <http://home4.inet.tele.dk/lepan/lene/nanon.htm>  
노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서 항상 강력한 도구가 되어왔다.
  - ③ 캐나다 사형반대 연합(Canadian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CCADP)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죄수들의 글을 더 찾아 읽도록 한다([www.ccadp.org](http://www.ccadp.org)). 그런 다음 사형수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글을 써본다[ccadp 웹사이트에는 펜팔이 될 수 있는 방법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지역협회에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 알림: 원본(내일이 오면)은 CCADP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자료 5 : 유인물

① ‘내일이 오면’, 나농 윌리엄스 씀

❶ 1부

내가 진실로 인생을 이전과, 아니 내가 바랐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때는 드와이트가 죽은 다음 날이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내가 누워 있어서 날들이 그리도 지루하여 항상 미소를 보여주었던 한 친구를 생각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나는 큰 고통을 느꼈다. 내가 천천히 움직이며 문 밑에 놓인 신문지를 집어 들었을 때 신문에는 그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고 또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때로 그는 마당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나서는 “젊은이, 어떻게 지내?” 하며 소리치곤 했다. 그러면 나는 주위를 둘러 본 뒤 그를 다시 보고는 “이 사람, 누구를 젊은이라고 부르는 거지?” 하면서 우리 둘 다 웃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역에선 내가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그 때를 지금 회상해 보면, 글썸, 무척이나 슬퍼진다, 왜냐하면 분노로 주름 잡힌 내 얼굴을 퍼 줄 드와이트가 없이는 마당에 나가 있는 것을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도 바뀌었지만 난 이 새로운 방법들이 나를 언젠가는 드와이트처럼 되게 해 주길 기대한다.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나는 항상 드와이트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기억하게,” 그는 내게 말하곤 했다, “시스템은 자네가 허락할 때만 자네에게 다가설 수 있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그것을 즐기게.” 그리곤 그는 계속 말한다, “젊은이, 나는 자네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네가 여

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건 아네...”

② 2부

“..... 사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 여기 사형수 감방에. 다른 사람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 강간범, 유괴범, 강도, 아동 치한, 가학성 변태성욕자들이 있지. 하지만 그런 똑같은 일을 했지만 변화의 길을 찾아 여전히 애정과 동정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난 자네가 항상 이걸 기억하길 바라네.” 그는 사형되기 몇 주 전에 내게 말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걸 기억하게. 만약 자네가 다른 사람들을 이 시스템이 판단한 것처럼 판단한다면 자네도 자네를 죽음으로 정죄한 사람들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 말들이 내 귓가에 맴돌면서 나는 왜 그의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이리도 걸리었는지를 궁금해 한다. 물론 나는 그가 한 말을 들었고 또 그 뜻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단순히 이해하는 것과 그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나는 그가 불렀던 것처럼 어린 젊은이였을 게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을 때 참 아프게 한다.

나는 감금이란 마음의 고문이란 무기로, 우울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좌절감을 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를 지속할 정신과 의지는 소수에게만 있다. 드와이트는 자신을 사형수 명단에 놓게 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었고 그 정신으로 그는 이 시스템의 묘지에서 산송장 같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쉽지 않다는 건 아네, 젊은이,” 그는 말하곤 했다. “하지만 누구도 인생이 쉽다고 한 적은 없어. 하루하루를 그날의 가치대로 누리고 길의 끝에서 빛을 볼 수 있는 한 그 힘이 자네를 이끌도록 하게.” 이 말들은 그가 내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눈물로 남긴 마지막 말들이었다. 나는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감히 설명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내게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지금까지 지내 온 수 해를 견디고 또 앞으로 다가올 몇 해를 더 견딜 나 자신만의 힘을 찾게 하려고 한 것으로 짐작한다. 나는 내 원칙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며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또한 잊어버린 적이 없다 - 내 가족과 같이, 또 더욱 더 사랑이 그렇고, 그리고 언젠간 하늘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내일이 오면 내가 진정으로 맞게 될 내일이다.

나농 윌리엄스는 17세 때 텍사스 주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9년 동안 사형수 감방에서 보내었다.

자료: [www.ccadp.org](http://www.ccadp.org)

② 신문 스크랩

헌츠빌(Huntsville) - 1997년 10월 2일. 유죄선고를 받은 강도가 수요일 밤 9년 전 은행 강도 행각에서 자신을 저지하려던 샌 안토니오 사업가를 사살한 죄목으로 사형되었다. 드와이트(41세)는 1988년 1월 28일 샌 안토니오 북측 한 은행의 현관홀에서 자신과 실랑이를 하던 Vernon Hanan의 가슴에 총을 쏘아 죽인 혐의로 사형수 감방에 갔다.

☞ 심화자료

-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onseil de l'Europe.

### 활동 3. 저를 받아주세요.

개요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는 피난민 모임의 역할극으로 피난민의 곤경, 난민보호와 난민보호 부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논증과 같은 쟁점을 다룬다.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난민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증진.</li> <li>② 피난민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이를 부인하는 입장의 논증 이해.</li> <li>③ 고향을 탈출해야만 했던 사람들과 연대의식 도모.</li> </ol>		
등급	고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6~20 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준비물	•역할카드 •분필 •국경 낫말을 만들 도구 •종이 •펜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안내용지를 복사한다(활동자료 3). 이민국 관리, 피난민, 관찰자 각자를 위한 역할 카드를 복사한다.</li> <li>② 역할극을 위한 무대배경을 설치한다(활동자료 1).</li> </ol>		
전개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활동(피난민 그룹 역할극)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피난민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한다(활동자료 2, 활동자료 5).</li> <li>② 사람들에게 실내배치를 보여주고 활동자료 2의 내용을 읽어준다.</li> <li>③ 참가자를 세 모둠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X국의 피난민, Y국의 이민국관리들, 관찰자들의 역할을 맡게 한다(활동자료 3-①~③).</li> <li>④ '피난민'과 '이민국관리'에게 역할을 배정하고 저마다 논증을 이야기하도록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15분을 준다(활동자료 3).</li> <li>⑤ 역할극을 시작한다. 지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중단시킨다(10분이면 충분).</li> <li>⑥ 관찰자들이 피드백을 준비할 시간 5분을 준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찰자들이 역할극을 본 소견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피난민과 이민국관리역할을 한 사람들의 소감을 듣는다.</li> <li>② 이슈와 저마다 배운 것들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한다(활동자료 4).</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가자들이 피난민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본다(활동자료 5).</li> <li>② 참가자 안에 피난민이 있는지 유의한다.</li> <li>③ 역할그룹을 나눌 때 반드시 균등하게 나누지 않아도 된다.</li> <li>④ 피난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일하는 기관에 연락해서 알아본다.</li> <li>⑤ 피난민의 현실이 어떤지 알아보게 한다.</li> </ol>		

## ㉑ 활동자료

### ▶ 자료 1 : 지도자를 위한 안내

예를 들어, 무대 위에 줄을 그어 국경을 나타내거나 가구를 배치해 국경 핏말과 다소 거리를 두어 가상의 국경을 만든다. 테이블을 이민국 사무실의 카운터처럼 사용하고 이민국 사무실을 위한 입국과 관세규정 같은 표지판을 만든다.

### ▶ 자료 2 : 지도자 발언용

“X국과 Y국의 국경에 어둡고 추우며 습한 밤이 찾아 왔어요. 상당히 많은 피난민들이 X국의 전쟁을 피해 국경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Y국으로 건너가길 희망합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으며 추위에 떨고 있어요. 가진 돈도 거의 없으며 자신들의 여권 외에는 아무 서류도 갖고 있지 않아요. Y국의 이민국 관리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어떤 이들은 피난민을 통과시키려 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피난민들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으며 이민국 관리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논증들을 사용합니다.”

### ▶ 자료 3 : 유인물

#### ① 피난민의 역할 카드 : 피난민의 주장과 선택사항

당신은 당신의 주장과 전략을 준비해야만 한다. 집단으로서 주장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주장하여 개인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당신들에게 달려 있다.

당신은 아래의 주장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주장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 우리의 아이들이 굶주려 있다. 당신들에게 우리를 도울 도의적 책임이 있다.
- 우리는 돌아가면 죽는다.
- 우리에게 돈이 없다.
- 우리는 갈 데가 없다.
- 나는 고향에서 의사였다.
-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 까지만 보호를 원한다.
- 다른 피난민들은 당신의 나라에 입국이 허가되었다.

역할극 전에 다음 선택사항들을 생각해 본다:

- 이민국 관리들이 요청하면 그룹을 나눌 것인가?
- 이민국 관리들이 돌려보내려 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당신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피난민 그룹의 역할극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준비하는 동안 각 사람이 취하게 될 역할의 특징을 결정해야 한다. 나이, 성별, 가족 관계, 직업, 재산, 종교, 그리고 그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소유물 따위.

#### ② 이민국 관리들의 역할 카드 : 이민국 관리들의 주장과 선택사항

당신은 당신의 주장과 전략을 준비해야만 한다. 집단으로서 주장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개별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는 당신들에게 달려 있다.

당신은 아래의 주장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주장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 그들은 절박하다 : 그들을 되돌려 보낼 순 없다.
- 그들에겐 돈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럴 능력이 없다.
- 그들이 진정한 피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어쩌면 단순히 더 나은 생활수준을 찾고 있는 지도 모른다.
- 우리 국가는 그들 국가와 군사 및 사업 동맹국이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순 없다.
- 어쩌면 그들에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는지 모른다.
- 우리나라에는 피난민이 이미 많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은 더 부유한 나라들로 가야 한다.
- 우리가 이들을 받아 주면 다른 이들도 입국을 요구할 것이다.
- 그들은 우리말을 할 줄 모르고 우리와 종교가 다르며 우리와 다른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우리와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은 정치적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그들 중에는 테러리스트들이나 전쟁 범죄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역할극 전에 다음 선택사항들을 생각해 본다:

- 모든 피난민들을 국경을 통과시킬 것인가?
- 몇몇 피난민들만 국경을 통과시킬 것인가?
- 피난민들을 나이, 직업, 재산...등의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 대신 뭔가 다른 것을 할 것인가?

### ③ 관찰자의 역할 카드

당신은 역할극을 관찰해야 한다. 역할극이 끝나면 역할극에 대한 일반적인 피드백(의견)을 내야 한다. 한 명을 대표로 선택한다.

관찰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심해서 살펴본다.

- 피난민과 이민국 관리들이 한 상이한 역할들
- 그들이 사용하는 주장과 이 주장을 표출하는 방법
- 인권이나 피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어떻게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룹을 둘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이민국 관리들을, 다른 한 그룹은 피난민들을 관찰하도록 고려해 볼 수 있다.

### ▶ 자료 4 : 지도자가 사용할 질문

- 피난민들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공정했나?
- 피난민들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피난의 14조와 난민

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피난민들이 보호를 받을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았나? 어떻게 해서 보장 받았나/어떻게 해서 보장받지 못했나?

- 한 국가가 피난민을 돌려보낼 권리를 가져야만 하나?
- 만약 당신이 이민국 관리였다면 당신도 이렇게 했을까? 만약 피난민들이 고국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란 걸 당신이 안다면?
- 일단 당신 나라에 피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들을 맞게 되나?
- 피난민들이 당면하게 되는 수용(acceptance)에 관련된 몇몇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당신의 나라에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들이 있는가? 혹은 이웃 나라에는 있는가?
- 처음부터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자료 5

① 지도자를 위한 조언

-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 왜 피난민들이 있는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국을 등지게 하는지, 어느 나라에서 피난민이 생기며 어느 나라로 가는 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미 얼마나 알고 있는 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도자는 질의 및 평가시간을 어떻게 진행할 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어떤 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 모둠 안에 어떤 사람이 피난민일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한다. 즉 그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피난민 역할을 하는 그룹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세 모둠을 꼭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서너 명의 관찰자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나머지 사람들이 역할극을 준비하는 동안 관찰자들에게 부가 정보 용지를 나눠주어 피난민들의 권리에 대해 숙지하게 할 수도 있다.
- 배경은 춥고 습한 어두운 밤이다. 그러니 역할극을 할 때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비슷한 환경을 연출해본다. 피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국경에 있는 표지판을 외국어(혹은 꾸며낸 말)로 만들 수 있다. 그룹 2에 있는 이민국 관리들에게 표지판이 뭘 말하는지 알려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역할극을 다시 해보는데 이번에는 이민국 관리와 피난민의 역할을 바꿔서 한다. 관찰자들에게는 첫 번째 역할극과 두 번째 역할극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내게 한다. 특별히 피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는지 주시한다. X국의 피난민들을 도우려고 UNHCR(유엔인권고등판무관)가 보낸 팀을 포함한 후속 역할극을 해본다.
- 학교의 한 학급이라면 UNHCR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주제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

- 이민국관리들이 피난민들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한 논증들
- 이민국관리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한 행동들
- 피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Y국이 취해야만 하는 조치들에 대한 조언

## ② 부가 정보

매년 박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나라를 떠나야만 한다. 그들은 거의 갑자기 떠나야만 하며 자기 소유 대부분을 남겨 두어야만 한다. 이동할 때 종종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기도 한다. 많은 피난민이 자기 고향에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만다.

대부분의 피난민이 이웃나라에서 안전을 구하며 한 번에 대규모로 도착한다(이를 대규모 유입이라 부른다). 다른 피난민은 안전을 찾아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야만 하며 자기 조국과 매우 멀리 떨어진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다.

1951년, 국제연합은 현재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승인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채택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UNHCR)이란 이 기구는 협정의 실행을 감독하고 주로 인도주의 차원의 원조를 통해 피난민을 지원한다.

협정에 따르면 피난민이란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으로서 자신의 민족, 종교, 국적, 특정 회 그룹의 소속사실 혹은 정치 견해차이로 박해를 받을까 실제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피난민이 받아야 할 주된 보호는 그들이 박해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들 나라로 되돌아가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불역행의 권리). 이 보호는 한 정부가 피난민을 그의 고국으로 돌려보낼 제 3국으로 보내고 싶어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각 나라의 정부는 자신의 나라에서 안전을 찾고자 하는(보호(망명)를 구하는) 피난민의 주장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은 그 국가가 1951년 협정에 서명한 국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1951년 협정은 피난민들을 차별에서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안전을 찾아 가는 나라에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진정한” 피난민에 대한 정의에는 이견을 보인다. 곧 부유한 국가들은 종종 피난민들이 억압의 희생자가 아니고 단지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들을 “경제적 이주자”라고 부른다. 정부들은 종종 피난민들의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 국내실향민 (IDPs)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국내실향민이라고 부른다. IDP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실향민의 그룹이다. 유럽에서는 피난민의 숫자(2,608,380)보다 IDP의 숫자(3,252,300)가 더 많으며 대부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전 소 연방에 집중되어 있다. 피난민과 달리 그들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많은 종류의 구호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IDP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과 그들의 안녕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한 국제 토론이 진

행되어 왔다. UNHCR은 UN 사무총장이 요청할 때 몇몇 IDP 그룹들에게 원조를 제공한다.

• 전 세계 피난민 숫자

지역(2000년 1월 1일 현재)	피난민
아프리카	3,523,250
아시아	4,781,750
유럽	2,608,308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61,200
북 아메리카	636,300
오세아니아	64,500
중	11,675,380

자료: 숫자로 본 피난민, 2000 판, UNHCR 출판

• 1999년 주요 피난민 인구의 발생

발생국	주요 보호제공국	피난민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어디로 가나요?	
아프가니스탄	이란/파키스탄/인도	2,562,000
이라크	이란/사우디 아라비아/시리아	572,500
부룬디	탄자니아/D.R.콩고	525,700
시에라리온	기니/리베리아/감비아	487,200
소말리아	이디오피아/케냐/예멘/지부티	451,60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고슬라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448,700
앙골라	잠비아/D.R.콩고/콩고	350,600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40,400

자료: 숫자로 본 피난민, 2000 판, UNHCR 출판

☞ 심화자료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2. 자주권 활동

### 활동 1. 나는 도청당하고 있는가?

개요	도청당하고 있다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자신의 24시간을 감시하는 통제 시스템을 들춰보는 활동		
목표	정보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보 통신 권력을 자본과 국가가 독점하면서 개인의 정보 접근권과 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시 체계에 사는지, 이런 감시가 어떻게 개인의 자주권을 침해하는지 알도록 한다.		
등급	초급	활동시간	1시간 30분
참가인원	40명	지도자	전체 지도자, 보조 지도자
준비물	캠코더 두 개(숫자 붙일 것), 전지 5장, 크레파스 등 필기도구. 신문, 잡지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작하기 전에 캠코더 두 개(캠코더에는 '3', '7'이라는 숫자를 써 놓는다)를 교실에 비치한다.</li> <li>2 수업이 시작되면, 참석자들에게 교실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짧은 시간 동안 캠코더를 찾으라고 말한다.</li> <li>3 참석자들이 캠코더를 찾아오면,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빠진 숫자의 캠코더가 어디엔가 있다는 암시를 준다).</li> <li>4 강의가 끝날 때까지 캠코더가 참석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암시한다.</li> </ol>		
전개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늘은 사생활과 자유에 관한 교육을 한다고 알려준다.</li> <li>2 자신의 하루 일과에서, 감시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하게 한다.</li> <li>3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가 감시자 같지 않은가? 학교에서 공개된 게시판에 성적이 공개된 적은 없는가? 컴퓨터 공간에서는 어떤 개인 정보 침해가 있을까? 같은 사례를 찾게 한다.</li> <li>4 이것을 나의 24시로 만들어서, 조별로 토론하고, 그림으로 그리거나, 잡지를 이용하여 플라쥬 해서 발표하게 한다.</li> </ol>		
전개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입에서 찾아내지 못한 캠코더에 대해 이야기 한다.</li> <li>2 감시당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묻는다.</li> <li>3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감시한다면, 어떤 느낌인지 말하게 한다.</li> <li>4 이런 감시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과 자주권을 침해하는지 알도록, 정보인권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알아본다.</li> <li>2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국가가 코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본다.</li> <li>3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할 경우, 회사 등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얼마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li> <li>4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쉽게 생각하고 침해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도자가 정보 인권에 대해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활동자료 1).</li> <li>2 나의 24시를 시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주거공간별로 표현할 수도 있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지도자를 위한 읽을거리

정보인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다시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월요일, 주말에 다녀온 배낭여행의 여독이 풀리지 않은 날, 출근길과 수업시간이 겹쳐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선잠을 자기에도 힘든 아침, 무심코 무가지 신문을 펼친다. '강남구 CCTV 관제센터 운영 시작,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시민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정보 인권을 선택할 것인가?' 몇 개의 무가지를 펼쳐보니, CCTV 기사인 것 같은데,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영 기분 나쁜 CCTV, 몰래카메라와 같은 느낌! 흠... 정보 인권이란 뭘까?

#### 1. 정보인권? '정보'+'인권'?

요사이 신문지상에는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쩍 눈에 띄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보'+'인권'이라는 개념, 즉 정보 분야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정보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우선 '인권'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말한다. 인권은 태어남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로, 대다수의 나라에서 국제 헌장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몇 백 년 동안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시대와 사회의 조건 속에서 부딪치고, 충돌하며 새롭게 규정되며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바로 '그 시대와 사회의 조건을 반영한, 그 시대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터넷 보급률 전 세계 1위 한국!', 'E-비즈니스로 불황을 헤쳐간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등등.. 이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정보'화라는 물결을 타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없으면, 어느 곳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시기! '정보'의 시기! 당연히 '정보'화 시대의 '인권', '정보'분야에서 '인권'은 반드시 필요한 '인권'의 분야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

#### 2. 정보인권이란 무엇일까?

정보가 확산된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축소되거나, 침해 되서는 안 되는 것을 누구나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 시대에 기존의 인권이라는 개념을 잃지 않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권'은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요사이 정보 시대의 인권은 크게 다섯 가지로- '표현의 자유', '반감시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공유권리', '정보접근권'- 이야기 할 수 있다.<sup>6)</sup> 이 다섯 가지 '정보인권'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져

6) 물론 이 다섯 가지만으로 '정보인권'의 범주를 한정지을 수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고민하는 '정보인권'의 분야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겠다. 이 다섯 가지의 분류방식은 진보네트워크에서 발간한,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권리'를 참조했다.

(<http://rights.jinbo.net>) (2002)

있다고 해서, 다섯 가지 사안이 각기 다른 분야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CCTV의 정보인권 침해' 사안은 여러 정보인권의 범주를 복합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섯 가지 정보인권의 각각의 뜻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 정치 신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시작해서 이 자유가 겉으로 표현되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날 수 있겠다. 바로 이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으로 일컫는 권리이다.

한편 이 표현의 자유는 표현 행위뿐 아니라 표현의 수령 행위, 그 사이에 정보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표현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도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총체로 보장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표현하는 '수단'인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매체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정보의 가장 큰 수단, 인터넷이다. 바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정보인권의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이다.

몇 년 전, 1960년대에 제정된 '불온통신' 규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검열 기구가 강압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면서, 인터넷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지난 200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불온통신',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되었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여전히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는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 ② 반 감시권

현재의 감시기술은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최근 대구의 한 시내버스 운전석에 관리자들이 몰래 설치한 감시카메라부터,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은행의 현금지급기, 지하철이 달려오면 그 주변을 화면 한 가득 차도록 찍는 CCTV, 강남의 주요 길거리를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있는 강남 CCTV관제센터.....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매체는 어디에나 있다. 또한 이메일이나 게시판과 같은 활동 또한 아이피 추적으로 간단히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감시가 비약하며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보'로 처리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국가권력과 기업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서,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시에 대하여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필요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바로 '반 감시권'이다. 최근 인권단체는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CCTV를 설치하고 이용하는지, 이를 통하여 얻어낸 개인이미지들을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sup>

7)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CCTV와 관련한 법제가 없다. 또한 법제화의 계획조차 진행 되지 않고 있다. 이번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

### ③ 자기정보통제권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일, 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라 일컫는 사생활에는 소극적 권리인 ‘혼자 있을 권리’와 최근 들어서 확장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의 고전 개념인 ‘혼자 있을 권리’란 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의 권리로,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영리에 이용한다던가, 주거지 침입, 통신을 엿듣기, 동의 없는 사진 촬영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함을 말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고전개념을 넘어,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sup>8)</sup>에 구체화되어있는데, 간략하게 말해서 “언제 어떠한 한계 안에서 개인의 생활사태들을 공개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sup>9)</sup>로서, 국가권력 또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시에는 원칙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CCTV가 개인의 동태적인 삶을 찍는 것부터, 인감증명 발급 시,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것, 대학 도서관에서 출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 등등...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모든 개인에게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신고한 지역, 나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도용 등의 범죄사건에 사용되어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개인에게 일괄 부여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회보장제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사회보장번호는 개인의

---

기결정권,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과 동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 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 제정은 미궁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강남구는 272대의 CCTV를 포함해, 추가설치 계획까지 발표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 8)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은 1980년 9월 23일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채택된 것으로, 공적 부문 및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위협이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한다. 또 컴퓨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며,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대상으로는 인종, 양심, 범죄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청, 감청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정보주체를 속여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그 사용목적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3) 수집목적의 명확성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되고 명확한 목적을 전제한다. 수집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그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파기하여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공개, 기타의 사용에 제 공하여서는 안 된다. (5) 안전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공개의 위험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 처리시스템의 활용과 그 정책은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이용목적, 정보관리자를 식별하고, 정보처리자의 주소를 분명히 해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참여원칙의 필요조건이다. (7) 개인 참여의 원칙 :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소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 받을 권리와 자기의 정보에 대한 파기, 정정,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책임원칙 : 정보관리자는 이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
- 9)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제65권 제1쪽(42쪽).

요구에 따라 번호를 폐기할 수 있고, 재부여 되어지도록 되어있다.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이 사회가 얼마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④ 정보공유권리

정보공유권리를 말하자면, 우선 지적재산권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의 지적재산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발명이나 음악, 미술, 문학의 창작물에 대해 발명자나 창작자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법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단지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반 소유권과 다르다. 그래서 이 권리는 공공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르며, 국내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최근 글리벡(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 그것인데, 제조사인 노바티스(Novartis)는 1캡셀에 약 25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 달에 9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보통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글리벡의 실제 제조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글리벡을 좀 더 값싸게, 공공으로 부담하길 원했지만, 그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여전히도 국민들 생존을 위해 값비싼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소리바다 논쟁,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등등 시민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할 정보가 기업, 돈이 소유하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독점을 넘어서, 좀 더 정보를 시민이 공유하고, 그를 통한 정보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유권리'이다.

#### ⑤ 정보접근권

인터넷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정보화는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TV는 전원을 켜고 리모콘을 누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방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전화회선과 컴퓨터, 그리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책의 정보를 얻을 수 없듯이 컴퓨터 명령어와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컴퓨터에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실제 학력, 직업, 경제력, 지역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높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성능과 효율이 좋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체가 불편하고,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정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 많은 사람이 폭넓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정보접근권이다.

### 3. "사소한 정보는 없다."

정보인권의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다섯 가지 정보인권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

지는 못하더라도, 정보인권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정보'의 '주체'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는 바로 시민의 정보를 시민이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요사이 대학 도서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의무로 한 도서관 좌석 발급기 설치 논란이 뜨겁다.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기숙사와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을 위해 강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이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정보는 없다!"

-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 심화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3). 아시아의 인권교육. 서울: 사람생각.

## 활동 2. 거북이의 독립투쟁

개요	자신의 의사를 침해한 경우를 써보고, 거북이 나라의 독립선언문을 써본다.		
목표	누구나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표현과 생각의 자유가 있으며, 이런 것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안다.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 30분
참가인원	전체 인원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준비물	활동자료 1,2,3, 필기도구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참견해서 불쾌했던 상황을 활동자료1에 맞춰 작성해 본다.</li> <li>❷ 작성한 사람들은 (모듬별로) 발표한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전체 지도자는 “거북이 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 모듬은 거북이 나라 신문사입니다. 거북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거북이 신문사들은 글을 완성해 봅시다. 단, 토끼 국장의 검열을 통과해야 합니다.”하고 말한다(각 모듬에서 1명씩 토끼 국장을 뽑고 토끼 국장은 거북이들에게 검열 단어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li> <li>❷ 각 모듬별로 토끼 국장의 검열을 피해 가며 열심히 글을 완성해 본다(활동자료2, 3). 토끼 국장은 계속 검열 단어를 삭제한다.</li> <li>❸ 각 신문사는 글을 발표한다. (모듬별로 발표한다)</li> <li>❹ 모듬별 발표에 대해 토끼 국장은 검열 단어가 나온 것이 몇 회 이상인지 말해주고 위 독립선언문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li> <li>❺ 발표가 끝나면, 전체 지도자는 토끼 국장에게 검열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어본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위와 같이 사람의 생각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이 많았는가?</li> <li>❷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li> </ol>		
유의점	❶ 지도자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사례나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사례들을 알려준다.		

### 📖 활동자료

▶ 자료 1 : 내 의견을 무시하고 침해했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는 나의 일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내 경험을 돌아 보서, 가장 무시당하고 침해받았던 상황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자.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성인의 말	성인의 몸짓	성인의 표정	성인의 행동
청소년의 말	청소년의 몸짓	청소년의 표정	청소년의 행동
나의 반응 / 생각			



▶ 자료 3 : 토끼국장의 검열 낱말표

토끼 국장들만 보세요. 토끼 국장들은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면 검열을 합니다.

- 거북이
- 지배
- 검열
- 자유로운 생각
- 독립
- 자유
- 집회
- 인권
- 민족
- 민주주의
- 열사
- 저항
- 평등
- 진보

☞ 심화자료

인권교육교사모임(2003). 애들아, 인권 공부하자. 서울: 사람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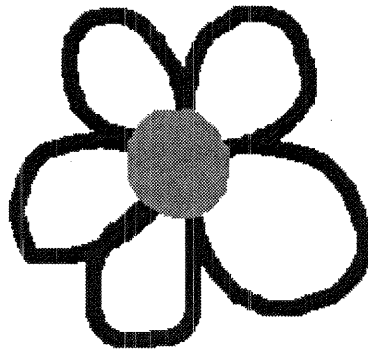
### 활동 3. 망가진 꽃밭 - 난민 알기

<b>개요</b>	다양한 피부색과 생김새를 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국가가 없을 경우를 체험한 다음, 영화를 보고 난민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b>목표</b>	개인의 소중한 것들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한다. 난민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b>등급</b>	고급	<b>활동시간</b>	1시간~2시간
<b>참가인원</b>	40명(한 모둠을 8~10명으로 구성)	<b>지도자</b>	전체지도자 1명, 보조 지도자 4~5명
<b>준비물</b>	다섯 개의 꽃잎이 달린 꽃 그림 40개를 오린 것, 스카치 테이프, 전지 5장, 크레파스 등 필기도구, 영상물(난민 관련 영상물), 전지와 크레파스 등 필기도구		
<b>활동과정</b>	<b>활동방법 및 내용</b>		
<b>도입</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지도자는 참석자 모두에게 꽃(활동자료 1)을 하나씩 나눠준다.</li> <li>❷ 지도자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각 꽃잎에 하나씩 쓰고, 가운데는 자신의 이름이나 별칭을 쓰라고 한다.</li> <li>❸ 참석자들이 다 쓰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것을 발표하고 앞으로 나와 칠판이나 전지 등 준비된 곳에 꽃을 붙이도록 한다.</li> </ol>		
<b>전개1</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꽃을 다 붙였으면, 지도자는 참석자들에게 느낌을 묻고 그것을 칠판에 적는다.</li> <li>❷ 지도자는 이것이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라고 말해 준다. 그리고 참석자들의 느낌을 물어본 다음, 칠판에 쓴다.(예쁘다, 다양하다, 조화롭다.....)</li> <li>❸ ❷를 마쳤으면, 지도자는 몇 개의 꽃을 구기거나 찢는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폭력에 노출되거나 인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li> <li>❹ 참석자들이 당황해 하면, "이보다 더 한 것은 모든 꽃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때"라고 말하면서, 많은 꽃을 구기고 찢고, 때로는 뜯어 버린다.</li> <li>❺ 지도자는 다시 한 번 느낌을 묻고, 그것을 칠판에 적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말해준다.</li> </ol>		
<b>전개2</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난민 관련 영상물(활동 자료2)을 통해서 난민 문제를 알게 한다.</li> <li>❷ 영상에서 나타난 난민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활동자료3).</li> <li>❸ 이런 위협을 역삼각형 구조로 만들어보게 한다(활동자료 4의 예를 들어주고 이처럼 만들게 한다). 각각의 버팀목(다리)에 이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적게 한다.</li> <li>❹ 난민문제를 야기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제거되면, 역삼각형 구조의 인권문제는 넘어져버리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li> </ol>		
<b>전개3</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참석자들을 모둠별로 나누어 느낌을 공유한다.</li> <li>❷ 꽃밭이 망가지게 될 상황을 설정하게 한다.</li> <li>❸ 각 모둠별로 전개1-❷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li> <li>❹ 모둠별로 쓴 것을 발표한다. 발표할 시간이 없다면 교육이 이뤄지는 곳의 벽면에 붙이도록 한다.</li> </ol>		

<b>유의점</b>	<p>① 자기소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첫 시간에 어색한 분위기 깨기 프로그램으로 도입해도 좋다.</p> <p>② 전개1-①에서는 긍정의 느낌을, 전개1-⑤는 부정의 느낌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p> <p>③ 전개1의 활동은 참석자들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다.</p> <p>④ 지도자는 전개1-⑤이후에 구겨진 꽃잎을 펴보고, 떨어진 꽃잎을 새로 붙이고, 찢어진 꽃잎을 다시 이어 붙이면서, “한번 파괴된 꽃은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인권은 침해받기 이전에 보호 받고 누려야 할 것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p> <p>⑤ 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가 잘 몰랐던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이해를 돕는다.</p>
------------	---

## ☞ 활동자료

- ▶ 자료 1 : 다양한 색상의 색종이에 그림을 꼭 차게 그린 뒤 오려서 준비한다.



- ▶ 자료 2 : 영상 자료

- 탈북소년들 중국에 가다(35분) - 변재성 감독
- 난민캠프(47분) -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http://www.sarangbang.or.kr) 배금

- ▶ 자료 3 : 평가 질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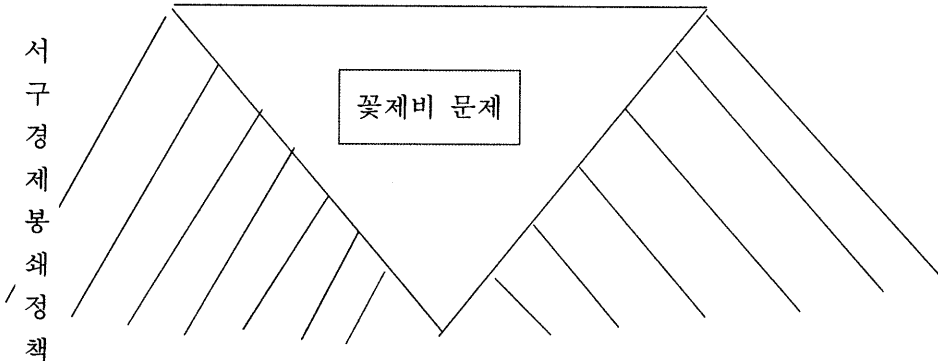
① 상황 설정을 위한 1차 토론

- 꽃밭이 망가졌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
-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예: 전쟁, 식민지, 자연 재해,..)에서 식민지의 경우, 국민이 당하는 인권 침해로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 보자.

② 인권을 위한 노력 2차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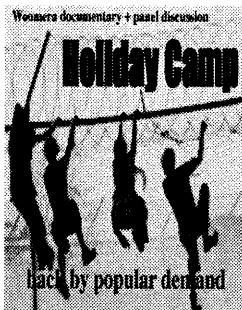
- 일제시대, 팔레스타인 난민, 체첸 난민, 티벳 독립 운동을 통해, 난민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 자료 4 : 역삼각형



심화자료

난민캠프(Holiday camp)



>> 제니퍼 라이언스 라이드 & 톨스턴 블랙 & 칼 쿠델/ 2002/ 47분/ 다큐/ 오스트레일리아

역압받고 있는 난민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역동적인 투쟁 현장을 대담하고 인상적인 비주얼로 담아냈다. 감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강제 구금 시스템을 살펴보고 국가적 경계 건설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를 폭로한다.

### 3. 정치적·법적 권리 활동

#### 활동 1. 긴급상황 발생이다.

개요	역할극을 통해서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법적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는 지 경험한다.		
목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무시되고 억압되는 상황을 체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약되는 권리로써 법적·정치적 권리를 되돌아 보게 한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등급	초급	활동시간	1시간~1시간20분
참가인원	40명~60명	지도자	전체 지도자 1명, 보조 지도자 5명
준비물	활동자료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석자들은 모자에 자기 이름을 단다.</li> <li>② 전체 지도자의 재량에 따라 교실을 통치할 한 사람을 선정한다.</li> <li>③ 이때 그 참석자는 자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모든 법을 반포하고, 이 법은 5분 정도 효력을 발휘한다(타인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도자도 이 규칙을 따른다).</li> <li>④ 이를 두세 번 반복하는데, 그 때마다 새로운 독재자를 뽑는다.</li> </ol>		
전개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조 지도자가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사정상 중지해야 함을 알린다.</li> <li>②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문제 삼은 부모님(교사)이 교육청에 고발하여 교육청은 더 이상 인권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말한다.</li> <li>③ 그 대신 극기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다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다. 어느 누구도 눈을 뜨거나 말을 해서도 안 되며,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통고한다.</li> <li>④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강의실 뒤쪽에 세워 두거나 원산폭격 같은 체벌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li> <li>⑤ 앞으로 이와 같은 교육은 없을 것이며, 참여자들도 인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자치 활동 등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li> <li>⑥ 눈을 감게 한 뒤, 애국가나 스승의 은혜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한다.</li> <li>⑦ 노래를 부르는 동안 청소년들의 가방이나 그밖에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다.</li> <li>⑧ 청소년들이 당황하는 분위기이면 상황은 종료된다.</li> </ol>		

전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전체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다.</li> <li>❷ 지도자는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외부에서 강제하는 압력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어떤 느낌을 받는지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청소년들에게 이해를 구한다.</li> <li>❸ 수고한 보조 지도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 간다.</li> <li>❹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제12조에서 제17조(활동자료1)를 함께 낭독한다.</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만약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이야기해본다.</li> <li>❷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말하게 한다.</li> <li>❸ 실제 이런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발표하게 한다.</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전개2를 진행하는 보조 지도자는 교사의 역할극임을 잊지 말고 적절하게 연기해야한다.</li> <li>❷ 전개2를 진행하는 동안 전체 지도자는 침묵하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다른 지도자는 상황을 이끌어 가는 보조 지도자들을 도와서 강압하는 분위기를 만든다.</li> <li>❸ 청소년들의 반론이 격해지기 전에 상황을 종료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운영해야한다.</li> </ul>

## ☞ 활동자료

### ▶ 자료 1 : UN아동·청소년 권리협약

####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심화자료

강순원·김종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9). 아시아의 인권교육.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활동 2. 인권지도 그리기-법은 우리의 권리

개요	규칙의 필요를 이해하고, 인권지도를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나 규칙을 찾아낸 다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법이나 규칙을 바꾸어 본다.		
목표	자신의 상황에서 부당한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이 우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알고, 잘못된 법이 있을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1시간 30분
참가인원	40명~60명	지도자	전체 지도자 1명, 보조 지도자
준비물	각 모듈별 진지, 크레파스, 별도의 색지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li> <li>② 운동 종목을 말하게 한 다음 그 종목의 규칙들을 발표하게 한다.</li> <li>③ 규칙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듣는다.</li> </ol>		
도입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자료 1과 같은 새로운 규칙들을(이 밖에 지도자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좋다) 칠판에 쓴다.</li> <li>② 이런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전체에게 물어본다.</li> <li>③ 왜 공정하지 않은지 이유를 들어본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듈별로 나누어 '학교' '사회' 또는 '수련 장소' 같이 인권지도를 그릴 장소를 선택하도록 한다.</li> <li>② 장소가 선택되면 그 장소의 주변 지도와 내부 구조도를 한 눈에 들어오게 그리도록 한다.</li> <li>③ 선택된 장소 곳곳에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그 규칙들 중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규칙이나 법이 있는지 토론하도록 한다(활동자료2-①,②).</li> <li>④ 그러한 규칙이나 법은 빨간 색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규칙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은 별도의 색지에 써서 붙이도록 한다.</li> <li>⑤ 조별 보조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이 인권지도를 그리기 위한 규칙들을 분석하는 근거로 활동자료 3-②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li> <li>⑥ 토론과 활동이 끝나면 발표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한다(활동자료 3-①).</li> <li>② 지도자는 참석자들에게 (활동자료 3-②)의 관점으로 문제제기를 한다.</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도 그리는데 어려움을 생각하는 참석자가 있다. 간단한 예시 그림을 통해서, 지도 그림을 도와야 한다.</li> <li>② 같은 학교를 다니는 등, 공통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참석자들이 한 조로 구성되어야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li> </ol>		

## ㉞ 활동자료

### ▶ 자료 1 :

- 1월에 태어난 모든 청소년들은 점심식사를 굶는다.
- 남학생들만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여학생들은 일어서서 강의를 들어라.
- 안경 낀 학생들은 이번 캠프의 야외 놀이(물놀이)에 참여할 수 없다.

### ▶ 자료 2 :

#### ①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운동

2004년 6월 16일,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강의석 학생이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의석 학생의 시위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배정된 청소년들이 신앙 고백과 종교의식 참여, 종교과목 수강 등을 강요받고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시위였다.

시위 사실이 알려지자 '아름다운종교사랑'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석 학생의 주장을 지지하고 전국 사립학교에서의 종교 강요 행태를 고발하는 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강의석 학생에게 전학을 가지 않으면 제적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각계 단체에서는 학교 측에 징계 위협과 전학 강요를 중단하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의석 학생이 전학을 거부하자, 학교 측은 7월 8일 강의석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제적을 통보했다. 제적 사유는 학생 선동, 교사 지도 불응,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이었다. 그러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자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교육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왔다. 또한 학교측이 제시한 사유가 징계 사유로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진술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징계를 결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적법한 징계절차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29일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퇴학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 후 8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강의석 학생과 학교 측 사이에 합의가 성사됐다. 합의서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등에 대해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강의석 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담기지 못했다. 이어 9월 1 일에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의 결정은 학교 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 ② 노동권 침해 현황

청소년들은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일을 그만두는 단계까지 △근로계약서 미체결 △취직 인허 증 미발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산업재해 미보상 △폭언·폭행 △성희롱 △부당해고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위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당한 노동권 침해 유형 가운데 ‘근로시간의 과다’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약정 임금 미달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14.2%, ‘임금체불’ 7.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고교생 가운데 13.1%가 폭행이나 욕설, 인격모독 등을 당했으며, 34.2%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응답했다.

그 외 노동부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휴일수당 미지급과 불법 야간노동이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노동부가 2004년 7월 롯데리아, KFC 등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모두 1만4053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21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만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취직인허증을 발부받지 않고 인가 없이 야간노동 등을 강요한 사례도 4265건이나 적발되었다. 실제 2003년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을 통틀어 노동부가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건수는 2002년에 3건, 2003년에는 단 4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소년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부당처우를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취할 경우, 동일 업종에서의 취업이 가로막힐 것을 우려하여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피해를 입은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2004년 7월 30일 참여연대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방학 기간 대형 업체들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뿐, 청소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주유소, 피자방,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의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단순한 시정 지시 수준에 그칠 뿐 사법처리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 ▶ 자료 3 : 평가 질문지

#### ① 참석자를 위한 질문

- 규칙은 왜 존재하는 지 생각해 보자.
-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있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 논의해 보자.
- 청소년으로써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게 하는 법이나 제도,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자.

② 지도자를 위한 질문

- 생명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가.
-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은 없는가.
- 나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가.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다.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
-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
-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 집단 괴롭힘 등 학생들 간의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심화자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2003). 애들이 인권 공부하자 - 사람 생각.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김영지 외(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활동 3. 선거권 - 청소년인권 40분 토론

개요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선거 연령의 쟁점을 뽑아낸 후, 100분 토론의 형식을 빌어, 청소년 선거연령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 시킨다.		
목표	내용적으로는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화라는 주제가 청소년 시민권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운다.		
등급	고급	활동시간	2시간
참가인원	50명	지도자	사회자, 보조 지도자2-3명
준비물	관련 신문 기사, 넓은 책상, 의자 4개, 스티커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자는 이번 40분 토론의 주제가 ‘청소년 선거연령 16세 하향화’라고 밝힌다.</li> <li>② 4개 모둠으로 나눈다.</li> <li>③ 패널 그룹의 이름을 참가자들이 정하게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성인 청소년활동가’ ‘학부모나 교사’ ‘국회의원’...</li> <li>④ 각 그룹의 입장을 나누어 준다. 예를 들면, ‘청소년’과 ‘성인 청소년활동가’는 선거연령 16세 하향화에 찬성하는 입장, ‘학부모나 교사’ ‘국회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으로...</li> </ol>		
전개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조가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1 을 참고로 준다.(그 외에 신문 자료를 준비하면 좋다.)</li> <li>② 각자의 입장별로 토론을 준비하되, 자신들 주장을 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논점을 예상하고,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해준다.</li> <li>③ 각 조는 40분 토론에 참여할 대표를 뽑는다.</li> <li>④ 대표로 뽑힌 토론자 4명은 토론장의 패널 좌석에 착석하고, 토론을 준비한다. 토론이 시작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방청석에 앉아서 토론을 구경한다(활동 자료 2).</li> <li>⑤ 방청석에 앉은 이들은 이제부터 조별 입장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40분 토론을 지켜보아야 한다.</li> </ol>		
전개 2.	<p>&lt;터부토론 방식 도입&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방청석 중 4사람에게 터부 감시자의 역할을 준다.</li> <li>② 각 토론자들에게 터부로 사영될 단어 5개씩을 정하게 해서서 각각 터부 단어를 부여한다. 토론자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터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단어를 사용할 경우 감시자에게 스티커를 받는다(토론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토론의 내용과는 무방하다.)</li> <li>③ 사회자가 토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면, 각 패널은 자신들을 소개한다.(선 거권, 나 운동, 김 선생, 국 의원 등 재미있게)</li> <li>④ 소개가 끝나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먼저 밝힌 후, 토론에 들어간다.</li> <li>⑤ 토론중, 사회자는 방청객이 각 패널의 입장을 대신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방청객이 패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토론이 끝나기 전, 사회자는 각 패널이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도록 한다.</li> <li>⑥ 토론이 끝나면, 방청객에게 찬성, 반대의 입장을 거수로 묻는다.</li> </ol>		

<b>평가</b>	<p>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활동을 정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토론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가.</li> <li>② 처음 자신의 입장과 토론이 끝난 후, 자신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 혹시 바뀌지는 않았는가.</li> <li>③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④ 사회자는 참정권이 시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임을 설명하고, 인권의 역사는 모든 이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 투쟁한 역사임을 설명한다(심화 자료- 인권교육길잡이 참조).</li> </ol>
<b>유의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터부토론을 통해서, 토론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li> <li>② 방청객들이 토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li> <li>③ 찬반 논쟁의 방식을 쓰지만, 논점은 청소년 선거권이 청소년 시민권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이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주의한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선거연령 하향화 관련 신문 기사

#### ① 선거연령 18세 하향화 운동

지난 7월 27일부터 서울 K고 3년 이계덕 군은 “선거 가능한 나이를 만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군은 “만18세에게 선거권을 주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요? 직장인은 일하는데 방해돼요?”라고 적힌 선전물을 목에 걸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군은 “만18세면 대다수가 대학생이나 사회인이며 병역·근로·납세·교육 등 4대 의무를 다 지는데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18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단식 하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또한 “만 18세로 선거나이를 낮추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17대 총선 때 열린 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 등이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말을 바꾸네요.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의 표를 끌어가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불제라며 현금만 미리 받고 상품은 안주는 사기 아닌가요?”<sup>10)</sup>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군은 선거권 18세 조정을 위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는 17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5월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연령하향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와 함께 18세 선거권 인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민원실에서 첫 국민 청원을 접수했다. 18세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15개 청소년 단체가 모여서 조직한 회원 10여 명은 이날 1800명의 선거연령하향조정에 관한 국민 서명지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했다.

10) [문화일보] 2004-07-28 (오피니언/인물) 2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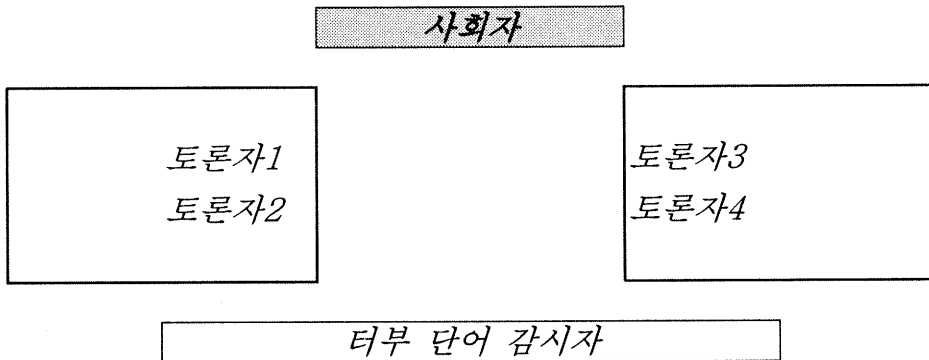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최겸(18·일산외국어고등학교 3학년)군은 “만18세 청소년에게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있지만 선거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한 나라의 구성원이 아닌 과도한 통제와 권리를 유보시키는 대상으로만 간주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sup>11)</sup>

② 입법화 상황

민법상 성년 나이가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진 민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선거연령도 동시에 낮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 요지부동이던 선거연령은 민법 개정에 따라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이미 18세를 정치적 성년으로 규정했고,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선거권 나이를 현행 20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김태홍·원혜영·임종석·최용규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36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 등은 “지속적인 경제·문화·교육 수준 향상과 민주화, 언론매체의 발달 등을 감안하면 18살이라도 정치적 판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18살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열린 우리당 내부에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화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세 방침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역시 당론으로 선거연령을 19세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개정에 맞춰 선거법이 개정되면 늦어도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하향화된 선거연령이 적용될 예정이다.<sup>12)</sup>

▶ 자료 2 : 토론 자리 배치



방청석 (관찰자)

11) 오마이뉴스 2004. 06. 01.

12) [경향신문] 2004-06-04 (오피니언/인물) 사설 13면

## 심화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강순원·김종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 인권총서 9*. 서울: 사람생각.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enseil de l'Europe.

## IV. 평등 영역 프로그램

1. 노동과 설 권리 활동
2. 양성평등 활동
3. 반 인종차별 활동



# 1. 노동과 설 권리 활동

## 활동 1. 노동법 옷놀이

개요	옷놀이를 하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익힌다.		
목표	놀이를 통해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익힌다.		
등급	초급	활동시간	40분~1시간,
참가인원	6~8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준비물	옷, 말판, 노동법 관련 문제		
활동과정	활동방법 및 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옷놀이를 하기 좋은 인원으로 편성한다. 6~8명이 적당하다. 두 편으로 나눈다.</li> <li>❷ 옷과 말, 말판, 노동법 문제(활동 자료 1)를 나누어 갖는다.</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나누어받은 노동법 문제를 같은 편끼리 함께 읽고 공부한다. 분량을 서로 나누어 가져도 된다.</li> <li>❷ 공부 시간이 끝나면 옷놀이를 시작한다. 지도자가 문제를 내면 답을 말하는 편이 옷을 던질 수 있다.</li> <li>❸ 위기에 빠졌을 때, 3번에 한해 찬스를 사용할 수 있다. 찬스를 쓰면 지도자가 내는 문제를 먼저 맞출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문제를 맞추면 옷을 던질 수 있다.</li> <li>❹ 모든 말이 말판을 다 돈 쪽이 승리한다.(일반 옷놀이와 같다.)</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모두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돌아가면서 빠르게 한 가지 씩 말하도록 한다. 앞에서 발표한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어도 상관없다.</li> <li>❷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발표한다.</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순서대로 문제를 내도되고 문제를 먼저 맞추는 쪽이 옷을 던지도록 해도 된다.</li> <li>❷ 서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내게 해도 된다.</li> </ul>		

### ☞ 활동자료

▶ 자료 1 : 옷놀이와 함께 보는 노동법 문제

#### ① 단답형 문제

- 1) 민법에서 만 20세 미만인 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미성년자)
- 2)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몇 세 미만을 말합니까? (만19세)
- 3) 자기의 정확한 나이를 말해 보세요. (법에서 적용하는 나이는 보통 만으로 표현되는 나이입니다. 만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 일까지 따져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그리고 1주일에 ( )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2시간)
- 5) 최저 수준의 노동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보다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작업장에서 적용하

도록 강제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기준법)

- 6) 청소년보호법상 만 10세 미만자 취업 금지업소를 예를 들어 보세요.(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노래방,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성 기구 취급 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 소매업, 유독물 제조, 판매,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음반 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종합 게임장, 만화 대여업)
- 7)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한 최저 임금은 얼마입니까?(2259원)
- 8) 만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의 법정 노동 시간은? (42시간)

② O×문제

- 1) 근로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2) 미성년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만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청소년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특별히 취직인허증을 발급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 4) 만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절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5) 만 13세와 만14세는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
- 6) 만15세부터 만17세는 일을 할 수 있으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나이입니다.(○)
- 7) 만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에게는 야간 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하게 할 경우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에게는 야간 근로를 하게 할 수 없다.)
- 8) 4시간 일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 일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 9) 쉬는 시간을 줄 경우에는 이를 잘게 쪼개어 10분씩 나누어주거나 다 끝나가는 시간에 한꺼번에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 10)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 관계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심화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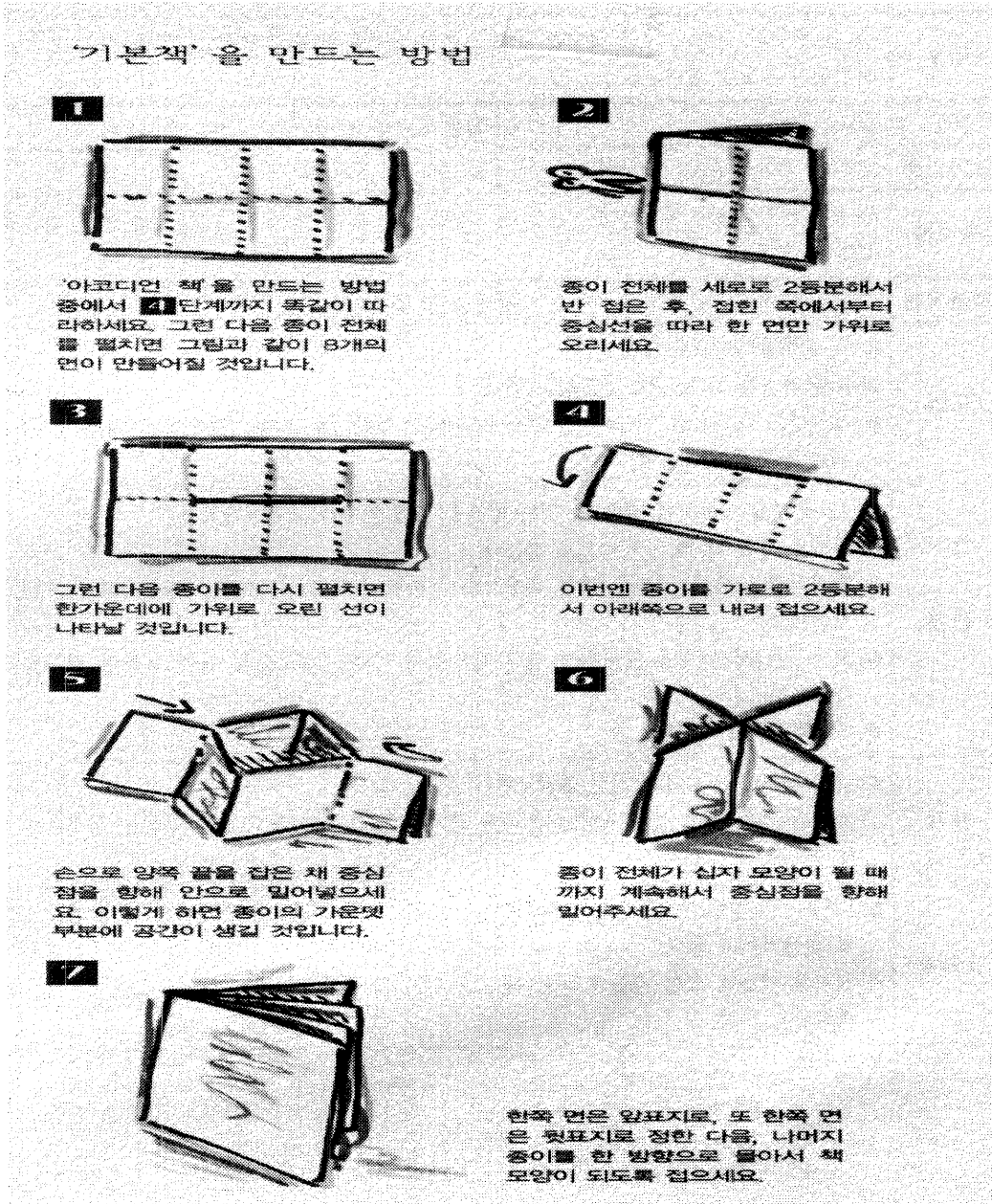
김의석 외(2004),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우리 교육

## 활동 2. 노동과 쉼 권리 안내책자 만들기

개요	안내책자 만들기 -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노동과 휴식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노동과 휴식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목표	노동과 휴식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간단한 실천 활동으로서 안내책자 만들기 활동을 한다.		
등급	중급	활동시간	2시간
참가인원	40명(한 모둠을 8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준비물	A4용지(인원수보다 넉넉하게), 전지, 풀, 가위, 크레파스, 매직, 책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스티커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 모둠을 8명으로 구성한다.</li> <li>② 모둠 대표를 뽑고 모둠 이름을 정한다.</li> <li>③ 모둠별로 준비물을 나누어 받는다. (A4용지, 전지, 풀, 가위, 크레파스, 매직,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4 용지를 이용하여 작은 책 접는 방법을 함께 연습한다(활동자료 1).</li> <li>② 전지를 작은 책 접기 방법으로 접는다.</li> <li>③ 편집회의를 통해 8면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의논한다. (활동자료 2. 편집회의 양식)</li> <li>④ 모둠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면을 완성하며, 이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를 참고한다.</li> <li>⑤ 안내책자를 완성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내 책자를 전시하고 서로 돌려보면서 평가한다. 스티커 추첨(가장 잘된 작품에 스티커 붙여주기)을 통해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 노동 관련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 만들기로 진행하여도 좋다.</li> <li>② 전지를 이용해 모둠 활동을 하는 대신, A4용지로 작은 책 만들기를 2-3인 1모둠으로 진행하여도 좋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작은 책 만드는 법



<그림 1> 이 자료는 폴 존슨(2001), 메이킹 북, 아이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자료 2 : 편집회의 양식

모듬 이름 : _____ 모듬원 : _____	
제목 : _____ 핵심 주제 : _____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 각 면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와 함께 누가 책임을 맡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심화자료

김의석 외(2004).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서울: 우리 교육  
 폴 존슨(2001). 메이킹 북. 서울: 아이북.

### 활동 3. 노동상담 -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개요	노동 피해 상담 - 각종 문제 사례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가운데, 노동과 휴식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목표	노동과 휴식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상황에서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등급	고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40명(5인 1모둠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준비물	문제 해결지(활동자료 1), 필기구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주제와 내용 그리고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li> <li>② 하나의 모둠을 5명씩으로 구성하고 대표를 정한다.</li> <li>③ 모둠별로 문제 해결지를 나누어 받는다. (문제 해결지는 4종이며 종마다 2장씩 준비한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둠별로 문제 해결지를 함께 읽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2개의 모둠이 같은 문제를 탐구하게 된다.</li> <li>② 문제 해결지를 가지고 전체가 모여 앉는다. 모둠이 함께 앉아 있도록 한다.</li> <li>③ 첫 번째 문제를 읽고 해결 방안을 해당 모둠이 발표한다.</li> <li>④ 어느 쪽이 더 좋은 해결 방안인지 나머지 학생들이 판단해 준다.</li> <li>⑤ 교사가 정답을 알려 준다(활동자료 2).</li> <li>⑥ 4개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③-⑤의 과정을 되풀이한다.</li> </ol>		
평가	어떤 점을 새롭게 배웠는지 소감을 나눈다.		
유의점	① 정답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학습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		

☞ 활동자료

▶ 자료 1 : 문제 해결지<sup>13)</sup>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1)	
소속	_____ 중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 _____
모듬원	
상황(주제)	친권자에 의한 근로 체결 대리의 금지
상황	<p>저는 헤어디자이너가 되길 희망하는 19세의 고졸 미취업생입니다. 지난 3월에 미용 학원에 등록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일반 회사에 들어가라며, 아시는 분을 통해 어떤 회사에서 일하기로 이미 정했다고 하십니다. 한 달치 월급도 미리 받아놨으니 끈적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일해야 하나요?</p>
해결 방법	

13) 학습지의 자료는 김의석 외(2004),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우리 교육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2)	
소속	_____ 중학교 ____ 학년 ____ 반 이름 : _____
모듬원	
상황(주제)	미성년자의 임금 독자 청구
상황	<p>저는 피자집에서 배달 일을 한 달 조금 넘게 하고 2 학생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급날이 돼서 피자집 사장님께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즉, 돈을 달라고 하니깐 너에게는 직접 못 주겠다, 받은 다음 받은 일 없다고 떼소리 하면 어쩌냐? 부모님 모시고 타러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피자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시다. 사실은 부모님 몰래 인터넷 스케이트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도서실 간다구 거짓말하구 아르바이트 한 걸 아시면 혼내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지요? 궁금합니다.</p>
해결 방법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3)

소속	_____ 중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 _____
모둠원	
상황(주제)	<b>위약 예정 및 임금 체불의 금지</b>
상황	<p>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숍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2 학생입니다. 제가 직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3개월 이상은 꼭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달 월급날이 되자 처음 사장님이 주시기로 한 제 월급 30만원에서 10만원은 적립금이라고 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립금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먼저 적립한 10만원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달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적이 떨어져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었고,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 월급 10만원을 못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p>
해결 방법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4)

소속	_____ 중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 _____
모듬원	
상황(주제)	야간 근로
상황	<p>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에는 낮 3시부터 밤 9시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장님이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이 그만두었다고 일할 사람을 구할 동안에만 대신 밤에 일을 해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며칠 후면 금방 다른 알바생을 구하겠거나 하구 기다렸는데요, 일주, 이주가 지나도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열받는 것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시간대에 다른 알바생을 이미 고용했더라고요. 저는 좋은 시간대를 다른 알바생에게 뺏기고 밤 시간대에만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인데요. 일거리도 많을뿐더러 술 취한 아저씨들이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 리웁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p>
해결 방법	

▶ 자료 2. 정답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1)	
상황(주제)	친권자에 의한 근로 체결 대리 금지
상황	<p>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길 희망하는 19세의 고졸 미취업생입니다. 지난 3월에 미용 학원에 등록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일반 회사에 들어가라며, 아시는 분을 통해 어떤 회사에서 일하기로 이미 정했다고 하십니다. 한 달치 월급도 미리 받아놨으니 끈작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일해야 하나요?</p>
해결 방법	<p>근로 기준법 제 65조 1항에서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어디서 일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부모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을 강요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어머니가 정한 곳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p>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2)

<p>상황(주제)</p>	<p>미성년자의 임금 독자 청구</p>
<p>상황</p>	<p>저는 피자집에서 배달 일을 한 달 조금 넘게 하고 2 학생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급날이 돼서 피자집 사장님께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즉, 돈을 달라고 하니 너에게는 직접 못 주겠다, 받은 다음 받은 일 없다고 뜯소리 하면 어쩌나? 부모님 모시고 만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피자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시다. 사실은 부모님 몰래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도서실 갔다구 거짓말하구 아르바이트 한 걸 아시면 혼내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지요? 궁금합니다.</p>
<p>해결 방법</p>	<p>근로기준법 66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인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미성년자 스스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p>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3)

상황(주제)	위약 예정 및 임금 체불의 금지
<p>상황</p>	<p>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숍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2 학생입니다. 제가 직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3개월 이상은 꼭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달 월급날이 되자 처음 사장님이 주시기로 한 제 월급 30만원에서 10만원은 적립금이라고 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립금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먼저 적립한 10만원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달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그럭 성적이 떨어져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었고,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 월급 10만원을 못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까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p>
<p>해결 방법</p>	<p>먼저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 사장님과 일하는 사람이 일 년의 한도 내에서 일할 기간을 정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일 년이 넘은 후에는 언제라도 의사를 밝히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하는 사람이 사전에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로 인해 사장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질문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이지요.</p> <p>우선 일한 대가인 임금은 법에 의해 '돈으로 그 전약을 직접 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즉, 월급에서 일부를 사장님 마음대로 적립금이다 하여 떼고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p> <p>또 한가지는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 처음에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도 그에 의한 손해는 손해가 발생할 때 객관적으로 따져서 계산해야 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3개월 동안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적립금 10만원은 일한 사람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므로 줄 수 없다'는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라 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정된 손해배상액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p> <p>따라서 질문자는 자신의 잘못 이전에 사장님께 자신의 월급에서 떼 1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일을 그만두어서 사장님이 받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따져 달라고 요구해야 하지요. 아마 사장님이 받은 손해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든 소식지의 광고비 3만원 정도일 가능성이 큼니다.</p>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4)

상황(주제)	야간 근로
<p>상황</p>	<p>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에는 낮 3시부터 밤 9시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장님이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이 그따위였다고 일할 사람을 구할 동안에만 대신 밤에 일을 해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며칠 후면 근방 다른 알바생을 구하겠거나 하구 기다렸는데요, 일주, 이주가 지나도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역반는 것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시간대에 다른 알바생을 이리 고용했더라고요. 저는 좋은 시간대를 다른 알바생에게 빼기고 밤 시간대에만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인데요. 일거리도 많을뿐더러 숙 취할 아저씨들이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p>
<p>해결 방법</p>	<p>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대를 노동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만 18세 이상의 성인 노동자, 임신,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 노동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가 그것입니다. 질문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에 해당하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이를 ‘야간 근로’라 합니다.)에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장에게 낮 시간대로 근무 시간을 옮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라도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일을 하게 되는 청소년 노동자 자신의 명확한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질문자 본인이 이것을 거절하면 야간에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p> <p>만약 계속하여 질문자에게 야간에 일할 것을 강요한다면, 처음 질문자와 점장간에 합의한 근로계약을 점장 측이 어긴 것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질문자는 즉시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p>

## 2. 양성평등 활동

### 활동 1. 앓! 성차별!

<b>개요</b>	학교 생활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어떤 성차별이 숨어 있는지 발견한다.		
<b>목표</b>	일상 생활 속에서 성차별 사례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인권 관련 민감성을 높이고, 차별과 평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b>등급</b>	초급	<b>활동시간</b>	40분~1시간,
<b>참가인원</b>	40명(한 모둠을 10명으로 구성)	<b>지도자</b>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4명
<b>준비물</b>	전지(소포용지도 좋음), 크레파스나 매직, 숫자를 쓴 스티커 -모둠 당 1셋트씩		
<b>활동과정</b>	<b>활동방법 및 내용</b>		
<b>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10명이 하나의 모둠이 되도록 구성하고 모둠별로 이름을 짓는다.</li> <li>❷ 활동방법을 알려주고, 각 모둠에 지침서를 나누어 준다(활동자료 1).</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 학교생활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주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li> <li>❹ 전지에 자기 모둠이 선택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그린다. 예를 들어 학급을 선택했으면 교실의 모습을, 학교를 선택했으면 학교의 모습을 그린다. 자세히 그리는 것이 좋다.</li> <li>❺ 자신들이 그린 공간에서 성차별이 발생하는 지역에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어떤 성차별이 발생하는지 적어본다. 스티커 바로 옆에 설명을 쓰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의 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종이, 혹은 그 종이의 빈 곳에 적을 수 있다.</li> <li>❻ 완성된 그림을 벽에 붙인다.</li> <li>❼ 다른 모둠의 활동 결과를 둘러본다.</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모두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 발견한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돌아가면서 빠르게 한 가지씩 말하도록 한다. 앞에서 발표한 것을 또 이야기하여도 상관없다.</li> <li>❷ 활동자료 2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대답한다.</li> <li>❸ 활동을 통해 깨닫거나 느낀 점을 한가지씩 발표하게 하며 핵심내용을 정리한다.</li> </ul>		
<b>유의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모둠마다 서로 다른 곳, 예를 들어 가정, 회사, 수련원 등 다양한 곳을 제시해주고 이 가운데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한 뒤 결과를 종합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li> <li>❷ 개인의 경험들이 모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공유한다.</li> <li>❸ 특정 학교나 특정 교사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되지 않도록 이 문제의 본질과 사회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지도한다.</li> </u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성차별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

-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성차별이 있는가? 표시해 본다.
-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성차별이 있는가? 표시해 본다.
- 학생들끼리 하는 성차별이 있는가? 표시해 본다.
- 그 밖에 더 큰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차별이 있는가? 표시해 본다.  
(예 : 왜 남학교는 ○○ 중학교인데, 여학교는 ●● 여자중학교일까?)
- 여러분이 그린 곳의 구조가 성차별하는 면은 없는가? 표시해 본다.  
(예: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의 크기)

### ▶ 자료 2 : 평가 질문지

- ① 이 가운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이 가운데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대안을 찾아본다.

## 📖 심화자료

강순원·김종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Censeil de l'Europe.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활동 2. 장면 포착 성차별

개요	성차별 장면 스틸사진 만들기 - 성차별 장면을 스틸사진의 형태로 표현해 보게 하여 다양한 성차별의 사례를 파악하게 한다.		
목표	다양한 성차별 사례를 참가자들 스스로 발견하고 표현해보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감성을 키운다.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1시간20분
참가인원	40명(한 모둠을 10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4명
준비물	간편한 옷차림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사진이 당했던 차별의 경험을 떠올린다. (성차별의 경험이면 좋지만 반드시 성차별이 아니어도 관계없다.)</li> <li>❷ 그 경험을 소리로 내어본다. “아-” “악” “오아” 등 어떤 소리도 관계없다.</li> <li>❸ 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인다(교사를 위한 지침 - 활동자료 1참고).</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4개 모둠으로 모여 각자가 낸 소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를 나눈다.</li> <li>❷ 다함께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를 그 모둠의 이름이자 구호로 정한다.</li> <li>❸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몸으로 표현해 스틸사진(정지동작)을 만든다(활동자료 2).</li> <li>❹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스틸사진으로 성차별 상황을 표현한다.</li> <li>❺ 지도자는 스틸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자에게 돌아가면서 손을 댄다. 참가자는 사진 속에 숨어 있는 자기 얘기를 한다. 지도자가 손을 떼면 얘기를 멈춘다.</li> <li>❻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사진 속의 등장인물들에게 질문을 하고 사진 속의 등장인물이 그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li> <li>❼ 모든 모둠이 돌아가면서 ❶❷❸의 과정을 반복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양식에 따라 소감문을 작성한다(활동자료 3).</li> <li>❷ 지도자는 토론자료를 활용하여 토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활동자료 4).</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몸풀이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li> <li>❷ 사진 속의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골고루 말을 시키도록 한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얇은 꿀끼리 모이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4개의 모듬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지도자와 보조 지도자는 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면서 비슷한 소리끼리 묶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사각형의 일반적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네 개의 모서리를 활용하여 비슷한 소리끼리 모이도록 도와준다.

이때 아주 엄밀하게 그 소리를 구분해 줄 필요는 없다. 소리를 지르며 모듬을 찾아 움직이는 것은 이후 스틸사진 만들기 활동을 위한 몸풀기의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비슷한 소리를 내는 참가자들이 실제로도 비슷한 억압이나 차별을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 ▶ 자료 2 : 스틸사진 만들기 주의 사항

- 모든 모듬원이 장면 안에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살아 있는 존재일 필요는 없으며 의자나 책상 등의 소도구로 장면 안에 들어가도 된다.
- 주변의 소도구는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모듬의 사람을 빌려올 수는 없다.
- 하나의 정지된 장면으로 만들지만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
- 모든 등장 인물은 장면 속에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가 손을 대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 자료 3 : 소감문 양식

스틸사진 만들기 보고서 (소감문)	
소속	_____ 중학교 ____ 학년 __ 반 이름 : _____
모듬원	
상황(주제)	
우리 모듬이 만든 이야기	
위 이야기에 대한 나의 생각	

▶ 자료 4 : 토론

① 모둠별 스틸사진을 보고

- 어떤 차별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가?
- 이것은 정말 차별이라 할 수 있는가?
- 어떤 점에서 차별인가? 혹은 차별이 아닌가?
-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로)
- 유사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② 모든 스틸사진을 보고

- 각각의 스틸사진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 어떤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은가?
-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

☞ 심화자료

강순원·김중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Censeil de l'Europe.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활동 3. 동화 새로 쓰기

개요	동화 새로 쓰기 - 성차별이 드러나 있는 전래 동화를 새로 쓰는 과정을 통해 당연히 여기던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목표	친숙한 동화를 고쳐 쓰면서 자료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능력을 기른다.		
등급	고급	활동시간	3시간
참가인원	한 모듬을 5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4명
준비물	참가 모듬수 만큼 동화책(백설공주, 심청전, 인어공주, 신데렐라 등 다양한 그림 동화책) 필기도구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주제와 내용 그리고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li> <li>② 하나의 모듬을 5명씩 구성하고 대표를 정한다.</li> <li>③ 모듬별로 동화책을 선택하도록 한다.</li> </ul>		
전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듬별로 동화책을 함께 읽고 어떤 성차별이 드러나 있는지 토의한다(활동자료 1).</li> <li>②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하면서 동화를 다시 써본다(활동자료 2).</li> </ul>		
전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화를 발표할 준비를 한다(동화 구연, 인형극,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모든 구성원들이 새로 만든 동화를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세요.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말이어요.”</p>		
전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듬별로 준비한 동화를 발표한다.</li> <li>②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li> </ul>		
평가	<p>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시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베스트 동화</li> <li>② 베스트 연기상</li> <li>③ 양성평등상</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동화를 뽑아 준다. 너무 긴 동화보다 취학 전 아동들이 읽는 짧은 그림 동화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li> </ul>		

## ㉑ 활동자료

### ▶ 자료 1 : 장화와 흥련 다시 읽기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평안도 철산군에 배무룡 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좌수를 지냈기 때문에 배좌수라고 불렀습니다. 배 좌수는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씨라는 어질고 착한 아내도 있었지요. 그러나 배 좌수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내 나이가 벌써 몇인가?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으니…….’

이런 배 좌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장씨 부인은 배 좌수 보기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두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탓 같았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없는 게 부인 탓만은 아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꽃송이가 선녀로 변하는 꿈을 꾸 장씨 부인은 딸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는 처음 보는구려”

배좌수는 기뻐하며 딸의 이름을 장화라고 지었습니다. 장화는 장미꽃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장화가 두 살이 되던 해에 장씨 부인은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좋으련만…….’ 배 좌수는 아내가 아들을 낳기를 바랐습니다. ★남아선 호사상이로군요.

열 달이 흘렀습니다.

“어찌지요? 이번에도 딸이에요.” 장씨 부인은 미안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 남아선 호사상에, 왜 부인이 미안하지요?

그러자 배 좌수는 장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더 좋겠지만, 딸이면 어떻소?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는 것을.” 배 좌수는 이렇게 아내를 위로 했습니다. ★남아선 호사상. 이게 위로할 일인가요?

그리고 둘째 딸에게 흥련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흥련은 붉은 연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장화가 일곱 살 되던 해, 장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화와 흥련이 어머니를 잃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장화와 흥련은 더욱 곱게 자라났습니다. ★여자애들은 ‘곱게’ 자라야만 하나요?

그런데 배 좌수는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 내게 아들이 없어 걱정이구나.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 대를 이어야 하겠는데…….’ ★또 남아선호. 이제 거의 짐작이군요.

배 좌수는 생각 끝에 새 아내를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런! 아내를 맞이하는 이유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니요!

배 좌수가 새로 맞이한 아내는 허 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씨는 푹 튀어나온 눈에, 매의 부리 같은 코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또 입술은 썰어 놓으면 열 접시는 될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거기다 키는 장대처럼 크고, 허리는 절구통 같았습니다. 척 보기에다 사납고 못된 여자처럼 보였지요. ★못생겨서 못된 여자처럼 보인다구요? (후략)

장화와 흥련을 다 읽고 나서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것도 큰 잘못인데, 허씨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같이 장화를 죽였는데, 특히 아버지는 친딸을 죽인 것인데, 왜 배 죄수보다 허씨가 큰 벌을 받나요?

## ▶ 자료 2. 동화 새로 쓰기

### 용감한 살라라 공주

옛날 옛날에 서로 사랑하는 살라라 공주와 압둘라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못된 마녀가 급기야 왕자를 납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녀는 높은 탑 꼭대기에 왕자를 가두고 수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살라라 공주는 왕자를 구하기 위해 램프의 바바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는 자유의 여신상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살라라 공주는 혼자 마녀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살라라 공주는 왕자를 구하기 위해 온갖 격투기를 1년 365일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살라라 공주는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녀는 예상 외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라 공주는 마녀와 용감하게 싸워서 마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있는 탑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일입니까? 탑에는 출입문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무턱대고 “압둘라 왕자님”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주는 “왕자님, 출입문이 없어서 왕자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환한 미소를 띄우더니 자신이 그동안 곱게 길러 온 머리카락을 내렸습니다. 공주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가서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둘은 프렌치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마녀의 성과 탑은 없어지고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둘은 그 뒤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구한 기념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지금도 소중하게 기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 구리빛 왕자

옛날 아마존 밀림 속에 남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잘 생기고 용맹스러운 단 한 남자만이 강 건너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에 한 달에 일주일씩 살다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성국에서는 새로 취임한 왕이 자신의 외모를 뽐내며 그 풍습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에서 한 남자 아이가 떠내려와 어느 백작이 그 아이의 이름을 구리 빛이라 짓고 아들로 삼으로 구리 빛 가슴에 긴 다리 늪틈한 생김새가 새로 부임한 왕을 능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백작은 왕이 알아차릴까봐 구리 빛을 숨겨 키웠다. 그런데 왕에게는 요술 거울이 있어서 구리 빛이 자기보다 낫다는 것

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냥꾼을 보내 구리 빛을 죽이려 했지만 구리 빛의 무공이 너무 뛰어나 실패하고 구리 빛은 숲속으로 달아났다. 숲속에서 방황하던 구리 빛은 어느 군대와 마주쳤는데 그 군대가 바로 여인국의 군대였다. 병사들에 의해 여왕에게 끌려 간 구리 빛! 몰래 국경을 넘은 죄로 죽음을 각오했지만 여왕을 본 순간, 그리고 여왕도 구리 빛을 본 순간 둘의 눈엔 불꽃이 튀기고 첫눈에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에 여왕은 구리 빛을 용서하고 남편으로 삼아 구리 빛을 죽이려 했던 남성국과의 외교를 일체 사절한 뒤 전쟁을 일으켜 싸우니 과연 여인국의 승리였다. 이에 나라를 합병하고 여성 상위시대가 열리니 구리 빛은 여왕의 충실한 남편이요, 신하로 일생을 복종하는 재미로 살았다. 이에 모든 남성들이 감동, 모두 구리 빛을 따라 부인들에게 복종하니 그때부터 태평성대가 열려 대대로 행복을 누렸다.

## 심화자료

강순원·김종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Censeil de l'Europe.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3. 반 인종차별 활동

#### 활동 1. 차별의 원 돌파하기

개요	고리끊기 게임 : 단단하게 엮여있는 인간고리를 끊고 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국외자의 고독과 소외를 느껴본다.		
목표	다수파와 소수파에 소속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각 상황의 장단점을 진단해 본다. 또한 다수파에 속하기 위해 자신이 펼쳤던 전략을 분석해 보고, 더 나아가 사회를 갈라놓는 정치와 사회의 차별구조를 알아본다.		
등급	초급	활동시간	40분~1시간,
참가인원	40명(한 모둠을 8~10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4명
준비물	관찰자가 쓸 종이와 펜, 손목시계나 크로노미터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6~8명이 하나의 모둠이 되도록 구성하고 모둠별로 이름을 짓는다.</li> <li>② 모둠마다 '관찰자'와 '국외자'를 한 사람씩 지정한다.</li> <li>③ 활동방법을 알려주고, 관찰자에게는 관찰지침서를 나누어 준다(활동자료 1).</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외자'와 '관찰자'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서로 팔과 어깨를 짚 맞대고, 가능한 한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단단한 원을 만들도록 한다.</li> <li>② '국외자'는 이 원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시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제지하도록 애써야 한다.</li> <li>③ '관찰자'는 '국외자'와 원을 형성한 사람들이 쓴 전략을 기억하고 아울러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재도록 한다.</li> <li>④ 2,3분 지나서 '국외자'가 원을 뚫고 들어가는 것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참석자에게 '국외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li> <li>⑤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원을 뚫고 들어가기'를 시도하면 이 활동은 끝난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 후 평가지의 질문을 활용하며 활동 중 일어난 일과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li> <li>② 우선 참석자 모두를 위한 1차 질문을 한다(활동자료 2-①).</li> <li>③ 관찰자를 위한 질문을 한다(활동자료 2-②).</li> <li>④ 참석자 모두를 위한 2차 질문을 한다(활동자료 2-③).</li> <li>⑤ 활동을 통해 깨닫거나 느낀 점을 한가지 씩 발표하게 하며 핵심내용을 정리한다.</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둠별로 이름을 지으면 모둠의 정체의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국외자'를 다른 모둠에서 데려올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외자'는 활동이 끝난 뒤 자기 모둠으로 다시 가야한다. 이것은 '국외자'의 고독감을 강화할 것이다.</li> <li>② 이 활동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모둠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약하지 않은 한 공격성은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li> <li>③ 평가로 넘어가기 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비공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관찰자를 위한 지침서

-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국외자’에게는 무엇이냐 말하는가?
-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국외자가 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는가?
- ‘국외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 ‘국외자’는 무엇을 하는가?

### ▶ 자료 2 : 평가 질문지

#### ① 참석자 모두를 위한 1차 질문

- 당신은 원의 한 고리로서 무엇을 느꼈는가?
- 당신은 ‘국외자’로서 무엇을 느꼈는가? ‘원을 뚫고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을 느끼는가?

#### ② 관찰자를 위한 질문

- ‘국외자들’은 어떤 전략을 썼는가?
-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국외자들’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가?

#### ③ 참석자 모두를 위한 2차 질문

- 현실의 삶에서 당신은 ‘국외자’ 또는 ‘소수파’라고 인정하는 때가 언제이며 또 단체나 다수에 속하는 것을 언제 더 좋아하는가?
-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가장 약한 단체는?
- 이 원은 이 사회에 있는 특권, 돈, 권력, 일이나 집이다. 이런 자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수파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가? 다수파는 자기 지위를 어떻게 보존하게 되는가?

## ☞ 심화자료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Censeil de l'Europe. 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활동 2. 당신의 입장은 ?

개요	OX퀴즈 활동 - 인종차별, 민족주의에 관한 주장들에 대해 한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목표	외국인 혐오증, 기피증, 불관용 등에 대해 참가자들의 관점과 의견을 알아보고, 토론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인종차별,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1시간20분
참가인원	전체인원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준비물	종이판과 펜, 화이트보드, 주장문 목록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인종차별과 민족주의와 관련된 '주장문'들을 적은 주장문 목록을 준비한다(활동자료 1).</li> <li>② 전지 한 장마다 하나의 주장문을 적는다.</li> <li>③ 전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활동을 진행한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장소의 양쪽에 한 쪽에는 부정의 기호(-)와 다른 한쪽에는 긍정의 기호(+)가 있다고 상상하라고 설명한다.</li> <li>② 지도자가 주장문을 하나씩 읽어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장문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로, 일치하는 사람은 “+”로 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정할 수 없거나 의견이 없는 사람들은 활동장소 한가운데에 남아있어야 한다.</li> <li>③ 첫 번째 '주장문'을 읽는다.</li> <li>④ 모든 참여자들은 자기 입장을 취한 이상, 저마다 자기 차례대로 왜 “-”와 “+”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단체의 나머지를 설득하도록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li> <li>⑤ 참가자들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5~8분 정도 준다.</li> <li>⑥ 모든 사람이 자기를 표현했을 때 입장을 바꾸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유한다.</li> <li>⑦ 두 번째 확인을 읽고 앞의 과정을 되풀이한다.</li> <li>⑧ 일단 모든 주장문들이 논의되면 직접 평가로 넘어간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가자들과 함께 평가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토론을 한다(활동자료 2-①).</li> <li>② 지도자는 토론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활동자료 2-②).</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돕기 위해 지도자는 소극적인 참가자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같은 식으로, 많이 발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을 권유한다.</li> <li>② 주장문들이 반드시 논쟁의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 끝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주장문의 몇 가지 예

- “이슬람교도들은 유럽 사회에 실제로 통합될 수 없다.”
- “민족주의는 전쟁과 비슷한 말이다.”
-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 “동성 연애하는 사람보다 흑인이 더 낫다.”
- “청소년들은 인종차별주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 “이민 온 사람들은 우리의 숙소와 일을 빼앗는다.”
-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자료 2 : 평가 질문지

#### ① 참석자 모두를 위한 질문지

- 연습을 하는 동안 무엇을 느꼈는가?
- 선택하는 것이 힘들었는가? 그 이유는?
- 한가운데 남아있는 것과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힘들었는가?
- 활용한 논의의 형태는 무엇이었는가? 사건에 근거를 둔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는가?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가?
- 참가한 사람들이 이 연습을 하고 실제의 삶을 사는 동안 말하고 실행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가?
- 이 주장들은 사실인가?
- 이 연습은 유익했는가?

#### ② 토론자료

- 각각의 주장문에는 모호하지만 진실이 담겨있다. 의사소통의 전 과정에서처럼 사람에 따라 같은 주장문이라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갖는다는 것 역시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이 활동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입장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입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 일상생활의 현실과 관계를 명백히 드러내도록 한다. 흔히 우리는 문제의 한 면만을 고려한다. 또한 우리는 한 문제를 지지하는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실제 동기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난다. 지도자는 이런 일이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 지 참가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 어느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논증을 실제로 듣고 있는가? 우리의 관점들을 충분히 하고도 명백하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호함과 잘못 이해되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
- 우리 의견과 생각에 논리가 있는가?

-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위협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보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실천할 지를 결정한다.

## 심화자료

강순원·김종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 인권총서 9. 서울: 사람생각.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enseil de l'Europe.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활동 3.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요	그림그리기와 동영상 시청·토론활동 -- 차별의 꽃 그리기와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14)		
목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이민자의 입장에서 차별의 꽃을 그려봄으로써 민족주의와 인종차별로 발생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등급	고급	활동시간	3시간
참가인원	한 모둠을 5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4명
준비물	참가 모둠 수만큼 차별의 꽃 인쇄물 2장씩,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와 유성펜, 지우개, 테이프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활동주제와 내용 그리고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li> <li>② 하나의 모둠을 5명씩으로 구성하고 대표를 정한다.</li> <li>③ 모둠별로 2장의 차별의 꽃 인쇄물을 나누어 준다(활동자료 1).</li> <li>④ 활동을 시작하기 전 미리 동영상을 찾아 놓는다.</li> </ol>		
전개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차별의 꽃을 그려보게 한다.</li> <li>② 다음과 같이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두 중국이나 네팔,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인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3D일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비자도 없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상태이지요.”</p> </li> <li>③ 이미 모둠별로 나누어 준 인쇄물(B4용지)에 있는 차별의 꽃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활동자료 1-①).</li> </ol>		
전개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번에는 미국에 방금 이민 간 한국인이 되어 차별의 꽃을 그려보게 한다.</li> <li>② 다음과 같이 이민 간 한국인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지금부터 여러분은 방금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지요. 물론 가진 돈도 없고 취업 비자도 없어요. 여러분은 미국 땅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p> </li> <li>③ 2번째 인쇄물(B4용지)에 있는 차별의 꽃에 관련항목을 쓰게 한다(활동자료 1-②).</li> <li>④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그린 차별의 꽃과 미국에 방금 이민 간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려 본 차별의 꽃을 비교한 뒤 간단한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li> <li>⑤ 소감을 발표할 때 왜 똑같은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엄청난게 다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러한 차별이 정당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li> </ol>		

14)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pp112-121 인용.

<p>전개 3.</p>	<p>① 활동이 시작되면 동영상 「연수생인가, 노예인가」를 함께 시청한다(활동자료 2).          ② 다음과 같이 동영상 자료와 활동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금까지 이주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차별의 꽃을 그려 봤어요. 이번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좀 더 생생하게 느껴 보려합니다. 함께 볼 프로그램은 KBS 「취재 1일 4321」에서 2002년 10월에 방영된 「연수생인가, 노예인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자료는 3D영동에서 일하며 한 달 기본급이 20만원인 사람들, 대기업들이 &lt;연수생&gt;이라는 어을 좋은 이름으로 해외 기업에서 데리고 온 외국인들의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영시간을 15분입니다. 함께 보면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p> <p>③ 시청 후 모둠별로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 뒤 발표한다.</p>
<p>평가</p>	<p>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활동을 정리한다(활동자료 3).</p> <p>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② 그들을 ‘불법체류 노동자’라고도 하던데,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굳이 도와 줄 필요가 있나요?          ③ 이주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와 있나요?          ④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⑤ 범죄를 저지르는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⑥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⑦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⑧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p>
<p>유의점</p>	<p>①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둠별로 활동분위기를 세밀히 관찰하고 동기부여를 해 준다. 차별의 꽃 만들기의 경우,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상별은 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② 평가과정에서 전체 활동과정들의 내용을 정리해 주어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p>

## ☐ 활동자료

### ▶ 자료 1 : 차별의 꽃

#### ①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차별의 꽃

- 이주 노동자의 경우, 우선 꽃잎의 중앙에 차별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항목을 쓰게 한다.

·인종 : 황인종→흑인종

·경제 : 선진국→개발도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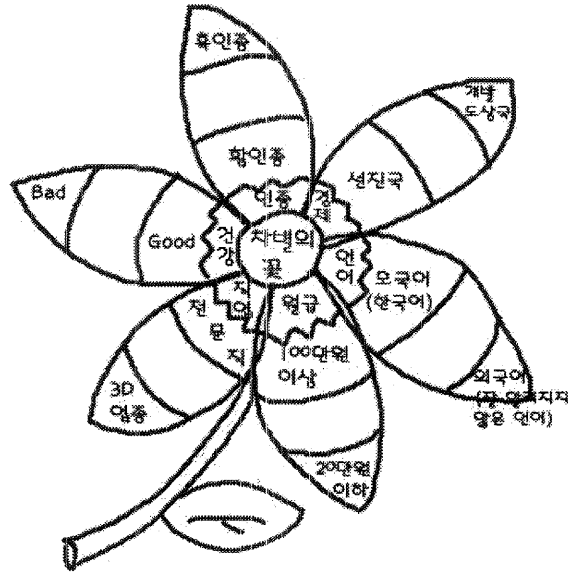
·언어 : 모국어(한국어)→외국어(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급여 : 100만원 이상→20만원 이하

·직업 : 전문직→3D 업종

·건강 : Good→Bad

- 그리고 각 항목별로 중앙에서 가까운 곳은 이득을 받는 것을 적고, 중앙에서 먼 곳은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적도록 한다.



②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차별의 꽃<sup>15)</sup>

- 이주 노동자의 경우, 우선 꽃잎의 중앙에 차별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항목을 쓰게 한다.

·인종 : 백인종→황인종

·재산 : 부유→가난

·언어 : 영어(의사소통 원활)→한국어(의사소통 x)

·신체조건 : 체격우람→체격 허약

·성별 : 남자→여자

·국가 : 미국→한국

- 그리고 각 항목별로 중앙에서 가까운 곳은 이득을 받는 것을 적고, 중앙에서 먼 곳은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적도록 한다.

▶ 자료 2 : 이주 노동자 관련 영상자료

① <연수생인가 노예인가>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 달 기본급이 20만원인 사람들, 대기업들

15) ①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차별의 꽃의 그림 참조.

이 '연수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해외 기업에서 데리고 온 외국인들의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69회 1. 험난한 코리아인 드림>(2001년 6월 10일), <제49회 3. 여기도 인권 사각지대>(2001년 12월 9일) 등이 더 있다.

- ② 매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방영되는 <취재 파일 4321>은 세 꼭지로 되어 있다. 한 꼭지의 길이가 15분밖에 되지 않아 활용하기 적합하다. KBS 홈페이지 <취재파일 4321>에 가명 이전 방영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고(내용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내용도 텍스트로 미리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2년 전에 방영되었던 것까지는 인터넷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자료 3 : 이주 노동자에 관한 8문 8답

- 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말이 통용된다. 근대화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에게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자'보다 '외국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보다 '노동자'란 말이다. 그들은 단지 일자리를 찾아서 멀리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주해 왔을 뿐이며 한국의 노동자와 다른 이해관계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집' 홈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② 그들을 '불법 체류 노동자'라고도 하던데,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나요 ?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말은 취업 비자 등의 합법적인 자격을 얻지 못한 채 불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노동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취업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며, 합법적인 취업자들도 대부분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산업 연수생'이란 제도는 저개발국의 노동자들에게 이름 그대로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 아래 합법적으로 살인적인 저임금과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인데, 이는 유럽 등지에서 예전에 시행되다가 시민 사회와 노동 운동의 반발로 이미 없어졌으며, 국제법과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제도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산업 연수생'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노동 조건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작업장을 도망쳐 '불법체류노동자'가 되는 현실을 보면, 이주 노동자 문제에 있어 적법이나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오히려 '적법'하게 불법적인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들과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 ③ 이주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와 있나요 ?

이주 노동자들은 중국, 네팔,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에티오피아 등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다. 지금은 이주 노동자 유입 초기보다 훨씬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종교와 인종 등이 무척 다양하다.

1996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약 21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61%는 흔히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노동자'(undocumented workers)이고, 32%는 국제 기술 교류와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편법으로 도입된 '산업 기술 연수생'이며, 단지 6%만이 취업 비자(employment visa)를 발급 받은 진짜 '합법 취업자'이다. 즉, 국내 이주 노동자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④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외국인'으로서, '노동자'로서 겪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이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충분한 기술 전수도 받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이주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보다 훨씬 산재의 위험을 당하기 쉽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문제 삼아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해 버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 통장도 만들 수 없어서 사업주나 가까운 한국인에게 임금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 맡긴 돈을 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거나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 임금은커녕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강제 출국까지 당하게 한다.

이런 어려움 못지않게 외국인으로서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몽골 사람들은 한국말은 물론 영어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어렵게 구한 자리라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이다.

또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와 생활환경이나 음식 문화가 많이 다르다. 동남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더운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맞는 겨울은 그들에겐 견디기 어렵다. 더구나 음식이 맞지 않아서 물과 빵으로 하루하루를 견뎌 내기도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노동조합 결성 등)는커녕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⑤ 범죄를 저지르는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밤길을 걷다 얼굴색이 시커먼 이주 노동자들과 마주칠 때 대부분의 한국인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혹 이것이 피부색과 관련된 편견이란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국내에서 외국어 강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는 백인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거리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들 가운데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 모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편견이다. 게다가 언론에서 말하는 이주 노동자의 범죄란 대부분이 작업 환경, 부당 처우, 고용 조건 등에 대한

집단행동으로, 이는 한국 사회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문제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국에서 선량한 시민이었던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억압과 차별을 견디지 못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저 임금마저도 몇 달씩 체불되어 본국에 부칠 돈이 없어서 처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은 매를 맞아 가면서 노동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강간을 당하기까지 하는 데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이 울분에 차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들을 그리로 몰고 간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 ⑥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흔히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사람들조차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주장이다.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했던 때는 1989~90년이었는데, 이때는 호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이전보다 훨씬 나왔던 때이다. 즉, 경제가 호황일 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너무나 낮은 임금이어서 한국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한다.

그렇다고 낮은 임금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이 상승하도록 같이 싸워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르게 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가야말로 '민영화와 신경영 전략'으로 일자리를 공격하는 주범이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속죄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⑦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주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국내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법 체류 또는 산업 연수생이라는 그들의 처지로 인해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들에 대한 출입국 규제를 철폐하고 합법적인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차별 금지 및 보호 대책 등의 인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지난 1997년 임시 국회와 정기 국회에 입법 청원한 상태이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내·외국인 누구나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일체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 노동자들은, 이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넘어,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자본주의적인 노동계에서 공통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가는 우리 사회의 일주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⑧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집'(이하 외노집)홈페이지에 접속해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 주는 것도 이 땅의 이

주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일임은 물론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남 외노집 후원자나 자원 봉사자가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노집에는 자신의 봉급을 쪼개 후원하는 외노집 후원자,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직접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자원 봉사자, 후원자들도 애초부터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길을 가다 받아 든 유인물 한 장, 어쩌다 접속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그 시작인 것이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홈페이지

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자국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불법입국 노동자나 불법체류노동자는 이를 악용한 고용주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엔총회는 90년 이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은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즉 그들이 불법으로 입국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송출국을 중심으로 단 9개 국가만이 이 조약을 비준했을 뿐, 정작 이 조약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조약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 심화자료

강순원·김중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 인권총서 9. 서울: 사람생각.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enseil de l'Europe.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V. 연대감 영역 프로그램

1. 평화 활동
2. 환경보호 활동
3. 세계화 활동



# 1. 평화 활동

## 활동 1.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개요	○× 퀴즈 : 본 수업은 ○×퀴즈를 풀면서 북한 사회에 대해 편견이나 오해하고 있던 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사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이 있음을 발견한다.</li> <li>퀴즈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안다.</li> </ol>		
등급	초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40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준비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도입자료 1-3&gt; 살색종이, 흰색종이, 검은 색 종이</li> <li>&lt;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gt;CD롬</li> <li>○×퀴즈 자료에 대한 설명콘티</li> <li>퀴즈 진행 방식에 따라 ○×판,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지우개 등○× 퀴즈</li> </ol>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들에게 연주황색 카드 활동자료 1을 보이면서 어떤 색인지 묻는다. 여러 가지 대답 중 '살색'이라고 답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다. 교사는 검은 색 카드 활동자료 2와 흰색 카드 활동자료 3을 보이며 같은 질문을 한다.</li> <li>교사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대답을 모두 수용한 뒤 이 세 가지 색깔 모두 사람들은 피부색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li> <li>동양인의 관점에서는 연주황색이 살색이지만, 서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는 흰색이나 검은 색이 살색에 가깝다고 말하며,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에 피부색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옳지 않음을 알린다. * (활동자료 1,2)를 참고하여 설명한다.</li> <li>지금부터 배울 북녘의 문화도 우리와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 이러한 차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다름으로 인정하는 자세로 공부하자고 권한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gt; CD롬을 작동한다.</li> <li>CD를 작동하면 숫자만 매겨져 있는 퍼즐판이 보인다.</li> <li>퍼즐 조각에 매겨져 있는 번호를 선택한다.</li> <li>번호를 선택하면 ○×퀴즈 문제창이 뜬다.</li> <li>교사가 문제를 읽으면 학생들은 ○또는 ×를 표시한다. (손으로, ○×판 이용, ○×표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 등)</li> <li>학생들의 답에 따라 교사는 프로그램을 작동한다. 정답, 오답에 관계없이 관련 사진과</li> </ol>		

	<p>간략한 설명이 뜬다.</p> <p>⑦ '닫기'를 누르면 정답일 경우 퍼즐판 뒷면의 그림이 보이고, 오답일 경우 퍼즐이 돌려지지 않는다.</p> <p>* 교사의 자세한 설명은 활동자료 3을 이용하여 진행한다</p> <p>⑧ 다음 문제를 선택하여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p> <p>⑨ 퍼즐을 다 맞추면 북한 평양 제 4 소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남한 어린이들에게 '안녕? 친구야' 라고 인사하고 있는 사진이 완성된다.</p> <p>* 문제풀이 방식은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한다.</p> <p>① 학생 각자가 몇 문제 맞추었는지를 점검해보기</p> <p>② ○× 표시 쪽으로 양분되어 이동하기-틀리면 탈락/틀려도 계속 참가</p> <p>③ 모둠 공동의견으로 하여 화이트보드에 표시하여 모둠 점수화 등</p> <p>* &lt;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gt; CD롬이 없는 경우 활동자료 4를 참고하여 파워포인트로 제작한다.</p>
평가	<p>1. 퀴즈를 통해 북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는다.</p> <p>2. 또는 문제 중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문제를 적는다.</p>
유의점	<p>흥미 있는 방식에 너무 치우쳐 학습내용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진행방식과 내용설명 수위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다.</p>
참고자료	<p>www.okedongmu.or.kr</p> <p>www.uniedu.go.kr/kids</p> <p>www.nk.joins.com</p> <p>www.unikorea.go.kr</p> <p>www.YTN.co.kr</p> <p>www.durihana.com</p> <p>http://tongilnet.donga.com</p>

## ☞ 활동자료

### ▶ 자료 1 : 교사용 참고자료

#### 살색에 들어 있는 편견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1998년 홍콩의 한 자문회사가 4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의 11개국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그들과 피부색이 다르거나 가난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별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잘 드러내 주는 일화가 있다. 몇 년 전 국내의 이주 노동자들은 국가 인권 위원회에 크레파스 색 중 '살색'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청원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살색이라는 용어는 한국인들의 피부

색과 같은 색만 살색이고 다른 피부색은 살색이 아니라는 관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크레파스 회사가 '살색'이라는 상표의 크레파스 세트에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기 위해 진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생활은 옥설이나 폭행에 시달리거나 몇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등 고난의 연속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작업이 대부분 위험한 일이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작업 중 손가락이 잘리거나 얼굴에 화상을 입기도 하는 위험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종이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자료 2 : 교사용 참고자료

사회적 인종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모양에 나타나는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인류를 황인종이나 백인종, 흑인종 같은 몇몇 범주로 구분하는 인종개념은 19세기의 진화론적 세계관과 맞물려 소개되었다. 인종 개념은 생물학에서 생물체들을 분류하기 위해 고안한 종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초기에는 단순히 인류를 신체적 특징에 따라 각각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식민 통치를 통해 피부색 등 신체적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된 서구의 백인들은 다른 인종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미개한 문명 수준을 해당 인종의 진화론적 발전 단계로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인종 개념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학적 특징에 따른 분류범주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종의 차이는 곧 지능이나 정신적 능력, 문화의 열등함과 우월함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인종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과 차이를 통해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왜 사회적 인종의 개념이 형성되고 차별적인 인종 관계가 형성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식민 통치를 통해 비서구인들을 지배하게 된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종의 사회적 질서를 확립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깜둥이”나 인디언과 같은 인종 분류의 용어는 이들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이들 모두를 하나의 열등한 인종집단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 시장에서 저임금을 받아 마땅한 집단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 자료 3 : 고학년 ○× 퀴즈 진행 콘티

① 남한은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지만 북한은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이다.

답 : ○

설명 : 북한의 모든 학교는 무상 교육이며, 유치원 높은 반부터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학제는 유치원 높은 반(만 6세),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이다. 이전에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라고 불렀으나 2002년 10월경부터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부르고 있다.

사진자료 1 : 유치원 수업모습

사진자료 2 : 유치원 높은 반 시간표

사진자료 3 : 소학교 1학년 수업모습

- ② 북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답 : ○

설명 : 남한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친구들과끼리 즐겨 한다. 북한 어린이들이 보낸 그림편지를 보면 북한 친구들은 축구라는 말보다 볼차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 ③ 북한 어린이들 중에도 연예인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답 : ×

설명 : 북한에도 인기 가수나 영화배우가 있지만, 우리 나라 어린이들처럼 연예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남한과 달리 북한의 영화는 교육과 선전의 수단이기 때문에 영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 인기가수나 영화배우를 공훈배우, 인민배우로 대우하는 것은 영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진자료 : 인민배우 홍영희

홍영희 : <꽃 파는 처녀>의 주인공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명배우로 북한의 1원 권 지폐의 얼굴로도 유명하다.

- ④ 북한 어린이들도 학교 공부 후에는 개별적으로 학원에 다닌다.

답 : ×

설명 : 북한 어린이들은 우리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한가지의 특기를 개발하기 위해 소조활동을 한다. 제일 잘되는 소조활동은 음악과 수학이다.

사진자료 1 : 피아노 소조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자료 2 : 미술 소조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자료 3 : 가야금 소조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자료 4 : 유도 소조활동을 하는 모습

- 소조활동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질문해보고, 학생들의 대답 후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실시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 학생들이 대답한 예

- 장점 : 우리는 장기자랑 같은 것을 하면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은 소조활동을 통해 한 가지 활동이라도 완벽하게 배우기 때문에 장기자랑 할만한 한 가지는 있을 것 같다.

- 단점 :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제한받는다.

- ⑤ 북한 학생들은 시험을 주관식으로 본다.

답 : ○

설명 : 북한의 시험 방법은 크게 필기시험과 말로 설명하는 구술시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필기시험의 경우 우리와 달리 객관식은 없다. 주관식 문제에 대한 답을 논술형으로 길게 풀어쓰거나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한다. 주관식 시험 외에 구두시험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논리 전개나 응용력이 발달했다고 한다.

학력점수는 5(최우등), 4(우등), 3(보통), 2-1(낙제)의 5단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점수는 모범/락후의 2단계로 기록하고 있다.

사진자료 : 시험 점수표

- ⑥ 북한어린이들은 등교할 때 꼭 교복을 입어야 한다.

답 : ○

설명 :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을 기워가면서까지 입고 집에 돌아오면 교복을 신주 모시듯 하고 있다.

- ⑦ 북한어린이들도 우리처럼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달라진다.

답 : ×

설명 : 북한에서는 1학년 때 배정받은 반이 4학년 때까지 바뀌지 않으며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도 변함이 없다.

- 학년이 올라가도 반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질문해본다.

♣ 학생들이 대답한 예

- 장점 : 친구들, 선생님과 사이가 돈독해진다.

- 단점 :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이 배정될 경우 소학교 4년이 고달프다.

- ⑧ 북한의 제1외국어는 러시아어이다.

답 : ×

설명 : 북한의 제1외국어는 영어이다. 9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서는 세계 공용어가 되고 있는 영어, 중국과의 교역에 필요한 중국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7-80년대에는 러시아어와의 활발한 경제교역 영향으로 외국어 중에서 러시아어가 가장 인기가 좋았었는데, 소련의 해체 이후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사진자료 : 중학교 외국어 교육모습

- ⑨ 북한의 어린이들도 컴퓨터 게임을 자주한다.

답 : ×

설명 : 북한에서는 최근에 와서 컴퓨터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각 대학 컴퓨터 공학부, 시도 제1고등중학교(영재학교) 등을 중심으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처럼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거나 동네마다 게임방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

사진자료 : 컴퓨터 교육실 모습

⑩ 북한 청소년 중에도 땡땡이를 치는 학생들이 있다.

답 : ○

설명 : 북한 청소년들도 땡땡이를 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시간을 뚝거(뜯어)먹자'라고 한다. 한 시간을 빼 먹자는 은어이다. 사춘기인 고등중학교 시절, 땡땡이는 주로 집단 체조시간에 이루어진다. 대개 그들은 강가로 가는데, 평양에서는 뱃놀이를 하고, 다른 지방에서는 미역을 감는다고 한다.

⑪ 북한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답 : ○

설명 : 북한에서 우리의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다. 따라서 고등 중학교 까지는 경쟁 없이 자기가 사는 지역 학교로 자동으로 진학한다. 하지만 과학영재개발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평양제1중학교 같이 학교는 다른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한다. 중학교까지 경쟁 없이 진행되는 것에 비해 대학 입학은 사정은 다르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일단 입학하면 등록금이 없고, 대학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군에 입대하거나 생산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재수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남한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 선택권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국가가 지역별로 실시하는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에게 대학을 지정해준다.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한다.

사진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⑫ 북한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영화가 있다.

답 : ○

설명 : 북한 아이들도 남한 아이들처럼 저녁 5-6시가 되면 TV앞에 앉아 만화영화를 보는데, TV에서 하는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남북이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툼과 제리'는 '우둔한 고양이와 피많은 생쥐'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북한의 만화영화 기술은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100%가 자체 제작하며, 주로 어린이 교육용으로 만화를 제작한다. 북한 만화는 남한이나 일본 만화보다 동작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북한 만화는 지혜로운 동물이나 곤충, 식물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온다. 내용은 이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훈적인 전래동화를 소재로 권선징악을 강조하거나 과학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인기 있는 만화영화로는 '령리한 너구리'와 '소년장수'가 있다.

사진자료 : 령리한 너구리, 소년장수 비디오 사진

⑬ 북한의 국보 제 1호는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이다.

답 : ×

설명 : 북한에는 50여건의 유물과 유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북한이 지정한 국보 1호는 평양성이며, 국보 2호는 보통문이다. 보물 1호는 평양종이다.

평양성 : 평양성은 고구려시기의 수도성이다. 평양성에는 많은 성문들이 있는데 지금은 고

구려의 대동문(내성의 동문), 보통문(중성의 서문), 칠성문(내성의 북문), 전금문(북성의남문) 등이 있다.

평양종 : 대동문 인근에 있는 평양종은 제조 연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동문 위층 다락에 있던 것을 조선시대 숙종 40년(1714년)에 평양시 북성을 쌓은 다음 북성의 북쪽 장대에 옮겨달았다. 북한이 지정한 보물 중 1호부터 7호까지 모두 평양에 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사진자료 1 : 평양성, 사진자료 2 : 대동문

사진자료 3 : 보통문, 사진자료 4 : 칠성문

사진자료 5 : 전금문, 사진자료 6 : 평양종

⑭ 북한도 설, 추석과 같은 고유의 민속 명절이 있다.

답 : ○

설명 : 북한에서는 민속명절이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다가 1988년부터 추석을 시작으로 민속명절이 부활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봉건적 잔재라 비판하는 성묘나 제사를 인정하게 되었고, 80년대 이후 추석, 음력설, 단오 등의 명절이 부활되었다. 이 날은 휴일이며, 텔레비전에서도 명절 분위기를 띄운다. 결국 우리처럼 민족의 대이동은 없으나, 민속명절은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 생일(4월15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이 있다.

사진자료 : 웃놀이하는 가족들의 모습

⑮ 평양의 주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다.

답 : ×

설명 : 평양의 주요 교통수단은 무궤도 전차이다. 무궤도 전차는 철길 없이 공중에 늘어뜨린 전기줄을 따라 움직이는 전차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들어 평양을 비롯한 북한 도시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사진자료 : 무궤도전차

⑯ 북한에는 지하철이 있다.

답 : ○

설명 : 지하철은 1961년 착공하여 현재 3개의 구간이 완성·운행중이다. 평양지하철은 상당히 호화롭게 만들어져 있다. 모든 역기 각기 독특한 외양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는 대리석 돛형으로 지어져 있다. 보통 지하100-150m이하에 건설되어 있어서 모든 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전쟁 시에는 민방공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건설했다.

사진자료 1 : 지하철역 모습

사진자료 2 : 역에 그려있는 벽화의 모습

⑰ 북한에도 남한의 교통경찰에 해당하는 교통보안원이 있으며,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딱지도 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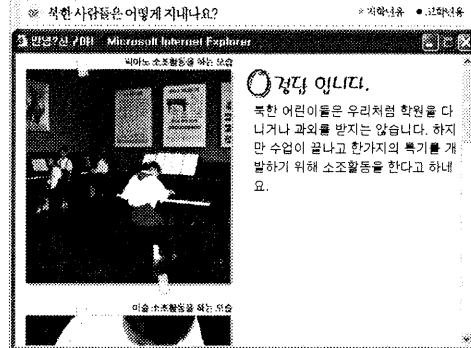
답 : ○

설명 : 우리의 교통경찰에 해당하는 북한의 교통보안원은 사거리에서 신호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한다. 북한의 교통보안원은 대부분 여성으로 푸른색, 흰색(계절마다 차이가 있음) 복장에 챙달린 모자를 쓰고 스커트 차림에 가죽 장화를 신고 있다. 북한의 교통법규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우선 과속으로 적발되거나 차선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하며, 사안에 따라서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음주단속은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술냄새만 풍겨도 1~3개월 정도의 면허정지에다 노동 처벌을 받는다. 또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운전 중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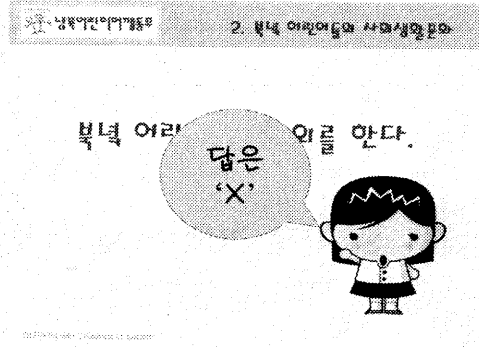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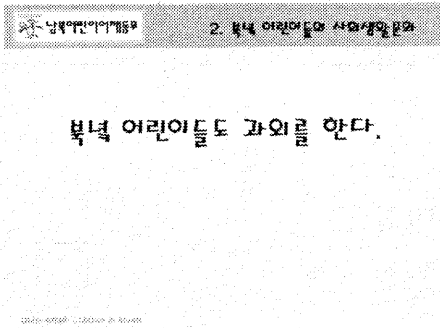
사진자료 : 교통보안원

▶ 자료 4 : 프로그램 구현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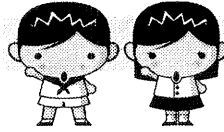
### OX 퀴즈 I (CD 형식)



### OX 퀴즈 II (PPT 형식)



## 느낌 일지



(      )학년 (      )반  
(성명:                      )

1. 오늘 공부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나 자신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무엇인가요?

---

---

---

2. 문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이유는?

---

---

---

### 심화자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 저, “고등학생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일조각,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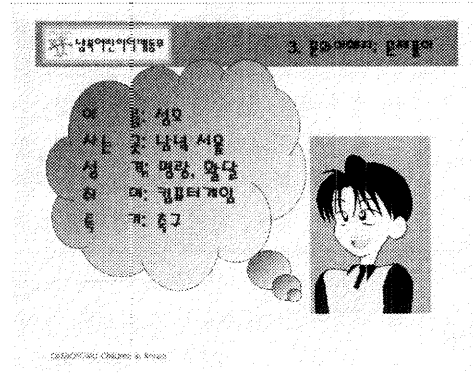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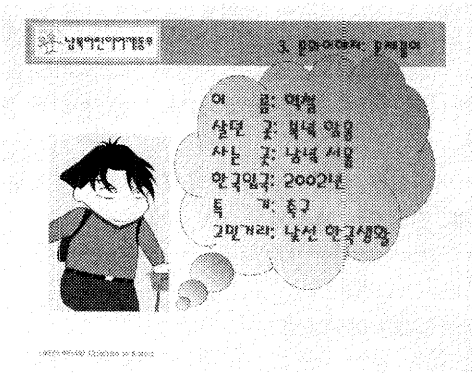
## 활동 2. 서로를 이해해요

개요	문화이해지 ; 남북어린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문화이해지를 통해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 남북한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문화이해지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li> <li>❷ 북한 어린이들과 남한 어린이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li> <li>❸ 만화자료를 통해 탈북한 어린이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다.</li> </ul>		
등급	중급	활동시간	2시간
참가인원	40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준비물	문화이해지 사례 PPT 자료, 비디오 자료 만화자료 1-3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b>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어린이들에게 남과 북의 문화가 왜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보자고 한다. 교사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오랫동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살다보니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지시킨다.</li> <li>❷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의 차이가 있음을 손가락을 통한 의사표시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b>[예시 1]</b> 우리는 사물을 가리킬 때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러나 북녘에서는 이런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다. 북에서는 손가락질(북녘에서는 ‘손가락총질’이라 함)을 하는 것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집게손가락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의 손가락을 붙여 모은 손으로 대상을 가리킨다. 특히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b>[예시 2]</b> 우리는 ‘돈’을 표현하거나 ‘좋다’는 표현을 할 때 엄지와 중지로 동그라미를 만든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남미의 국가에서는 이를 지독히 외설적인 욕설로 받아들인다.  <b>[예시 3]</b> 우리가 ‘최고’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운다. 그러나 러시아나 불가리아에서 이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표현이다.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가 동성애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  <b>[예시 4]</b> 미국에서는 중지 손가락을 추켜세우는 것이 상대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는 미국의 문화가 받아들여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li> <li>❸ 이렇듯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에도 나라마다 의미가 다른 것은 그 나라의 관습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문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방식과 습관을 인정해야 한다고 알린다. 이렇게 다른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킨다.</li> </ul>		

<p>전개 1</p>	<p>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이해지를 통해 갈등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한다. PPT 자료와 비디오 자료를 한 편씩 보여주고 학습지를 이용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한다.</p> <p>② &lt;활동 1 - 축구와 학원&gt;  가. &lt;PPT 자료 1 - 축구와 학원&gt;을 본다.  나. 아래 질문에 따라 모둠별 토론을 진행한 후 발표한다.  - 혁철이는 학원에 간다는 성호의 말에 왜 화가 났을까요?</p> <p>③ &lt;활동 2 - 축구 응원&gt;  가. &lt;PPT 자료 2 - 축구 응원&gt;을 본다.  나. 아래 질문에 따라 모둠별 토론을 진행한 후 발표한다.  - 혁철이의 친구들은 왜 혁철이가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을까?  다. 교사는 &lt;교사용 참고자료 1-북한의 외래어 정책&gt;을 설명한 후 &lt;교사용 참고자료 2- 북한의 축구용어&gt;를 소개한다.</p> <p>④ &lt;활동 3 - 너 몸 좋다&gt;  가. &lt;비디오 자료 1 - 너 몸 좋다&gt;를 시청한 후 학습지를 이용하여 느낌을 정리한다.  나. 북한에서 '몸이 좋다'는 것은 미관상 보기에 좋고 건강하다는 의미로 우리의 "똥똥하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p>
<p>전개 2</p>	<p>① 이 과정은 남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임을 설명한다.</p> <p>② 진행방식  가. 모둠별로 만화자료를 나눠준다.  나. 학생들에게 만화를 보고 이런 상황을 북한에서 온 어린이가 경험한다면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나는 북한에서 온 어린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시킨다.  * 모둠이 발표할 때 다른 모둠원들은 발표 모둠의 내용 중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나 상황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연이어 발표를 시킨다.  다. 다른 사례를 모둠에게 나눠 줄 수도 있고, 같은 사례를 모둠에게 나눠준 후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  라. &lt;만화 자료 1 - 햄버거 가게에서&gt;  &lt;만화자료 2 - 메신저에 관하여&gt;  &lt;만화자료 3 - 자동차 현금인출&gt;</p> <p>③ 남과 북이 반세기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다른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북의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주지시킨다. 경제적 마인드가 강한 요즘 학생들의 경우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이 북한이 남한에 일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일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바탕위에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p>

평가	<p>&lt;학생용 활동자료&gt;를 나눠 준 후 오늘 공부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과 여러 활동 중 가장 재미있었던 일, 앞으로 북한 친구를 학교 안팎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발표하고 마무리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작은 노력이 서로의 사이를 얼마나 가깝게 할 수 있는지 알린다.</p>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50여 년간 왕래 없이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li> <li>❷ 단순히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북한 어린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당위로 접근하지 말고, 차이 만들어내는 갈등을 함께 풀어가는 관점에서 지도한다.</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홈페이지 <a href="http://www.okedongmu.or.kr">www.okedongmu.or.kr</a></li> <li>❷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홈페이지 <a href="http://www.hifriends.org">www.hifriends.org</a></li> <li>❸ 정진경 외,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 문화이해지,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우리교육, 2002</li> </ul>

# PPT 자료 1 - 축구와 학원



죽고와 악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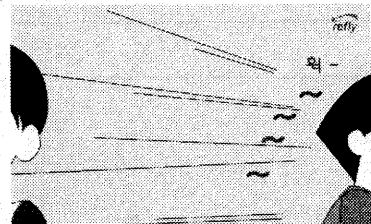
08252001001 - Children in Korea

죽고와 악원 6



08252001001 - Children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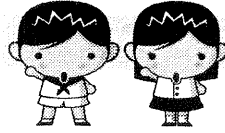
죽고와 악원 7



08252001001 - Children in Korea

▶ 자료 : 학생용 활동자료

## 느낌 일지



(      )학년 (      )반  
(성명:                      )

1. 오늘 공부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은 무엇인가요?

---

---

2.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흥미로운 활동은 무엇인가요?

---

---

3. 앞으로 복녁의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할 것인지 자신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

---

---

### 활동 3. 한라에서 백두까지

개요	모형 한반도의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북한 이해와 통일관련 문제를 풀고 북한의 전통놀이를 함께 해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목표	1. 다양한 놀이와 학습지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 2. 북한 전통놀이를 체험해본다.		
등급	고급	활동시간	3시간
참가인원	40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2명
준비물	주요 도시가 표시된 한반도 지도, 모둠별 대항 말판, 문제지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p>* 교사는 이번 차시에 진행할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체 인원을 4개의 모둠으로 나눈다.(전체 구성원에 따라 모둠 수를 결정 한다)</li> <li>② 모둠마다 사용할 말판(각기 다른 색으로 제작)을 선택한다.</li> <li>③ 각 도시별로 다른 활동으로 진행한다. 예 : 학습지 풀기, 전통놀이, 퍼즐맞추기, 지도자가 제시하는 간단한 문제풀기 등</li> <li>④ 각 도시마다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놀이에서 이긴 모듬의 색을 도시에 붙여준다.</li> <li>⑤ 최종적으로 제일 많은 색을 붙인 모듬이 승리하게 된다.</li> </ul>		
전개	<p>* 각 도시별로 활동을 전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참고자료를 참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주 - 학습지(○×퀴즈)</li> <li>② 부산 - 전통놀이(비사치기)</li> <li>③ 광주 - 학습지(언어-칸채우기)</li> <li>④ 대전 - 간단한 문제·풀기</li> <li>⑤ 서울 - 퍼즐 맞추기</li> <li>⑥ 평양 - 학습지(○×퀴즈)</li> <li>⑦ 개성 - 전통놀이(수박따기)</li> <li>⑧ 원산 - 학습지(언어-줄긋기)</li> <li>⑨ 룡천 - 스피드 퀴즈</li> <li>⑩ 백두산 - 북한 어린이에게 엽서쓰기</li> </ul>		
평가	1. 마지막 북한 어린이에게 쓴 엽서를 모듬별로 전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다. 2. 활동 중 느낀 점을 발표한다.		
유의점	활동시간 안배에 유의한다.		

## ▣ 활동자료

### ▶ 자료 1 : 제주 - 학습지(○×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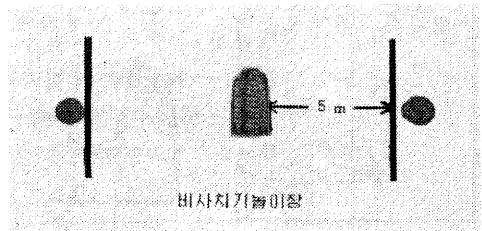
<활동 1 -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를 참고해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5-7 문항 정도의 ○×퀴즈 출제한다.

### ▶ 자료 2 : 부산 - 북한 전통놀이 체험하기

이 놀이는 '망치기'로 알려진 놀이와 유사한 놀이로, 놀이 설명은 평양 금성출판사(1994)가 출판한 <재미있는 민속놀이>의 내용을 정리·요약하였다. 서술된 내용을 보면서 남북이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등을 놀이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도 좋겠다.

- 놀이명 : 비사치기
- 놀이유래 : 비사치기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어린이들의 민속놀이로서 지방에 따라 <비사찌기>, <미껴차기>, <자새차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비사치기라는 말은 이 놀이에 쓰이는 동글납작한 돌을 곧바로 날려보내지 않고 사선으로 날려보내어 친다는데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 놀이준비 : 이 놀이를 위해서는 말(동글납작한 돌멩이)과 과녁돌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두개가 있어야 하는데 직경 10센치미터정도, 두께 3~5센치미터 정도로서 크기와 무게가 같은 납작한 돌멩이면 됩니다. 과녁돌로서는 높이 20센치미터, 직경 10~15 센치미터 정도의 땅에 세울 수 있는 돌멩이 하나면 됩니다.
- 놀이방법

1) 놀이를 하기 위하여 먼저 10미터 정도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금을 긋고 그 금 바깥에 두 편이 서로 마주섭니다. 그리고 두 편 사이의 5미터되는 곳에 과녁돌을 세워놓습니다. 말을 두 편에서 각각 하나씩 가집니다.



- 2) 다음 두편의 주장들이 나와서 말 한쪽에 연필로 표식을 하고 머리높이로 올리던져 땅에 떨어진 다음 표식이 나온 편이 먼저 합니다.
- 3) 놀이는 두 편에서 한명씩 엇바꾸어가면서 합니다. 놀이는 두 편이 차지한 금의 시작점에서부터 합니다.
- 4) 첫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시작점에 그냥 서서 손으로 말을 던져 과녁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 5) 두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첫 번째 놀이보다는 좀 불불리한 것인데 과녁돌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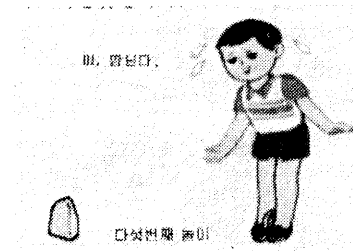
시작점에 나와 선 다음말을 손에 쥐고 뒤로 돌아서서 다리를 벌린 다음 두다리 사이로 말을 던져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림 2>



6) 세 번째 어린이 놀이는 시작점에서부터 말을 쥐고 세 걸음 앞으로 걸어간 다음 말을 땅에 놓고 발로 차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7) 네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세 번째 어린이의 놀이보다 좀 어려운 것으로 말을 발등에 올려놓고 다섯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가서 발등으로 말을 날려 보내어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8) 다섯 번째 어린이는 말을 두발사이에 끼우고 두발모두 뛰기로 여섯 걸음 앞으로 나가서 두발로 말을 날려 보내는 방법으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9) 여섯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말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두발모두 뛰기로 일곱 걸음 앞으로 나가서 두 무릎으로 말을 날려 보내는 방법으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10) 일곱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말을 겨드랑이에 끼고 여덟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가서 겨드랑이로 말을 날려 보내는 방법으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11) 여덟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말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앞으로 아홉 걸음 걸어 나가서 어깨로 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12) 아홉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여덟 번째 어린이의 놀이와 비슷한 것으로 말을 머리 위에 이고 열걸음 걸어 나가서 머리로 말을 떨어뜨려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13) 열 번째 어린이의 놀이는 모든 놀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으로서 말을 목등에 올려 놓고 뒤걸음질로 열 걸음 걸어 나가서 말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과녁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14) 열한번째 어린이는 말을 손에 쥐고 눈을 감은 다음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앞으로 걸어 나가서 눈을 감은 채 말을 던져 과녁들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15) 놀이의 평가는 과녁들을 맞혔을 때에는 1점, 넘어뜨렸을 때에는 2점으로 하고 맞히지도 넘어뜨리지도 못하였을 때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자료 3 : 광주 - 학습지(언어-칸 채우기)

<언어학습지>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보태주다		방청소		도착하다	
건망증		쏘아보다		장난감	
주민등록증		육교		배웅	
창의성		나이테		드문드문	
업신여기다		무지개		잔돈	

예 : 가로보다, 창발성, 가닿다, 거닐길, 도간도간, 덧주다, 어김다리, 숙보다, 부스럭돈, 방거두매, 공민증, 색동다리, 잇음증, 바래움, 해돌이, 놀음감

<언어학습지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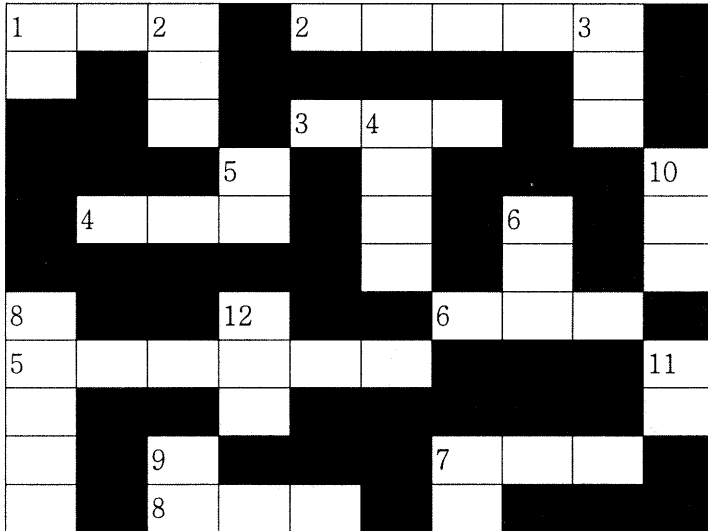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보태주다	덧주다	방청소	방거두매	도착하다	가닿다
건망증	잇음증	쏘아보다	가로보다	장난감	놀음감
주민등록증	공민증	육교	어김다리	배웅	바래움
창의성	창발성	나이테	해돌이	드문드문	도간도간
업신여기다	숙보다	무지개	색동다리	잔돈	부스럭돈

▶ 자료 4 : 대전 - 간단한 문제풀기

- 문제 :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 318명이 18종목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 18가지 경기종목 중 5가지를 5초안에 말해보세요.
- 정답 : 축구, 농구, 사격, 조정, 체조, 탁구 등
- 설명 : 북한의 유명 선수들과 주력 경기종목에 대해 소개한다.

▶ 자료 5 : 서울 - 퍼즐 맞추기

• 퍼즐판



• 퍼즐판 문제

가. 가로열쇠

1.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학교는?
2. 남한의 최고 통치자에게는 대통령이라는 공식직함을 쓴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의 공식직함은?
3. 남한의 개고기에 해당하는 북한 말은?
4. 북한의 국보 1호는?
5.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6. 최고봉이 비로봉이며, 12,000봉우리가 있다는 북한의 명산은?
7. 남한의 국기의 명칭은 태극기이다. 그렇다면 북한 국기의 명칭은?
8. 북한의 표준어를 칭하는 말은?

나. 세로열쇠

1.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재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수업이 마친 후 특기를 개발 하기 위해 ○○활동을 한다.
2. 단순 서커스와 달리 체육·무용·연극 등이 결합된 군중예술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했던 평양○○이 유명하다.
3. 북한의 비공식적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곳은?
4. 남한의 높은음자리표에 해당하는 북한말은?
5. 고려의 수도로도 잘 알려진 이 도시는 요즘은 남북이 함께 하는 새로운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6. 북한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백두산 동남쪽에 위치한 강은?
7.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다.
8.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는?
9. 뉴스와 정보 등을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10. 불펜에 해당하는 북한 말은?
11. 채소에 해당하는 북한 말은?
12. 서울에서 북한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이름은?

• 퍼즐판 정답

1소	학	2교		2국	방	위	원	3장	
조		예						마	
		단		3단	4고	기		당	
			5개		음				10
	4평	양	성		기		6두		주
					호		만		필
8팔			7경			6금	강	산	
5만	수	대	의	사	당				11남
대			선						새
장		9신				7인	공	기	
경		8문	화	어		민			

▶ 자료 6 : 평양 - 학습지(○×퀴즈)

<활동 1 -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와 기타 자료를 참고해서 <북한일반>에 관련된 문제 5-7문항 정도의 ○×퀴즈 출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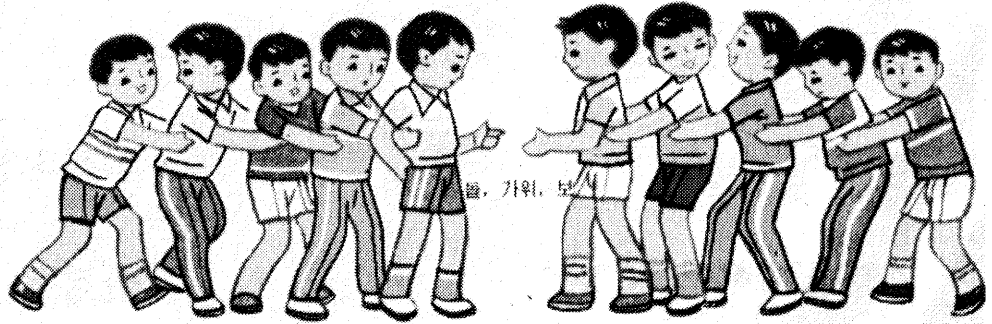
▶ 자료 7 : 개성 - 전통놀이(수박따기)

이 놀이는 남한에서 '꼬리잡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놀이와 유사한 놀이이다. 설명은 평양 금성출판사(1994)가 출판한 <재미있는 민속놀이>의 내용을 정리·요약한 것으로 북한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그대로 정리하였다. 서술된 내용을 보면서 남북이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등을 놀이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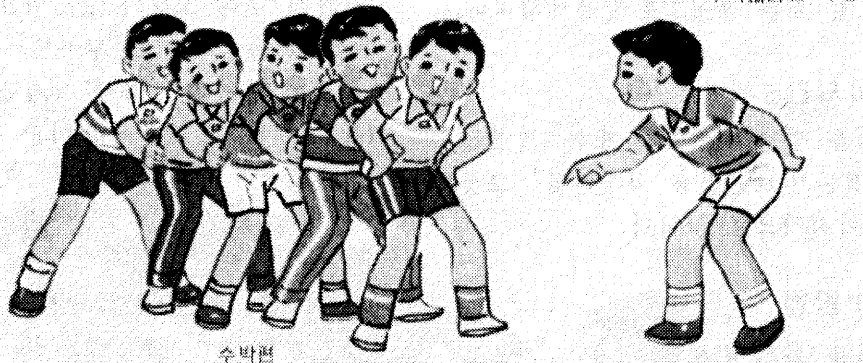
- 놀이유래 : 이 놀이이름은 옛날 처녀애들의 귀여움을 탐스러운 수박에 비긴데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 놀이시간 : 수박을 몇 개 따겠는가 또는 몇분동안 하겠는가 하는 것을 약속하면 그것이 놀이시간으로 됩니다.

• 놀이방법

- 1) 편을 가르고 두 편에서 각각 책임자로서 주장을 한명씩 정하여야 합니다.
- 2) 주장이 정해지면 두 주장을 5~10발자국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섭니다.
- 3) 맨 앞에 선 두 편 주장이 앞으로 나와서 어느 편이 먼저 수박을 따기로 할 것인가를 돌, 가위, 보(가위, 바위, 보)를 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 4) 순서가 정해지만 수박을 먼저 따기로 된 주장을 그 자리에 서있고, 수박을 떼우게 된 편이 주장을 자리로 돌아가 자기 대렬을 지휘할 준비를 합니다.
- 5) 상대방 주장은 앞으로 나와 맨 뒤 구성원을 떼려하고, 수박을 떼우게 된 편이 주장은 두팔을 벌려 상대방 주장을 막으려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움직입니다.
- 6) 놀이는 계속되어 결국 수박을 떼우거나 수박넙쿨이 끊어지는 것으로 놀이는 끝납니다. 수박넙쿨이 끊어지면 끊어진 뒤의 수박들은 떼운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놀이를 위한 시간안에 수박을 떼우지 않으면 이기는 것으로 됩니다.
- 7)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 수박을 떼우게 되었던 편이 수박을 따는 편이 됩니다.
- 8) 수박따기놀이는 두 편이 동시에 수박따기를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놀이의 승부는 수박을 먼저 떼웠거나 수박넙쿨이 먼저 끊어진 편이 지는 것으로 됩니다.



▶ 자료 8 : 원산 - 학습지(언어-줄긋기-운동용어)

운동용어 학습지 1

\* 같은 의미끼리 연결하세요.

골키퍼

스타플레이어(주장)

접영(수영)

펜싱

자유형(수영)

포수(야구)

스트라이크(야구)

아웃

코너킥

모서리공

실격

받는사람

정확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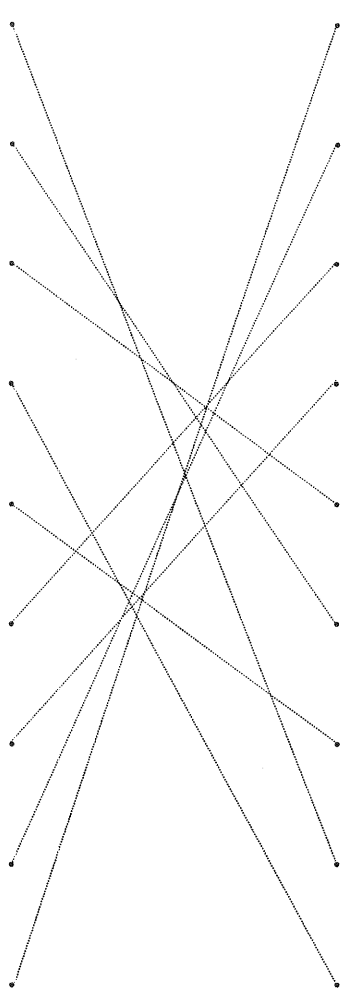
나비헤엄

기동선수

자유헤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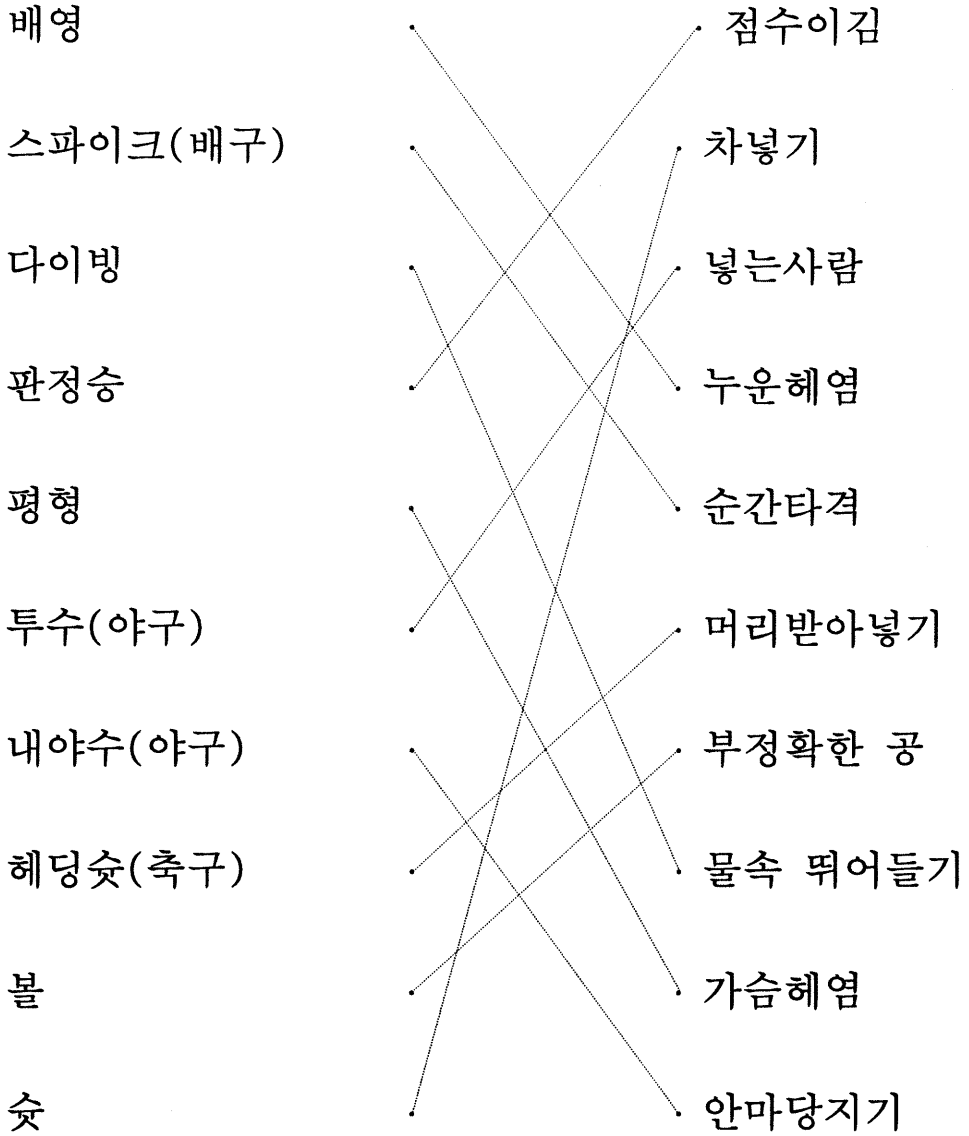
문지기

격검



운동용어 학습지 2

\* 같은 의미끼리 연결하세요.



▶ 자료 9 : 룡천 - 스피드 퀴즈

- 각 모둠별로 5-7개 정도의 문제를 준비해서 대표가 나와 모둠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 사전학습 정도에 따라 할당시간은 조정한다.
- 예 : 주체사상, 문지기, 날래 등  
(확인학습 차원에서 ①~⑧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단어를 선별해도 좋다.)

▶ 자료 10 : 백두산 - 북한 어린이에게 엽서쓰기

전체 활동을 정리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간단하 자기소개와 함께 만나고 싶은 마음을 엽서를 작성한다.

## 2. 환경보호 활동

### 활동 1. 자연의 웃을 입자

개요	자연의 소리를 담은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친구와 함께 몸을 움직여 보고 큰 종이에 그려져 있는 사람 실루엣 안을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으로 가득 채워보는 활동이다.		
목표	자연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상하고 새삼 자연의 기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서로 의지하며 편안하게 춤을 춰봄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편안함(릴렉스)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등급	초급	활동시간	1시간~1시간 30분
참가인원	한 모둠을 4명으로 구성 (개별 또는 짝을 지어 활동 가능)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활동 설명), 전체 규모에 따라 보조지도자 1~3명
준비물	자연의 소리를 담은 또는 맑은 명상을 위한 음악, 사람 실루엣이 그려진 전지, 필기도구(매직 등)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모두들 모여 등글게 앉는다. 되도록이면 원은 크게 만든다. ※ 공간이 넓고 부딪힐만한 물건이 없는 곳이 좋다.</li> <li>❷ 전체지도자는 참가 학생들이 매우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에 대해 설명 한다</li> <li>❸ 전체지도자는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활동방법을 알려준다.</li> </ul>		
전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자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다 같이 이야기 나눈다.</li> <li>❷ 모두들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명상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은 채 마음이 끌리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li> <li>❸ 한번 음악을 다 들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짝을 이루며 제자리에서 일어난다.</li> <li>❹ 짝을 이룬 두 사람 중 순서를 정해 한 명은 눈을 감고 한 명은 눈을 뜬 채 손을 잡는다. 이제부터 눈을 감은 사람은 몸에서 힘을 뺀 채 짝꿍에게 자기의 모든 움직임을 맡긴다.</li> <li>❺ 다시 음악이 들리면 눈을 뜬 사람은 눈 감은 친구의 손을 잡은 채 자유롭게 ·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음악이 끝나면 순서를 바꿔 다시 활동한다.</li> </ul>		
전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이번에는 큰 원으로 둘러앉아있던 참가 학생들을 4명씩 한 모듬으로 나눈다.</li> <li>❷ 전체지도자는 '나는 누구일까요?' 식의 설명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자연을 떠올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 한다.</li> <li>❸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며, 사람 실루엣에 자연으로부터의 수많은 혜택을 나타내도록 한다(활동자료 1).</li> <li>❹ 각 모듬에 사람 실루엣이 그려진 전지와 크레파스 · 매직 등의 필기도구를 나눠준다.</li> <li>❺ 모듬별로 일정 시간(약 30분 정도)을 주어 사람 실루엣 안과 밖을 자유롭게 꾸미도록 한다. 보조지도자는, 모듬별로 서로 자연을 느껴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의 소중함도 새삼 이야기하면서 활동에 임하도록 유도한다.</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첫 번째 활동이 끝나고 나면 모두 함께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li> <li>② 두 번째 활동 후 모둠별로 모여 각각의 그림을 살핀다. 그리고 한쪽에 모아서 전시한다.</li> <li>③ 활동 및 질문을 통해 깨닫거나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명상음악이라 해서 너무 조용하거나 음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음악이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음악은 부드럽고 편안하되 나름대로 음정의 변화가 있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li> <li>② 전지 속의 사람 실루엣 모습은 다양한 동작으로 그린다면 더 재미있을 듯하다.</li> <li>③ 한편, 사람 실루엣 밖에는 자연의 아름다운 색깔이나 모습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실루엣을 안을 완성한 후 자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짧은 글을 쓸 수 있다.</li> <li>④ 지도자들은 모둠 활동에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도록 하며(자주 돌아다니며 살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활동 시작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⑤ 그림을 잘 그리거나 결과물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또는 모둠 안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li> </ul>

## 📖 활동자료

- ▶ 자료 1 : 활동 전개 및 방법 보충 - 자연으로부터의 혜택 예시
  - 자연의 아름다운 새소리 · 바다소리는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귀를 통해서 말이죠.
  - 싱그러운 나물 · 상큼한 과일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 바람은 우리의 피부를 시원하고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 흙길은 우리의 발에 상쾌함을 전합니다. 등

## 📖 심화자료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국제평화의 어린이회(2000). *깨어나 일어나*. 서울: 사람생각.

## 활동 2. 아낌없이 주는 자연 - 자연의 선물

개요	자연물이나 다 쓰고 버리게 된 물건을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악세서리나 재활용품 등을 만들 수 있는 몇 쪽지(코너)를 준비해 모듈별로 한 두 가지 쪽지를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이다.		
목표	자연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나 다 쓰고 버리게 된 물건들을 이용해 간단한 소품이나 환경친화적인 재활용품을 만들어봄으로써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 10분~1시간 30분
참가인원	한 모듈을 8명 정도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활동 설명), 쪽지(코너)별 지도자 4~6명
준비물	쪽지별 준비물 (활동자료 1-①)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야외로 나와 옹기종기 모여 앉는다.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자유롭게 앉도록 한다.</li> <li>❷ 전체지도자는 참가 학생들에게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연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한다. 참가 학생들은 명상을 하며 자연의 부드럽고 편한 분위기를 오감을 통해 느껴보도록 한다.</li> <li>❸ 전체지도자는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활동방법을 알려준다(활동자료 1).</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한 모듈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게, 약 6 ~ 8명 정도로 모듈을 만든다.</li> <li>❷ 전체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면, 모듈을 조직한 다음 전체지도자가 각 모듈과 함께 체험할 쪽지(코너)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참가 학생 전체 규모에 따라, 하나의 쪽지 체험활동만 할 수도 또는 몇 가지 쪽지를 체험해볼 수도 있다.</li> <li>❸ 모듈이 각 쪽지별 장소에 도착하면 쪽지도자들이 각 쪽지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고 활동한다.</li> <li>❹ 일정 시간(약 50분 정도) 동안 모듈별로 쪽지 체험활동에 임한다.</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쪽지 체험활동이 끝나면 각자 완성한 물건을 가지고 모인다.</li> <li>❷ 전개 활동에 대한 또는 자연/환경에 대한 OX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다(활동자료 2-①).</li> <li>❸ 각자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다(활동자료 2-②).</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도입 활동 시, 야외로 나와 조용히 앉는 대신 맨발로 흙길을 걸어보거나 산책을 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삼삼오오 앉아 명상에 잠겨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li> <li>❷ 쪽지 체험활동 동안 자연과 어울리는 노래들을 활동의, 배경음악으로 틀어 줄 수 있다(활동자료 2-③).</li> <li>❸ 참가 학생들이, 활동하고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등의 행동은 무의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종종 칭찬 및 완곡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li> </ul>		

## ☞ 활동자료

### ▶ 자료 1 : 꼭지(코너)별 활동 소개 및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 ▷ 천연염색하기 : 예 - 봉선화 · 쪽 · 포도 · 양파껍질

① 준비물 : 칼이나 작두 / 고운 체 / 솥 / 고무장갑 / 옥양목 등의 염색하기 좋은 천 등

② 활동 소개 및 방법 :

• 봉선화

- 봉선화 전체(꽃 잎 줄기)를 베어다 칼이나 작두로 잘게 썰어 절구에 곱게 찧는다.

- 물을 같은 양으로 부어 고운 체로 거른다.

- 앞에서 얻은 염액에 명반을 넣고 반복 염색하면 누런 황색을 얻을 수 있다.

• 쪽 : 봄에 채취한 쪽으로 연한 쪽색이, 가을에 채취한 쪽으로는 은회색이 염색된다.

- 채취한 쪽은 아주 잘게 썰어서 물을 2배 이상 적적히 붓고 오래 끓인 다음 고운체로 거른다.

- 염액이 따뜻할 때 바로 초산을 넣고 반복 염색하면 연한 쪽색을 얻을 수 있으나 변색이 약간 있다.

• 포도

- 포도껍질 0.5L 정도에 물 3L 정도를 붓고 처음에는 강한 불로 하다 나중에는 중불로 30여분간 충분히 끓인다. 껍질이 충분히 물에 젖었을 때 고운 체에 걸러낸다.

- 염액에 명반을 약간 넣고 염색하면 보라색을 얻을 수 있으나 변색이 심하다. 하지만 매염제를 넣지 않은 염액에 염색한 후 후매염으로 깃물이나 석회수를 처리하면 부드러운 미갈색을 얻을 수 있다.

- 포도가 없을 철에는 포도즙을 이용해도 그대로의 멋이 있다.

• 양파

- 양파껍질이 푹 잠길 수 있도록 물을 넉넉히 붓고 강한 불에 올려놓아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30분 가량 끓여서 고운 체로 거른다.

- 재탕을 하여 얻어진 염액과 합한 후 명반이나 식초를 가해 염색한다.

- 염색할 천을 염액에 담그고 잘 주물러 10여 분 이상 방치했다 가볍게 짜서 말린다.

- 실크류에 염색하면 색이 곱지만 면류의 염색도 잘 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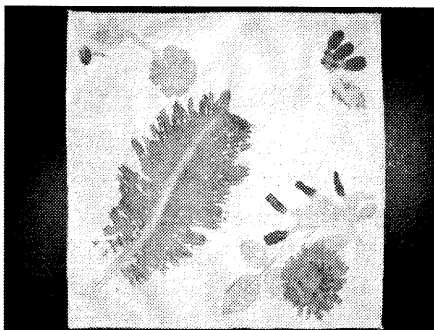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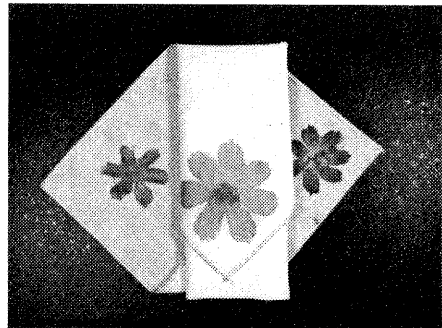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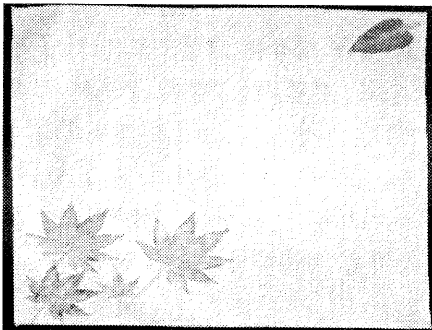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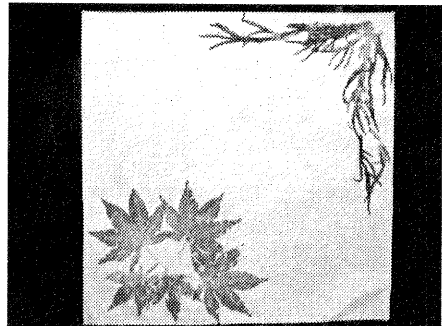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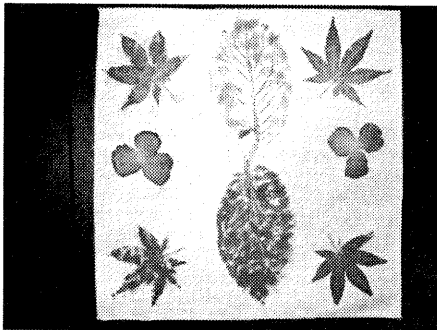
-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주부들이 주방요리 중에 모아지는 양파껍질로 실크류에 염색하여 스카프 등으로 만들어서 선물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 ▷ 풀빛 손수건 만들기 : 나뭇잎 · 풀잎 · 꽃잎으로 만든 손수건

① 준비물 : 나뭇잎 · (소위 잡초라 불리는) 풀잎 종류 · 꽃잎 / 숟가락 / 손수건 크기의 옥양목 등

② 활동 소개 및 방법 :

- 갖가지 나뭇잎 · (소위 잡초라고 부르는) 풀잎 · 꽃잎을 주워 모은다.
- 모은 나뭇잎 등을 자기 마음대로 손수건 위에 올리며 디자인한다.
- 나뭇잎 하나를 손수건 위에 올려놓고 손수건을 접는다. 그러면 데칼코마니처럼 양면으로 염색이 되니 한 면만 염색을 하고 싶으면 TP용지(OHP 필름)로 한쪽에 올려놓고 손수건을 접는다.
- 손가락으로 나뭇잎 등이 껴 있는 손수건 면 위를 툭툭 친다. 평평한 곳에 놓고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잎맥이 먼저 나타나도록 두드린 후 점점 세세한 부분까지 베어 나오게 한다.
- 활동 후, '천일염을 넣은 끓는 물'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이고 꺼내면 염색이 오래 간다.
-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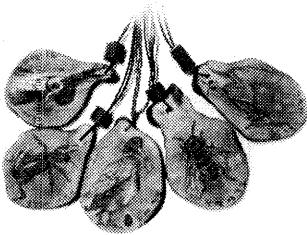
예시출처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모임\_ 정진영\_ <http://konect.ktu.or.kr/main.htm>

▷ 나뭇가지나 자연물 이용해 핸드폰 악세서리 또는 목걸이 만들기

① 준비물 : 나무 / 조각도 / 목장갑 한 짝 / 네임펜 및 색연필 / 갖가지 도감 등의 그림 / 목걸이 줄이나 핸드폰 악세서리 고리 등

② 활동 소개 및 방법 :

- 제작에 앞서 나무의 향을 맡거나 촉감을 느끼도록 해서 나무를 느껴보도록 한다.
- 때죽나무나 참나무 기타 다양한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펜던트)
-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드릴을 사용할 경우 장갑을 끼고 사용하면 위험)
- 사포를 이용하여 곱게 사포질한다.
- 그림을 그리고, 다 그린 다음 줄을 끼거나 핸드폰 악세서리 고리를 낀다.
- 예시 :



도감을 보고 만든 목걸이



다양한 펜던트 또는  
핸드폰 악세서리



판화를 응용한  
목걸이

- 주의사항 : 인권을 상징하는 것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야생화, 새 도감 등을 참조해 그릴 수 있다. 한편, 사포질을 충분히 해야 나무 자체에서 오는 느낌을 즐길 수 있으나 나무껍질 부분(진한 색)은 되도록 사포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실적인 그림만 고집하지 말고 자신이 관심 있는 문양이나 캐릭터도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드릴을 사용할 때는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조각도를 사용할 때에는 꼭 장갑을 사용한다.

**학생 질문 : 환경을 생각한다면 나무를 사랑해야지 왜 나무를 사용합니까?**

교사 답변 : 인간이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생산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자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사용한 물건들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 자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나무는 숲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채취한 나무입니다.

프로그램 출처 : 칠보산 도토리 교실\_ 임종길\_ [cafe.daum.net/dotoliroom](http://cafe.daum.net/dotoliroom)

▷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① 준비물 : 폐식용유(부침개나 튀김 후 남은 식용유, 사과 등 뼈를 삶고 남은 고기기름국물 등) / 큰 솥 / 고무장갑 및 마스크 / 가성소다(NaOH) - 화공약품상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독극물이므로 취급에 주의 / (젓기 위한) 큰 주걱막대 / 플라스틱 그릇 2개 (큰것 · 작은 것) 등

② 활동 소개 및 방법 :

- 거르기 : 수집한 폐식용유는 약 18L정도가 적당하다. 이때 폐식용유 속 이물질을 철망 등으로 걸러낸다. (이물질이 있으면 비누제조 시 잘 응고되지 않음)
- 가성소다수 만들기 : 18L의 폐식용유에 적당한 가성소다수(양젓물)는 약 5L이다. 물 5L을 담은 작은 대야에 98%짜리 가성소다 2.7~3kg을 부어 가성소다수를 만든다. 가성소다 취급 시 고무장갑을 끼고, 독한 냄새가 나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때 가성소다를 물에 풀면 대야가 따뜻해지면서 양젓물이 만들어진다.
- 가성소다수를 폐식용유에 붓기 : 가성소다수를 폐식용유에 부을 때 단번에 붓는 것이 좋다. 가성소다수가 풀리기 시작하면 옆에 대기한 사람은 곧바로 막대기로 저어준다. 막대젓기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젓고 약 40분간 저어준다. 가성소다를 섞을 때 빨거나 소기름을 같이 넣으면 보다 질 좋은 재생비누를 만들 수 있다. 노란색을 띠던 폐식용유는 가성소다수가 섞이면서 일시에 하얗게 되지만 곧 덩어리 진흙갈색으로 바뀐다. 비누가 응고되는 과정이다. 이때에도 대야가 따뜻해지면서 계속 열이 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대젓기가 힘들 정도로 용액이 뽁뽁해지면 응고가 잘돼 질 좋은 재생비누가 만들어지는 신호이다.
- 모양 만들기 : 40분간 젓는 작업이 끝나면 스티로폼상자나 플라스틱상자 등과 같은 원하는 모양의 통에 뽁뽁한 폐식용유용액을 붓는다. 바닥에 현 면내의를 깔아주면 매끈한 모양의 비누를 만들 수 있다. 약 3시간이 지나면 폐식용유가 두부처럼 되는데 이때 적당한 크기로 칼금을 그어 준다. 비누가 완전히 굳으려면 7~10일정도 걸린다. 이렇게 만든 재생비누는 주방식기세척에 적격이다. 독성이 없으므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도 습진이 생기지 않는다. 그 외 빨래용 세제대용으로 쓸 수 있다.

프로그램출처 : [인터넷] <http://www1.inhatc.ac.kr/jhpark/source/topic/soapmake.html>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5ppm이 넘으면 대다수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며, 6ppm을 넘을 경우는 4급수 이하로 분류되어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 중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 쓰고 버리는 폐식용유이다. 기름 종류는 화학적인 성질 상 물 속 미생물이 자연 분해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식용유를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다.

쏟은물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3,000ppm 된장국이 3,500ppm인데 비해, 폐식용유는 무려 200만ppm에 달한다. 이는 500ml 우유팩 분량의 폐식용유를 버린 하천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유팩 20만 개 분량의 물이 필요하다.

[내용 출처 : 최열(1999), 최열 아저씨의 우리 환경 이야기 3. 서울: 청년사]

▶ 자료 2 : 평가 질문 예시 및 참조 자료

① 전개 활동(꼭지별 체험활동) · 자연/환경에 대한 OX 문제

- 가정에서 배출하는 하수 중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것 중 하나는 폐식용유이다. ( O )
- 식물의 꽃 색깔은 아주 다양한데, 우리나라 꽃 색깔을 크게 빨간색 · 노란색 · 흰색 · 청색으로 나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꽃색깔은 노란색이다. ( O : 노란색 - 흰색 - 청색 - 빨간색 순)
-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가장 많은 종이 7월에 꽃을 피운다. ( O )
- 이 세상에는 검은색 꽃도 존재한다. ( X : 검은 색을 내려면 가시광선을 전부 흡수하면 되는데 자연계에서 빛의 모든 파장을 흡수하는 색소 또는 그러한 색소의 조합을 갖는 꽃잎은 없기 때문에 검은색 꽃은 없음) 등

②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고 자연 안에서의 활동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는 질문 제시

- 무엇을 만들었는가?
- 하찮게 여겼던 자연물들이, 다 쓴 폐품들이,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 어떤 느낌/소감이 드는가?
- 활동하면서 펍 인상에 남았던 모습 · 생각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자연에게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연을 대하고 자연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겠는가?

③ 참조자료 : 체험활동 동안 배경음악으로 들려줄 만한 음악 소개

- 국악, 특히 창작 국악
- 백창우 · 어린이 노래모임 굴렁쇠 음반 ( <http://100dog.co.kr/> ) 등

☞ 심화자료

정옥기(2001). 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 서울: 들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국제평화의 어린이회(2000). 깨어나 일어나. 서울: 사람생각.

최열(1999). 최열 아저씨의 우리 환경 이야기 3. 서울: 청년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 <http://konect.ktu.or.kr/main.htm>

칠보산 도토리 교실 [cafe.daum.net/dotolircom](http://cafe.daum.net/dotolircom)

### 활동 3. 더불어 지구 살리기 - 대안 에너지로 기지개 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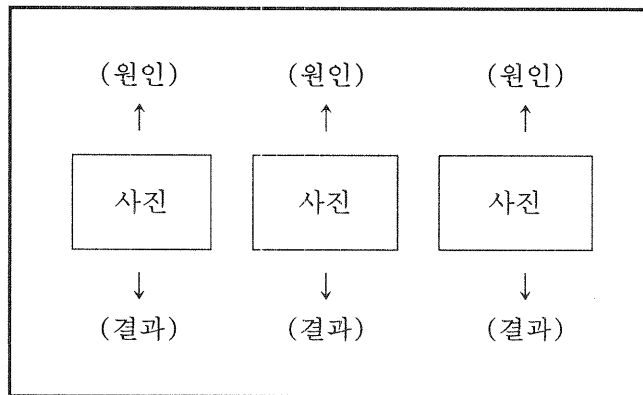
개요	환경 파괴는 결국 자연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고, 자연/환경 개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이 고루 누릴 수 있는 개발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목표	자연을 무턱대고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또는 무절제하게 이루어진 개발 사진이나 동영상 을 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살필 수 있다. 또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다양한 폐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과 적절한 개발이 어우러진 그림을 그리기 및 만들기를 할 수 있다.		
등급	고급	활동시간	1시간 30분~2시간
참가인원	한 모둠을 6~8명으로 구성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활동 설명), 전체 규모에 따라 보조지도자 1~3명
준비물	무분별한 개발과 관련된 사진이 몇 장 붙어있는 도화지 (: 모둠별로 다른 사진 제시 가능) 예) 다친 야생동물 사진, 부안 핵 폐기장 농성 장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농성 사진, 천성산 도롱뇽소송 사진, 열화우라늄탄 피해 아이, 독일 등지의 대안에너지 실용화 사진 등 필기도구(크레파스, 사인펜이나 색연필 등), 전지, 다양한 폐품(병뚜껑, 잡지나 신문지 등), 풀, 수수깡 등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지도자는,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li> <li>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에게도 결국 인간에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li> <li>각 모듬은 둥글게 모여서 전체지도자의 이야기 들으며 모듬원들과 함께 고민해볼 문제를 생각하고, 보조지도자는 각 모듬에게 여러 준비물을 나눠준다.</li> </ol>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리한 개발 관련 사진을 몇 장씩 모듬별로 나눠준다(활동자료 1-①).</li> <li>참가 학생들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전체지도자의 질문에 모듬원들과 고민하며 적는다(활동자료 1-②).</li> <li>그 원인 및 결과를 다 적은 다음, 간단하게 모듬별로 그 내용을 발표한다.</li> <li>발표 후, 전체지도자는 이러한 일(사진 속의) · 그 원인 및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다(활동자료 1-③).</li> <li>모듬원끼리 생각한 해결방법을, 다양한 폐품 및 자연물을 이용해 전지에 표현한다(활동자료 1-④).</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 활동 후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다.</li> <li>활동 후, 생각이나 소감 등을 이야기한다.</li> <li>활동 후, 다양한 영상 자료 중 하나를 보고 소감이나 의견을, 모듬에서 꾸민 마을에 직접 쓰거나 붙일 수 있다(활동 및 심화자료 2-①).</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자칫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보다 현실감 있게 생각하고 적용 가능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조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참가학생들이 보다 정확하게(목표에 맞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li> <li>보조지도자는 각 모듬의 활동과정을 살피며, 사진 내용과 관련된 리플렛 제공 또는 관련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활동 및 심화자료 2-②).</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활동 전개 및 방법

#### ① 준비물

- 사진이 붙어있는 도화지 : 다친 야생동물 사진, 부안 핵 폐기장 농성 장면,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농성 사진, 천성산 도롱뇽소송 사진, 열화우라늄탄 피해 아이, 독일 등지의 대안에너지 실용화 사진 등
- 예시 : 원인(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이나 결과(계속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에 대해 생각해보고 적을 수 있는 도화지



#### ② 개발 관련 사진에 대해, 던질 수 있는 질문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는가?(원인 따져보기)
- 또는 (활동 중인 사진이라면)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거라 생각하는가? (결과 따져보기)
- 그런데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이들은? / 사진 속 활동의 목적)

#### ③ 원인 및 결과 제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볼 수 있도록, 던질 수 있는 질문

- 소수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개발을 모든 사람이 고루 누릴 수 있는 개발로 바꾸기 위해서는?
  - 에너지 관련이라면, 대체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등 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최대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모둠원끼리 생각해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는 정의 있게 생각하고 얻어낸 것인가?

#### ④ 전지에, 인간들이 모두의 이익 및 인권을 존중하며 자연/환경과 더불어 적절한 개발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한다. 핵 대신 자연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마을 등, 즉 원자력 발전소 대신 풍력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등의 장면을 예로 들며 말이다. (바람개비를 만들어, 원자력 발전소 대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친환경적 시설 설치 등)

▶ 자료 2 : 활동을 어렵게 여기는 모둠에게 제시할 수 있는 영상 등의 자료들

- ① 영상자료 : 핵폐기장 유치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안주민 투쟁을 담은 비디오 시청
- 참소리\_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23분 / 40분)\_ <http://cham-sori.net> / 문의 063-254-1968
  - 새만금간척사업 반대\_ 농발계\_ 자료실 동영상 모음\_ <http://www.nongbalge.or.kr/>
  - 다양한 환경 관련 동영상\_ 녹색연합\_ 동영상 뉴스\_ <http://www.greenkorea.org/> 등
- ② 보충 / 심화 자료 및 사진 자료 :
- 천성산 도롱뇽소송 <http://www.cheonsung.com>
  -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  
새만금간척사업 중단 이유 <http://user.chollian.net/~coruna/ssbb3.htm>  
농발계\_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http://www.nongbalge.or.kr/>
  - 부안핵폐기장 반대 등의 자료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http://konect.ktu.or.kr/main.htm>
  - 독일 등지의 대안 에너지 실용화 사진 등의 정보 :  
에너지 대안 센터 <http://www.energyvision.org>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다친 야생동물 사진 등의 자연/환경 관련 사진 및 정보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야생동물소모임 <http://www.yasomo.net/>

☞ 심화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4).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샵. 서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http://konect.ktu.or.kr/main.htm>

### 3. 세계화 활동

#### 활동 1. 1분 발언

개요	이 활동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신속함과 창의력을 드러내야 하고 1분 동안 체육과 인권의 관계를 말해야 한다. 모든 권리가 관련된다.		
목표	체육과 서로 연관되어 나눌 수 없는 인권권리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도록 신뢰를 충분히 얻기		
등급	초급	활동시간	40분
참가인원	무관	지도자	전체 진행자 1명, 보조진행자 2명
준비물	발언 글 세트, 모자 1개, 초침이 있는 손목시계나 크로노미터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언 내용이 담긴 종이를 복사하여 오린다(활동자료1).</li> <li>② 이 종이를 모자 안에 넣는다.</li> </ol>		
전개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가자들을 등글게 앉힌다.</li> <li>② 모자를 돌리게 한다. 참가자들은 보지 않고 순서대로 종이 한 장을 뽑는다.</li> <li>③ 참가자들이 뽑은 종이 내용을 가지고 1분씩 발표하게 준비한다. 규칙은 망설이거나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li> <li>④ 참가자들을 둘러보고 저마다 자기 발표를 하게 한다.</li> <li>⑤ 참가자들이 다 발표하고 나서 2-3분 동안 해설하게 한다. 참가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많으면 그것을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말하기로 한다.</li> <li>⑥ 모든 사람이 발언을 마치면 보류한 문제들을 다시 거론한다.</li> <li>⑦ 보고하고 평가한다.</li> </ol>		
평가	<p>이 활동을 한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웠는가?</li> <li>② 가장 미묘한 주제는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③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킨 발언은 어떤 것이었나?</li> <li>④ 참석자가 가장 놀랍게 들은 것은 무엇인가?</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활동은 여러 수준에서 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다. 진행자가 좀 더 깊이 성찰하게 하는 어떤 점을 말하고자 하면 '꽤 특유한' 대답을 기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li> <li>② 활동자료에 있는 것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자유롭게 다른 것들을 생각해본다.</li> <li>③ 표현하기를 매우 망설이는 사람을 격려한다. 30초 동안, 아니면 20초라도 말해보라고 권유한다. 또 친구와 연습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말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li> <li>④ 모둠이 작으면 여러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참가자가 15명 이상이면 두 모둠으로 나눈다.</li> <li>⑤ 주제 하나를 골라 실천행동으로 정하게 한다. 자기가 고른 주제에 대해 계속 연구할 계획을 잡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와 관계를 갖게 한다.</li> </ol>		

📖 활동자료

▶ 자료 1 : 발언할 내용을 적은 종이

<p><b>운동과 일반인권</b> 로날도 운동선수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 에 이즈 퇴치 운동인 “변화의 힘”의 좋은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p>	<p><b>운동과 사회권리</b> 남녀 전문운동가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조합을 설립하고 부당하게 파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p>
<p><b>운동과 일반인권</b> 운동가들은 국제수준의 행동 규범에 서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선전을 목적으로 운동시합을 벌이면 이 규범을 위배하여 벌을 받는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게 아닌가?</p>	<p><b>운동과 환경</b> 사람과 환경에 해롭다고 골프경기장을 자주 비난한다. 왜냐하면 이 경기장들은 농업과 임업을 위해 개간한 영역에 생겼고 또 이를 유지하려면 많은 물과 제초제와 살충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은 골프를 인간권리의 한 문제로 삼는 것인가?</p>
<p><b>운동과 일반인권</b> 경찰은 선동자로 의심받는 축구 후원자들이 다른 나라 시합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통행과 단체결성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인가?</p>	<p><b>운동과 세계화</b> 운동화와 다른 여러 장비들은 동유럽과 극동지역의 저임금 노동자가 싸게 만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계속 일하고자 동맹파업을 거부하였다. 소비자인 우리는 그들을 착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p>
<p><b>운동과 어린이</b> 아이들에게 끝없이 연습 시간을 강요하는 야심찬 부모와 코치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청소년의 건강과 여가시간을 활용해야만 하는 방식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p>	<p><b>운동과 사람의 안전</b> 중국은 낮은 인권 점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008년 올림픽경기 주최국으로 선택되어야만 했을까?</p>
<p><b>운동과 시민권</b> 많은 사람은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운동경기에서 선수들을 응원할 때 자기를 받아들인 나라의 팀 대신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팀을 계속 응원한다. 어느 나라 팀을 응원해야만 하는 걸까?</p>	<p><b>운동과 매체</b> 텔레비전 회사는 운동시합의 독점보도를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p>
<p><b>운동과 차별</b> 장애인올림픽 경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p>	<p><b>운동과 평화</b> 시합운동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는가?</p>

<p><b>운동과 차별</b> 선수에 대해 성검사 하는 것은 공정한 시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가? 아니면 인간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권리를 위배하는 것인가?</p>	<p><b>운동과 가난</b> 당신이 사는 나라의 정치인들은 운동과 운동시합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경제와 정치의 실제 문제를 단념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p>
<p><b>운동과 교육</b> 학교에 다는 동안 내내 운동을 의무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p>	<p><b>운동과 가난</b> 수많은 나라에서 운동, 특별히 축구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패스포트” 같은 것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p>
<p><b>운동과 동등한 성(性)</b> 가장 수준이 높은 체육지도자와 행정가들 속에는 여성의 수가 적다. 이 사실은 여성이 차별의 희생자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의하는가? 동의하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p>	<p><b>운동과 건강</b> 운동경기를 할 때 약물사용을 막기 위해 지역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p>

심화자료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Censeil de l'Europe.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활동 2. 모두를 위한 교육?

개요	이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전 세계적 교육 제공의 불평등과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숙고하면서 카드를 찾아 짝을 맞추어야 한다.		
목표	교육을 인권 이슈로서 생각하기. 전 세계에서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분석 비평.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적 달성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		
등급	중급	활동시간	1시간 30분
참가인원	6-30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2명
준비물	세 네 명으로 된 모둠을 위한 게임카드 각 1세트. 뾰뾰한 종이 2장(A4)이나 얇은 카드, 풀, 가위. 2부에서 사용할 노트용 종이와 펜.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카드를 잘 파악한다(활동자료 1).</li> <li>② 게임카드를 복사해서 자른 다음 뾰뾰한 종이에 붙여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li> <li>③ 카드 40장을 잘라낸다. 서로 짝을 이루는 카드가 붙어있지 않도록 잘 섞는다.</li> </ol>		
전개 1. 1부 기억게임 (1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쌍의 카드가 있다고 설명한다. 각 쌍은 문장카드와 그림카드로 구성되었다. 맞는 쌍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카드에 기록된 글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구현하려는 세계 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의 목적이나 인권과 교육에 대한 일반 이슈들에 연관되어 있다.</li> <li>② 참가자들을 서너 명씩 모아 모둠을 만든다. 카드 앞면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바닥에 흔뜨려 놓는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두 카드를 뒤집는다. 뒤집은 카드가 문장카드면 참가자는 그 글을 전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읽어준다. 뒤집은 카드들이 한 짝을 이루면 참가자는 이들을 간직한 채 한 번 더 뒤집는다. 카드들이 서로 짝이 맞지 않으면 먼저 있던 대로 정확하게 둔다. 다른 참가자가 이렇게 한다. 카드가 있는 자리를 외어야 짝이 맞는 카드들을 집어낼 수 있어서 기억게임이라고 한다.</li> <li>③ 게임이 끝날 때 카드 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li> </ol>		
전개 2. 2부. 이슈보고 (1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슈들을 플립차트에 요약해 적는다. 이것을 적을 때 사람들의 카드에 있는 제목들을(문장전체를 다시 읽지 말고) 읽어달라고 부탁한다.</li> <li>② 참가자 모임에게 가장 흥미로운 네 개 내지 여섯 개의 이슈를 선택하게 한다.</li> <li>③ 참가자 전원을 4-5명의 작은 그룹으로 나눈다. 가장 토론하고 싶은 이슈 두 가지를 고르도록 한다(더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른 두 그룹이 같은 이슈를 토론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려면 작은 그룹들이 어떤 이슈들을 토론할 지 의논해야 한다).</li> <li>④ 이슈들을 결정하고 배정했으면 각 그룹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 20분을 준다. 토론의 초점은 카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카드에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카드에 문장이 있으면 이에 대해 비평을 준비해야 한다.</li> <li>⑤ 20분 뒤에 사람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아 보고하도록 한다. 한 이슈씩 순서대로 다룬다. 각 그룹에게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주고 다른 곳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5분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li> <li>⑥ 모든 그룹이 이슈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 질의시간으로 넘어간다.</li> </ol>		

<p>평가</p>	<p>이미 이슈를 가지고 좋은 토론시간을 가졌을 것이니 이제 게임 자체와 사람들이 배운 것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으로 넘어 가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가자들이 기억게임을 즐겼습니까?</li> <li>2 교육이슈들을 토론하기 좋은 방법이었나요?</li> <li>3 그룹 안에서 한 토론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느끼고 있나요?</li> <li>4 도전이 너무 많았나요? “모두를 위한 교육”이 가능한가요?</li> <li>5 당신, 당신의 그룹, 당신의 지역사회는 당신의 나라와 /또는 개발도상국들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li> </ol>
<p>유의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의도는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 재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 활동은 진행하기에 매우 단순한 활동이다. 다만 지도자는 활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카드를 읽어본다. 서로 짝이 맞는 카드들을 확실히 알아두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안내하며 어느 짝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게임요령을 설명할 때 실제 카드의 짝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한다.</li> <li>2 몇몇 카드에는 약어가 쓰였다. 예를 들면 WEF(World Education Forum: 세계교육포럼). 게임을 소개할 때 이 철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준다(활동자료2).</li> <li>3 카드의 1/3은 2000년 4월 세네갈의 다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천명한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적에 관련된 문장들을 포함하도록 주의한다. 카드 나머지는 인권과 교육 이슈들이나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성취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한 것이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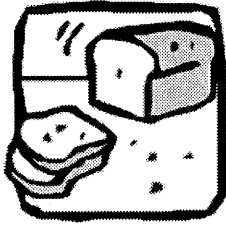
## ▣ 활동자료

### ▶ 자료 1: unesco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교육 포럼 최종 보고서, 2000

<p><b>돈과 교육</b>          자원의 부족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주된 위협이다. 재정적 수단이 없이는 정부들도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결의를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형편 없는 급료를 받는 교사와 자원의 부족은 교육의 질을 손상시킨다. 자원이 없이는 교육은 무의미하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없다! 동의하는가?</p>		<p><b>세계화와 교육</b>          세계화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교육에 좋은 영향만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 세계화의 특징인 급속도로 진행되는 무역 자유화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몇몇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정부의 수입원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자금 제공은 항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p>	
--	---	---	--

### 식량과 교육

개도국에서는 식량과 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매우 강하다; 배고픈 학생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 식량은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도록 하는 유인으로 사용된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굶어야 한다면 자녀들을 차라리 일터로 내 보낼 것이다.



### 교육과 인터넷

많은 나라에서 정보기술은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정보기술은 이제 연구조사와 숙제에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교육에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는데 동의하겠지만 사실 인터넷은 몇 가지 방법을 탐기도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차이는 점차 증가해 왔다. 많은 나라에 아직 컴퓨터는 마다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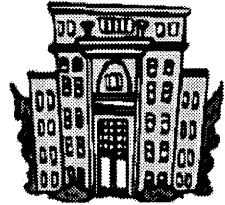
### 교육과 알코올

많은 학교/대학에서 과다음주가 큰 문제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폭력을 증가시킨다. 많은 학교에서 술을 교내로 반입하지 못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 대학(고등)교육

인권법에 관한 한 국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만 제공할 의무를 진다. 그 이상의 교육에 관한 한 책임이 없다. 국가의 의무가 대학 수준까지로 확장되어야 할까? 만약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답한다면 과연 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는가?



### 교사와 교육

교사/강사의 자질이 가끔 문제가 된다; 최고의 자질을 갖춘 교육자가 되기에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할 지 모른다. 교사자격증이나 대학의 경우 박사학위와 같이 교사/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런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혹은 이런 요구가 단지 교사의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 교육과 환경

유럽국가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바꾸는데 대한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선 생태적 관계, 경제, 정치 그리고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적 기술과 책임 및 관심과 같은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 무상교육

정부는 기초교육을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실상은 많은 나라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이나 학습재료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



### 훈련과 교육

각 나라의 학교와 대학들은 훈련을 위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 훈련방법에는 체험, 정학, 과의작업, 제적, 학교 혹은 대학 운영위예의 참석 등이 있다. 교육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성과 교육**

개도국에서는 남자 아이 86%에 비해 여자 아이들은 78%만이 학교에 다닌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60% 정도가 여아들이다. 세계교육포럼의 목표 중 하나는 2005년까지 일, 이차 교육과정에서 성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며 2015년까지 교육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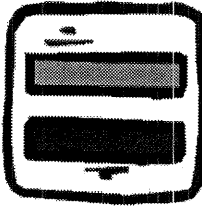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한 다”

교육기관은 흔히 학생들의 제 2의 가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비공식적 환경뿐 아니라 공식 교육에서도 그 일환이 되어야 한다. 공식적 커리큘럼 안에 평화교육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교육과 평등**

유치원 등록 현황은 버뮤다, 말레이시아, 벨기에와 스웨덴과 같은 곳의 100%로부터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2%와 같이 극과 극을 달린다. 세계교육포럼의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적절한 학습 및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배움에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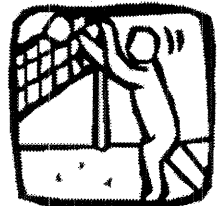


**스포츠와 교육**

A) 스포츠는 교육 기간 내내 의무과정일 필요는 없다. 다른 과목으로 인해 시간이 모자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B) 스포츠는 교육기간 내내 필요하다. 스포츠는 협동과 신체, 정신의 개발과 같은 다른 과목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

어느 쪽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교육과 군사화**

교육과 군이 별개의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서로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고도로 군사화된 나라들에서는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군사비로 배정되므로 다른 사회적 분야에 배당되는 비용, 특히 교육에 배당되는 비용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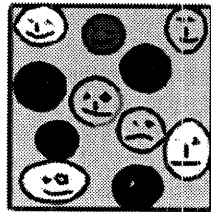
**사회적 배척과 교육**

모든 사람이 국가교육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거리 아동들, 가난한 아이들, 아동 노동자들은 흔히 학교시스템이 보호하지 못한다. 루마니아에서는 “학교로 돌아가자”라는 기금이 국가 시스템에서 소외된 아동들의 필요를 돌봐 준다 -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후에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교육과 소수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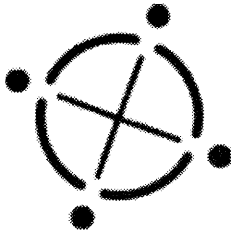

다중문화 사회에서는 소수 집단을 교육/대학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이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슈 외에도 종교와 언어의 차이가 교육시스템에 도전적이다. 소수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시스템과 교과과정을 어떻게 수정하겠는가?



**평생 학습**

성인의 문맹은 기본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들에서는 큰 문제이다. 세계교육포럼의 목표 중 하나는 2015년까지 성인의 읽고 쓰는 능력을 50% 향상시키는 것이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평생 학습”을 실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성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실패한다. 정부의 교육적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p><b>인권 교육</b> 공식적, 비공식적 혹은 비형식적 교육에서 인권교육은 정부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에서 왜 정부의 의무와 책임인 일에 NGO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p>		<p><b>에이즈/HIV와 교육</b> “에이즈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승리해야 할 싸움은 에이즈를 둘러싼 침묵과 편견적 낙인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코피 아난). 차별을 종식시키고 전염을 막기 위해선 침묵을 깨어야만 한다. HIV/에이즈 위기는 국가교육 아젠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에이즈/HIV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p>	
--	---	---	---

▶ 자료 2 : 지도자를 위한 부가정보

- ① 비록 여러 나라에서 무상의 기본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할까지만 실제로 무상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00년 세네갈에서 세계교육포럼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회의의 목적은 1990년대에 제공한 기본 교육의 진보를 검토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164개국에서 온 1100명의 참가자들이 다카행동체제(Dakar Framework for Action)를 채택하면서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기본 교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UNESCO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세계의 여세를 유지하는 전체 책임자 나라마다 상이한 도전에 직면하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몇몇 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다른 나라들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 회의 결과 중 하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혹은 국제적 기관이나 제도의 지원을 받는 나라들이 서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회의 중 지속 가능한 개발, 평화, 사회의 효과적인 참여와 21세기 건전한 경제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WEF의 칭찬할 만한 결과는 구체적인 기한 내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취해야 할 행동지침을 내놓은 점이다.
- ② 만약 2부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1분 발언”이란 활동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각 참가자에게 그들이 선택한 카드에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 뒤 주저하거나 반복하지 않고 1분 동안 그것에 관해 말하도록 한다. 지도자가 보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이 놀이가 좋은 결과를 낸 것이다.
- ③ 기억 카드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많은 문제를 나타낸다. 그룹은 아무 문제 하나를 선택해 이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마지막으로 실천행동을 한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관한 3장을 참조한다.

### 활동 3. 가난의 별점

개요	이 활동은 가난이 주는 결과와 빈곤한 사람들에게 부인되는 삶의 기회들에 관련된 이슈들을 탐구하기 위해 지식과 창조적 작문을 결합한다.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기회와 제공된 기회를 택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생각해보기.</li> <li>빈곤 사이클 이해하기.</li> <li>사회정의, 인간존엄과 책임 진작.</li> </ol>		
등급	고급	활동시간	1시간
참가인원	15-21 명	지도자	전체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가지 별점카드</li> <li>•12가지 삶 카드(활동자료1)</li> <li>•참가자 한 사람 당 필기구 한 자루와 종이 한 장</li> <li>•큰 종이나 플립차트나 칠판</li> <li>•칠판용 펜이나 분필</li> <li>•테이프</li> </ul>		
활동과정	<b>활동방법 및 내용</b>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점 카드와 삶 카드를 올려낸다.</li> <li>각 세트에 네 가지 삶 카드와 이에 일치하는 네 가지 별점 카드가 있도록 해서 세 세트의 카드를 만든다. 각 세트를 다른 봉투에 담아 섞이지 않게 한다(활동자료 1-①,②).</li> </ol>		
전개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을 소개한다. 별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별점을 읽는가? 별점을 믿는가? 별점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가?</li> <li>참가자들을 세 개의 작은 모둠으로 나눈다.</li> <li>각 모둠에게 20분을 주어 자기들의 별점 카드에 네 가지 삶에 대한 상상의 별점을 적게 한다. 상상력, 직관, 일반상식을 활용하여 내년에 일어날 일을 점치게 한다. 정답은 없으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점치는 것을 강조한다.</li> <li>카드작성을 다하면 모둠을 한 자리에 모으고 차례대로 발표하게 한다. 먼저 삶 카드에 적힌 것을 읽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알게 한 다음 별점을 읽는다.</li> <li>끝으로 삶 카드와 예언 카드를 큰 종이에 같이 붙여 벽 차트를 만든다.</li> </ol>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가자들이 왜 미래를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li> <li>가난이 무엇인지 정의해보고 가난의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li> <li>참가자들에게 질문한다(활동자료 2).</li> </ol>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활동은 상상의 별점이므로 점성가가 될 필요가 없고 12궁의 특징을 알 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주지한다. 오히려 받은 카드에 담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역사, 경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li> <li>별점 카드의 '사랑' 항목에서 이 사랑은 개인의 사랑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와 나누는 사랑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li> <li>삶의 이야기는 적절하게 바꾸어도 된다. 지역사회나 나라에서 들은 실제이야기로 바꿀 수도 있다.</li> <li>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창출하려 노력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NGO나 협회를 지원하도록 한다. 지역 내 그룹을 찾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기금을 모으기 위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li> </ol>		

## ▣ 활동자료

### ▶ 자료 1

#### ① 참가자들이 사용할 삶의 카드

세 아이를 가진 편모인 **마리아**는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매우 가난한 근교에 삽니다. 그녀의 최근 동료는 그녀를 막 떠났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가정부로 일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누군가가 집 여주인의 비싼 반지를 훔쳤는데 여주인은 가정부 중 한 명을 의심해요. 그들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어 가정부 모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로 교체하려 합니다. 마리아는 **염소자리**입니다.

**아미나**는 터키 출신입니다. 그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의 조그만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12살인데 매우 가난한 농부들이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의 남편감을 찾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집에서 도망쳐 도시에 가 그 곳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기로 결정합니다. 아미나는 **쌍둥이자리**입니다.

**미샤**는 시베리아의 톱스크 출신입니다. 그는 수 개월간 실직 상태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아픈 상태이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20살, 18살, 10살, 8살 난 아이들 넷이 있으며 가장 어린 두 아이들은 장애아입니다. 미샤는 **처녀자리**입니다.

**유리**는 시베리아 톱스크에서 부모와 어린 세 형제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는 20살이며 매우 유망한 아이스 하키 선수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의 삼촌이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지 알아 봐 주기로 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인 미샤는 수개월 동안 실직된 상태이며 현재 가족 수입의 유일한 원천은 유리가 하고 있는 때마다 가끔 생기는 일입니다. 유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프고 어린 동생 둘은 장애를 갖고 있으며 가족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리는 **게자리**입니다.

**벵트**는 젊은 스웨덴 스킨헤드<sup>16)</sup> 족입니다. 그는 올해 폭력으로 두 번 붙잡혔습니다. 그는 2년째 실직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이자 투견인 불 테리어를 훈련하고 보디빌딩과 최근 몇 건의 강간사고와 연루된 자신의 친구들과 파 길거리에 있는데 시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벵트는 **양자리**입니다.

**리카르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겨우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그는 수개월간 아팠으며 정부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비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끔 주어지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들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천칭자리**입니다.

16) skinhead:머리를 짧게 하고 보통 폭력집단의 멤버

압둘은 마우리타니아를 수년 전에 떠나 일자리를 찾아 프랑스의 수도 파리로 왔습니다. 그는 초기 수년간은 혼자 살았지만 나중에 아내와 네 아들 그리고 조부모를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파리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간 모든 일은 순조로웠으며 특히 압둘의 아내가 쌍둥이를 낳을 때는 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마우리타니아 식으로 키우는 것이 힘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쌍둥이들은 현재 12살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종종 부모들을 거역합니다. 최근 압둘은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일을 잃게 됐습니다. 압둘은 사자자리입니다.

쌍둥이인 목타르와 오울드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주 노동자로 마우리타니아 출신인 압둘의 아이들입니다. 전 가족, 자기 부모, 네 형들 및 조부모들 모두 파리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삽니다. 쌍둥이들은 현재 12살이며 학교에서 많은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공부하길 거절하고 파리 근교에 있는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종종 수업을 빼 먹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부모들과 몸싸움까지도 합니다. 학교의 보고들에 따르면 그들은 점점 공격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타르와 오울드는 물병자리입니다.

20살인 크리스타는 프라하의 매우 가난한 근교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으며 독일에서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를린에 있는 일자리 광고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걸었으며 베를린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정했으며 독일에서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타는 궁수자리입니다.

제인은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나이 든 과부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다. 그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명했으나 이제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물고기자리입니다.

벨라는 이태리의 팔레르노에서 동생 안젤리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이 각각 16, 17세 때 돌아가셨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각 23, 24세입니다. 벨라는 두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정부로 일하고 밤에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합니다. 그녀는 또한 약물 중독자인 안젤리카를 돌보기도 합니다. 벨라는 안젤리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벨라는 안젤리카가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벨라 역시 신경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이를 통제하지 못해 일자리 두 곳을 잃기도 했습니다. 벨라는 황소자리입니다.

안젤리카는 이태리의 팔레르노에서 언니 벨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이 각각 16, 17세 때 돌아가셨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각 23, 24세입니다. 벨라는 두 직업을 갖고 있으며 약물 중독자인 안젤리카를 돌보기도 합니다. 안젤리카는 종종 언니의 급여를 훔쳐 약을 사곤 합니다. 그녀는 수년간 약을 끊었다 다시 하기를 반복하면서 중독에서 헤어 나오는 데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젤리카는 전갈자리입니다.

② 별자리 카드

<p><b>양자리 (벵트)</b> (3월 21일 - 4월 21일)</p> <p>사랑 일 건강</p>	<p><b>천칭자리 (리카르도)</b> (9월 23일 - 10월 22일)</p> <p>사랑 일 건강</p>
<p><b>황소자리 (벨라)</b> (4월 22일 - 5월 21일)</p> <p>사랑 일 건강</p>	<p><b>전갈자리 (안젤리카)</b> (10월 23일 - 11월 22일)</p> <p>사랑 일 건강</p>
<p><b>쌍둥이자리 (아미나)</b> (5월 22일 - 6월 21일)</p> <p>사랑 일 건강</p>	<p><b>궁수자리 (크리스타)</b> (11월 23일 - 12월 21일)</p> <p>사랑 일 건강</p>
<p><b>게자리 (유리)</b> (6월 22일 - 7월 22일)</p> <p>사랑 일 건강</p>	<p><b>염소자리 (마리아)</b> (12월 22일 - 1월 20일)</p> <p>사랑 일 건강</p>
<p><b>사자자리 (압둘)</b> (7월 23일 - 8월 22일)</p> <p>사랑 일 건강</p>	<p><b>물병자리 (목타르, 오울)</b> (1월 21일 - 2월 19일)</p> <p>사랑 일 건강</p>
<p><b>처녀자리 (미샤)</b> (8월 23일 - 9월 22일)</p> <p>사랑 일 건강</p>	<p><b>물고기자리 (제인)</b> (2월 20일 - 3월 20일)</p> <p>사랑 일 건강</p>

▶ 자료 2 : 참가자들에게 할 질문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참가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자기 나라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미지가 고정관념인가? 이런 이미지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 사람들은 가난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살면 '부유'하고 다른 나라에 살면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가난은 상대적인가?
-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가?
- 당신의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Eritrea라는 나라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가? 부유한 삼촌이 있는 것인가? 복권에 당첨되는 건가? 교육을 받는 것인가? 건강인가? 제대로 된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인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 가난한 사람이 빈곤 사이클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쉬운가? 다시 말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어른이 되어 가난해 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 사람들이 부유하면 어떤 기회가 있나?
- 사람들이 가난하면 어떤 기회가 있나?
-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자기 탓인가? 자기 운명인가? 아니면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영향 때문인가?
- 가난은 때때로 빈약한 건강, 배고픔과 영양결핍, 교육 부족, 형편없는 기술이나 실업이 동반된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관련이 있는가? 만일 서로 관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 대체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또 어떻게 다루는가?
- 어떤 종류의 정치 사회 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가장 최선의 기회를 주는가?
- 당신의 나라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교육이 실마리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가?
-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빈부의 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나라들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것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이 격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만약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격차를 줄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개인, 그룹,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심화자료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VI. 지도자를 위한 인권 가, 나, 다

1. 인권의 개념과 성격
2. 인권의 역사
3. 청소년 인권교육의 의의
4.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
5. 청소년 인권교육의 지도기술
6. 평등-차별 놀이활동(Education pack)
7.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나침반-Compass



## 1. 인권의 개념과 성격<sup>17)</sup>

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정된 대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의 개념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긴장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나가기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정의된다. 인권이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권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이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관념도 근대이후에서야 등장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역사와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원을 확보해 나가 고자 하는 존엄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가치는 광범위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으며, 초역사적인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다. 결국 인권이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등 권력의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

17) 인권운동사랑방의 민간단체활동기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자료(2000. 1. 29)에서 발췌한 것임.

### 1) 인권은 기본이고 필수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 구별되는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누구나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을 둔 근대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저항권'은 근대 이후 핵심 권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 4)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인권은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의 법을 우리는 '반민주악법'이라고 부른다. 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이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경제·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5) 인권의 상호의존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관계와 공동체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 의존한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나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6)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빵과 자유는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충족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며,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질서와 자원의 분배를 통해 기본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권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자의적 권력 남용에 따른 ‘공포나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과,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빈곤’에서 벗어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구체화된다.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뿔레야 뿔 수 없이 밀접하다. 자유 없이 평등이 진척될 수 없고, 평등 없이 자유를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2. 인권의 역사<sup>18)</sup>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다. 그러나 역사적, 실정법상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은 여전히 발달과정에 있다.

인권에 대한 운동은 왕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절차적 보장책을 강구하고 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존 왕의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Magna Charta, 1215), 찰스1세의 폭력에 항거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그리고 명예 혁명기에 시민의 자유를 법제화한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은 인권보장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권리장전들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규정을 담았고, 미국의 '독립선언'(1776년)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년) 등에서 인권의 추상적 원칙들이 선언되었다. 이 두 선언문은 당시 자연법적 계약설에 바탕을 둔 18세기 계몽사상의 산물로 근대 시민사회 건설과 세계 인권사상발달의 주춧돌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어떠한 양도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자명한 이치라고 믿는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은 출생과 생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이 두 선언은 자유, 평등,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인권사상의 전형이 되는 표현이다.

독립선언은 신이 인간에게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정부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된 점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입법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개념과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민중의 저항권, 혁명권을 승인하였다.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은 재산권, 정신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같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가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정부의 원리로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 제시되어 있다(스기하라 야스오 저·석인선 역, 1995: 34-41).

이처럼 인권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왕의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 남성, 성인, 백인의 인권은 상당히 보장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일반 민중,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흑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

18) 다음의 내용은 "이용교·김영자·임지연(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의 활동 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내용임.

하였다.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유례없는 대량살상 전쟁을 끝낸 세계 각국은 한 나라의 인권수준은 다른 나라의 인권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각성하고,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sup>19)</sup>. 또한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국제법으로 만들어서, 회원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대한 제1선택 의정서(일명 C규약)' 등 '국제권리장전'으로 지칭되는 문서들이다. 이러한 국제권리장전들은 인권에 대한 각성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의 강제력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개의 국제권리장전이 있어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획기적으로 신장되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은 1959년에 어린이의 권리선언, 1989년에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각성이 어린이, 여성, 노동자, 흑인 등 사회에서 열등한 인구집단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인권의 개념도 점차 확장되었다. 인권의 초창기 개념은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맞추어져 왔으나, 그 후 사회적·경제적 권리로 확대 발전하였다. 이어서 인권의 개념은 자결권, 환경권, 인류공동유산권 등과 같은 권리로 발전하였다. 첫 번째 개념이 정치권력에서 개인의 신체 보호, 인종차별금지, 고문금지와 같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인데 반하여, 이후의 개념은 '무엇을 할 권리'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인권이다. 이를테면,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 형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권개념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구호, 평화, 환경 같은 인류전체의 문제에 관한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김용자,

---

19)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본인권의 광범하고도 가공할 침해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과, 다른 하나는 유엔이 창설 당시부터 부여받은 희망과 권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1945년), 동 위원회는 발족 당시부터 '국제권리장전' 작성에 착수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긴급 과제로 삼은 이유는 인권의 존중이 세계 평화유지의 기초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의 싸움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전체주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독재정치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대외적으로는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인권 침해와 침략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확보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유지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인임이 절실히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인권의 존중이 세계 평화 유지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국제권리장전이 요구되었다. 이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규약, 및 실시수단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중 '선언' 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 채택되었다(정태수, 1991: 38-39).

1998: 19)

인권의 변화와 발전을 인권의 주된 내용에 따라서 '세대'로 나누어서 보는 입장이 있다. 즉,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1세대 인권, 사회권 혹은 사회·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2세대 인권, 그리고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3세대 인권이 있다. 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등장해 앞의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sup>20)</sup>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인권운동 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 80-84).

'1세대 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는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하였는데,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에서 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였다. 대표적인 것은 차별로부터의 자유(세계인권선언 제2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제4조),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제5조),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제9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제10조),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제12조),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의견·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0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제21조) 등이다.

'2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배세력의 수용을 통해 등장하였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2조),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 등(제23조),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제24조),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제25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6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제27조) 등이다.

앞의 1세대와 2세대 인권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서구사회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인권보장 체계를 세우는 동안 인류 구성원의 상당수가 속해 있는 제3세계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심지어 서구의 발전은 제3세계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각성에 따라, 제3세계 민중이 식민지로 빼앗긴 세월을 되찾고 권력과 자원, 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재난 등 한 국

20)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구성내용을 반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졌다. 전문은 8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본문 30개 조항은 자유권적 기본권(제1조~제21조)과 사회권적 기본권(제22조~제3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라고 불리는 3세대 인권이 출현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자결권,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구와 우주자원·과학기술·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와 문화적인 전통·유적·기념물 등의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물론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전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일괄 구분하여 나누기는 어렵고,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은 각기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지난 한 세기 동안 노동자, 여성, 흑인의 인권이 끊임없이 신장되었어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발달의 여지가 있다.

### 3. 청소년 인권교육의 의의<sup>21)</sup>

유럽의회 청소년프로그램의 인권교육에 대한 공식적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 참여, 소수민족들의 권리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인간 존엄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뜻한다.

#### 1) 인권교육의 장기 목적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무수히 많고 또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인권교육은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것, 즉 목적에 의해 가장 잘 묘사된다. 이 교육의 장기 목적은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들이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하든지 인권교육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향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혹은 최선의 방법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집단 혹은 문화도 동일한 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떤 교육 방법도 모든 개인, 집단, 혹은 사회에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효과 있는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일

21) Compass 프로그램 pp17-30에서 발췌·번역한 내용임.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즉 인권교육은 각 사회 내 각 사람의 필요, 취향, 능력 과  
육구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학습자중심의 교육방법은 개인의 활동과 개인 변화의 가치를 인식하며, 동시에 학습  
자가 속한 사회적 상황(맥락)을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교육자들이 서로 떨어져  
서 따로 일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일하고 있을 다른 교육자들에게  
서 아무 것도 배울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계 각 처로부터 인권교육자들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은 공동의 목표, 인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그  
런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이다.

## 2) 인권교육의 구체적 목표

장기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실제 목적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목적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림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구체적인 목표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권문화를 구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게 되고 그런 후 이 요소  
들 하나하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인권문화란 단순히  
누구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에  
대한 지식이 꼭 존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으며 권리 존중이 없는 한 권리 침해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인권문화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태도, 신념, 행동, 규범 및 규  
칙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각자의 그룹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지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인권문화의 필수 요소들에서 뽑아낸 것들이다. 이 요소들은 우리에게  
인권교육의 일반 목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인권과 기본 자유 존중을 강화하는 것
-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정신을 개발하는 것: 인간 존엄을 위한 가치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게 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개발하는 것
- 진정한 성의 평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
- 문화의 다양성에, 특히 다른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가진 소수민족 및 지역공동  
체를 존중, 이해, 인정하도록 도모하기
- 사람들이 더욱 적극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공동체의 조화, 사람들과 나라의 연대와 우정을 촉진하  
는 것
- 인권, 국제적 이해, 관용, 비폭력에 기초를 둔 평화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  
제기관들의 활동을 재고하는 것

### 3) 인권활동 그룹단위의 목적

위에서 살펴 본 인권교육의 국제적 목적과 몇몇 장기 목표와 더불어 우리의 지역사회와 각 단체들과 공동체들의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각자의 지역에서 일하면 세계는 변화한다.

현재 세계에는 온통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다. 이상적으로는 당신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적어도 미래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바랄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것은 우리가 인권교육자로서 하는 일에서 중요한 한 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바랄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만 바꿀 뿐 아니라 그들 주위의 세상 역시 바꿀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을 세울 수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작은 교육자들, 작은 활동가들이 되어 특정 이슈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라도 인권의 보호를 지원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 목적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인권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쟁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쟁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현 상황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인권교육모델들은 인권교육목표들을 다음 세 가지 주요영역으로 세분한다.

-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쟁점들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높이는 것
-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
- 인권존중에 대한 태도를 개발해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 4)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교육의 목표

청소년들이 인권이슈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게 하려면 어떤 형태의 지식이 필수인가? 그들이 인권보호를 돕고자 할 때 어떤 기술과 태도가 요구되는가? 아래의 목록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한 목표들이다.

### (1) 지식과 이해

- 각기 다른 사회, 동일한 사회 내 각기 다른 그룹에서 인권에 대한 다른 시각과 경험 그리고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근원들. 종교, 도덕, 법적 근원 포함
-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 자유(freedom), 정의(justice), 평등(equality), 인간 존엄(human dignity), 민주주의 (democracy), 보편성(universality), 권리(rights), 책임(responsibilitie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결속(solidarity)
- 인권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넓은 세상에서 행동의 기준에 대해 협상하거나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생각
- 한 개인의 생활, 지역사회의 생활,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 인권이 담당하는 역할과 그 과거와 미래의 양상
- 시민/정치권과, 사회/경제권의 명확한 구분
- 인권을 인식하게 하는 주요한 사회적 변화, 역사의 사건과 논리들
- 인권보호를 실행하기 위해 있는 주요 국제 수단: 국제연합인권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UDHR), 아동·청소년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유럽 인권보호 및 자유협정(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HR)
- 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지역, 국가적, 국제적 기구들, 비정부기구들 및 개인들

### (2) 기술

- 적극적 청취와 의사소통: 다른 견해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비판적 생각: 관련된 정보를 찾고 증거를 냉철하게 평가하며 오해나 편견을 인식할 줄 알며 조작 혹은 속임수의 형태들을 파악하고 냉철한 이성애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
- 협력하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다룰 줄 아는 능력
- 사회 그룹을 조직하고 또 그러한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지역이나 세계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

### (3) 태도와 가치관

-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의 개발과 사회 변화에 성실한 것
- 호기심, 열린 마음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결속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인권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려는 의지

- 사회, 문화, 언어 및 종교가 다른 것에 관계없이 인간 존엄을 인식하고 자기와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 정의감, 자유, 평등, 다양성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욕구

이 프로그램집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첫째, 세 가지 다른 양상들 즉,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모두 동등하게 다루고자 했다. 둘째, 여기에 있는 활동들은 폭넓은 독자 연령과 공식, 비형식(non-formal), 비공식 교육분야를 동시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마음에 두고 고안되었다. 셋째, 인권교육을 참여를 통한 적극적 학습활동으로 개발, 환경, 문화 간 관계 및 평화와 같은 관련된 지역 및 세계적 이슈들과 연계하려 하였다. 우리는 인권교육이 독립된 교육방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특히 참여 활동들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연구들에 따르면 협력에 의해 구성된 소규모 그룹활동은 그룹의 응집력을 높이고 그룹 구성원들의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협력하는 이 그룹활동은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문제해결기술을 향상시키며 참여자들이 보다 큰 창의력과 실용성을 보이는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모든 결과들은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들이다. 다시 말해 학습과정 매 순간마다 청소년 자신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코 교육자들만이 궁극적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고 믿어 버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인권교육을 가장 형편없는 형태의 '이상교육'으로 전락시키기 쉽다.

이 프로그램집에 포함된 방법론의 본질적 특징은 청소년들이 교육과정 내내 풍부한 경험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며 흥미롭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그것을 적극 유도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들, 심지어는 자주 나타나는 갈등들은 긍정적 방법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으며 중요한 교육자료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 4.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sup>22)</sup>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 인권의 내용도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으로 구분될 수 있게 특성을 지니며 발전되고 확대되어 왔다. 청소년

22) Compass 프로그램 pp17-30에서 발췌번역한 내용임.

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러한 인권발달 과정에서 대두된 중심사상을 축으로 하여 관련된 권리와 쟁점을 분류하여 다루었다.

### 1) 1세대 권리(First generation right) : 자유권(Liberty rights) : 시민·정치적 권리

1세대 권리들은 17-18세기에 하나의 이념으로서 생성되었으며 대부분이 정치적인 관심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권력을 지닌 국가라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넘어서는 어떤 영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두 중심 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의한 폭력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 시민권은 최소한의 신체적 도덕적 상태를(integrity) 보장해주고, 개개인에게 그들의 양심과 신념에 대한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즉 자유와 평등의 권리, 종교활동의 자유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 그리고 고문당하거나 살해되지 않을 권리 등이다.
- 법적 권리는 보통은 시민권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법적 정치적 제도로 의해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상의 보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결백하다고 추정될(인정될) 수 있는 권리, 상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 정치적 권리는 공동체 생활과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투표권, 정당가입 권리, 자유롭게 집회하고 결사할 권리, 표현의 권리와 정보접근의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간단하고 명백하게 범주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리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모두에 해당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정치참여에 핵심이 된다.

### 2) 2세대 권리(Second generation rights) : 평등권(Equality rights)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2세대 권리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삶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련된다. 이 권리들은 평등에 기반한 것이고, 필수적인 사회·경제적인 물품, 서비스,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발생(증가)과 초기 산업화의 영향으로 점점 국제적 인식의 주제가 되었다. 이것들은

존엄성의 생명(a life of dignity) 의미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의해 제기되었던 충돌(방해, 훼방)의 최소한의 결핍보다 더 요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정치적 권리가 요구한 권리들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

- 사회적 권리는 사회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그들은 적어도 교육의 권리, 가족을 이루고 유지할 권리, 또한 자주 시민권으로 여기는 많은 권리들 : 예를 들어 여가를 가질 권리, 건강관리와 사생활, 차별로부터의 자유.
- 경제적 권리에는 보통 일할 권리, 적절한 기본생활을 할 권리, 임대를 위한 권리, 노령이나 장애 연금 등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방식”과 관련되며, 다른 권리들에 비해 덜 관심을 끈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교육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문화로 분류되지 않은 다른 많은 권리들은 사회 안에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보전하려는 소수민족에게는 필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범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는 ‘유럽사회헌장’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3) 3세대권리(Third generation rights) : 연대의식(Solidarity rights), 집단권(collective rights)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목록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UDHR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권리도 50년 동안 문제시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논문과 서류들이 분류되고, 이에 더하여 원본에 규정되어 있는 몇몇 기본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더해진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상의 변화, 기술 변화, 새로운 위기가 생긴 결과이다. 3세대 권리라는 새로운 범주의 권리들은 1세대, 2세대 권리들을 실현하는 도중 만난 여러 종류의 장애를 깊이 이해한 결과 생겨난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세계화 역시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드러났다.

3세대 권리의 기반이 되는 사상은 연대감이다. 그리고 사회나 사람의 집단 권리들을 포괄하는 권리들. 즉 지속적인 개발과 평화와 건강한 환경과 같은 권리. 대부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극빈, 전쟁, 생태적·자연적 재해와 같은 상황들은 인권이 아주 제한되게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새로운 범주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권리들은 사회를 위해 승인된 상황들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 세계에서 이미 인식된 1세대, 2세대 권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세대 권리에 포함된

특별한 권리들은 개발, 평화, 건강한 환경, 인간의 공동유산의 개발을 공유하는 것, 정보, 인도적 도움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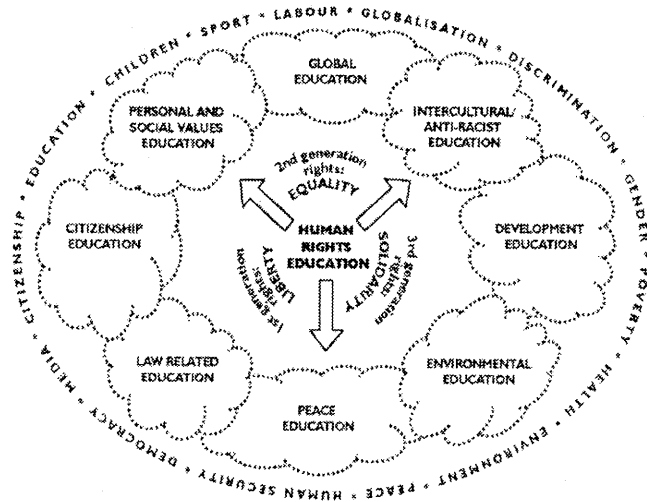
#### 4) Compass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인권의 쟁점

이 매뉴얼은 16가지 인권 관련 이슈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이슈는 한 두 세대의 권리들 - 매뉴얼은 권리들을 1, 2, 3대 권리들로 나누고 있음.-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보편 인권(General human rights)	⑨ 세계화(Globalisation)
② 아동(Children)	⑩ 건강((Health)
③ 시민권(Citizenship)	⑪ 인간보호(Human Security)
④ 민주주의(Democracy)	⑫ 매체(Media)
⑤ 차별과 외국인 기피(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⑬ 평화와 폭력(Peace and Violence)
⑥ 교육(Education)	⑭ 가난(Poverty)
⑦ 환경(Environment)	⑮ 사회권(Social rights)
⑧ 성 평등(Gender equality)	⑯ 스포츠(Sport)

여기 있는 주제는 모두 하나같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주제들은 서로 깊게 얽혀 있어 이 중 하나를 다루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루게 된다. 이는 인권이 분리할 수 없고 서로 의존하며 관련이 매우 높은 사실의 직접적 결과이다. 어느 것 하나도 독립해서 다룰 수 없는 것은 모두 서로 상이하면서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도해는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나타낸 예증 중 하나이다. 우리가 보여 줄 수 있었던 다른 것들도 있다. 바깥쪽의 원은 거의 무작위로 재배치될 수 있으며 그렇지라도 여전히 관련성은 유지된다. 바깥쪽 원에 있는 이슈들은 중앙원에 있는 교육 영역들이 서로 잘 섞이는 것처럼 서로 조화를 잘 이룬다. 사실 1, 2, 3세대 권리들 간의 구분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교육은 전통적으로 2세대 권리로 분류되지만 사실 교육은 효과적인 정치적 참여(1세대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3세대 권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후 제시되는 분석들은 많은 묘사방법 중 하나로 봐야만 한다. 그러나 이 분석들은 다양한 주제들이 현재의 많은 교육현장들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 현장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 (1) 시민의식 교육(Citizenship Education)

시민의식교육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1997년 유럽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민주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the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을 기획했고 이 기획의 2000년 6월 보고서는 시민의식을 위한 사회 정의와 권리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 H. Marshall은 그의 책 시민의식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 (캠브리지대학 출판부: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에서 시민의 자격은 주요한 세 가지 유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만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민의식 (혹은 시민의 자격)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시민적(civil) 요소 : 개인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정치적 요소 : 예를 들어, 정치 권한을 행사하며 의회정치적 기구(parliamentary institutions)에 참여하여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시민의식의 사회적 요소 : 교육, 보건, 주택 및 최소임금과 일반 생활 수준을 보장 받을 권리에 관련되어 있다.

#### (2) 개인교육과 사회교육(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많은 나라들은 사회 내 개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맞닥뜨리게 될 개별적인 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시민

의식 이슈들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또 레저 스포츠, 클럽과 협회들, 음악, 예술, 혹은 다른 형태들의 문화 - 에 관련된 개인의 생활양상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개별적 (인간)관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권은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연관이 있다. 첫째는 개인의 성장과 개별적 (인간)관계가 인권에 대한 가치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도덕적, 사회적 양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다른 국제조약과 더불어 UDHR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당신이 가르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세계의 다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 가치관 교육/도덕 교육

가치관 교육은 여러 나라의 학교 교과과정에 흔히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는 종종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떠오르게 한다. 하나는 이 교육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이 가치관이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만 속한 것인지를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들은 이 교육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이며 인권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인권은 모든 종교와 문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가치관에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인권에 관한 가치관을 가르친다고 해서 비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3) 세계화 교육(Global Education)

세계화는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슈이며 우리는 이 주제를 이 매뉴얼에서 다른 이슈들과 구분된 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세계화 교육의 일반 제목들은 주로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존재와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관찰하는 작업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은 개인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회와 같은 장소에서만 보지 않고 세계라는 한 울타리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교육은 인권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세계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각자의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영리 국제연합 비정부기구인 세계화 교육기관이 세계평화대학(The World Peace University)이라는 이름으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이 교육기관은 “평화와 먹을 것이 충분한 세상,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세상, 사회 정의가 편만하며 개인이 협동사회 속에서 최고 경지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창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 (4) 다문화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세계화 교육과 다문화교육은 자연스레 연계되며 이들은 우리가 타 문화, 사회, 사회적 그룹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의 모든 사회는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국가라는 사회를 문화 동질성을 띤 개체로 보는 옛 개념을 재평가해야 할 처지에 있다. 유럽의 통합과 세계 타 지역과 경제와 사회의 상호의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중적 과정은 위와 같은 개념을 낳은 것으로 만들어 왔다. 이민과 같은 사회 현상을 경험하지 않는 지구촌의 일부 나라들에서도 흔히 기존의 갈등들이 한 공동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 혹은 생활양식간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북 아일랜드, 옛 유고슬라비아와 코카서스의 일부 지역의 갈등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문제들의 슬픈 예증들이다.

다문화교육은 현대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및 편협현상을 다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청소년 스포츠 이사회(The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는 특히 유럽청소년 센터들과 한 재단(the European Youth Centres and Foundation)을 통해 다문화교육 분야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반유대인주의 및 편협에 대항하는 “모두 다르나 모두 동등하다”(All Different All Equal)란 캠페인은 소수 민족을 인종차별하는 적대감과 편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모든 형태의 편협에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큰 힘을 불어넣고자 했다.

청소년 사업가와 교육자들이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두 다르나 모두 동등하다’란 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두 가지 주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 청소년들이 불평등, 부정, 인종차별주의, 선입관과 편견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
-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의 양상을 대할 때 마다 여기에 도전하고 또 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할 지식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원칙은 다문화학습(intercultural learning) - 비공식적 교육, 특히 유럽청소년사업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용어 - 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구되어 왔다.

###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은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평등과 정의를 누릴 권리를 가진 다문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주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행동들이 모든 현대사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과 이것이 흑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 그들에게 교육과정의 부정적 경험을 겪게 한다는 점과 또 그들의 이후 삶에서의 기회를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 도 인식하고 있다.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은 개인 및 제도적 차원에서 인종차별적 행동, 언어 및 습관을 다루고 현대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의 해로운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교육은 모든 시민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는 다인종 상호의존 사회의 창달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5) 개발 교육(Development Education)

개발교육은 세계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3세대 권리 지속 가능한 개발, 건강한 환경과 평화를 누릴 권리와 같은 권리를 특별히 강조한다. 또한 이 교육은 여러 사회와 개발방법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이슈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전의 도해에서 이 교육을 다문화 교육과 연결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교육은 세상을 서로 연결된 한 덩어리로 본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또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개발교육협회(The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는 이 분야에서 거의 10년간 일해오고 있는 영국의 기구이다. 그들은 개발교육을

- 북반구의 “개발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개발중”인 남반구의 사람들이 서로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찾으며
- 우리의 생활을 특징 지우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의 영향력들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고
-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변화를 불러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태도와 가치관을 개발하는 평생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 (6)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탐구는 개발교육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미래의 환경에 대한 관심사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경제개발, 특별히 개발도상국들에 관련된 질문들은 이 개발이 인류와 자연 전체에게 요구하는 비용과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환경교육은 이러한 질문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 세계의 자연자원에 대해 큰 관심과 존중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것 역시 인권의 관심사에 연계된다. 인류의 생존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과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한 고려는 환경이슈로 이어진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관한 인권을 별도의 공식 인권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 (7) 평화 교육(Peace Education)

이 세계의 자연자원은 그동안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자원은 개인간 사회간 폭력적인 갈등의 한 요인이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갈등의 요인들은 다른 것들도 많다. 평화교육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갈등의 일부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원을 평등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관심은 우선은 갈등 그 자체이며 특히 이 갈등의 구조적 요인에 있다. 평화교육은 단순한 전쟁부재 이상을 의미하는 평화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평화는 정의를 구하는 수단과 착취와 부정의 구조적 형태를 이해함으로써만 구현될 수 있다.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갈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폭력적 갈등의 여지를 낮출 민족들 끼리 서로 존중하기 위한, 그리고 잠재하는 위험한 상황을 평화로운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위한 평화교육. 세상은 이것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한 진정한 권리, 모든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 우리 가운데 실수를 한 사람들에게 조차도. 관용과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과 근본적으로, 기본 인권의 내재적, 보편적 성질에 대한 교육은 그러한 목적을 향한 중요한 길목임이 틀림 없다.

2001년부터 2010까지는 기간은 세계아동들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문화의 10년(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UN Doc A/RES/53/25)으로 선포되었다.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 평화연구협회(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는 평화의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 교육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평화교육위원회(Peace Education Commission)를 산하에 두고 있다.

#### (8) 법률 교육(Law-related Education)

이 교육은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여러 교육 분야 가운데 가장 “형식적(formal)”인 교육일 것이지만 여기서 법률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단순히 기존의 법을 배우는 것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한 지배와 정의의 근본원칙을 존중하는 정신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국제연합 기구들, 유럽인권

법정(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기타 지역내 기구들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기구들이지만 이 기구들이 이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는다.

## 5. 청소년 인권교육의 지도기술<sup>23)</sup>

경험적 학습에서 그룹 사업과(그룹 작업) 그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교실, 청소년 클럽, 교육과정, 청소년 캠프 혹은 세미나 등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활동을 운영하는 사람들(훈련자, 교사, 청소년 사업가, 동료 교육자(peer educators), 청소년 자원봉사자 혹은 누구든지)은 인권교육이 민주적이고 참여하는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기술을 활용하여 활동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 1) 집단지도(Group Work)

집단지도는 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자신들의 기술과 재능을 합하고 각자의 장점을 활용할 때 성립된다. 집단지도는:

- 책임의식을 장려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주인의식을 느낄 때 그 일의 결과에 충실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청해야 하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생각도 잘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협력을 자아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때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협력할 때 더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곧 배우게 된다.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내포한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한 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빨리 배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며 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23) Compass 프로그램 pp48-62에서 발췌번역한 내용임.

## 2) 집단지도 기술

“브레인스토밍” 혹은 “역할극”과 같은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다. 다음에서 이런 기술들의 용어를 설명하고 그 사용법에 대한 일반 지침서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집단지도는 과제지향적 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라.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명확해야 하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1)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창의력을 권장하며 많은 양의 생각을 빠른 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질문에 답을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사용방법 설명

- 브레인스토밍할 이슈를 선택하고 그것을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라.
-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질문을 적으라.
-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기여하도록 부탁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플립 차트 같은 곳에 그 아이디어를 적도록 부탁하라. 이 때 아이디어는 간단한 단어나 짧은 문장이어야만 한다.
- 아이디어가 다 소진되면 브레인스토밍을 멈추고
- 비평을 요구하면서 각각의 제안들을 검토한다.

#### 다음 사실을 주목하라

- 새로운 제안들은 모두 적으라. 종종 가장 창의적인 제안들이 가장 유용하고 흥미롭다.
- 브레인스토밍이 끝날 때 까지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누구도 비평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같은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말해도 안 된다.
- 모두가 동참하도록 권장하라.
- 집단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때만 당신의 생각을 밝히라.
- 만약 어떤 제안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라.

### (2) 벽 쓰기

이것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조그만 종이들(예, 포스트-잇)에 적고 이 종이들을 벽에 붙인다. 이 방법의 장점은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기 전 혼자 앉아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동일한 생각들이 적힌 종이들을 쉽게 움직여 한데 모을 수 있는 것이다.

### (3) 토론

토론은 도우미와 참가자들이 쟁점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 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는 참가자들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들을 스스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뉴스, 포스터, 사례연구들은 토론을 복돋우는 데 유용한 도구들이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사람들을 동참시키라.

### (4) 버즈 그룹(윙윙 거리는 그룹)

모둠별로 토론 하면서 아무런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사람들에게 1, 2분 정도 짝을 지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 후 나머지 모둠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부탁하라. 이내 당신은 여기 저기서 대화가 “오가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서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5) 작은 모둠 작업

작은 모둠 작업은 그룹전체 작업과 상반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협력하는 팀작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작은 모둠의 크기는 모인 사람의 총 수와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와 같은 실제적인 것들에 달려 있다. 한 모듬은 2-3명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으나 6-8명의 모듬이 가장 적절하다. 작은 모듬 작업은 주어진 과제에 따라 15분, 1시간 혹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그냥 “이슈를 토론하세요” 하는 것은 다소 비생산적이다. 주제가 무엇이든지 일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람들이 모듬 전체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형태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6) 등급 매기기

이 방법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그리고 작은 모듬들이 강도 높은 토론을 하게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각 작은 모듬을 위해 한 세트의 의견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 세트에는 9장의 카드가 들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토론하기를 원하는 주제와 관련된 아홉 가지 짧고 단순한 의견을 준비하고 각 카드에 하나씩 적어 넣는다.

모듬 들은 각 의견들에 대해 토론해야 하며 이들에게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등급 매기는 것은 사다리나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사다리 형태로는 가장 중요한 의견 카드를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놓는 식으로 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아래에 놓이도록 한다.

다이아몬드식 등급 매기기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의견이 무엇인지 토론한 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의견 두 가지를 정하고 다음에 다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 가지 주장들을 정하고 그림과 같이 카드를 정렬한다. 그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카드 2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카드 3장, 그리고는 다시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 위에는 이 보다 중요한 카드 2장이 놓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1장이 가장 아래에 놓여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고 있음.. 이슈들이 종종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식 등급 매기기가 더 적절한 방법일 경우가 많다. 이는 다소 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이는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등급 매기기의 변형은 8가지 의견만 카드에 적고 한 카드는 비워두어 참가자들이 직접 쓰도록 하는 것이다.

### (7) 역할극

역할극은 참가자들이 연기하는 짧은 단막극이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상황에 맞는 역할을 연기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즉석에서 한다. 이 방법은 참가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인생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역할극은 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역할극은 시뮬레이션과 다른데 시뮬레이션 역시 단막극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이 단막극은 원고에 의해 진행되며 역할극과 동일한 수준의 즉흥성이 없다.
- 역할극의 가치는 실제 생활을 흉내 낸다는 데 있다. 역할극은 예를 들면 한 인물의 행동이 옳으나 그르나에 관한 것과 같이 간단한 답이 없는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뛰어난 통찰을 얻기 위해 유용한 방법은 사람들이 역할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역할극은 민감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극의 끝에 역할에서 벗어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감정과 그룹의 사회적 구성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역할극에선 몇몇 참가자들이 실제 장애를 겪고 있을 지도(아마 시각 장애는 아니겠지만) 혹은 그들의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장애를 겪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이 감정에 상처를 입어서도 혹은 장애 사실이 드러나서도 혹은 소외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예를 들면 사과하거나 이 이슈를 다시 다루거나 하라). 또한 고정관념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역할극에선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거나 혹은 흉내 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이 표출된다. 이것은 역할극과 같은 활동을 매우 흥미롭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분석시간에 “당신은 당신이 연기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을 함으로써 이슈를 다루는 것은 항상 유용할 것이다.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 지속해서 비평의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교육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당신은 참가자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 연기하였는지를 물어 볼 수도 있다.

#### (8)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확장된 역할극으로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선 사람들이 도전 상황을 경험하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선 종종 일정한 수준의 공감이 요구되며 이것이 시뮬레이션을 매우 효과가 있는 도구로 만든다. 사람들은 머리와 손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후 분석시간은 특히 중요하다. 연기자들은 그들의 감정, 그들이 취한 행동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 또 결정된 해결책을 얼마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토론해야만 한다. 그들이 경험한 것과 현실의 실제상황이 얼마나 유사한 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9) 그림, 사진, 만화, 그림, 콜라지

“한 장의 그림이 천마디 말을 한다.” 시각 이미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또한 그림은 시각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됨을 명심하라.

##### 그림 수집에 대한 조언

- 그림은 매우 다양한 용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자신의 그림모음을 갖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미지는 신문, 잡지, 포스터, 여행 브로셔, 우편엽서 및 안부 카드와 같은 셀 수 없는 자원에서 수집될 수 있다.
- 그림들을 오려낸 뒤 카드에 붙이고 그 위를 투명한 접착식의 비닐(plastic)(책 덮개 용으로 판매되고 있음)로 덮어 영구적이고 다루기 쉽고 편하게 만들어라. 만일 카드들을 동일한 사이즈로 만든다면 수집품들은 한 세트처럼 보일 것이다. A4사이즈가 바람직하지만 A5사이즈도 실용적이고 괜찮은 타협이 될 것이다.
- 그림 뒷면에 일련번호를 적고 그림의 출처, 원제 혹은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다른 곳에 기록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의해 주의를 잃지 않고 그림의 이미지에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 그림을 선택할 때 다양성을 고려하라. 성, 인종, 능력과 장애, 나이, 국적, 그리고 하위 문화를 포함한 문화를 인식하라. 동, 서, 남, 북에서 색다른 자연과 사회 환경과 문화로부터 이미지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라. 또 그림들이 그 크기와 색깔 때문에 주게 될 인상

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효과는 사람들이 그림을 인식하는 능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수집된 그림들을 잘 다듬어 되도록 동일한 세트로 만들도록 노력하라.

#### (10) 영화, 비디오, 라디오 연극

영화, 비디오와 라디오 연극은 인권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들이며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영화를 감상한 후 하는 토론은 더 진보된 일을 향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영화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지, 배역들은 실제로 표현되었는지, 혹은 영화가 특정한 정치적 혹은 도덕적 견해를 진작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것들이 얘기할 거리들이다.

#### (11)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대중매체는 좋은 토론 자료의 의심할 여지없는 출처이다. 그 내용과 내용이 전달된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분석하는 일은 항상 흥미롭다.

#### (12) 사진촬영과 영화 제작

캠코더와 일회용 카메라 기술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제작과 사진촬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청소년들의 사진과 영화는 그들의 관점과 태도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 주며 훌륭한 표현물이 아닐 수 없다. 비디오 편지들은 장벽과 편견을 허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방법이다. 사진촬영과 영화제작은 실제로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며 그들이 사는 방식과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지 서로 통찰한 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준다.

### 3) 활동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 (1) 협력 보조 (Co-facilitating)

가능한 한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보조하라. 이렇게 하면 작은 그룹 작업을 돕거나 개인들의 필요들을 다루는 데 있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제적인 장점이 있다. 두 사람이 한 세션을 함께 운영하면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리듬이나 속도를 조절하기가 훨씬 용이해 진다. 만약 어떤 일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두 도우미(보조자)들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프로그램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다른 도우미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몇몇 청소년들을 준비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활동을 한 팀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 (2) 시간 관리

주의 깊게 계획하고 주어진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진 말라. 활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릴 때엔 활동을 줄이도록 하여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학습사이클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라, 40쪽). 반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토론을 끌려고 하지 말고 쉬는 시간을 갖거나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실시하라.

## (3) 심리 압박이 없는 환경 조성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탐구하며 또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솔직하고 친근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유머를 사용하도록 하라. 참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용어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 (4) 행동원칙을 정하라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참가 활동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각 활동 세션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 분량을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발표하고 말할 기회를 얻어야만 한다. 누구든 자신이 불편해 하는 내용을 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행동원칙들은 한 학급이나 그룹과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이에 대해 토론하여 그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5) 명확한 지시사항 전달

사람들이 지시사항을 명확히 이해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질문을 유도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도록 하는 것이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질문은 본질적으로 유익하며 당신(과 참가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아무런 질문도 없는 것은 때로 참가자 모두가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는 표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질문하기가 두렵다”).

## (6) 토론 촉진

토론은 인권교육과정에 핵심이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그룹 참가자들이 잘 아는 단어, 표현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에게 생소한 용어들은 설명해 주도록 하라.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라. 보편적이고 국지적인 양상에 균형을 실어 사람들이 이슈를 자신들의 삶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라.

#### (7) 분석(Debriefing) 및 평가

참가자들이 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필요하다면 활동에 대해서나 그들이 이를 통해 배운 것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각 활동이 끝난 후에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배운 것과 그것이 그들의 삶, 지역사회, 더 나아가 이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숙고가 없이는 사람들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여 분석과 평가 과정을 차례로 진행할 것을 제안 한다.

- 활동 중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그들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 활동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 (8) 검토 (Reviewing)

활동과 학습효과를 주기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세미나가 있는 날 마지막 시간 혹은 일련의 두 세 학급이나 모임이 끝날 때 할 수 있다. 만일 이 때까지 상당한 토론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룹 참가자들이 이 시간을 지루해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검토는 꼭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신체언어(body language), 그림, 조각과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협력 도우미들(Co-facilitators) 즉 청소년지도자도 쉬는 시간을 가져 일이 자신들에게 어떠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에 대해 얘기해 보라.

- 당신의 생각에 활동이 어떠 했는가? : 준비, 시의 적절성, 등.
-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학습목표를 성취했는가?
- 결과가 무엇인지: 그룹이 이제 활동을 한 결과로 무엇을 할 것인가?
- 협력 도우미로서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활동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 4)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활동들이 기대하는 대로 진행되거나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참여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 따르는 보상이자 도전이다. 항상 진행되는 일에 즉각 반응해야만 한다.

### (1) 타이밍

모든 참가자들이 활동에 깊이 빠져 있고 시간은 없다. 이럴 땐 참가자들과 활동을 즉각 혹은 5분 내에 끝낼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지 의논해야 한다.

### (2) 떨어지는 에너지

때때로, 특히 세션이 길어지면, 활력소가 될 만한 것을 사용하거나 짧은 휴식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3) 어려운 토론

때때로 토론이 “막힐 때”가 있다. 이럴 땐 이유를 찾아내야만 한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제가 소진되어 토론의 여지가 없거나 토론이 너무 감정적일 경우이다. 이 때 질문을 던질지, 방법을 바꿔 볼 지 혹은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한다. 참가자들의 질문이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룹 안에서 서로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을 통해 반드시 그룹 자체가 그 답을 찾아 내야만 한다. 물론 그룹이 당신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의사결정은 그룹이 내려야만 한다.

### (4) 피드백

피드백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나 행한 것에 대한 비평이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매우 비평적일 수도 있다.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은 기술이며 당신은 그룹 구성원들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을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나 자주 파괴적인 비평으로 받아들인다. 피드백과 관련된 주요 단어들은 “존중”(respect)과 “주장”(arguments)이다.

피드백을 제공할 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이 한 말이나 행한 일에 집중하며 당신의 견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당신이 방금 한 말에 이러 저러한 이유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를 모르시겠어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도우미로서 당신의 역할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경멸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사람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집중하도록 한다.
- 그들이 말하는 바에 대한 이유를 제공토록 한다.

• “저는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바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드백은 특히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받기가 쉽지 않다. 당신의 역할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하고 또 지지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의견을 즉각 보호하려 하지 않고 피드백을 주의해서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기 전 이것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5) 참가자들의 저항

참여 위주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토론, 그림 그리기 역할극이나 음악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때에도 항상 모든 참가자들에게 모든 활동들이 동일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만일 한 참가자가 어떤 특정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당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혹은 그녀의 필요를 수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저항’이란 말은 고의로 방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모든 도우미들은 한 두 번은 참가자들의 저항을 경험한다.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 수 있다. 불안한 청소년은 그 혹은 그녀의 의자를 끌거나 콧소리를 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함으로써 방해할지 모른다. 보다 미묘하게 세션을 방해하는 방법에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모든 화제로 농담을 일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저항자들이 벌이는 또 다른 “게임”은 “도우미를 깎아 내리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아마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이 젊었을 때는 이미 오래잖아요,” 하든지 “제발 토론만은 하지 말아요,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는 없나요?” 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유형의 “게임”은 배움을 기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이라고 말한다.

물론 저항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 각 사람에 대해 그리고 특정 활동이나, 역할극이나 시뮬레이션의 특정 부분이 야기될 수 있는 예민한 감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편안히 느끼도록 한다.
- 활동 전에 참가자들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동 뒤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분석과 토론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참여가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기억하라.

당신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대

개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문제를 드러내어 놓고 그룹 전체가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룹 안에 한 사람과 지나치게 긴 토론이나 논쟁을 벌이지 말라. 이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이 분개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마침내는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 (6) 그룹의 갈등 조정

그룹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정상이며 당신의 역할은 참가자들이 이를 잘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갈등은 참가자들이 그룹작업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한 쟁점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경우, 그리고 참가자들이 감정이나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데 불안감을 느낄 경우 생길 수 있다. 침착하도록 노력하고 개별 참가자들과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 만약 적절히 다룬다면 갈등이 유익하고 창의적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
- 분석과 토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
-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 의견과 관심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우라.
- 그룹 안에 긴장을 완화시켜라.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앉도록 하거나, 작은 그룹을 지어 3 분 정도 얘기하게 하거나, 혹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도록 시켜라.
- 서로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보다 서로 융화시키는 것에 대해 강조하라.
- 공감대를 찾아라. 사람들이 타협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는 것보다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라.
- 갈등을 “재창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라.
-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하라.

만약 아주 심각하고 깊은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책을 찾는 일을 미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적절한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갈등을 다른 각도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주먹과 손바닥”과 같은 짝맞는 게임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의 해결을 미룸으로써 당신은 관여한 사람들이 상황을 재조명해 보고 새로운 접근법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룹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더 넓은 세상에 있는 갈등의 원인이거나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기르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사실이다. 국제분쟁에 대한 토론은 지역분쟁에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갈등을 다루는 데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게임을 하자”는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 6. 평등-차별 놀이활동(Education pack)<sup>24)</sup>

### 배경

오늘날 유럽사회는 인종차별로 인한 증오가 커지고 외국의 소수민족을 냉대하는 것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유럽 전 대륙의 정부, 비정부기관의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과 맞서 싸우고 있다. 청소년이 벌인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기피, 반유대주의와 불관용을 퇴치하는 운동(“모두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다”)의 목적은 이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온갖 불관용 퇴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증가하는 인종차별주의와 불관용의 문제는 1993년 유럽위원회 32개 회원국의 지도자들을 모아 개최한 비엔나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여기서 채택한 합동활동계획은 청소년 운동 이외에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기피, 반유대주의와 불관용 퇴치목적의 입법과 교육분야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다. 이 청소년운동은 CENYC과 BEC 같은 청소년 비정부조직 범 유럽 강령의 후원을 무제한 받는다. 세계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을 자각한 유네스코는 1995년을 세계관용의 해로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관용, 평등, 인간의 존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실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미래를 활기차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목표들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목표들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 목적

청소년들은 국가와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만 그들 입장을 이해하고 그 모든 양상을 더 잘 알아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문화교류교육은 이런 과정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지도자와 연수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사용하도록 실제와 이론의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1993년 청소년국이 출판한 “알리엔 93-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기피를 퇴치하는 청소년단체”를 제작하는 데에서 얻은 경험을 근거로 읽기 쉽게 만들려고 했다.

실험한 실무전문가들은 이 책을 보고 새로운 착상을 얻겠지만, 이 책이 주요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이 분야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청소년을 위한 것이어도 이 책과 이 책에서 제안한 놀이 활동들은 연령이 다른 집단이 사용해도 좋다.

24) 1995년 유럽위원회에서 제작한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에 있는 활동 중 15개를 선정하여 여기에 번역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차별-평등 활동프로그램들이다.

## 구성

1부는 유럽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며 문화교류교육의 도입을 위한 논증을 다룬다. 유럽 사회의 기원이 되는 역사와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검토한다. 몇 가지 근본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문화교류교육의 기초분석이 이어진다. 마지막에 참고문헌에 할당된 부분은 사용자들의 성찰을 더 깊이 있게 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본문 안에 문제점들을 적당한 곳에 남겨둠으로써 이 연구서는 더욱 살아 있는 것이 되고 청소년 단체들과 토론할 개념들을 불러일으킨다. 1부는 2부에서 제시한 교육연구법의 배경이 된다.

2부는 문화교류교육 범위 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탐구하는 활동과 방법들을 담고 있다. 활동방법을 다 기술한 뒤에 단체 작업과 참여에 기초를 둔 다양한 활동이 나온다. 경험에 입각하여 작업하고, 새로운 연구법으로 탐구하는 2부에서는 청소년들이 행동하도록 격려한다.

이 책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인종차별주의와 불관용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사회 안에서 이 원인들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란다. 또한 문화교류교육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문화와 인생관이 서로 다른 사실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을 청소년들에게 주고자한다. 그렇게 해서 다함께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살며 일하게 되어 인간 존엄이 평등하게 존속하는 평화로운 새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 평등-차별 놀이활동

## 활동개요

### ☞일러두기☜

- 주제 G : 좋은 활동분위기를 만들도록 돕고, 모인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활력을 강화하는 활동.  
예) 썰렁한 분위기를 깨는 데 도움이 되는 'icebreakers'.
- 주제 I : 우리와 다른 사람, 문화, 나라나 사회신분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활동.
- 주제 M : 차별, 거부, 배척과 소외 상황의 근본을 이루는 사회, 경제, 문화나 교육의 근거를 분석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활동.
- 주제 A : 평등(연대의식), 존중,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이 생각을 나누는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 변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격려하는 활동.

## 1. 플라쥬를 하세요!

(Just do it!)

### ① 개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부모님, 사장님과 어른들— 정신이 매우 편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이 활동은 사실로 가장한 놀이다.

### ② 등급 2

### ③ 주제 M

-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 우리 사회에 사는 외국의 소수민족을 낮은 지위에 존속시키는 구조.

### ④ 목적

- 차별 경험.
- 어떤 사회단체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을 비난하면서 차별하는 태도 분석.
-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한 것을 자각하게 하기.

### ⑤ 시간 1시간

### ⑥ 참가인원 최대 40명. 참석한 사람을 4개 모둠으로 나누어야 한다.

### ⑦ 준비물

큰 종이 4장, 오래된 잡지 4권, 가위 4개, 지워지지 않는 색깔 펜 세트 4개, 풀 4개  
가는 줄, 양털, 단추, 트롬본 같이 형태가 다른 물체 4 가지를 임의선택  
관찰자가 쓸 종지와 볼펜, 손목시계나 크로노미터

### ⑧ 지시사항

- ① 참석한 사람들을 4개 모둠으로 나누고, 좋은 조건에서 작업을 하도록 모둠마다 홀의 구석에 가서 앉도록 한다.
- ② 관찰자를 모둠마다 하나씩 지명하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적도록 한다.
- ③ 진행자는 곧 모둠을 한 바퀴 돌면서 용품을 나누어주고 지시사항을 알려주겠다고 알린다.
- ④ 진행자는 모둠 1을 보러 가서 용품을 주며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에게는 종이 한 장, 잡지 한 권, 가위와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봄을 나타내는 플라쥬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시작하십시오.”
- ⑤ 그리고 나서 모둠 2로 가서 용품을 주고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종이 한 장, 잡지 한 권, 가위와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을 나타내는 플라쥬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은 20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시작하십시오.”

- ⑥ 곧 이어서 모둠 3으로 가서 용품을 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여러분은 종이 한 장, 잡지 한 권, 가위와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을 나타내는 풀라주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시작하십시오.”
- ⑦ 마지막으로 모둠 4에 가서 용품을 주고 또박또박 발음한다. “Mso, flosamd loerabtbz losinse bauqvxa pokeys, nseioamans sajiyudo laverza losifalitome. 시간은 20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 ⑧ 모둠이 작업을 하는 동안 방을 돌아보고 모둠1, 모둠 2와 모둠 3을 격려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모둠 4에게는 요구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 ⑨ 20분 뒤에 작업을 멈추고 각 모둠에서 만든 풀라주를 진행자에게 맡기라고 한다. 모둠 1이 끝나지 않았으면 3, 4분을 더 주어서 다른 모둠들에 견주어 모둠 1을 유리하게 배려한다.

#### ⑨ 보고와 평가

작업한 사람들을 한 번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둠에서 한 이 작업과, 이 작업을 전개한 방법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모든 사람이 참석했는가? 관찰자들을 돌아보면서 말을 이어간다. 모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찰자들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이 작업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같이 토론을 시작한다.

- ① 여러분은 이 활동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 ② 우리 사회에서 누가 모둠 4에 해당하는가?
- ③ 왜 우리는 사회의 불의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가?
- ④ 자신이 사회의 불의에 희생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⑤ 이런 사람들은 모둠 4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 ① 적은 인원일 때는 두 모둠만으로 한다. 이 때 모둠 1에는 매우 분명한 지시를, 모둠 2에는 분명하지 않은 지시를 한다.
- ② 모둠 4에 뜻 없는 문장을 말하는 대신 매우 분명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매우 빠르게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지시한다.
- ③ 이 활동을 하다보면 모둠 4의 인원들이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이 자기 모둠을 비난하는 것에 불만을 느껴 매우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따금 모둠 4의 참가자들은 진행자에게 화를 내고 방을 나간다. 어떤 때에는 모둠 4의 사람들이 자기네 불만을 다른 모둠사람들에게 돌리고 다른 모둠이 풀라주하는 것을 끝내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또 어떤 때는 자기네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시켰다.
- ④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자로 느끼지 않도록 모두가 우연히 구성된 것을 확신시킨다.
-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는 사실로 가장하여 해본 놀이이므로 열등의식을 느끼지 말라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평가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자기 느낌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느낌들이 나중에 다시 나타나서 좋은 평가는 어려울 것이다.

#### ⑪ 변형

이 활동의 목적을 확대하고 싶거나 필요한 용품이 없으면 모두들에게 작은 스케치를 하라고 할 수 있다. 모둠 4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두려울 테고 이것은 모둠 4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줄 것이다.

#### ⑫ 후속 권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를 계속 연구한다. 당신이 보기에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초상화” 활동을 이용하여 이 질문을 탐구한다.

## 2. 에워싼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간다

(Force the circle)

### ① 개요

다수와 소수에 속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여기에 힘을 주는 활동이 있다.

### ② 등급 1

### ③ 주제 I와 M

- 다수/소수 관계
-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치와 사회의 구조

### ④ 목적

- 구성원이 다수인 단체와 소수인 단체에 소속하는 경험하기
- 다수 단체가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펼치는 전략을 분석하기
- 우리가 다수에 속하는 사실을 좋아하는 때와 소수에 속하는 것이 더 좋은 때를 의식하기

### ⑤ 시간 40분

### ⑥ 참가인원 원마다 6-8명

### ⑦ 준비물

관찰하는 사람이 쓸 종이와 펜, 손목시계나 크로노미터

### ⑧ 지시사항

1. 참석한 사람을 6-8개 모둠으로 나눈다.
2. 모둠마다 “관찰자”와 “국외자”를 한 사람씩 정하게 한다.
3. 모둠의 나머지 사람들은 팔을 몸에 꼭 붙이고 서로 이 팔을 맞대어 될 수 있는 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원을 만든다.
4. “국외자”는 있는 힘을 다해 이 원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며 원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
5. “관찰자”는 “국외자”와 원을 이룬 사람들이 쓴 전략을 기억하고 시간을 정확히 재도록 한다.
6. 2,3분 지나서 “국외자”가 원을 이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거나 못 들어갔거나 다른 참석자가 “국외자” 역할을 하게 한다.
7.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한번씩 “에워싼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는” 것을 시도하고 나면 이 활동은 끝난다.

### ⑨ 보고와 평가

참석한 사람이 다 모여서 일어난 일과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 ①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면서 시작한다.
- ① 당신은 원의 한 고리로서 무엇을 느꼈는가?
- ② 당신은 “국외자”로서 무엇을 느꼈는가? “에워싼 사람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을 느끼는가?
- ② 그리고 관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 ③ “국외자들”은 어떤 전략을 썼는가?
- ④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국외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가?
- ③ 마지막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
- ⑤ 현실의 삶에서 당신은 “국외자” 또는 소수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때가 언제이며, 단체나 다수에 속하는 것을 언제 더 좋아하는가?
- ⑥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가장 약한 단체는?
- ⑦ 이 원은 이 사회의 특권, 돈, 권력, 일이나 집을 상징할 수 있다. 이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소수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가? 다수는 자기 지위를 어떻게 보존하게 되는가?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 ①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자세한 지시사항을 관찰자에게 알린다.
- ①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무엇을 이야기했고 “국외자”에게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 ②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국외자가 밀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했는가?
- ③ “국외자”는 무엇을 말했다?
- ④ “국외자”는 무엇을 했는가?
- ② 이 활동을 하려면 힘이 많이 든다. 원래, 모둠을 이룬 사람들의 관계가 중간 정도가 되지 않는 한 공격성이 표현되어선 안 된다. 평가로 넘어가기 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⑪ 변형

놀이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충분하여 모듬을 여러 개 이루면 처음부터 원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듬의 정체의식이 강화될 것이다. 이어서 “국외자”를 다른 모듬에서 뽑아 할 수도 있다. “국외자”는 모든 원을 뚫고 들어가려고 한 다음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자기 모듬으로 다시 가야 한다. 이것 또한 “국외자”의 고독감을 강화할 것이다.

⑫ 후속 권유

무심코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행동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참가한 사람들에게 깊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단체, 클럽, 협회나 지방단체 안에 다른 소수민족의 대표들이 있는가? 이 대표들은 자신들이 바랄 때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라.

### 3. 풍선 (BALLONS)

#### ① 개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죄인으로 묶어두는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 ② 등급 1

#### ③ 주제 G 와 A

단체가 고른 주제

#### ④ 목적

- 단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 억압과 차별과 배척의 구조를 성찰하기.
- 이 단체가 활발히 행동하도록 이끌고 후속활동으로 격려하기.

#### ⑤ 시간 20-30분

#### ⑥ 참가인원 10명-40명

#### ⑦ 준비물

참가하는 사람마다 풍선 2개와 길이 50센티미터 끈나풀 2개

잉크가 지워지지 않는 페트르(\*촉이 물렁물렁한 펜)나 수성볼펜을 충분하게

(풀 없이)붙는 종이 표찰과 연필, 하얀 판이나 게시판

참가자들이 사방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큰 방. 그 방 한가운데에는 의자나 책상이 없다.

#### ⑧ 지시사항

- ① 참가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해 1분 동안 저마다 따로 생각하게 한 다음 이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한 두 개의 양상을 정의하게 한다.
- ② 풀 없이 붙는 표 한 장에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쓰라고 한 다음 한 사람씩 와서 이 표를 하얀 판이나 게시판에 붙이라고 한다.
- ③ 다음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사회의 두 개 목표를 방해하는 요인들인 두 개의 “사슬”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 ④ 수성볼펜을 나누어주고 참가한 사람 모두에게 풍선 2개와 끈나풀 2개를 준다. 풍선을 분 다음, 자기가 꿈꾸는 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두 개의 “사슬”을 풍선에다 큰 글자로 쓰라고 한다.
- ⑤ 모임을 둘러보고 참가자들에게 저마다 풍선에 쓴 것을 읽으라고 한다.

⑥ 사슬을 부술 수 있다고 이 모임에게 말한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풍선 하나를 자기 발목에 단다. 모든 사람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들의 사슬을 부수기 위해서는 풍선 위로 뛰어올라 타서 터뜨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게임을 더 재미있고 더 악착스럽게 하게 하려면 자기 풍선은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풍선들을 터뜨려 보라고 할 수 있다.

⑦ 시작신호를 한다.

⑨ 보고와 평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놀이 활동이 즐거웠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①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억압하는” 사슬은 무엇인가? 이 사슬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 ②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사슬을 지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 ③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사슬에서 해방되도록 도울 수 있는가?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이 활동은 “꿈(Reves)” 활동과 잘 연결되어 기능한다. 왜냐하면 이 두 활동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그들 꿈을 나타내는 그림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풍선”을 한다. “풍선”의 이점은 모든 사람이 풍선 위로 뛰어 올라가서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때 흥분하게 하는 놀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 특성을 살려야 한다.

풍선 대신에 콘돔을 사용할 수도 있다. 콘돔의 이점은 찢기가 더 어려운 데에 있다. 이런 점이 이 놀이를 더 재미있게 만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매우 저항한다! 따라서 미리 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모임에서는 콘돔 사용으로 성(性)과 에이즈에 대한 금기를 부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콘돔 사용으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터이므로!

⑪ 후속 권유

토론결과 실제 활동을 착상하게 될 것이다. 이 모임은 예를 들어 “사슬을 부수기” 위해서 공동 작업하는 특별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모임이 생각하는 이상(理想) 사회의 특별한 양상을 실현하려고 검토할 수도 있다.

## 4. 모든 사진은 저마다 하나의 사건

(Every picture tells a story)

### ① 개요

이따금 어떤 것들은 언뜻 보아 매우 단순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 ② 등급 2

### ③ 주제 I, M 와 A

- 우리의 인식은 이전에 우리가 한 경험, 우리의 기대와 문화 따위로 왜곡되고 영향을 받는다.
- 우리는 흔히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 ④ 목적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그들 행동을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 우리 지식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을 자각하기.
- 우리의 이미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자각하기.

### ⑤ 시간 30분

### ⑥ 참가인원 무관

### ⑦ 준비물

참가자들이 하는 회의나 운동의 주제와 관련된 사진 한 장을 뽑는다.

이 사진은 한 가지 사건을 나타내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전혀 별개여야 한다. 이 사진을 둘로 자른다. 그래서 자른 두 장의 이 사진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반으로 자른 두 장의 사진을 다시 붙이면 “다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종이 두 장 위에 자른 사진을 한 장씩 붙인다. 이것을 참석한 사람들의 수만큼 복사한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쓸 종지와 펜.

### ⑧ 지시사항

- ① 참여한 사람에게 사진을 한 장씩 모두 주고, 사진의 주제, 인물, 행동, 행동하는 곳 따위를 개별로 저마다 쓰라고 한다.
- ②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이 사진의 왼쪽을 본으로 보여주고 5분 동안 이것이 말하는 바를 적으라고 한다.
- ③ 참여한 사람들이 저마다 쓴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한다. 이 모임이 크면 6-8명의 작은 모둠으로 나누어 할 수도 있다.

④ 그리고 나서 사진의 오른쪽을 주고 그들의 느낌을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⑨ 보고와 평가

토론은 우리가 계획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음 질문이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당신은 이 사진의 주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나?
- ② 당신이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이 사진은 이 모임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었는가?
- ④ 당신이 사진 전체를 보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는가?
- ⑤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사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면서 이를 해석하려고 한다. 당신이 두 장의 사진을 하나로 붙여놓은 것을 놓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의견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는가?
- ⑥ 정직함을 나타내고 의견을 바꾸는 것은 왜 어려운가?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참석한 사람들의 삶이나 당신이 탐구하고 싶은 문제와 관련된 적당한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야 한다.

⑪ 후속 권유

참석자는 사람들이 말하고 읽은 것, 특히 뉴스나 정보와 광고 분야에서 사진이 이야기하는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비평하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도록 격려한다. 다음 활동에는 참가자들이 놀랐던 것과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활동은 “무엇을 보십니까?” 활동과 잘 연결된다. “무엇을 보십니까?”는 신문의 사진들을 관찰하고 제목을 고르는 편집기자의 일을 해보는 것이다.

## 5. 꼬리표

(Labels)

### ① 개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민감한가?

### ② 등급 2

### ③ 주제 I 와 M

틀에 박힌 생각의 결과

### ④ 목적

-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의 관계를 탐구하기
-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각시키기
- 틀에 박힌 생각의 결과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 ⑤ 시간 45분

### ⑥ 참가인원 10명 이상

### ⑦ 준비물

5cm x 2cm의 하얀 종이(꼬리표)를 모두 구성원에게 한 장씩 줄만큼 준비한다.

이 표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 ‘책임능력이 없는’, ‘재치가 있는’, ‘어리석은’, ‘똑똑한’, ‘졸렬한’ 같은 특성을 쓴다.

하나의 임무를 모임에게 맡긴다. 예를 들어 협동 포스터를 구상하기, 의사표명을 계획하기, 가구를 옮기거나 토론을 주최하기(예를 들어, “유명한 팝 음악그룹이 당신이 사는 도시에 연주하러 온다면 당신은 누가 오기를 원하는가?” 하고 묻는다).

### ⑧ 지시사항

- ① 진행자는 참가자 각자의 이마에 꼬리표를 붙인다. 무엇이 쓰여 있는지 절대로 알게 하면 안된다.
- ② 구성원들은 이 꼬리표에 써 있는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고 정확히 말하여 모임에서 해야 할 자기 임무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마에 붙인 “게으른” 이란 말이 써 있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항상 게으른 것처럼 대우해야만 한다 (문제의 이 낱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
- ③ 놀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꼬리표에 써있는 대로 대우하여야 한다.
- ④ 참가한 사람들은 이 놀이가 끝날 때 자기 꼬리표에 무엇이 써있는지 알아맞춰야 하지만,

이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 ⑨ 보고와 평가

참가자에게 말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꼬리표에 무엇이 써있는지 알아맞출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① 이 놀이를 하는 동안 참가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 ② 꼬리표에 써있는 대로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이 어려웠는가?
- ③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자기 꼬리표에 써있는 대로 “꼭 들어맞기” 시작했는가?
- ④ “채치가 있다”고 쓴 종이를 가진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확신을 갖고 행동했는가? “게으른”이라고 쓴 종이를 가진 사람은 남을 돕지 않거나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는가?
- ⑤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꼬리표를 사람들에게 붙이는가? 꼬리표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들에 대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⑥ 실제 삶에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꼬리표를 달게 하는가?
- ⑦ 이 꼬리표들은 타당한가?

#### ⑩ 지도자에게 하는 충고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꼬리표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게으르면 이 사람에게 이 꼬리표를 “붙이”지 않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저마다 자기의견을 밝히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나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놀이는 강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⑪ 후속 권유

모임이나 조직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역할과 책임의식을 서로 나누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임무(일)을 잘 할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망명자들과 이민 온 사람들에게 붙인 꼬리표에 대해 토론하고 싶으면 “피난민(The refugee)”을 해봄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처한 형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다.

## 6. 나도!

(Me too)

### ① 개요

우리는 모두 유일하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지만 어떤 때는 착잡하거나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나눔은 우리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

### ② 등급 1

### ③ 주제 G

사람들 사이의 다른점과 공통점

### ④ 목적

- 단체 안에서 처음으로 서로 알기.
-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 우리는 모두 평등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 ⑤ 시간 30분

### ⑥ 참가인원 10명-20명

### ⑦ 준비물

참가 인원과 같은 수의 의자

### ⑧ 지시사항

- ① 참가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의자에 앉도록 한다.
- ② 모둠의 다른 어떤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자신의 유일한 특성과 개인적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 ③ 한 사람을 뽑아 그가 자신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나는 터키에 세 번 가보았다.”
- ④ 이 그룹에서 이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다음 참가자가 자기 특징을 소개한다.
- 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앞에서 든 특징을 공유하면 “나도!” 하면서 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이어서 이 특징을 공유하는 참가자의 무릎에 앉아서 함께 이 특징을 나눈다. 여러 명이 문제의 이 특징을 공유하면 관련된 참가자의 위에 가서 서로서로의 무릎위에 앉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이 참가자는 자기의 유일한 특징을 다시 찾아 말해야 한다. 이 참가자가 이를 달성하면 다음 참가자가 자기 특징을 이야기한다.
- ⑥ 모든 참가자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 하나를 소개하면 첫 번째 단계는 끝난다.

- ⑦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 모둠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내는 것이다.
- ⑧ 의자 하나를 빼 내어 슬래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원의 한 가운데에 있으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과 공유한 특징을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 ⑨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구성원은 일어서서 의자를 바꾸면서 “나도!” 하고 외쳐야 한다. 그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다른 의자에 앉아서 가운데 있던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한다.

⑨ 보고와 평가

참가자들이 이 놀이와, 이 놀이를 하며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어서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 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거나, 아니면 서로 공유하는 점들을 찾기 쉬웠는가?
- ②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거나 유일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기쁘게 생각하는가?
- ③ 당신이 선택한 특징, 당신과 이 모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런 특징들을 다른 모임의 사람들과 공유한다고 생각하는가?
- ④ 이 모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체특징을 너무 많이 말한 경우 참가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두 눈과, 심장 한 개와 위장 한 개가 있는데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다.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이 활동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10초 동안만 생각하도록 한다. 이 놀이가 재미있으려면 참가자들의 수가 10명이나 12명이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 큰 모둠과 한다면 2-3개의 모둠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두 번째 단계를 하는 동안 “나는 팔이 있다” 나 “나는 다리가 있다”는 식으로 단순한 말을 여러 번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다른 특징들을 생각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평가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의자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할 수도 있으나 조금 불편할 것이다.

진행자는 모둠에 합류하는 것이 좋겠다.

⑪ 후속 권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삶의 경험의 결실이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경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비슷한 경험들도 사람들에게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의 역사(My history)”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단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할 수 있다.

## 7. 나의 이야기

### (My history)

#### ① 개요

우리 삶은 경험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몇몇 경험과 사건은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활동은 모둠 안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비교하여 경험의 유사함과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 ② 등급 1

#### ③ 주제 G 와 M

- 인생담
- 다양한 문화
- 그 개인들의 나라, 문화, 종교 또는 가정에 관련되어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

#### ④ 목적

- 다른 참석자들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 우리 자신의 생에 대한 비평적 접근.
- 유럽 역사의 다양함을 자각하기.
-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잘 알도록 돕기.

#### ⑤ 준비물

판이나 큰 종이 위에 있는 달력.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의 탄생년도부터 올 해 년도를 이 달력 위에 적어야 한다.

지워지지 않는 펜

#### ⑥ 시간 30분 ~ 1시간

#### ⑦ 참가인원 관계없음

#### ⑧ 지시사항

- ① 참가자들에게 자기 삶에 흔적을 남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건 3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 다음 이 사건이 일어난 해 앞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한다. 이 사건들은 정치나 사회(예를 들어 9.11사건)나, 운동(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과 음악에 속할 수 있다.
- ② 그리고 나서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 이 날짜가 뜻하는 바, 이 날짜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다.

#### ⑨ 보고와 평가

참가자들이 이 날짜나 말한 사건들 때문에 놀랐거나 감정이 상했는지 또 날짜나 사건이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친숙한지 말하도록 권유한다.

특별히 어떤 사건들을 다른 것보다 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토론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이 활동은 어떤 그룹과도 할 수 있다. 합숙 연수에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진행자가 지역 단체와 작업한다면 활동은 가령 참가자들이 같은 지역에 산다 해도 같은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하여 출신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영향을 미쳐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를 느낄 수도 있다.

구성원들의 문화가 다양한 그룹의 경우 참가자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가까운 과거와 문화의 영향에 호기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신념을 더 많이 존중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 달력이 더 생생하고 더 살아 있는 것이 되도록 생일과 비교하여 그들의 사진이나(폴라로이드가 아주 알맞겠다) 초상화를 곁들일 수 있다. 세미나, 교육이나 합숙 연수에서 달력을 걸어서 연수기간 내내 여러 경우에 쓸 수 있다.

#### ⑪ 후속 권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 가지 사건 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가 되었다. 우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헝가리사람이거나 스페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느낄 테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 국적을 혼합하여 태어난 열매다. “족보(Tree of life)”를 사용하여 더 많이 알아내기 바란다.

## 8.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들 (Personal heroes)

### ① 개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보고 감탄하며 존경한다. 때때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모범이 된다. 참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들이 죽었거나 살아 있거나 그들에 대한 느낌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러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 ② 등급 1

### ③ 주제 I 와 A

- 사회화와 문화의 요인이며 상징인 영웅들
-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개인의 다양한 취미와 기호
- 문화와 민족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점

### ④ 목적

- 단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함을 자각시키기
- 다른 사람의 영웅에 대하여 호기심을 일깨우기
- 모둠 안에서 서로 알아가기
- 민족 중심주의에 대해 자아비판(소수민족문화의 모델에 대한 지배민족문화의 모델)
- 영웅제조기로서의 역사교육과 매체의 역할을 숙고하기

### ⑤ 시간 1시간 30분

### ⑥ 참가인원 10명 ~ 40명

### ⑦ 준비물

종이판과 수성볼펜, 참석자가 쓸 종지와 펜

### ⑧ 지시사항

- ① 모임이 크면 5-6개 모둠으로 나눈다.
- ②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영웅 세 사람을 저마다 생각하게 한다.
- ③ 대략 5분이 지나면 각 모둠에서 참가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그 영웅에게 찬사를 보내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실제로 의견을 주고받고 질문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계획한다.
- ④ 각 모둠마다 종이 게시판에 영웅의 이름과 국적, 필요한 경우에는 영웅들이 유명해진 분야, 예를 들어 운동, 음악, 문화와 정치 같은 분야를 쓰도록 한다.
- ⑤ 참가자 전원이 모인 가운데 각 모둠에서 적은 리스트를 모두 소개하게 한다.

### ⑨ 보고와 평가

여러분은 한 번 이상 언급되는 영웅들을 적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활동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하게 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며 토론한다.

- ①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영웅 중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모르는 이름이 있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 ② 국적이나 성(性)이란 용어에 특별한 하나의 경향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영웅들은 같은 국적이고 같은 성이며 또 왜 그들은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 영웅들은 같은 나라 사람인가? 아니면 외국 사람인가?
- ③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른 영웅보다 어떤 영웅을 더 좋게 평가하게 되는가?
- ④ 자신의 영웅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정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이유는 무엇인가?

###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영웅의 사진, 자료나 신문에서 오린 것을 모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이 활동이 더욱 재미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청소년을 위한 잡지와 신문을 모아 참가자들을 위해 홀에 남겨둘 수 있다.

이 활동이 증명하는 원칙은 우리가 영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권의 참가자들이 있는 모둠에서는 더욱 자명하게 이런 결론에 이른다. 모둠 안에서 나이와 성(性)의 차이 또한 상관관계가 있다.

### ⑪ 후속 권유

진행자는 대중에게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 지방이나 국가나 세계의 영웅을 확인한다. 초대받은 사람들과 축하를 준비한다. 영웅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또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기피나 반유대주의 퇴치 활동을 확고하게 해온 사람일 수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 배척에 맞서 싸우는 데에 이바지한 사람일 수도 있다.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여 영웅답게 행동한 사람들은 그들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큰 용기를 드러내야만 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 “당신의 입장은?(Quelle est votre position?)” 활동을 해본다.

## 9. 차별을 함께 하기

(Sharing discrimination)

### ① 개요

끔찍했다. 나는 매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 ② 등급 2

### ③ 주제 M 과 A

-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기
- 힘든 상황을 어떻게 담대하게 대처할 것인가?

### ④ 목적

-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자각하기
-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하기
-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지 도와주기

### ⑤ 시간 45분

### ⑥ 참가인원 무관함. 단체가 매우 크면 토론을 위해 6-8개 모둠으로 나눈다.

### ⑦ 준비물

종이게시판과 수성볼펜

### ⑧ 지시사항

- ① 자기가 차별당하는 것을 느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았던 상황을 각자 생각하도록 한다.
- ② 참석자들을 한 번 둘러보고 이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도록 한다.
- ③ 이 상황을 종이게시판 위에다 모두 다 적고 토론할 상황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
- ④ 이어서 상황을 고른 사람에게 선택한 이 상황의 필요한 세부 내용을 모두 알려달라고 한다.
- ⑤ 그리고 다음의 문제점을 토론한다.
  - 이런 상황은 어떻게 유발되었고 또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 차별 당한 사람은 무엇을 느꼈는가?
  - 이 차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느꼈는가?
  - 이 사람이 차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옳았는가?
  -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고 이 사건에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⑥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할 행동과 아울러 고려할 만한 다른 대응

을 생각해보라고 한다.

⑨ 보고와 평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차별에 대해 토론한다.

- ① 차별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신의 나이, 피부색깔이나 옷차림인가?
- ② 왜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가?
- ③ 이러한 차별 행동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 ④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가?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참가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불편했던 일들을 폭로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평소에 사람들은 부정의 차별을 말하지만 때때로 긍정하는 차별을 말할 때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⑪ 변형

- ① 선택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두 사람 또는 작은 모둠이 역할놀이를 해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관찰한다. 그 다음, 이 상황에 대해서 관찰자들이 나름대로 대답한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을 연출해보고 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한다.
- ② 참가자 전원에게 작은 종이에 어떤 상황을 간략하게 써서 내라고 한다. 그것을 모자 안에 다 넣고 그 모자를 참가자들에게 돌려서 저마다 한 장씩 집도록 한다. 원을 한번 둘러보면서 자기가 뽑은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으라고 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감정을 짐작해보도록 한다.

⑫ 후속 권유

참가자들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능력과 확신을 얻도록 주장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이 문제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러나 피자, 케밥, 재즈나 레게와 같이 외국에서 들여와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은 좋게 평가한다. 사실로 가장한 놀이로 매우 재미있고 신나는 “20점(Limit 20)”을 해본다.

## 10. 20점

(Limit 20)

### ① 개요

이 활동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차별과 배척의 문제를 탐구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활동은 재미있고 신나지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3개 모둠이 서로 다른 놀이판에 참가해야 한다.

### ② 등급 3

### ③ 주제 M

- 삶, 권력, 차별과 배척에서 나타나는 기회의 불균등
- 연대의식, 경쟁(\*대항)과 불의
- 다수-소수의 관계

### ④ 목적

- 불의와 차별 경험
- 참가자의 관용과 연대의식 드러내기
- 배척, 다수-소수의 관계, 사회적 장애인과 경쟁에 대한 성찰

### ⑤ 시간 2시간 30분 - 3시간

### ⑥ 참가인원 15명에서 35명

### ⑦ 준비물

이 활동은 매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래에 나오는 지시사항과 심사위원 역할에 대해 쓴 글을 잘 읽고 연구하여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

#### ❶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 참가인원을 똑같은 모듬으로 나누기 위한 트럼프 카드에서 하트, 다이아몬드와 스페이드(클로버는 빼다)만을 사용하여 한 사람 당 카드 한 장만을 갖는 식으로 놀이를 준비한다. 참가자가 홀수이면 하트의 수를 가장 많게 해야 한다.
- 종이게시판. 이 종이판 위에 각 판이 끝날 때마다 점수를 적어 넣을 표를 그린다.
- “심사위원을 위한 지시사항” 3부 - 한 사람 당 1개씩.
- 각 모듬(하트, 다이아몬드와 스페이드)을 나타내는 점착성의 종이 표.
- 용의 꼬리를 나타내기 위한 스카프나 이와 비슷한 것 3장.
- ‘방울뱀 놀이판에 필요한 열쇠 꾸러미 2개.
- ‘방울뱀’ 놀이 때 참가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스카프나 이와 비슷한 것 2장.
- 얼굴에 쓸 붉은 색 페인트나 립스틱.

- 장애인의 오른팔을 비껴러멜 꼬나풀.
- 공기를 불어넣은 풍선 5개.
- 종이 3장과 연필(“중국식 쑥덕거림”을 위한 것).
- 심사위원에게 맡길, “중국식 쑥덕거림”에 쓸 형태를 그린 그림.
- 심사위원이 쓸 종 한 개.
- 손목시계 하나 또는 크로노미터.
- 모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히 큰 방.

## ② 게임의 개관

참가자들은 세 개 모둠으로 나뉘어 여러 가지 연속적인 짧은 놀이를 하며 힘을 겨루게 될 것이다. 심사위원은 세 모둠의 기록을 평가하고 점수를 적는다. 각 모둠은 마지막 8판에 20점을 얻지 못하면 실격된다.

참가자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놀이는 8판을 할 뿐이고(장애인과 한 판 더 함) 시합은 조작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참가자들은 이 규칙이 부당하고 단 한 모둠만이 가장 좋은 기회와 심사위원의 호의를 얻은 것을 확인할 것이다.

1, 2, 3 판은 참가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시합은 공정하며 그들 모둠의 참모습과 단체정신을 발전시키는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놀이 한다. 참가자들은 이 판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부당함을 경험한다.

4 판은 올바르다는 느낌을 준다.

5 판은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기회가 될듯하지만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진 사람들은 매우 분명하게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이긴 사람들은 폭넓게 앞으로 나아간다.

6, 7판과 8판은 8판 끝에 모둠들의 전체 점수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식으로 구상되었다. 모둠의 하나(또는 둘)는 필요한 20점을 얻지 못하면 놀이를 그만해야 한다!

놀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놀이가 8판에 끝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가자들이 자리를 뜰 것이다.

2, 4, 6판과 8판의 “방울뱀” 놀이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할 것이다. 이 판들은 참가자들에게 기회가 균등하다는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이 판에서 유일하게 점수가 공평하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들은 진 모둠이 여기서 불리하게 끝나는 한 부당하다. 왜냐하면 진 모둠은 잡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고 또 점수를 얻게 되어도 한 사람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놀이하는 동안 사람들이 느낀 감정과 취했던 행동에 대해 토론하고 이어 현실과 연관지어 평가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한다.

## ⑧ 지시사항

참가자에게 ‘20점’이 차별과 배척에 대한 놀이이고 이 놀이는 조작된 것이며 실제로 8판뿐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 ❶ 이 놀이는 시합이고 모둠들은 마지막 8판에 적어도 20점을 얻어서 놀이를 끝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 ❷ 심사위원 세 사람을 뽑는다(되도록이면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듬의 다른 구성원들이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시사항을 적은 종이를 맡기고 다른 방에서 이것을 읽도록 내보낸다.
- ❸ 참가자들을 세 모듬으로 나누면서 차례대로 카드를 골라잡으라고 한 다음, 이어 카드 종류 별로 다시 모은다(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 ❹ 참가자들에게 그들 모듬을 나타내는 점착성의 표를 집어 들고, 이 표를 셔츠 위에 아주 잘 보이게 붙이라고 한다.
- ❺ 각 모듬이 방의 한 구석을 자기 구역으로 가지도록 한다. 각 모듬이 저마다 이름을 짓고 어떤 표어나 슬로건을 내놓도록 몇 분을 준다. 경우에 따라서 모듬을 위한 노래를 지으라고 할 수도 있다(주요목적은 모듬의 단체정신을 창조하고 놀이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❻ 판에다 규칙을 쓴다.
- ❼ 심사위원에게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심사위원이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초대하여 세 모듬과 만나도록 한다.
- ❽ 놀이를 시작한다.

## ⑨ 놀이의 전개

### 1 판 : “용꼬리 잡기”

- ❶ 각 모듬의 참가자들에게 서로 일렬로 허리를 붙잡으라고 한다.
- ❷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바지나 치마 속에 용꼬리(스카프 등)를 몰아넣는다(그림 참조).



- ❸ 각 모듬은 될 수 있는 한 용의 꼬리를 많이 잡도록 해야 한다. 용대가리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용꼬리들을 잡을 수 있다.
- ❹ 모듬들이 준비가 되면 큰 소리로 “시작!” 하고 세계 외친다. 1분 뒤에 “그만!” 하고 외친다.
- ❺ 심사위원이 계산하고 인정한 점수를 말하게 한다. 심사위원이 표에 점수를 적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다.

충고) 심사위원은 스페이드: 3점, 하트: 2점, 다이아몬드: 1점이라고 결과를 알려준다.

### 2 판 : “방울뿔”

- ❶ 심사위원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에게 원을 만들라고 한다.

- ② 모둠들이 서로 대항하여 놀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리더 모둠(당분간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의 한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가진 모둠의 한 사람을 추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모둠의 한 사람이 세 번째 모둠을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낸 모둠의 한 사람이 세 번째 모둠의 한 사람을 추적하도록 한다.
- ③ 잡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열쇠 꾸러미를 각자에게 준다.
- ④ 잡는 사람이 열쇠 부딪히는 소리를 낼 때 쫓기는 사람도 똑같이 소리를 내면서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⑤ 이 사냥놀이는 모두 정확히 45초 동안 지속하고 두 참여자 모두 3번만 그들의 열쇠를 팔랑 거릴 권리가 있다.
- ⑥ 참가자들이 준비가 되면 출발신호를 준다. 45초가 되면 놀이를 멈춘다.
- ⑦ 사냥놀이가 다 끝난 뒤에 이긴 사람의 이름을 크게 말한다. 심사위원이 점수 적은 것을 확인한다. 잡는 사람이 쫓기는 사람을 만지는 데 성공하면 잡는 사람의 모듬은 1점을 얻는다. 쫓기는 사람이 45초 동안 잡는 사람을 잘 피해 다니면 그의 모듬은 1점을 얻고 이 쫓기는 사람은 그의 모듬을 떠나 잡는 사람의 모듬에 합류한다.
- ⑧ 이 놀이를 하는 동안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충고) 주의할 것은 이 놀이판이 진행되는 동안

- 스페이드에 속한 사람은 하트에 속한 사람을 쫓아간다.
- 하트에 속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속한 사람을 쫓아간다.
- 스페이드에 속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속한 사람을 쫓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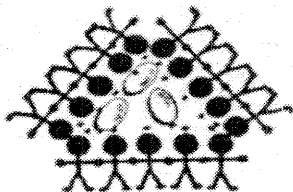
따라서 다이아몬드들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참여자들은 눈을 가린 뒤에 제 자리에서 맴돌게 하여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그들이 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듬에 사람이 적으면 원을 충분히 크게 하여 놀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 3 판 : “풍선위로 바람을 불어라”

- ① 각 모듬의 구성원은 배를 깔고 일렬로 엮드려서 팔뚝을 몸에 붙인 채로 서로 어깨와 팔뚝을 맞대라고 한다. 세 모듬은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의 머리로 삼각형의 세 변을 만들어야 한다(그림 참조).



- ② 각 모듬이 할 일은 풍선위로 바람을 불어서 풍선이 그들에게서 멀어지도록 하여 삼각형 가운데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③ 모듬들이 준비가 되면 풍선을(3개에서 5개) 가운데에 두고 큰소리로 시작신호를 한다.
- ④ 정확히 1분 동안 놀게 한다.
- ⑤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하고, 점수를 매기게 한다. 그리고 점수판에 점수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 ⑥ 심사위원이 각 모듬의 총계를 내게 하고 이를 큰소리로 알리게 한다.  
 충고 )이 판에서 점수는 스페이드가 5점, 하트가 1점, 다이아몬드가 0점이다.

#### 장애인과 하는 판

- 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모듬은(스페이드!) 다른 두 모듬에게 장애인을 보내야 한다. 한 모듬의 구성원들은 코에다 빨강계 칠해야 하고 다른 모듬의 구성원들은 등 뒤로 오른팔을 비끄러매야 한다.
- ② 스페이드에게 장애인을 할 사람을 결정하도록 한 다음 이어서 그들의 결정과 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리도록 한다.
- ③ 물감과 끈을 나누어주고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실행하라고 한다.
- ④ 장애인들은 이 놀이 활동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속 장애인을 할 것이고 스페이드들이 이것을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 4 판 : “방울뱀”

- ① 이 판에서는 각 추적놀이에서 이긴 사람들이 2점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 지시사항이 전과 같다고 알려준다.
- ② 판이 끝난 다음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큰소리로 알려달라고 한다.

#### 5 판 : “행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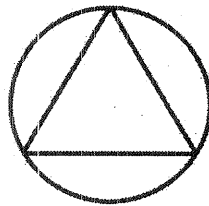
- ① 이 판에서 이긴 모듬의 실제 점수는 세 배로 늘어나고, 두 번째 모듬은 두 배로, 세 번째 모듬은 1을 곱하는, 다시 말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 ② 각 모듬이 할 일은 각 모듬이 자신들의 점수가 세 배 또는 두 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 ③ 각 모듬이 자기 논증을 준비하도록 2분을 준다.
- ④ 각 모듬이 자기 논증을 제출하도록 2분을 준다. 맨 먼저 스페이드, 그 다음에 하트, 이어서 다이아몬드 순서로 한다.
- ⑤ 심사위원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고 점수를 알려주도록 시간을 준다.  
 충고) 이 판의 점수는 스페이드에게 3배, 하트에게 2배, 다이아몬드에게 1배로 준다.

6 판 : “방울뱀”

- ① 이 판에서는 각 추적놀이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3점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지시사항은 이전과 같다고 알려준다.
- ② 판이 끝난 다음 심사위원이 점수를 큰소리로 알리게 한다.

7 판 : “중국식 썩덕거림”

- ① 각 모듬의 구성원들에게 앞사람의 등을 보고 바닥에 세 줄로 앉을 것을 지시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 개별로 지시사항을 알려 준다. 심사위원이 스페이드와 하트 모듬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그림 하나를(그림 참조) 보여주도록 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모듬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 한 사람에게 말로 이 형태를 묘사한다.



- ③ 각 모듬 줄의 마지막 사람이 저마다 한 사람씩 심사위원에게서 이러한 지시사항을 받아 자기가 있던 줄 끝에 다시 돌아가서 앉는다.
- ④ 손가락을 사용하여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의 등에다 이 형태를 그리라고 한다. 이번에는 앞에 앉은 이 사람이 자기 등에서 느낀 이 형태를 그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열의 맨 앞에 있는 사람까지 진행된다. 맨 앞 사람은 이 형태를 종이 위에 그린 다음 심사위원에게 내야 한다.
- ⑤ 놀이하는 사람들은 이 판을 하는 동안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⑥ 심사위원에게 심판과 점수를 알리라고 말한다.  
 참고)이 판의 점수는 스페이드가 3점, 하트가 2점, 다이아몬드가 1점이다.

8 판 : “방울뱀”

이 판에서는 각 추적놀이에서 이긴 사람이 4점을 얻는 것을 빼고는 지시사항이 이전과 같다. 이 판은 참가자들이 계속 놀기를 바라면 가장 좋은 모듬에 들어가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만 현재로는 아직 20점이 안 된 모듬에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판이 끝나면 심사위원은 점수를 알린다. 또한 필요한 20점을 얻지 못한 모듬은 이 놀이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알린다. 심사위원이 가장 점수가 좋은 모듬을 축하하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⑩ 놀이의 끝

몇 분 동안 기다리면서 참가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어서 놀이가 끝났다고 알린다.

## ⑪ 보고와 평가

평가는 '20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서 발생한 차별과 불의를 비교하여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 진행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평가는 작은 모둠을 만들어서 한다. 그 다음 모든 참가자를 모아 놓고 마지막 논평을 해야 한다.

### ◎ 평가단계

#### ① 감정의 양상

놀이의 주요단계를 상기시키고, 참가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 ① 이 놀이를 하는 동안 무엇을 느꼈는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②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는가?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생겼는가?
- ③ 스페이드 모듬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결정하여 배분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 ④ 장애인들이 된 하트와 다이아몬드 모듬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 ⑤ 이런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심사위원은 무엇을 느꼈는가?

#### ② 놀이의 명백함

놀이에 숨어있는 규칙들을 지금 설명한다.

#### ③ 집단 역학의 양상

일어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① 당신은 다른 참가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느꼈는가?
- ② “방울뱀” 놀이판을 하는 동안 모듬을 바꾼 사람들이 새로운 모듬 속에서 이방인으로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본래 자기 모듬을 떠난 것에서는?
- ③ 여러분은 자기가 속한 모듬과 놀이 규칙에 개인으로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는가?
- ④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떤 것에 협력해야만 했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
- 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감정과 활동을 변호하기 쉬웠거나 또는 어려웠던 상황은 어떤 것인가?
- ⑥ 여러분은 놀이규칙을 문제 삼았는가? 또는 이에 대항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아니라면 왜 그랬는가?

#### ④ 현실과 갖는 연관

- ① 여러분은 이 놀이의 양상이 현실의 삶과 관련된다고 보는가? 예를 들어 권력, 경쟁, 명백함, 기회의 균등, 장애인, 소수민족, 불의, 상황에 적응하기와 관련된 양상과 관련되는가?
- ② 여러분이 사는 도시나 나라에서 하트나 다이아몬드 모듬과 견줄만한 상황에 있는

단체들은 어떤 것인가?

- ❶ 희생자들이 그들의 상황으로 말미암은 비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
- ❷ 이 놀이 규칙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 안에서 소수민족의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사위원회에 하는 지시사항**  
(심사위원들을 위해 복사를 요함)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 '20점'은 미리 승패를 조작한 놀이다. 따라서 이길 사람과 질 사람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스페이드 모듬은 이긴 사람들과, 하트 모듬은 두 번째, 다이아몬드 모듬은 진 사람들이다).
- 당신의 주요역할은 모듬들이 실제로 시합에 참여하고 있고, 이 시합에서는 누구에게나 이길 기회가 주어졌으며 당신은 공평하고 바르게 점수를 분배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 놀이 참가자들은 승리자가 하나가 생길 때까지 이 놀이가 지속될 것이며, 실격되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모듬 점수가 8판이 끝날 때 합산하여 20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놀이참가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놀이는 8판 다음에 끝날 것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이 놀이를 계속하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 당신이 무엇을 알려야 하고 당신이 내린 결정을 증명하고자 할 때 참가자들의 주의를 모으기 위해서 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판 : “용꼬리 잡기”**

- 이 놀이를 하는 동안 모듬들을 관찰한다.
- 이 놀이가 끝날 때 스페이드가 3점, 하트가 2점, 다이아몬드가 1점이라고 큰소리로 알린다.
- 플립차트 위에 점수를 적는다.

놀이 전개 방식에 따라 “스페이드 모듬은 놀이에서 가장 열심히였다, 다이아몬드 모듬은 놀이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 스페이드 모듬이 숨씨가 더 좋았다, 어떤 모듬은 너무 시끄러웠다, 어느 정도 단체정신은 있었다.....” 하는 식으로 당신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댈 수 있다. 보통, 이런 것은 속임수를 쓴 다른 모든 판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당신은, 다이아몬드 모듬에게 점수가 형편없고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공손하지 않다고 비난한다.

**2 판 : “방울뱀”**

“방울뱀” 판에서 점수분배는 속임수를 쓴 게 아니다. 당신의 임무는 지도자가 알린 점수를 적는 것이다. 놀이에서 이긴 사람은 1점을 얻는다.

### 3 판 : “풍선위로 바람을 불어라”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1판에서 활용한 것과 비슷한 논증으로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백을 증명한다. 당신의 심판은 공정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이드 모듬은 풍선위로 더 자주 숨을 불어댔다, 아무도 이 숨을 몇 번이나 쉬었는지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항변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스페이드는 5점, 하트는 1점, 다이아몬드는 0점을 준다.

### 장애인과 하는 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행자를 돕는다.

### 4 판 : “방울뱀”

이 판에서 각 추적놀이의 승리자는 2점을 얻는다. 진행자가 말한 점수를 판 위에 적는다.

### 5 판 : “행운”

각 모듬에게 2배나 3배로 된 점수를 납득시키기 위해 1분 동안의 시간을 준다.

먼저 모든 논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점수를 알린다. 결과를 미리 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 개입하여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말해 주는 것이 더 낫다. 이전의 놀이판들에 대해서 “신뢰심이 부족했다”, “복장이 단정하지 못했다”, “구조가 엉성한 이야기였다”, “문법이 틀렸다” 하고 말하는 식으로 한다.

그래서 스페이드의 점수를 세 배로 하고 하트의 점수는 두 배로 하며 다이아몬드의 점수는 1배로 늘려 그대로 있게 한다.

### 6 판 : “방울뱀”

이 판에서는 각 추적놀이에서 이긴 사람이 3점을 얻는다.

### 7 판 : “중국식 속덕거림”

- 진행자가 당신에게 간단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줄 것이다.
- 이 종이를 스페이드와 하트 모듬에게는 보여주지만 다이아몬드 모듬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 그림을 다이아몬드 모듬에게는 말로 설명한다. 이 설명을 비밀로 조심스럽게 하여 참가자들이 다르게 취급된 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다. 다른 어떤 참가자도 이 그림을 보아서 안 된다.
- 놀이하는 동안 참가자들을 관찰한다.
- 놀이가 끝나면 “스페이드 3점, 하트 2점, 다이아몬드 1점” 하고 점수를 큰 소리로 알린다.
- 표에 점수를 적는다.

당신은 한 번 더 이러한 점수를 준 이유를 말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페이드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다”, “다이아몬드 모듬원들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 모듬은 시끄러웠다”는 식으로 한다.

### 8 판 : “방울뱀”

이 판에서는 각 추적놀이에서 이긴 사람이 4점을 얻는다. 마지막에 총계를 내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매우 중요한 것은 : 참가자들이 이 놀이가 8번째 판에서 끝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지금,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시합의 전개를 검토한다.

- 지금 우리는 마지막 8 판에 이르렀다. 20점이 안 된 한 두 모듬은 실격될 것이다.
- 노력을 많이 하고 점수도 높은 스페이드 모듬을 축하하고, 다른 모듬도 힘과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축하한다. “그러나 가야 할 긴 길이 남아있습니다.....” 하는데

이 때 진행자가 놀이는 끝났다고 알린다.

###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규칙

다음 규칙을 플립차트 위에 적고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읽어준다.

“20점’ 놀이는 신나고 재미있다. 이 놀이에서는 누구나 행운이 있다!”

짝수 판 : 매번 심사위원이 총 6점을 줄 것이다.

홀수 판(‘방울뱀’)

두 번째 판 : 이긴 사람은 1점을 얻는다.

네 번째 판 : 이긴 사람은 2점을 얻는다.

여섯 번째 판 : 이긴 사람이 3점을 얻는다.

여덟 번째 판 : 이긴 사람이 4점을 얻는다.

5 판은 행운 놀이다! 여러분은 이 놀이에서 점수를 두 배 또는 세 배로 늘일 수 있다!

8번째 판 정도에 점수를 다 합해서 20점이 안 된 모듬은 실격된다.

참된 단체정신을 살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즐기고 서로 싸우십시오! 가장 우수한 모듬이 이길 것입니다!

### ⑫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항상 심사위원을 격려한다. 특히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의 결정을 문제 삼을 때 지지한다. 한 두 모듬이 몇 개의 판을 마친 뒤에 중단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놀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놀이를 계속하도록 격려하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놀이가 중단되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에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면 진행자는 “왜 놀이를 중단했습니까?” “계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모듬이 개인이 아닌 단체의 요청이 문제라고 주장하면 몇 가지 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심사위원과 상의한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모듬이 ‘방울뱀’ 놀이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규칙을 조금 바꾸어도 놀이는 돌아간다. 이런 것으로 본래 놀이구조의 부당함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안심할 것이다. 이것은 평가할 때에 연구해야 하는 흥미로운 양상이다.

모듬에게 맡긴 임무들은 진행자가 적당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방울뱀’ 놀이판들은 공정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다이아몬드 모듬사람들은 추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러나 이 내용이 바뀌어도 이 판들은 공평하지 못하다). 다른 놀이판들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결과가 되도록 속도와 혼동과 흥분을 토대로 하여 펼쳐진다. 이 판들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에 유의한다.

놀이판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은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맞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 ⑬ 후속권유

삶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삶을 조금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공정한 상거래로 제공된 생산품을 살 수 있다. 이 생산품 때문에 생산자들은 올바른 수익을 얻었다. 오늘날, 생산자와 구매자의 정당한 협약에 따라 차, 커피, 옷, 수공업생산품, 재생이용종이로 만든 생산품 등을 도처에서 얻을 수 있다.

‘방울뱀’ 놀이판에서 어떤 참여자들은 원래의 자기 모듬에서 이긴 모듬으로 옮길 수 있다. 현실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본국을 떠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나라로 이민 간다. 이민 온 사람들과 피난민들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많다. 대체로 외국에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피난민의 조건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치기 바라면 “피난민(Le réfugié)” 활동을 한 번 해본다.

## 11. 얼굴그림

(Portraits)

### ① 개요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르다. 왜 그런가?

### ② 등급 2

### ③ 주제 I와 M

- 사회에서 성공한 것과 경제면에서 성공한 것을 똑같이 보는 것
-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은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어떻게 줄이거나 증가시키는가?

### ④ 활동의 목적 차별의 근거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 ⑤ 시간 대략 2시간

### ⑥ 참가인원 최소 10명에서 최대 24명

### ⑦ 준비물

커다란 종이와 색깔 펜, 메모하기 위한 종이(A4크기)와 연필  
벽에 사진을 붙이는 데 쓸 스카치테이프

### ⑧ 지시사항

- ① 참가한 사람들을 최대한 6명이 작업하는 모둠으로 나눈다. 될 수 있으면 모둠의 수는 가장 많게는 4개로 하고 짝수여야 한다.
- ② 모듬원의 1/2에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몽타주 얼굴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 나머지 1/2에게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의 몽타주 얼굴그림을 그리라고 한다.
- ③ 참가한 사람 전원에게는 그들이 표본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 목록, 예를 들어 사회경제 수준, 교육, 직업이나 일, 성, 민족, 관습, 여가활동과 취미, 의복선택, 의견, 사상과 가치관, 가족경력, 생활방식, 숙소형태, 소비습관, 관심을 갖는 것을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한다.
- ④ 이어서 큰 종이위에 그들이 본보기로 삼은 사람의 몽타주 얼굴그림을 그리라고 한다. 이 그림은 목록에 적힌 모든 특징을 다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 그림은 사실을 묘사해야 하고 어떤 낱말도 여기에 적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⑤ 그리고 모듬들에게 그린 그림을 서로 바꾸라고 한다. “실패한 사람”을 그린 모듬들은 “성공한 사람”을 그린 모듬들과 그들의 얼굴그림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 다음 이 그림을 15분 동안 설명해야만 한다.
- ⑥ 벽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모두 붙인다.
- ⑦ 전체가 모인 데에서 모듬들이 저마다 차례대로 받은 얼굴그림에 대한 해석을 내놓도록 한

다. 본래 그림을 그린 모듬은 이 단계에서 아무 해석도 하지 않는다.

- ⑧ 모든 모듬들이 일단 해석한 이상, 원래 그림을 그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덧붙여 말하기를 바라면 해석을 하라고 한다. 시간은 30분을 준다.

⑨ 평가와 보고

토론은 대략 30분을 예정한다. 사회에서 한 개인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모듬들에게 정의해보라고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 ① 사회에서 성공한 것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실패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것들인가?
- ② 성공과 실패의 원인, 그 “뿌리”는 무엇인가?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어떤 것들인가?
- ③ 얼굴그림에 소개된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의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나 집단에서 나타나는가?
- ④ 사회의 모든 집단과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장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어떤 참가자들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 어려워 할 것이다. 진행자는 그들을 격려하며 결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진행자는 목록으로 적은 특징을 그림으로 그려 나타내도록 참가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토론하면서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성공을 똑같이 여기면 성공한 사람이란 인격이 크게 성숙하거나 뛰어난 경험을 한 어떤 단계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아주 많은 재산을 얻거나 축적하는 데 성공한 사람일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라고 지적한다. 프랑스의 한 속담은 “돈은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피부색이 다르거나 소수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이룬 성공”의 가능성을 줄이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문제인 만큼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진행자는 문화, 출신, 성,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이런 사람들이나 집단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근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회에서 어떤 집단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을 뜻한다.

⑪ 후속권유

어떤 점에서 보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성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가 존경하고 감탄하는가? 여러분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감탄하는 그들의 장점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흥미로우면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들(Personal heroes)’을 한 번 해본다.

또 여러분이 참여자들이 그린 얼굴그림을 해석하는 것이 재미있었다면 “무엇을 보십니까?(What do you see?)” 활동으로 다른 사진들을 해석해 볼 수 있다.

## 12. 당신의 입장은? (Where do you stand?)

### ① 개요

우리는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로 우리 입장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가?

### ② 등급 3

### ③ 주제 M과 A

-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외국사람 기피, 불관용
-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 ④ 목적

-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외국 사람기피, 불관용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의 관점과 의견들을 다시 검토하기.
- 참가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하는 역할 의식을 증가시키기.
- 참가자들이 사상과 의견을 나누도록 조장하기.
- 모둠 안에서 구성원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분명히 하고 인정하기.
- 의사소통의 장애를 깨고 저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기.
- 흔히 우리는 너무 빨리 내린 결정을 열심히 옹호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행동을 참여자들에게 인식시키기.

### ⑤ 참가인원 10명에서 40명

### ⑥ 시간 1시간

### ⑦ 준비물

- 종이판과 펜, 또는 영사기
- 발언 목록
-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판이나 투화(透畫)위에 발언을 적는다.

### ⑧ 지시사항

- ① 이 방 한쪽에 부정의 기호(-)와 긍정의 기호(+)가 있다고 상상하라고 한다.
- ② 당신이 이 발언목록을 읽어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발언 내용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로 가고, 찬성하는 사람은 “+”로 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발언에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거나 아무런 의견도 없는 사람들은 방 한가운데에 남아있으면서 자기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참기 어려울 것이다.

- ③ 첫 번째 발언을 읽는다.
- ④ 모든 참여자는 자기 입장을 선택한 이상, 차례대로 왜 “-”와 “+”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단체의 나머지 사람을 설득시켜 그들과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참가자들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5-8분 정도 준다.
- ⑥ 모든 사람이 자기를 표현했으면 입장을 바꾸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다.
- ⑦ 지금 두 번째 발언을 읽고 앞에서 한 과정을 되풀이한다.
- ⑧ 일단 모든 발언을 논의하면 곧장 평가로 넘어간다.

#### ⑨ 평가와 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① 이 놀이를 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가?
- ② 선택하는 것이 힘들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③ 한가운데 남아있는 것과 반대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한 것이 참기 어려웠는가?
- ④ 활용한 논의의 형태는 무엇이었는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는가?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가?
- ⑤ 참가한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하는 동안과 실제의 삶을 사는 동안 말하고 실행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가?
- ⑥ 이 발언들은 사실인가?
- ⑦ 이 활동은 유익했는가?

####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참가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진행자는 가장 말이 없는 참가자들이 자기 의견을 나타내도록 권유한다. 같은 식으로, 아주 자주 발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주라고 요청한다.

발언들이 반드시 논쟁할 만한 것은 아니다. 평가 끝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논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자는 모둠에 따라서 여러 점에서 토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 ① 어떤 발언들은 모호하지만 진실한 부분이 있다. 의사소통의 전 과정에서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같은 발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의견이 대립된다는 것도 정상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옳고 그른 태도나 입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입장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 ② 일상생활의 현실과 갖는 관계를 명백히 드러내도록 한다. 흔히 우리는 문제의 한 면만을 고려한다. 또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문제를 지지하기를 바라는 일도 있다. 진행

자는 이런 일이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 모둠에게 물어볼 수 있다.

③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논증을 듣고 있는가? 우리의 관점들을 얼마나 명백하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모호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모호함과 잘못 이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④ 우리의 의견과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 ⑪ 후속권유

용기를 내어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또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삶을 향상시키고, 당신의 나라와 외국에서 인권을 기키기 위하여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고,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어떻게 조처할 지를 결정한다.

#### ⑫ 발언의 몇 가지 예

- ① “이슬람교도들은 유럽사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
- ② “민족주의는 전쟁과 비슷한 말이다.”
- ③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 ④ “동성 연애하는 사람보다 흑인이 더 낫다.”
- ⑤ “롬(집시)들은 진짜 유일한 유럽백성이다.”
- ⑥ “청소년들은 인종차별주의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 ⑦ “이민 온 사람들은 우리의 숙소와 일을 빼앗는다.”
- ⑧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3. 무엇을 보십니까?

(What do you see?)

① 개요

좋은 사진은 만 마디 말보다 낫다고 한다.

② 등급 1

③ 주제 I와 M

④ 시간 45분

⑤ 참가인원 6명 이상

⑥ 준비물

잡지와 신문에서 오린 대 여섯 장의 사진을 큰 종이 위에 하나씩 붙인다.

종이 띠, 볼펜, 스카치테이프나 압정

⑦ 지시사항

① 사진들을 벽 위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이거나 압정으로 붙인다.

② 하얀 종이 띠를 각 참여자에게 주고 사진에 대해 긍정적인 제목과 부정적인 제목을 적으라고 한다.

③ 적은 제목들을 해당되는 사진 아래에 붙인다.

④ 제목들을 비교한다.

⑧ 보고와 평가

① 사람들이 모든 사진에 대해서 저마다 얼마나 다른 해석을 했는가?

② 신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는가? 설명문인가? 아니면 사진인가?

③ 사진들은 어느 정도로 현실을 말하는가?

④ 정보를 전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편집자들은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⑨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진들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10개의 언덕으로 된 야영지 사진.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로 가득 찬 2개 언덕만을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 8개 언덕만을 볼 것이다.

⑩ 후속권고

신문, 광고, 성금모으기에서 사용된 사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어떤 사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고, 어떤 사진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14. 꿈 (Dreams)

### ① 개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꿈을 꾸고, 더 나은 앞날을 상상하는 능력이다. 이 활동은 단체 안에서 이런 능력을 함께 나눴으로써 평등의식을 강화한다.

### ② 등급 2

### ③ 주제 G, I, M과 A

- 인종과 문화를 넘어선 평등
- 모듬원간의 연대의식과 공감

### ④ 목적

- 모듬 안에서 평등을 명백하게 설명하기
- 모듬 안에 연대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기
- 협동을 격려하기
- 서로 알아나가기

### ⑤ 시간 1시간

### ⑥ 참가인원 6명에서 40명

### ⑦ 준비물

모듬 당 클립차트와 수성볼펜 1세트

### ⑧ 지시사항

- ① 이 활동의 준비는 모듬의 크기에 달려 있다. 집단이 10명 쯤 되는 중간크기라면 하나의 모듬으로 만들고, 그 이상이면 한 모듬을 5-6명으로 구성한다.
- ② 참가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마다 가정, 일, 여가활동, 집, 개인발전, 시민권리 등과 관련하여 5분 동안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 ③ 그 다음에 모듬 안에서 그들의 꿈과 열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공통된 꿈 곧 직업, 여행, 아이를 갖는 것, 집을 갖는 것 등에 대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 ④ 전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각 모듬이 그린 그림과 내린 결론을 소개하도록 한다.
- ⑤ 계속해서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모듬이나 조직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자세히 정의하게 한다.

### ⑨ 보고와 평가

참가자들이 이 활동에서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 그들 마음에 든 것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 ① 여러분은 어떤 것에 놀랐는가?
- ② 누구나 자기 열망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③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 ④ 그렇다면 누가, 왜 더 많은가? 그리고 이것은 공정한가?
- ⑤ 여러분은 꿈을 실현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이 활동은 그룹이나 개인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 조건은 참가자들이 그들의 꿈을 분명히 말하고, 또 단체 활동을 자세히 정의하는 것이다.

모두들이 앞날에 대해 공통된 꿈을 갖고 있으면 이 활동이 더 잘 된다. 모두들이 그들의 꿈을 그리기 어려워하면 색깔이 많은 낚은 잡지와 풀과 가위를 가지고 풀라쥬를 해보게 한다. 아니면 그들 꿈을 스케치로 나타내라고 할 수 있다.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연스런 표현을 쉽게 하게 하는 모든 방법은 글로 쓰거나 말로만 하는 의사소통보다 더 바람직하다.

모두에 있는 사람이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면 인종차별, 외국사람 기피, 반유대주의 같은 문제와 관련짓기가 더 쉽다. 아니면, “누구나 자기 열망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란 질문을 가지고 토론과 성찰을 하도록 한다.

### ⑪ 후속권고

“꿈” 놀이 활동에 이어 즉각 할 수 있는 적당한 놀이로는 “풍선” 놀이가 있다. 모두 안에 긍정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이다.

같은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참석한 사람들이 말한 실제 활동을 깊이 생각한다. 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양상을 성찰하기 위해서 다른 회의를 계획한다.

## 15. 족보 (Tree of life)

### ① 개요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 우리 친척 가운데 몇 분이 다른 나라에서 자리를 잡았는가?
- 이 활동은 참가자들의 족보를 탐구하고 또 그들 친척 중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곳의 이방인이었는가를 확인하게 한다.

### ② 등급 2

### ③ 주제 M

- 국가주의와 “민족의 순수함”
- 외국인, 이민자, 피난민들의 처지를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기
- 신원

### ④ 목적

- 참가자들 자신의 현실과, 영향을 받은 문화를 깨닫기
- 우리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자각하기
- 국외망명자, 이민자와 다른 종류의 소수 민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기
- 참가자들의 신원과 세계에 대해 자각하는 바를 성찰하기
- 참가자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기
- 문화와 사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자각하기
- “자기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 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 ⑤ 시간

- 1부: 계획 짜기= 30분
- 2부: 연구= 편리한 시간에 따라서 일주일이나 하루
- 3부: 족보 나눔= 단체 크기에 따라서 30분-1시간
- 평가: 30분

### ⑥ 인원 3-20명

### ⑦ 준비

족보의 본

## ⑧ 지시사항

### 1부

- ① 참가한 사람들에게 족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참가자들이-아니면 그들 형제나 친척들이-그들의 족보를 다시 만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본다.
- ③ 부모나 가족과 함께 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 족보를 그려보라고 한다.
- ④ 조상에 대해 조사할 때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조상이 이민을 갔거나 마을을 떠났는가?
  - 조상이 이민 온 사람이나 피난민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외국 사람과 혼인을 했는가?
  - 조상이 동성연애자인가? 아니면 소수민족의 한 사람과 혼인했는가?
  - 조상이 다른 종교를 가졌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을 쓰는가?

### 2부

족보를 다시 구성하는 시간을(하루에서 일주일 사이에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다.

### 3부

참가자들이 알아낸 것들을 서로 나누도록 권유한다.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참가자들은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는지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밝히기를 원하는 것만 말하도록 한다. 그들이 거북하게 느끼는 것을 밝히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참가자들이 그들의 족보를 제시하지 않아도,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가족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 ⑨ 보고와 평가

그룹의 크기에 따라서 이 활동은 적은 수의 모둠으로 시작할 수 있다. 각 모둠은 모둠 안에서 알아낸 공통점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해야 한다.

- ① 왜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고, 또 여러분은 이 나라로 이민을 왔는가?
- ②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어떤 외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 ③ 당신은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전에 생각한 적이 있는가?
- ④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착할 때 어떤 대접을 받기 바라는가?
- ⑤ 여러분이 종교의례를 지킬 수 없고,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없으며 또 어떤 권리를 잃었다면 무엇을 느끼겠는가?

## ⑩ 진행자에게 하는 충고

참가자들이 하는 어떤 질문과 그들이 알아낸 사실은 매우 독특할 수가 있다. 어떤 부모들은 언짢거나 수치스러운 사실을(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복역하거나 동성연애자이거나 한 것) 자식에게 밝히기 싫어하는 일까지 생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참가자는 누구나 억지로 밝혀 거북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모둠 안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신뢰의 분위기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들이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자기 가정에 대해 밝힐 기분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진행자는 족보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충고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진행자는 이 족보나무에 지나나 이파리(가정의 구성원을 상징한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추겨도 좋을 것이다.

개인들이 역사를 통하여 항상 이동한 사실을 참가자들에게 자각시키기를 바라면 이 활동이 아주 알맞다.

가장 좋은 그 예는 유럽에서 식민지를 건설함에 따라 이동하여 살던 백성들이다. 유다사람들과 롬(\*집시나 서커스 단원)들은 흔히 그들이 머물던 나라를 떠나야만 했다. 전쟁은 언제나 백성을 이동시켰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국경을 바꿔놓았다.

강요된 이런 이동 말고도 계절에 따른 인구이동을 기억해야만 한다(외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계절수확노동 따위).

흔히 청소년들은(나이든 사람도 또한)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지난 역사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 조상이 다른 나라 출신이거나 다른 대륙으로 이민간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면 왜 다른 나라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오거나 와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걸까?

## ⑪ 후속 권유

여러분이 자기 가정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면 나라의 역사를 알아내기 위하여 흥미로운 “역사의 뜻” 활동으로 계속해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흔히 학교의 교사들은 다수 민족의 국가주의와 자기 민족중심주의 연구를 기초로 삼기 때문이다.

## 7. 인권교육 실무자들을 위한 나침반 - Compass<sup>25)</sup>

이 책의 중점 목표는 인권교육의 ‘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나 새로운 접근법이나 제안을 탐구하는 것보다 인권교육이 청소년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 보조자, 지도자, 교사, 자원봉사자 및 훈련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 유익한 것이 되게 하는데 있다. 여러 면에서 이 목표는 많은 활동가와 교육자가 제시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그러나 여전히 야심에 차서) 하는 대답이다.

1995년 인종차별주의와 불관용에 저항한 유럽 청소년 캠페인인 “모두 다르나 모두 평등하다(all different—all equal)”의 교육활동에서 얻은 경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종류의 유럽 교육 프로젝트의 성패는 다음 사항에 달려 있다.

- “모두 다르나 모두 평등하다” 같은 교육용 패키지처럼 적절하고 구하기 쉬운 교육 방법들과 도구들의 제공
- 사용자의 자국어로 된 그와 같은 자료들의 존재 여부
- 국가, 지역(regional and local) 차원에서 활동하고 이런 방법과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가와 multiplier의 존재 여부

나침반은 이러한 필요들에 대한 반응이다. 나침반은 유럽의회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로 출판하였으며 다른 언어와 상황에 따른 번역과 수정을 권장한다. 국가적, 지역적 교육과정은 훈련가들과 교육가들이 매뉴얼에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짜야 하며 매뉴얼이 지역 수준에서 학교, 단체와 청소년 그룹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침반은 행동을 수반하는 책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 1)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제작과정

나침반을 제작하는 일은 참으로 큰일이었다. 그 주제의 범위가 넓고 인권교육은 실제로 오늘날 생활의 거의 모든 양상에 관계되어 있다. 그 지역적, 문화적 범위도 상당히 다양하다. 비공식과 공식 교육 각 내부에 또 이 둘 사이에 이 매뉴얼의 잠재적 사용자들의 작업환경과 교육 배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초기부터 다음 이슈들이 문제가 되었다.

- 유럽 내 구체적인 상황들과 문화의 다양함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인권의 내재적 보편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가?

---

25)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ompass 프로그램집의 제작과정과 일부 자료를 소개한다. (Compass p17~24, p283~290 발췌번역)

-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 동일한 매뉴얼과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 인권과 인권교육에 유럽에 국한된 요소가 있는가?
-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 환경 모두에 적절한 한 매뉴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현실적인가?
- 사용자들의 사전지식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이 분야에서 혁신적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 매뉴얼의 대상 그룹들이 매뉴얼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것을 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모든 염려와 위험을 다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제작과정이었다. 사실 최종 산물은 아래 사항의 공헌과 이들에 관한 전문지식의 결과여야 한다.

- 인권교육
- 문화교류학습
- 청소년 사업
- 교수법(pedagogy and didactics)
- 인권 기구들

## 2) 자문그룹과 제작팀

자문그룹은 이메일과 인터넷에 의한 개방된 요청에 근거해 조직되었다. 그룹의 과제는 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그룹은 교육내용과 일반적인 교육적 접근법을 정하며 다른 자료와 경험에서 통찰과 안목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자문그룹에 포함된 분들은 다음과 같다.

- Elie Abouaoun 박사, 레바논, Nouveaux Droits de l'Homme-International
- Anatoliy Azarov(Mr.), 러시아, 모스크바 인권학교(Moscow School of Human Rights)
- Patricia Brander(Ms), 덴마크, 컨설턴트, “모두 다르나 모두 평등하다” 교육 패키지에 대한 경험이 있음.
- Ellie Keen(Ms), 영국, 인권교육협회와 국제사면위원회
- Corina Michaela Leca(Ms), 몰도바, SIEDO 교육과 인권을 위한 독립협회(The Independent Society for Education and Human Rights)
- Marie-Laure Lemineur(Ms), 스페인과 프랑스, 유엔평화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of Peace)(코스타리카)
- Brigitte Mooljee(Ms), 영국, 교육고용부 내 시민의식 팀(Citizenship team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 Louise Nylin(Ms), 스웨덴과 미국, 유엔개발계획 및 인권교육을 위한 사람들의 10년 컨설턴트(Consultant with the UNDP and with the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Barbara Oliveira(Ms), 스웨덴과 모잠비크, 컨설턴트, 남아프리카 국제사면위원회 전 청소년 담당(former youth coordinator with Amnesty International in South Africa)
- Eunice Smith(Ms), 유네스코 사회와 인간 과학부(Social and Sciences sector) 인권, 평화, 민주주의와 관용국(Division of Human Rights, Peace, Democracy and Tolerance)
- Alessio Surian(Mr.), 이탈리아, 문화교류학습 유럽 연합(European Federation for Intercultural Learning)
- Olena Suslova(Ms), 우크라이나(Ukraine), 여성정보자문센터(Women's Information Consultative Centre)
- Wim Taelman(Mr.), 벨기에, 인권교육 플랑드르 연합(Flemish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 Andrew Yurov(Mr.), 러시아, 유럽청소년센터와 유럽청소년재단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f the European Youth Centre and European Youth Foundation) 청소년 인권 운동
- Nancy Flowers(Ms), 미국, 컨설턴트, 미네소타 대학 인권교육자원센터(consultant, 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 Jana Ondrackova(Ms), 체코 공화국, 체코 헬싱키 위원회의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자 및 코디네이터(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 developer and co-ordinator at the Czech Helsinki Committee)
- Vedrana Spajic-Vrkas(Ms),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학 철학과 교수 (Faculty of Philosophy of Croatia University of Zagreb)

자문그룹은 2001년 4월 부다페스트 유럽청소년센터(European Youth Centre Budapest)에서 매우 강도 높고 효과 있는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주요 주제들을 포함한 나침반의 개략적인 내용과 구조가 결정되었다. 제작절차와 활동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나침반을 작성한 여덟 명의 제작팀 구성원 역시 자문그룹에 속한다.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은 제작 기간 동안 저자들의 자문과 감독인 역할을 했는데 자원봉사로 하였다.

제작팀은 아이디어들과 경험들이 최대로 “융합되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제작 기간과 명확한 과제와 책임분담을 잘 고려하여 업무를 나누었다. 각 섹션들과 활동들은 저자들뿐 아니라 교정원들도 두어 팀의 다른 저자들에게 글이 넘어가기 전에 적

어도 두 세 사람이 읽고 또 평가하도록 했다. 제작팀은 2001년 5월, 6월 그리고 9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 3) 시험과 최종 마무리

최종 초고는 인터넷에 올렸으며 인권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사용자들과 청소년 스포츠 이사회의 훈련가 풀 (Trainer's Pool of the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s)의 구성원들은 여기에 들어와 평가나 개선점을 남길 수 있었다. 비록 초고를 올린 기간은 짧았지만 이 절차는 참신하고 참여적이었다.

청소년기구들, 국립청소년의회들,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 이사회의 다른 협력기관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수집이 가능한 인권교육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받았다. 응답 수준은 매우 다양했으며 어떤 리스트들은 매우 길었다. 따라서 나침반의 인터넷용과 인권교육 자원센터용 참고 정보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매뉴얼 주제들에 관한 청소년 기구들의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구하고 관여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들의 평가와 제안은 항상 유용했다.

매뉴얼의 제목 결정은 매우 높은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인권교육협회 리스트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list)를 통한 발표 결과로 이루어졌다(리스트 구성원들은 선호하는 제목을 밝힐 수 있었다). 스타일의 일관성과 접근법과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저자들의 작업은 세 명의 최종 편집자들에게 넘겼다. Ellie Keen이 1장, 3장, 4장을 맡았고 Marie-Laure Lemineur가 주제들에 대한 배경 정보를 맡았으며 Patricia Brander가 활동들과 관련 내용들을 담당했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이며 부다페스트 유럽 청소년 센터(European Youth Centre Budapest)의 프로그램 및 교육행정부 (Programme and Training Administrator)인 Rui Gomes가 최종 편집을 담당했다.

### 4) 나침반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자문그룹은 제작팀에게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만들되 가능한 한 그 내용의 완성도가 높고 포괄적인 매뉴얼을 만들도록 요구하였다.

-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사용하기 위해 매뉴얼 전체를 읽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진행 보조자는 자신들의 상황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읽지 않아도 활동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진행 보조자가 어떤 특정 주제를 다룰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충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명백히 실용적이어야 하며 경험중심의 활동 위주여야 한다.
-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럽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하고 그들의 사회적 기술과 태도뿐 아니라 지식과 능력 또한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 약정들이 제시한 공식 권리(뿐)보다는 가치관과 사회의 쟁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공식, 비공식 교육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배경정보는 배경에” 두고 시작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보조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5) 나침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1장: 독자들이 우리가 의미하는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은 나침반과 그 교육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최선을 얻어 낼 수 있는 지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영감을 주고 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2장: 다양한 주제들과 다양한 종류의 권리들을 다루는 서로 상이한 난이도의 49가지 활동 모음집

3장: “행동 개시”는 인권을 더욱 적극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와 충고를 담고 있다.

4장: 인권, 국제 기준과 문서들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5장: 주제들에 대한 보충 배경정보.

부록들: 인권은 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므로 법률문건에 관한 기초 정보를 담고 있다.

## 6) 주제 선정

자문그룹은 나침반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로 원래 63가지를 정했다. 이 주제들은 테러리즘에서 시작해서 광신에까지 이른다. 제작팀이 이 모든 쟁점을 하나의 논리 틀에 담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결국 제작팀은 15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아동, 시민의식, 민주주의, 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교육, 환경, 성 평등, 세계화, 보건, 인간 안보, 대중매체, 평화와 폭력, 가난, 사회 권리, 그리고 운동.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제작팀은 이 방법이 2장에서 활동들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질문이나 의심이 떠올랐을 때마다 우리는 이들을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려 했다. 활동에 관한 한 열 여섯 번째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 주제는 보편 인권으로 모든 인권에 대한 중요한 태도와 시각을 개발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 보편 주제에 대해서는 배경정보가 없다.

## 7) 민족 우월주의(ethnocentrism)라는 장벽

나침반의 제작기간 동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민족 우월주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작 팀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매뉴얼에 대부분의 언어, 교육, 사회 배경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었다. 나침반은 참으로 유럽적이면서 다문화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현실적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때때로 서로 다른 언어로 자료들을 읽었으나 실상은 같은 자료를 읽으며 참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다. 나침반의 원본이 영어로 제작되어 모든 저자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기록된 참고 서적과 영어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통해 조사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이로 인한 좋지 못한 결과를 어느 정도 제한했기를 바라지만 이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았다. 세계화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물론 50명으로 구성된 팀이 50개 국어로 나침반을 제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만화가인 Pancho씨는 유럽의 대중에 대한 그리고 유럽 대중을 위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유럽인을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 모든 딜레마를 종합 묘사했다.

## 8) 방법에 대해

일찍이 밝혔던 바와 같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 쟁점들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자료들은 제작팀에게 자연스럽게 영감을 주었다. 가능한 한 이런 자료들에 대한 공적과 참조는 달아놨지만 빠진 것이 있을 지도 몰라 미리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작물에 익숙한 사람들은 나침반에 있는 몇 가지 방법이 기존에 사용된 방법이거나 이를 수정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재활용된 방법들이 나침반에 실리게 된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실용적이고도 사용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손실일 것이다.

적응(adaptation)은 이 매뉴얼 전체의 중심 단어이기도 하다. 나침반에 제시된 활동들이 어떤 사람들에게겐 기성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침반을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는 찬찬히 살펴보아 어딘가로 가기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활동들을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 환경에 적절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관련 책

선에 제안을 내놓았다.

나침반은 유럽 청소년들의 다른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사용 가능하며 또 사용해야만 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의 이 다양함은 나침반의 강점이며 인권이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독단의 주장이나 교리가 되지 않도록 해 준다.

## 9) 지역(local) 수준에 전파

나침반을 제작하는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 사업가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지역(regional)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나침반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란다.

<http://www.coe.int/hre>.

## 10) 무엇이 나와 있으며 무엇이 나올 것인가?

공간이 부족하여 제작팀이 작성한 많은 활동 가운데 20여 개 이상이 제외되어야 했다. 같은 이유로 배경 정보에 관한 페이지들 전부를 과감히 삭제하거나 줄여야 했다. 제외된 많은 글들이 나침반의 대화식 버전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일 것이다. 2003년에 제작될 이 판은 내용과 활동들의 상호 작용을 높여 줄 것이며 가능한 한도 안에서 사용자들의 제안과 글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인권 쟁점들에 대한 일련의 사진들을 모아 놓은 사진 패키지, 인권을 위한 영화 작품 해설과 노래들이다. 진실로 나침반은 방향, 출발점, 자문과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에는 여전히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실로 인권교육은 나침반만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 11) 인권에 대한 이해

###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갑옷과 같은 것이어서 당신을 보호한다. 인권은 규칙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인권은 재판관과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권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추상적이다, 감정처럼. 그리고 감정처럼 인권은 모두에게 속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권은 존재한다.

인권은 자연과 같아서 침해될 수 있다. 영혼과 같다. 왜냐하면 사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과 같아서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늙거나 젊거나, 피부가 희거나 검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인권은 우리에게 존엄을 부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도록 요구한다. 선함과 진리와 정의처럼 그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권도 그런 것이다.

인권을 정의할 수 있는가? 인권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2) 인권은 어디에서 왔는가?

권리란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주장이다. 나는 내가 값을 지불한 쇼핑백에 담긴 물건들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시민들은 그 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신을 동물원에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다면 동물원에 갈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이 준 약속이나 보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이와 약간 다른 주장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상대방의 약속이나 보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존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달려 있지 않다. 그들의 삶 자체는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생존권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들의 생존권은 오로지 한 가지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에게서는 이런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처럼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받은 것이다.

왜 이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 것도 필요 없어야 하는가? 이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가?

이 주장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주장이며 도덕적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의 생존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무도 내게서 내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주장은 뒷받침이 거의 필요 없다. 모든 독자는 아마도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경우에서 우리 삶의 어떤 양상에는 결코 침해되지 말아야 할 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이것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에 핵심적이며, 우리의 인간성과 인간으로서 존엄함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인권은 단지 이런 개인 수준에서 이해한 바를 지구의 모든 인간에게 확대한 것일 뿐이다. 내가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왜 잘못인가?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인가?

### (3) 핵심 가치들

인권이란 개념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이며 두 번째는 평등이다. 인권이란 존엄한 삶에 필요한 기본 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은 적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에서 유추된다. 우리는 이 둘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차별할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신념, 혹은 가치는 실제로 인권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며 이 신념들은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것이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문명화된 정부들, 그리고 모든 주요 종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이다. 국가의 힘은 무제한적이거나 독단적일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의 힘은 그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에 대한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범주 안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다른 많은 가치가 이 두 가지 근본 가치에서 파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과 사회들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더 정확히 정의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 ① 자유: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인간 정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 ② 타인 존중: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개성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③ 무차별: 인간 존엄에서 평등이라 함은 우리가 사람들을 아무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체 (혹은 기타) 특징들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④ 관용: 불관용은 차이 존중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은 일체성이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정의: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평등한 사람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⑥ 책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인권의 특징

철학자들은 인권의 성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는 국가들이 동의했으며 또 준수해야 할 일련의 주요 원칙들을 세웠다. 이 원칙들에 따르면

1.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권이 인간의 존재라는 바로 그 사실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인권을 잃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 인권의 일부는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는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는 사회 불안(civil unrest)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행금지를 내릴 수 있다.

2. 인권은 불가분하고 상호의존하며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다른 인권들이 서로 내재적으로 연계되었으며 분리해서 따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만 하고 어떤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모든 권리는 똑같이 다 중요하다.

3. 인권은 보편적이다. 이는 인권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구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모든 개인은 인종,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치나 기타 의견, 국가적 혹은 사회적 출신, 출생 혹은 다른 지위에 상관없이 인권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인과 또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을 위협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양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존중을 받아야 하는 세계에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 (5) 역사적 개요

사람들이 선천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많은 문화와 고대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관습법(codes of practice)과 같은 수많은 실례들에서 인권에 나타난 개념은 '서양의 발명'도 20세기의 발명도 아님을 알 수 있다.

##### ① 고대 역사?

바빌로니아(이라크, BC 2000)의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 왕이 제정한 최초의 성문법전이었다. 이 법전은 “정의가 왕국을 다스리게 하고 악하고 난폭한 자들을 파멸시키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고, 나라를 밝게 하며 사람들의 선을 도모할 것이라 고” 단언한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BC 2000)는 신하들에게 “탄원하는 자가 북이집트(Upper Egypt)나 남이집트(Lower Egypt)에서 도착하거나 모든 일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관습을 지키도록 하고 각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yrus 헌장(Charter of Cyrus)(이란, BC 570)은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왕국 백성을 위해 기록하였으며 자유, 안보,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몇몇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인정했다.

*당신 나라의 역사에서는 누가 인권 가치들을 높이거나 이를 위해 싸웠는가?*

##### ② 영국의 대헌장과 권리 장전 (The English Magna Carta and Bill of Rights)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국왕 존1세의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자유의 대헌장(대헌장)을 작성하여 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비록 왕은 이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대헌장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문서가 되었다. 대헌장은 모든 시민이 재산

을 소유하고 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나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일련의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대헌장은 법 앞에서 평등과 적법한 절차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국왕 제임스 2세가 법을 남용하자 그의 신하들은 1688년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켰다. 1689년 국회는 더 이상 왕실이 국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군주가 국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는 것을 금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유선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정을 비롯한 어떤 곳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 ③ 자연권의 탄생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는 많은 철학자가 “자연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 권리는 한 사람이 한 특정 국가의 시민이거나 특정 종교 또는 인종의 구성원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이다. 이 자연권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어 몇몇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 ④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1789년 프랑스는 군주를 무너뜨리고 첫 프랑스 공화국을 설립했다. 이 선언은 혁명에서 나왔고 성직자, 귀족, 서민들의 대표들이 작성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쓸 때 볼테르, 몽테스키외, 프랑스 백과사전 저자들(The Encyclopedist: 1751-1772년 나타난 프랑스 백과사전 저자들),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이 선언은 군주제의 정치적, 법적 체제를 공격했으며 인간의 자연권을 “자유, 재산, 보호와 억압에 저항할 권리”로 정의했다. 이 선언은 군주제 밑에 존속했던 귀족들의 특권 체제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으로 대체했다.

### ⑤ 미국 독립선언, 헌법 그리고 권리장전(1791)

1776년 북미에 있던 대부분의 영국 식민지는 미국 독립선언을 통해 대영제국에서 독립을 천명했다. 이 선언은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자연권”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 혁명과 남미에서 스페인 지배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나중에 미국의 헌법은 수정되었으며 정부는 중앙집권화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만큼 그 권한은 제한되었다. 20개 헌법 수정조항은 미국 권리장전을 구성한다.

### ⑥ 초기 국제협약들

19, 20세기에는 노예제, 농노제, 잔인한 노동환경과 아동노동 같은 이슈들로 시작해 수많은 인권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국제 수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권에 관한 첫 번째 국제 조약이 채택된 것은 이 즈음이었다.

- 19세기가 넘어갈 무렵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노예제가 불법이 되었으며, 1814년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노예상을 저지하는 일에 협동할 목적으로 파리조약을 체결하였다. 1890년 브

뤼셀회의에서는 반 노예제 법안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나중에 18개 국가가 수정하였다.

- 첫 번째 제네바 협약(1864년과 1929년)은 국가들이 전쟁의 규칙을 만드는 일에 함께 협력한 또 다른 초기 협력 분야를 나타낸다. 특별히 이 협약은 아프거나 상처를 입은 군인을 돌보는 기준을 설정했다.

개별 국가들이 단순히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는 대신 왜 국제 조약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는가?

#### ⑦ 20세기

집권(지배)세력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널리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몇몇 국가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런 면에서 위에 언급된 문서들은 오늘날 많은 인권조약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인권을 국제무대에 앞당겨 온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후 만든 정부 간 기구로서 기본 인권 기준을 보호하려 했으나 국제법이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잔인한 참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결과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또 성문화하려는 국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게 또 가능하게 했다.

1945년 6월 26일에 채택된 유엔헌장은 이러한 신념을 반영했다. 이 헌장은 유엔의 근본 목적이 “전쟁의 폐해에서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유엔의 조직 가운데 하나인 인권위원회가 작성했으며 1948년 12월 10일 총회가 채택하였다. 이후 이 원칙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주요 도구들을 작성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었다. 인권과 기본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포함하여 이런 국제조약들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 장 후반부를 참조하라.

#### ⑧ 세계 도처에서의 인권

세계의 몇몇 지역들은 유엔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설립하였다. 오늘날 유럽, 북 남미,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에는 지역기구들이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없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한 유엔조약과 협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일반 원칙들에 대해 그들의 동의를 나타내었고 자신들을 국제인권법에 종속시킨다는 사실을 표명했다.

인간과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은 1985년 효력을 발했으며 40개국 이상이 승인하였다. 이 헌장은 세계 다른 곳에서 채택된 조약들과 그 강조에 있어서 수많은 차이점으로 인해 흥미롭다.

- 유럽 혹은 미국 협약들과 달리 아프리카 헌장은 시민권과 정치권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함께 다루고 있다.
- 아프리카 헌장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민족들의 집단 권리 역시 제시하고 있다.
- 이 헌장은 또한 개인들이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이 그의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해 가지는 구체적인 의무들을 열거하고 있다.

*인권 헌장에 왜 의무들을 열거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의무들이 다른 모든 인권 문서들에 열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랍 세계에서 현재 다소 제한된 힘을 가진 인권에 대한 지역위원회가 현재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역 시스템을 설립할 아랍인권헌장을 승인하였다. 아프리카 헌장과 같이 이 문서는 시민-정치권 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랍민족의 집단 권리도 열거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그와 같은 시스템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공식 조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 1993년 이 지역의 비정부기구들의 모임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힌 인권에 대한 방콕 비정부기구선언이 초래되었다:

“우리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여러 문화에서 배울 수 있다. 보편적인 인권은 많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 문화 다원주의를 인정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인권을 훼손하는 문화 관습들에 대해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인권이 지구적 관심사이면서 그 가치가 범지구적이므로 인권의 옹호는 국가의 주권 침해라고 여길 수 없다.

#### (6)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인권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나 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권의 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권의 침해가 세계 각 처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권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 매뉴얼의 많은 부분이 이 문제의 다양한 양상을 다루고 있다.

#### ① 자기 권리 인식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국제법이 보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인간 존재의 어떤 분야가 인권법에 관련되는지 그리고 이 법 아래 정부들이 가지는 의무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섹션은 거의 모든 분야의 부정이 인권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가난부터 환경 훼손,

보건, 작업 환경, 정치적 압력, 투표권, 유전공학, 소수인종 이슈, 테러리즘, 집단학살, 그리고 그 이상까지.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증가하고 있다.

인권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몇몇 이슈들은 “질의와 응답”이라는 섹션에서 직접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권에 대해 종종 제기하는 질문 몇 가지에 간략한 대답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5장에 있는 모든 섹션은 매뉴얼의 주제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이슈, 예를 들면, 보건, 교육, 공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이슈에 관계된 배경 정보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법적 장치를 사용

우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장치들을 살펴볼 것이다. 유럽이 특히 다행인 것은 적어도 몇 가지 권리에 관한 한 유럽이 권리 침해에 대한 불평을 다루는 영구적 법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인권법정. 불평이 유럽 법정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국가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국가로 하여금 인권법 아래 지워진 그들의 의무를 수행토록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국가들이 항상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법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 ③ 로비활동, 캠페인 그리고 실천주의

캠페인 활동이나 인권 실천주의에 관여해 본 적이 있는가?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 하나는 협회, 비정부기구, 자선기구와 기타 시민단체가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실천주의와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관한 섹션의 주제이다. 이러한 협회들의 역할은 이와 같은 협회들이 종종 개별 사례들을 다루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인권의 보호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도 특히 길거리의 남자-그리고 여자-들에게 관계있다. 결국 이러한 협회들은 보통 사람들이 구성한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와 성공한 활동의 몇몇 사례들을 보게 될 것이다.

#### ④ 참여

3장, 행동개시는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일상생활 수준으로 낮춰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의 사례들을 제공한다. 청소년 그룹들은 국가나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하고 인권침해의 사례들이 대중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섹션에 있는 본보기들은 당신의 그룹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공해야만 하며 비정부기구들이 일상 수준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한 더 큰 통찰을 줄 것이다.

#### (7) 인권의 딜레마와 오용

한 그룹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그룹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 우리는 무

엇을 해야만 하는가? 때때로 인권은 그 자체가 도의적 문제성을 갖고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 변명으로 사용된다. 사람들, 심지어는 정부들이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상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그와 같은 실례들을 판단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다음 예들을 생각해 보라.

### ① 권리간의 갈등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공격의 발생으로 많은 정부는 다소의 기본 자유를 제한하여 테러리즘의 협박과 싸우고 있다. 영국에는 사람들을 임의적인 구류나 투옥에서 보호하는 장인 유럽인권협약의 5장에서 탈퇴하는 새로운 법이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어떤 고소나 재판 없이 단순한 혐의에 기초해 사람들을 구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국가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한계가 있어야만 하는가?*

미국연방대법원은 유대인 지역에 있는 나찌 그룹들의 데모는 표현의 자유의 법적 형태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이와 같은 그룹들이 민족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지 모를 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인가?

### ② 문화 전통

소녀가 보통 매우 어린 나이에 자신의 가족이 선택한 남자와 의무로 결혼해야 하는 예정된 결혼은 많은 문화에서 흔한 관례이다.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관습이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 것인가?

다른 사례들은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성 할례에서 혹은 소녀와 여자의 “명예 살인”에서 찾을 수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관습 때문에 고통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할 것이다. 여성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되어야만 할 문화간 차이인가?

*문화적 가치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뒤엎을 수 있는가?*

### ③ 좋은 동기라는 이름 아래

국제사회는 인권을 제도적으로 침해한다고 여기는 정부들(regimes)을 벌주기 위해 때때로 제재를 사용한다. 제재를 통해 인권을 침해한 국가와 무역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 몇몇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왔다. 남아프리카는 그 인종차별 제도 때문에 수년간 고립되었으며 오늘날 쿠바와 이라크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무역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재의 효과를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은 사회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이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다른 정부가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

비록 유엔이 공식으로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코소보에서 일어난 나토 주도의 폭격은 알바니아족을 보호하고 대학살 수행자에게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정당화되었다. 군사행동은 수백만의 피난민을 낳았으며 500명의 직접적인 민간인 사상자와 세르비아 기간 시설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또한 밀로세비치 대통령의 체포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그의 재판을 이끌어 냈다. 2001년 9월 11일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낸다면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인권방어가 군사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

2001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인권보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절했다. 2001/24 결의안은 체체냐 갈등에 연관된 테러리스트 공격과 체첸 군대가 자행한 인도주의법의 위반, 그리고 체체냐에 있는 러시아연방군이 자주 사용한 특정한 방법들을 비난했다. 이는 러시아의 학대에 대한 국가 청문회를 요청했다.

#### (8) 더 많은 수수께끼들

이전 섹션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모두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오늘날조차 여전히 맹렬한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그와 같은 논쟁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이들은 인권이란 개념에 근본적인 다원주의적 접근법과 인권은 과학이 아니고 고정된 '이데올로기'도 아니며 발전하고 있는 도덕 및 법적 사고 영역이란 사실을 잘 나타낸다. 우리는 흑과 백이 분명한 대답을 항상 기대할 수는 없다. 부분으로는 이슈들이 복잡하기 때문이지만 사실 이 주제에 대해 최종 의견을 내고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답도 없고 서로 동의하는 영역도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와 같은 영역은 많이 있으며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다. 노예제란 이슈는 한 때는 토론되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을 참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예제에서 해방될 권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본 인권이 되었다. 비록 일부 문화에서는 여전히 변호되고 있지만 여성 할례는 인권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사형제도가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유럽의회의 회원국을 움직이게 하는 유럽에서는 적어도.

따라서 우리는 이 많은 질문이 다 각각의 그 해결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논의를 도울 수 있고 두 가지 근본 가치인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다시 살피보면서 더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어떤 개인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갖지 않고 대한다면 이런 행동은 인권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 **VII. 심화자료**

- 1.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삽화**
- 2. 세계인권선언**
- 3.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 4. 주요 국제인권법**
- 5. 인권활동 자료**



1.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삽화<sup>26)</sup>



제 1 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26) 본 삽화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옮긴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을 근거로 만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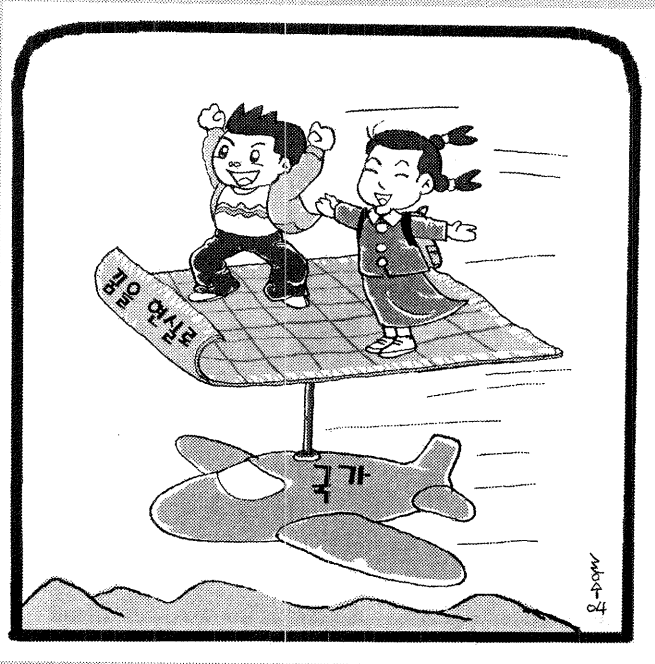
## 제 2 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 3 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 제 4 조

국가는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현실화시킬 의무를 갖는다.



## 제 5 조

국가는 아동의 능력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해야 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 6 조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제 7 조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가능한 한 낱  
 낱아준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8 조

우리는 국가에 의해 신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 9 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 10 조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거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를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 11 조

불법적으로 유괴를 당하거나 외국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국가는 우리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 제 12 조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제 13 조

우리는 말, 글, 예술 등을 통해 우리 생각을 표현하고 국경에 구애받지않고 생각과 정보를 얻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 제 14 조

우리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 제 15 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 제 16 조

우리는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을 불법적으로 함부로  
간섭받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부터도 보호받아  
야 한다.



### 제 17 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고 해로운 정보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제 18 조

부모님 두 분 모두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을 것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양육보호시설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 19 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 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 제 20 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1 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 22 조

우리가 난민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3 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받고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생활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4 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플 때는 가능한 모든 보살핌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제 25 조

보호나 치료를 위해 나라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국가는 정기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정을 심사해야 한다.



제 26 조

우리는 사회보장을 통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7 조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할 정도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 제 28 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이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 29 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제 30 조

우리가 소수집단이나 선주민인 경우, 우리들의 문화를 즐기고, 우리들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 31 조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가나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 제 32 조

경제적 착취와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이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해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 33 조

우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 35 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 36 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 제 36 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 37 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고문을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어른들과 함께 갇혀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 감옥에 있더라도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8 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제 39 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고문, 학대 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를 회복하고 사회 생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40 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경찰과 변호사와 판사는 우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우리 나이를 고려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처벌의 목적은 우리가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한다.

## 2.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up>27)</sup>

■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피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27)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권리협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옮긴 것을 재인용하였음. ‘인권교육길잡이’(사람생각, 1999).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31조. 우리에게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

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 3.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sup>28)</sup>

■ 제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 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28) ‘세계 인권 선언’ 원문과 국제 엠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말로 고쳐 쓴 것이다. ‘인권 교육 길잡이’(사람생각, 1999)에 실린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 제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제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 제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 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 제 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 제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 제 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 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 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 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 제 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 제 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 제 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제 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 제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 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 제 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제 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 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제 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제 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제 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제 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 4. 주요 국제인권법<sup>29)</sup>

#####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유엔총회에 의해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이념과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을 대전제로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 국제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질서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전인류와 모든 나라에 부과하고 있다. 선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명료한 기준과 포괄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선언의 제정은 인권이 국가주권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책임의 문제임을 설파한 일대 변혁이었다. 선언이 선포된 후 국제관습법과 국제조약 등 국제인권법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각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자기통제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미치고 있다.

#####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조약)

1966년 채택되어 10년이 지난 후 발효된 자유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의 목록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장하고 있다.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는 생명권,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조약은 이들 권리의 ‘즉각적’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약은 당사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당사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권고를 행사하기 위해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이어 개인이나 집단이 인권침해를 유엔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한 제1차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2차 선택의정서도 채택되어 가장 강력한 이행체계를 갖춘 조약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90년 이 조약에 가입했고, 1차 선택의정서도 동시에 비준했다. 이에 따라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인권이사회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 직접 심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박태훈, 김근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본 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국가

29) 인권운동사랑방의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자료(2000. 1. 29)에서 발췌한 것임.

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조약)

1966년 채택되어 76년 발효된 사회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의 목록을 좀 더 구체화시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는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누릴 권리, 건강권, 교육권,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조약은 이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각국 정부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를 행할 심사기구의 설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회권조약은 자유권조약에 비해 매우 경시된 조약이었다. 사회권조약의 경시풍조에 대한 국제적 반성과 압력의 결과 85년 경제사회이사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재 이 위원회에서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 자유권조약과 함께 이 조약에 동시가입했다.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차세계에 걸친 세계대전, 러시아혁명, 파시스트독재 등을 겪으면서 2차대전 이후 세계는 전례 없는 난민문제에 직면했다. 유엔은 49년 난민고등판무관을 설치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난민과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약으로서 본 조약을 51년 채택했다. 조약은 54년 발효됐다. 조약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의 염려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원하지 않는 자, 귀환을 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 이른바 정치적 난민만이 조약의 보호대상이 된다. 조약은 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로부터, 노동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권 등 사회경제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조약이 기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은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난민을 강제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소환금지원칙'이다. 하지만 난민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타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국권을 조약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약의 가장 큰 한계는 오늘날 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 난민을 조약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5) 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81년 발효된 이 조약은 기존의 여성관련 조약들과 큰 이념적 차별성을 보인다. 초기 여성관련 조약들이 여성의 야간노동이나 중노동 종사를 금지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 조약은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자유를 인식하고 이를 향유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조약은 여성의 참정권, 국적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 보건, 경제, 결혼과 가정생활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6)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90년 발효된 아동권리조약은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국을 보유한 조약이다. 18세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은 아이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무력충돌시 징집되지 않을 권리, 성적·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조약에 따라 설치된 ‘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다. 우리나라는 90년 이 조약에 가입했고, 91년부터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7) 고문방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87년 발효된 이 조약은 고문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한 처우나 처벌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고문은 오랜 인류역사를 통해 합법적 증거수집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근대사회에 이르러 그 합법성이 부인되기 시작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제네바협약, 자유권조약 등을 통해 고문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었고, 국제앰네스티 등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지원하에 고문금지를 위한 조약이 마침내 제정된 것이다.

조약이 말하는 고문은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가 정보나 자백, 처벌, 협박, 차별에 따른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약은 고문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모자, 가담자, 혹은 묵인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어떠한 형태의 고문이라고 할지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고문이 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조약에 따라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가 각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우리나라는 95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고문을 받은 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약 제22조를 유보함으로써, 조약의 의미와 효과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흔히 제노사이드조약이라 불리는 이 조약은 2차세계대전을 통해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살해와 박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조약이다. 48년 유엔 총회에서 참가국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51년 발효되었다.

조약은 집단학살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원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도 범죄행위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범인이 거주하는 나라에 범인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집단학살범에 대한 효과적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냉전 종식 이후 유고나 르완다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집단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로마협약의 채택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집단학살이나 침략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곧 설립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50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의 철폐는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65년 본 조약이 채택, 69년 발효됐다. 조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으로 인해 특정인을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의 당사국은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약에 따라 설치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국가 간 분쟁을 심의하며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피해통고를 심의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78년 이 조약에 가입, 79년부터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자국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불법입국 노동자나 불법체류노동자는 이를 악용한 고용주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엔총회는 90년 이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은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즉 그들이 불법으로 입국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송출국을 중심으로 단 9개 국가만이 이 조약을 비준했을 뿐, 정작 이 조약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조약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 5. 인권활동 자료<sup>30)</sup>

### 1) 인권 관련 영상 자료

#### ▶ 우리가 다시 그려요! (We Dream the Future!)

제작 · 라바 필름 / 2002년 / 테이프 2개 1질(해설 소책자 포함) / 총 108분

<우리가 다시 그려요>는 세계적인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캐나다의 NFBC(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와 네덜란드의 RNTV의 작품 열두 편을 수록한 애니메이션 모음입니다.

폴 드리센, 포야르, 자넷 필만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30)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pp142-151 참조인용.

사이의 차별과 갈등, 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 인간의 정신과 철학의 문제 등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한 미학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 2 (Rights from the Heart I, II)**

제작 · NFBC / 1999년 / 테이프 2개 1질(해설 소책자 포함) / 총 80분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는 유엔 아동 보호기구인 유니세프가 어린이의 권리 선포를 기념하여 NFBC와 함께 작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어린이들의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에 대해 이 영화들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3 (Rights from the Heart III)**

제작 · NFBC / 2002년 / 총 51분

행복하고 자유롭게! M세대를 향한 애니메이션 일곱 편.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3>은 유엔아동기금의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주제로 NFBC의 애니메이션 거장들이 함께 작업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집으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십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따뜻한 대안을 창조적인 애니메이션 기법 속에 구체화시킨 화제작입니다.

▶ **프린스 앤 프린세스 (Princes & Princesses)**

제작 · 장 프랑소와 라기오니, 디디에 브뤼네 / 감독 · 미셸 오슬로 / 2000년 / 총 70분

어렸을 적 밤에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켜 놓은 채 그림자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벽에 비친 손 그림자를 이용해 여우도 만들고, 솔개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할머니는 그걸 이용해 참으로 맛나게 옛이야기를 들려 주셨지요. 그런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린스 앤 프린세스> 이 영화에는 작은 이야기 일곱 편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마녀의 성을 여는 청년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어떤 마을에 마녀가 사는 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성과 마녀를 두려워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왕은 그 성을 부수고 마녀를 잡아 오는 용감한 자에게 공주와 결혼할 영광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 왕자와 장군들이 마녀의 성을 부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엄청난 군대와 신무기가 동원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 그런데 마을의 한 청년이 성문을 열겠다고 나섭니다. “네까짓 게?” 모두가 비웃지만, 청년은 성문을 여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그냥 정중하게 성문을 노크했던 것입니다. 청년이 성에

들어가 보니 마녀는 과학에 능통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정말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냥 정중하게 노크만 하면 해결될 일에 군대와 신무기를 동원한 일은 없을까요? 그냥 우리와 다른 존재에 대해 ‘마녀’ 취급을 하며 내몰지는 않았나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줍니다.

‘무조건 힘을 내세우기보다 대화하라.’,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할머니의 옛날 얘기처럼 맛나게 들려줍니다.

아, 청년은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나요? 지금까지의 동화와는 달리 청년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절하고 마녀의 성에 남습니다. 그 멋쟁이 마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주보다 개성 있는 마녀와 사랑에 빠진 청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 ▶ 데드 맨 워킹 (Dead Man Walking)

감독 · 팀 로빈스 / 배우 · 손 펜, 수잔 서랜든 / 1995년 / 122분

“전 살인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든 여러분이든 정부이든 누구든지 간에 말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죽을 놈은 죽어야 돼!’ 라는 식으로 사형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이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학생들에게 매를 대는 ‘나’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그동안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도, 신상필벌, 인과응보 등의 이유로 아무 비판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어쩌면 많은 학생들이 사형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폭력적인 해결 방법에 익숙한 사회 분위기 탓일 것입니다.

영화 <데드 맨 워킹>은 사형제도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다소 어렵고 지루하기도 해서 학생들과 함께 보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몇 번을 보았지만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사형수를 동정적으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모진 사람으로 그려내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까?

팀 로빈스 감독은 사형수에 대한 동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형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이래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래도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해? 저런 인간도 살 가치가 있어?’

집요하게 사형 제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 집요한 공격을 이겨 내야 합니다. 감독의 의도에 걸려 넘어져 ‘저런 놈은 죽어야 돼!’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아직 사형 제도를 폐지할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죄가 없음’에 대한 대가로, ‘착함’에 대한 대가로, ‘경제·사회적 지위’와 ‘힘’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형 제도의 폐지를 비롯한 폭력에 의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 ▶ 작은 전쟁 (The War)

감독·존 애브넛 / 배우·렉시 랜달, 엘리야 우드, 케빈 코스트너 / 1994년 / 125분  
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글썄..... 어린 시절이 순수하기만 할까요? 누구나 학교를 다니며 삼총사, 오총사를 만들어 끼리끼리 놀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편을 나누고 세력 다툼을 하기도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상대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하게 살아라.’,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추구하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바보가 되자,’ 와 같은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아이들 마음에 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선생님 말씀이 틀렸어요.’ 라고 따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두려워집니다.

이 영화는 한 소년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가치와 다른 차갑고 딱딱한 외부 세계와 대결을 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버지는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나 그 속에서 얻은 것은 전쟁이 불러오는 인간성 상실과 동료들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 후유증을 앓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취업을 할 수도 없었고, 가정 형편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이웃의 친구들과 늘 싸움에 휘말리자, 싸움은 나쁜 것이며 덧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잃게 되고, 아들은 ‘사람은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일을 위해 태어났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는 전쟁, 평화, 인종 갈등, 정의와 불의, 용기, 신념, 박애, 장애인 차별, 전후 후유증 등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 고르게 녹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아니 내 아이가 ‘세상은 아버지가 가르친 것과 다르다.’ 고 울먹일 때, 영화에 나오는 다음의 대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란단다. 진정한 용기도 한 나라의 힘도 신께서 주시는 기적도 모두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이 없다면 그 무엇도 싸울 가치가 없단다.”

▶ 레인메이커 (rainmaker)

감독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 배우 · 매트 데이먼, 미키 루크, 클레어 데인즈 / 1997년 / 135분

인문계 문과반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진로 희망을 받아 보았습니다. 전체 36명 가운데 법대를 진학하거나 법률가가 되길 원하는 학생들이 25명이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법을 존중하고 지키며 집행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다니…….’ 하는 놀라움과 함께,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레인메이커>를 직역하면 ‘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를 만드는 사람’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공은 법대를 갓 졸업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풋내기 변호사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으나 보험료를 타지 못하는 가정의 변호 의뢰를 맡아 거대 보험회사와 싸워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통쾌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주인공의 치열함보다, 보험회사의 부정에 대한 분노보다, 의뢰인 가족이 보여준 의연한 자세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법을 통해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사회 정의 실현의 근본임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학생들과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죽어 가고 있을 때, ‘합의금’을 받을 것인가, 계속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남편을 죽이게 될 때, 살인은 정당인가 등입니다. 또 법대를 진학하여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대사인 “모든 법률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선을 넘는다. 그러나 몇 번 넘게 되면 그 선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면 또 하나 웃음거리 법률가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모든 법률가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관련 영화로 <타임 투 킬>, <의뢰인>, <에린 브로코비치>, <필라델피아>, <어퓨 굿맨>,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인디언 썸머>, <허리케인 카터>, <래리 플린트>, <인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영화라는 틀로 법을 들여다본 책으로 안경화 교수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효형출판, 2001)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감독 · 박광수 / 배우 · 문성근, 홍경인, 김선재 / 1995년 / 90분

사실 나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조금 지루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반

복되는 '노동'이 지루하기도 하고,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학교'가 지루한 탓일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영화를 아주 진지하게 대합니다. 지루한 영화도 지루하게 나오는 7,500명의 후원자 자막도 잘 참아 냅니다. 그리고 책상에 꽂혀 있는 <전태일 평전>을 빌려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며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라는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칠 때 마다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특히 육체노동)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걱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작은 생산품에서조차 다른 사람의 땀 냄새를 맡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전태일이 살았던 이타적인 삶, 순교자적 삶은 요즘 학생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역사다시보기 - 4.19혁명 · 5.18민중항쟁 · 6월 민주항쟁

기획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작 · (주)MBC프로덕션 / 2003년 / 각 20분

사업회는 청소년 교육용 영상자료 세 종류, <4.19 혁명><5.18민중항쟁><6월 민주항쟁>을 제작했다. 이 영상자료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기획은 사업회가, 제작은 MBC프로덕션에서 맡았으며,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각각 20분씩 3편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영상자료는 사업회에서 제작한 <역사 다시 읽기> 소책자와 함께, 교사들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사업회는 앞으로 몇몇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이 교육 자료들을 활용하여 시범수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수업의 결과 및 교사들의 수업 견해를 반영하여 교육자료의 내용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대와의 인터뷰

기획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작 · mediAbus / 감독 · 서해성 / 2004 / 30분

'시대와의 인터뷰'는 설명 내레이션이 없는 순수한 인터뷰 다큐멘터리로 4.19혁명 이후부터 촛불 시위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투쟁, 수배와 구속, 감옥생활, 삶의 아름다움 등을 이야기 한 작품이다.

▶ 부마민주항쟁

기획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작 · 해오름프로덕션 / 2004 / 23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 2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역사교육시리즈 <역사다시 읽기> 및 영상교재 ‘역사다시보기(CD)’ 부마민주항쟁 편을 제작하였다.

<역사다시보기- 부마항쟁 편> CD는 부마항쟁의 중심적인 내용과 부마항쟁의 배경이 되는 유신정권의 비민주성과 억압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하였고, <역사다시읽기- 부마항쟁 편> 소책자는 소설가 김기하씨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부마항쟁의 전개과정을 집필하였다.

2) 인권 관련 참고 도서

▶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 / 사람생각 / 1999년

생활 속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인권교육 지침서.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인권의 눈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교사나 강사가 인권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느낌과 감정,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평가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인권의 내용을 함께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참여식 인권교육을 적극 도입한 점입니다. 인권 이론서가 아닌 구체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책으로 국내에 첫 출간된 이 책은 중 · 고등학교 윤리 교과와 사회 교과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 대학의 여러 소모임에서 인권교육 지침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이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 깨어나, 일어나

국제평화의 어린이회 지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옮김 / 사람생각 / 2000년

아이들이 쓴 ‘세계 인권 선언 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들의 눈과 언어로 직접 표현한 책입니다. 상상력과 양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과 시, 실제 경험담, 삽화들이 모여 <세계 인권 선언>의 각 조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일들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자료들과 사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흥미롭고 훌륭한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 사람생각 / 1999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사회권위원회가 엮은 <인간답게 살 권리>는 구제금융 이후 사회권 실태에 관한 한국 최초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구제금융 시대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시장 만능주의'와 '이윤 극대화'의 논리가 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고, 이것이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 인도 홍콩 편

인권교육은 우리 실생활에서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첩경이라는 믿음 하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인도, 호주, 홍콩에서의 인권교육 실태를 각 나라 교재에서 뽑아 해설한 책입니다.

▶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음 / 오름 / 2000년

도덕과와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과 함께,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인권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모든 인간은

유네스코 지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옮김 / 사람생각 / 2000년

전 세계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인권의 보편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림을 곁들인 실천적인 안내서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세계 인권 선언>이 담고 있는,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류 공동의 염원을 신장하는 데 있습니다.

▶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어린이, 청소년의권리연대회의 / 내일을 여는 책 / 1997년

아이들의 권리와 필요성, 근거와 목적,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을 소개하고, 조약 문항 확정을 위한 토론 과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적극적 이행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과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또, 정부 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의권리연대회의'의 민간 보고서, 그리고 유엔이 이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권고안을 자료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 인권총서 9

한국인권재단 지음 / 사람생각 / 2000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세력이 온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직시하고자 하는 한국인권재단의 2000년 인권 학술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여성, 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과학기술, 유교 등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박홍규 지음 / 우물이있는집 / 2002년

영국 서머힐보다 한 세대나 앞서 있었던 페레의 자유학교.

이 책은 위대한 교육자이며 자유인이었던 페레의 생애와 사상을 살핀 책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그의 자유로운 교육 사상으로 인해 사형당한 교육 순교자입니다. 1부는 지은이 박홍규의 글이고, 2부는 페레가 쓴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 청소년 리포트 2

배경내 지음 / 우리교육 / 2000년

아이들의 눈높이로 청소년의 현실을 생생히 기록한 청소년 리포트 시리즈 제 2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검열 문화를 고발하는 한편, 학교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직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 사회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1세기의 인권 1, 2

한국인권재단 엮음 / 한길사 / 2000년 10월

<세계 인권 선언>50주년을 기념해 1999년 제주도에서 개최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 출간한 것으로, 해방 이후의 한국 인권 문제를 학제적 접근을 통해 집대성한 책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진단하고, 국제 인권법에 비추어

우리의 인권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하승수 외 지음 / 사계절출판사 / 1999년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시리즈의 네 번째.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 기본권, 학교 운영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제도 등 교사의 권리에 대한 문제와 학생의 인권, 학교 사 고의 법률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현대사상과 인권

스티븐 슈트 등 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역 / 사람생각 / 2000년

국제 엠네스티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최한 1993년도 인권 강좌, 보스니아 헤르체고 비나의 처참한 상황을 인권 침해의 극단적인 사례로 논의하면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 즉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 한울 / 1999년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각 분야 여성 인권 운동의 성과를 연구한 책입니다. 인권개 념을 기지촌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주변부 까지로 확장하였습니다. 성폭력 추방 운동사, 아내 구타 추방 운동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기지촌 여성 운동, 매매춘 근절 운동, 장애 여성 운동, 여성 동성애자 운동, 여성 관련 국제 인권 협약과 여성 운동의 8개 장으로 되어 있고,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운동가들이 나누어 썼습니다.

▶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 편 / 나남출판 / 1998년

이 책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인권을 주제로 개설한 합동 강좌의 결과물로, 이 강좌 에는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캐나다 맥길대학의 찰스 테일러 교수를 비롯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각 분야 교수와 법조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강의 내 용과 학생들의 보고서를 모아 책을 묶었습니다.

▶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

이남석 지음 / 책세상 / 2001년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 현대 정치는 여성에게는 남성 지배의 정치이

고, 유색인에게는 백인의 정치이며, 이주 노동자와 이민족에게는 특정 민족의 정치이며,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식자의 정치일 뿐입니다. 소수의 정치 주체들을 차이로 인식하고 어떻게 이들을 현대 정치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나아가 그러한 노력에 한계는 없는가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논의에 철학적, 논리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로와 끼리 - 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정유성 지음 / 책세상 / 2001년

남성 문제, 남성 위기를 남성 지배문화 담론의 문제와 그 위기를 통해 살펴보면서 그 극복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해서 맨 콤플렉스를 비롯한 남성들의 위기는 사람의 위기, 사회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성의 주체적 자각과 남성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현대 인권 사상

이봉철 지음 / 아카넷 / 2001년

제목 그대로 현대 인권 사상에 대해 집대성 해 놓은 책. 인권에 대해 맘먹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추천할 만한 인권 사상 연구서. 세계화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대 인권 사상의 내용과 그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사상의 이상과 현실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지음 / 책세상 / 2001년

현재 우리 나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인지, 양심수 출신의 인권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아 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내용과 보호 범위와 함께 현재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관찰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온전한 개화를 막는 현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 4.19혁명

김정남 지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03년

한국의 현대사는 군부독제와 군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이다. 사업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층을 위하여 <역사다시읽기>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역사다시읽기>시리즈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국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역사다시읽기 - 4.19혁명>편은 4.19혁명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역사적 의미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4.19과정을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읽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본문에 소개된 시위 중 숨진 진영숙 양의 유서, 학교 단위로 시위에 참가하지 못함을 통탄해 쓴 어느 학부형의 글 등은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 ▶ 6월민주항쟁

유시춘 지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03년

역사다시읽기 두 번째 시리즈 <6월민주항쟁>은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배경, 전개과정, 역사적 의미를 시종일관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마치 1987년 그 뜨거웠던 역사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 국본 발기인대회와 결성대회를 성공리에 치르는 과정 등은 읽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한다.

2004년 10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었다.

#### ▶ 5.18민중항쟁

김진경 지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04년

역사다시읽기 세 번째 시리즈 <5.18민중항쟁>에서 필자는 ‘5.18은 역사적 사건 이전에 한사람, 한사람에게 던져진 삶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사람의 존재를 뒤흔들어 운명의 지침을 바꾸어 놓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같은 것’이라고 했다. 5.18을 당대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의 헌신성과 진정성이 절절히 배어나옴을 느끼게 한다. 이 글을 읽는 청소년들은 5.18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필자는 말한다. 세대 나뉘므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진정성과 자기 삶에서 문제를 포착해 내는 치열한 자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 3) 인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

-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 ▶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 ▶ 파워알바(참여연대 알바 권리 찾기 캠페인)  
<http://www.poweralba.net>
-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 ▶ (사)좋은벗들  
<http://jungto.org/gf/>
-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www.ksm.or.kr>
-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http://antihouju.jinbo.net>
-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 ▶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itness.peacenet.or.kr>
-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 ▶ 네모성(네티즌들이 모이는 성지)  
<http://www.cyberaction.or.kr>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kdemocracy.or.kr>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순원(2000).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 강순원·김종수·배민아·이원표·구정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해오름.
- 강순원·김한민·백영애(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강순원·임현목·이재분(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서울: 아우내 미래 문화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2002).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사면위원회 저·이용교, 이희길 역(1997). 인권교육의 기법 -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서울: 인간과 복지.
- 국제아동복지연맹홍콩지부·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회.
-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 - 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서울: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
- 국제평화의 어린이회 편·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역(2000).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서울: 사람생각.
-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 · 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임지연(2000).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 외(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의석·문수영·엄진령·한은정(2004).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서울: 우리교육.
- 김정래(1999). 청소년의 참여를 신장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

- 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용린·곽병선·안경환·한기철(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국가인권위원회.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2003).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모색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1998). 한국 인권교육의 진로. 서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여는책.
- 유네스코·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 유네스코·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관용: 평화의 시작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지침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인도·홍콩. 서울: 사람생각.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편(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아동의 권리협약 교사용 지침서).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엔인권센터 편·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명준·류재택·정우탁·임현묵(2000).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정지석·이승미(2001). 교과교육에서의 인권교육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연구 - 초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이배근·이용교·류은숙(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서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2003). 애들아, 인권공부하자. 서울: 사람생각.
- 인권운동사랑방 역(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 천정웅·김영지·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하승수·김진(1999).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서울: 사계절.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0). 장애인 인권지침서. 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홍순정·최석란·신은수(1999).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학위논문 및 아티클 등>

- 구로건강복지센터 외(2002. 6. 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 김정욱(1999).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대한민국 정부(1999. 1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2003).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CRC/C/Q/REPK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 이승미(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정서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용교(1999. 11). 아동권리 지킴이 프로그램. 한국아동권리학회 편, UN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조상희(1999).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호리오 테루히사(1999). 인권사상의 발전과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국외자료>

- Amnesty International - Education For Freedom(1994, 1998).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 Philippines: Microbytes Desktop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el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ww.unhcr.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http://www.unhcr.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1999). *Youth Participation Manual*.
- Unesco(1997). *Manual for human right education -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Paris: Unesco.
- Winter. M(1995). *Children as Fellow Citizens*. New York : Radcliffe Medical Press Oxford.
- Conseil de l'Europe(1995). "Tous différents - Tous égaux, Kit Pédagogique". Strasbourg: Direction de la jeunesse
- Censeil de l'Europe.Council of Europe(1995). *All different, all equal,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young people and adul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eycb.coe.int/compass/en/contents.html> : Compass



〈연구개발 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청소년 인권활동 프로그램 개발

---

발행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 [www.nyc.or.kr](http://www.nyc.or.kr)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246-1

☎ 330-842

전화 : (041)620-7700

팩스 : (041)620-7759

발행인 : 이창식

발행일 : 2004년 12월

인쇄 : 크리홍보(주) (02)737-5377

---

ISBN : 89-91044-06-9 93330

본 책자의 저작권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허가없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